

발 간 등 록 번 호
79-65000000-000454-01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 방안

-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을 중심으로 -

| 손 태 주 · 차 성 란

발 간 등 록 번 호
79-6500000-000454-01

연구보고서 2018-04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 방안

-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을 중심으로 -

연 구 기 관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연구책임자 : 손태주(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차성란(대전대학교 교수)

연 구 기 간 : 2018년 2월 ~ 9월

본 보고서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를 통해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연구 요약

연구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라 일부 집단이 아닌 보편적 집단에서의 일·가정 양립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해결책으로 가족과 국가 정책 사이의 돌봄 연계에 공백을 메워주거나 연결해주는 공동체방식의 사회적 돌봄은 매우 시급하게 여겨짐
- 돌봄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부모들의 출퇴근 전후의 돌봄, 하원·하교 후 돌봄, 방학기간 동안의 돌봄에 대한 어려움은 물론 그동안 영유아 대상의 보편적 보육정책과 달리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초등 돌봄 공백 해소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실임
-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돌봄 정책 평가와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을 중심으로’사업의 성과 평가 및 실태분석 결과 등에 근거하여,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정책의 지속 발전과제와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마을 안에서 함께 아이를 돌보는 민관협력 주민자치형의 사회적 돌봄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가. 연구 내용

- 사회적 돌봄 공동체 관련 이론적 논의 및 국내외 사례 분석
-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추진 성과와 한계 분석
-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실태분석을 통한 성과 및 개선점 파악
-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 방향 및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제안

나.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 대상적 범위 :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률에 따른 연령¹⁾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의

1) 영유아보육법에서의 아동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제2조제1항),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제2조제1항), 청소년기본법에서의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제3조제1항)를 말함

목적이 영유아 돌봄에서 초등 돌봄까지의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맞춰 영아에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연령대로 한정함

- 유형적 범위 : 돌봄 공동체의 유형은 운영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정부제공 서비스 방식과 민관협력 주민자치 방식으로 구분됨.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연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마을기반의 자발적 돌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함께 돌봄을 나누는 민관협력 주민자치형 공동체 방식으로 한정함

3. 사회적 돌봄 공동체 용어의 조작적 정의

가. 사회적 돌봄 공동체 용어의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돌봄 공동체’는 여러 사회적 돌봄 방식 중 하나로서 공동체 가치 및 유대에 의한 돌봄 활동을 하는 그룹을 의미하며, 공동체가치 및 유대에 기초한 공동체 방식의 돌봄 활동이라 정의함(약어 : 돌봄 공동체 또는 공동체팀)
- 또한 사회적 돌봄 공동체의 전통적 유형으로서의 품앗이육아, 제주지역의 전통 문화로서 수눔음육아 공동체를 동일한 용어로 사용(또는 혼용)함

나. 사회적 돌봄과 유사한 제주도식 단어인 ‘수눔음육아’의 정의

- ‘수눔음육아’는 일손이 부족한 제주지역 고유의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부상조 문화를 강조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의미가 담긴 품앗이육아와 유사한 돌봄 방식
- ‘수눔음육아 공동체’는 수눔음 육아를 하기 위해 부모들로 구성된 팀 또는 팀의 구성원을 말함(약어 : 돌봄 공동체 또는 공동체팀)
- ‘수눔음육아나눔터’는 지역의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모여 수눔음육아 활동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사랑방과 같은 돌봄 나눔 공간임(약어 : 나눔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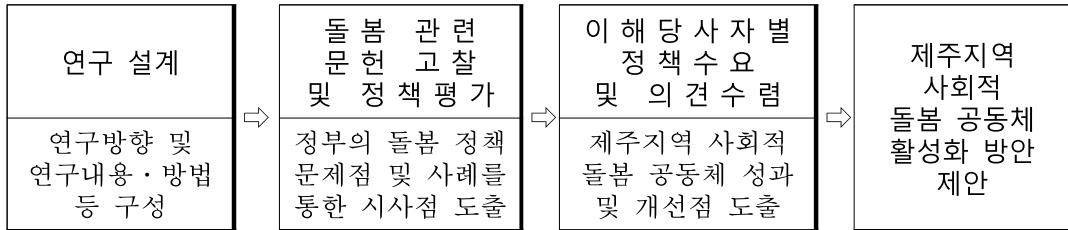
4. 연구의 방법 및 절차

가. 연구 방법

- 문헌연구 및 이해당사자별 대상 면접조사, 전문가 및 공무원 등 의견수렴

나. 연구 절차

○ 연구수행 절차는 아래와 같음



제2장 사회적 돌봄 논의와 국내외 사례

1. 사회적 돌봄 논의와 대표적 유형

가. 사회적 돌봄의 필요 상황

- 일하는 여성들은 출·퇴근 전후의 돌봄, 하원·하교 후 돌봄, 방학기간 동안의 돌봄 등을 위한 사회적 돌봄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로 남겨지는 등 가족 간에 돌봄을 둘러싼 갈등과 긴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현 상황임
- 이는 자녀 돌봄의 주체가 더 이상 가족, 특히 가족 내 여성의 전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 주체들 간에 돌봄 네트워크를 통한 참여로 지역 사회 내에서 성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임
- 최근에는 정부의 무상보육과는 무관하게 부모들 간에 자녀 돌봄에 대한 자발적 영역의 비중은 미미한 편이지만 사회적 돌봄의 개념에 가까운 다중적 담당자들에 의한 돌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정성훈, 2014)
- 더 이상은 전통적인 이웃, 친척 등 비공식적 돌봄이 어렵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많아지고 있지만 남성들의 육아참여도가 제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과거 공동체 방식인 돌봄 공동체가 갖는 중요한 함의를 찾을 필요가 있을 것임

나. 돌봄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 아동 돌봄 중심의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

- 첫째는 현행 정부의 돌봄 서비스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고, 어린이집 등의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는 긴급 일시보육 등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 둘째는 정부의 근로기준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율이 높지 않고,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는 아직 미미한 점
 - 셋째는 초등 돌봄 서비스의 경우 영유아 대상의 보편적 보육정책과는 달리 여전히 저소득층 아동 대상의 정책들이 대부분으로 체감도가 낮고, 맞벌이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조차도 비용, 이용시간대 등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
- 보육의 공공성 확대로 모든 아동들이 보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김윤정·문순영, 2009)과는 달리 보육의 질 등의 문제를 놓고 취업여성들 중 일부는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추가 비용부담을 느끼면서도 주변의 시부모, 친정 부모, 친인척, 이웃 등 비공식적 돌봄에 의존하게 됨

○ 제주지역 영유아 돌봄 서비스의 현황과 한계

구분	보육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양육아동수당	육아휴직제도
지원 내용 변화	- 영유아보육료지원 (‘08)0~4세 차등지원 (‘11)0~4세 차등지원 상향: 70% (‘12)0~2세 전액지원 (‘13)0~5세 보육료 전계층 전액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18)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확대 40% 달성 (‘22년까지)	돌봄서비스 지원 (‘09)돌봄서비스도입 (‘11)영아종일제도입 12개월 (‘13)영아종일제 확대 24개월	- 양육수당 지원 (‘09)양육수당도입 만1세 미만 차상위 계층 (‘12)만 2세 미만 (‘13)만 5세 이하 전계층 - 아동수당 신설 (‘18)아동수당(신설) 0~5세, 월10만원 (소득하위 90%)	육아휴직제도적용 (‘08)만3세미만 40→50만원 (‘10)만6세미만(40%) 최고상한100만원 (‘14)만8세이하 확대 (‘16)자동육아휴직제 (‘17) 첫 3개월 육아 휴직급여 2배 인상,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근로시간준수,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등 (‘18)휴직기간 연속기간포함)
운영 규모	89.4% (영유아37만명) (‘16년 기준)	시간제이용자 44,016명 (‘16년 기준)	26.9% (영유아37만명) (‘16년 기준)	남성육아휴직자 10% 미만대 ※ 전 출생아수 대비1.5%
한계	전(全)어린이집 527개중 국공립 비중 5.5%, 이용 률 7.0%에 그침(‘17년 기준) 민간 비중 46.8% 차지 ※ 기관 미이용 아동 긴급 일시보육 한계	돌보미 인력 제한 ※ 아이돌보미 271명 (‘16년 기준) 이용시간대 및 이용지 역 요구 반영 미흡	‘18년 신설된 아동수당 의 경우, 전 계층 아동 대상이 아닌 소득하위 90%에 그침	도내가족친화인증기업(‘17 년 기준 36개) 고용보험적용전사업체 35,855개 대비 0.1% 그침 ※ 도내 10인 미만기업 88.5% 차지

- 정부의 보편적 영유아 돌봄 서비스 노력에 비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
- 제주지역 초등 돌봄 서비스 현황 및 한계는 다음 표와 같음

구분	교육부 (교육청)		보건복지부 ³⁾ (지자체)	여성가족부 (지자체)		제주도 (지자체)
돌봄 서비스	초등돌봄 교실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 후아카데미	아이돌보미	수놓음육아 나눔터
지원 근거	초·중등교육 과정총론 교육부 고시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아이돌봄 지원법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
시행 시기	2004	1995	2004	2005	2007	2016
지원 대상	초 1~초6	초 1~초6	만18세 미만	초 4~중3	만12세 이하	0세~초6
지원 형태	무상 (프로그램, 간식비 등 일부 자부담)	유상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무상 (소득별 이용료 5만원 이내 부담)	무상 (학습 및 생활지원 등)	소득수준별 이용료자부담	무상
운영 형태	취약층/맞벌이 가정 상시돌봄	자율선택 일시 돌봄	취약계층 중심 상시 돌봄	취약층 중심 상시 돌봄	영유아중심 상시/일시돌봄	부모자조모임 상시/일시돌봄
운영 규모	178개교실 초등4천명 (초등40만명)		1일이용아동 초등1천9백명 (초등40만명)	도내 9개소 초등260명	시간제이용 44,016명 ('16년 기준)	전체 20개소 ('17년 기준)
한계	초1~초2 중심 운영 및 소득/맞벌이 등 우선순위	돌봄 개념이 아닌 선택 프로그램 수강	소득 등 제한된 이용자의 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한부모/취약계층 가정의 나홀로 대상 한정	소득별 차등에 따른 자율신청	상시 인력 부족으로 인한 나눔터별 이용 접근편차 발생

○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

- 정부의 영유아 돌봄에서 초등 돌봄까지 연속성 있는 사회적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소관부처별 돌봄 정책 간의 긴밀한 협력방안은 물론 남성의 돌봄 참여 등 사회문화적으로 양육 패러다임 전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따라서 부모의 돌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 외에도 비공식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돌봄 공백 메우기가 가능한 자녀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살고 있는 마을 안에서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체 방식의 돌봄 확산은 매우 필요할 것임

2)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항 제3호(시행일: 2018.5.29): 최근 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됨

3) 보건복지부는 2017년 맞벌이 가정 중심 상시·일시 돌봄 시범사업인 '다함께돌봄사업'을 실시

다. 사회적 돌봄 공동체의 대표적 유형

○ 사회적 돌봄 공동체의 개념

- 공동체방식의 돌봄은 그동안 돌봄이 전통적으로 가족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이고 거의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어 왔으나,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인해 일부 집단이 아닌 보편적 집단에서 돌봄 공백해결의 절박성이 크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게 된 것임
- 따라서 '사회적 돌봄 공동체'는 여러 사회적 돌봄 방식 중 하나로서 공동체 가치 및 유대에 의한 돌봄 활동을 하는 그룹을 의미하며, 공동체가치 및 유대에 기초한 공동체 방식의 돌봄 활동임(약어 : 돌봄 공동체, 제주의 유사 용어 : 수눌음육아 공동체)

○ 운영 주체에 따른 사회적 돌봄 공동체의 대표적 유형

구분	정부제공 돌봄 서비스 방식		민관협력 주민자치형 공동체 방식	
	여성가족부	교육부·여가부·복지부 행안부	서울시	제주도
사업명	가족품앗이 사업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공동육아활성화 사업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시행 시기	2008	2018	2012	2016
법적 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아이돌봄지원법 ⁴⁾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아이돌봄지원법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생활체감형양성 평등정책'제주처 럼'
지원 조직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건강가정지원센터, 학교 등	(협력)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컨설팅)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제주가족친화 지원센터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	초등1~6학년	돌봄아동 5명 이상 (영유아 우선 원칙) 3인 이상 주민모임	0세~초등6학년 5가족 이상
운영 형태	상시·일시 돌봄	상시·일시 돌봄	상시·일시 돌봄	상시·일시 돌봄

4) 관련 법 근거, 조례 지정 지자체는 '17년 12월 기준 세종시, 서울시동작구, 익산시, 공주시 4개 지역임. 의왕시는 관련 조례는 없지만 의왕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조직으로 '15년 부곡동 주민센터를 시작
으로 '18년 8월 현재 총 5개의 주민센터 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여 운영함(중부일보, '18.8.6.기사)

2. 국내 · 외 사례 및 시사점

가. 국내 사례

○ 은평구의 물푸레 북카페

- 운영 개요 : 마을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마을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알고 지내며 연결고리가 촘촘해지고 풍요로워지며 함께 배울 수 있는 마을의 문화 공간
- 운영 방향 : 친환경 지향 및 착한 가격 지향
- 일상 돌봄 운영 및 지역주민 모두의 커뮤니티 공간 운영
- 운영 성과 : 아이를 키우며 더 행복한 엄마로 성장하는 기회 제공 및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한 마을의 문화 공간 조성

○ 마포구의 소금꽃마을 마더센터

- 운영 개요 : 현재 12가정 조합원 회원을 중심의 일상적 자녀 돌봄 및 부모 간 만남
- 방과 후 돌봄 운영 : 부모 자부담(5만~10만원)으로 오후 1시~6시 운영
- 운영 한계 : 활동할 사람을 모으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조합원 간 운영 방향에 대한 갈등,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공동체 형성의 어려움 등 발생

나. 국외 사례

○ 일본의 도롭푸(Drop)

- 추진 배경 :요코하마시 고호쿠구에서 민관협력 방식의 지역 육아 거점 공간으로 운영
- 운영 개요 : 화~토 09시~16시, 이용료 무료,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
- 운영 성과 : ‘다함께 육아’하는 공간 및 지역 육아 네트워크 구축

○ 독일의 마더센터

- 추진 배경 : ‘아이 하나 키우는 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독일정부의 지원을 받아 3개의 모델센터로 시작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사회적 돌봄공동체 모델
- 운영 철학 : 자조 및 역량강화
- 마더센터의 특징 : 4무(無) → 4유(有)(수직체계→팀 활동, 시간 제약→100개 열쇠, 전문가→생활전문가, 재원→공적 보조금),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동 공간
- 운영 성과 : 지역공동체 회복 공간으로서의 역할 및 가족친화적 돌봄 공동체 실현

다. 시사점

○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방식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제주도의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은 현재 타지자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 품앗이사업과는 달리 돌봄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모인 부모들이 함께 육아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의 사회적 돌봄 공동체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김

○ 안정적 돌봄 공동체 활동 공간 확보

- 안정된 공간은 돌봄 공동체의 지속적 돌봄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현재 제주도의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 사업은 향후에도 서울시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유(共有) 촉진 조례⁵⁾ 등의 사례에 근거한 민관협력 방식의 지역 내 공유경제 차원의 공간 발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확산을 위한 장기적 공적재원 투자 필요

- 제주도의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과의 방향성이 유사한 독일의 마더센터 사례의 과제는 향후 제주도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돌봄 공동체 확산을 위한 참여자들의 자조와 역량강화, 공간 운영을 위한 장기적 공적재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임

제3장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추진과 한계

1. 추진 배경

가. 추진 기반 마련

○ 제도적 기반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면 개정·시행(2015.12.31.)
-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2.6.11.)

○ 민·관 거버넌스 구성 :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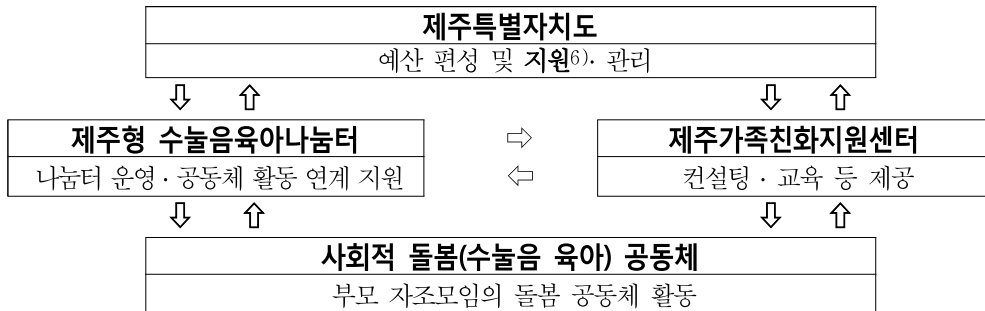
○ 지역 여성가족정책 전문연구기관 설립 : (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개원(2014.3.)

5) 서울시는 공유의 촉진을 위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할 목적으로 2012년 '서울시공유(共有) 촉진 조례'를 제정함

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 계획 수립

다.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 수립 및 추진

-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추진동력을 위한 ‘가족친화지원센터’ 설치·운영
-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2016년 5월 개소 이후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확대 등에 따른 사업은 증가추세이나 실무 인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 관련 팀장 1명, ‘가족친화 지역 환경’ 관련 팀원 1명, 독립채산제 운영에 따른 ‘회계 등 업무’ 관련 팀원 1명, 총 3명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많음
- 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제주지역 가족친화 정책의 방향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위탁기관인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2018년 2월부터 연구원 본연의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 손실을 감수한 채, 그동안 센터의 총괄 업무를 맡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센터장 겸직체제를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겸직으로 변경하여 센터 총괄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 뿐 아니라 공기관업무대행사업에 대해 관련 행정 부서와 위탁기관 간에 위탁 업무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고, 제주도정의 전반적인 가족친화사업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방향성이 마련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 앞으로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의 기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량 증가 및 위탁 사업

6)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사업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 초기의 2016년~2017년도 까지 예산집행 및 사업 정산을 했지만, 보조금집행기준에 따른 경직된 회계처리 및 서류 등 행정 처리 어려움에 대한 돌봄 공동체 참여 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2018년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산 집행을,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예산 지원 및 사업 정산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됨

변화에 따른 인력 보강 및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관련 행정부서와의 명확한 역할 정립 및 민관협력 협의회 구축 등 제주도정의 가족친화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임

2. 추진 성과

가.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개요

○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추진 개요

제주형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 사업 (2016~2018년)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2018년 기준)
· 현황('17.12.) : 20개소 · 장소 : 마을회관, 복지관, 아파트 등 지역 유휴공간 · 자격 : 나눔터를 운영하려는 마을회, 비영리단체 등 · 지원 : 1개소당 56백만원 (공간조성비 50백만원, 운영비 6백만원/년) · 방식 : 공모를 통해 대상지 선정	① 기본 사업 : 49개 공동체 팀 · 대상 : 5가족 이상의 부모 자조모임 (자녀연령 : 만0세~초등 6학년) · 내용 : 일상의 돌봄 공동체 활동 및 모임 지원 · 지원 : 자녀 1인당 2만원 · 방식 : 공모를 통해 선정, 사업비 지원 ② 특화(지역사회연계)사업 : 6개 공동체 팀 · 대상 : 5가족 이상의 주민모임 · 내용 : 지역사회 연계한 돌봄 공동체 활동 지원 · 지원 : 사업별 500만원 · 방식 : 공모를 통해 선정, 사업비 지원 ③ 커뮤니티지원 사업 : 10개 수놓음육아나눔터 · 대상 : 수놓음육아나눔터 · 내용 : 나눔터 내 모임, 돌봄 공동체 팀 활동 지원 · 지원 : 나눔터별 50만원 · 방식 : 공모를 통해 선정, 사업비 지원
↓	
· 조성 유형 : 민간형, 복지관/마을회 등 공공형 · 운영 관리 - 민간형 : 주민자치형 공동체의 자율 운영 관리 ※ 운영진은 공동체 팀의 리더 또는 팀의 구성원임 (20개 나눔터 중 4개 나눔터) - 공공형 : 복지관 등 기관의 담당자 중심으로 관리	

○ 수놓음육아나눔터 및 사회적 돌봄(수놓음 육아) 공동체 팀 분포 현황(2017년 기준)



○ 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 공간 확보 및 지역 연계 네트워크 체계 마련 : 2017년 12월 기준 사회적 돌봄 공동체 팀의 활동 지역을 보면 수놓음육아나눔터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현재 공동체팀 활동 지역을 중심으로 나눔터 조성이 가능하도록 공간 발굴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나. 사업의 추진 성과

○ 제주형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운영

- 추진 실적 : '17년 기준 총 20개소 조성·운영 : '16년 10개소 → '17년 10개소

○ 제주형 수놓음육아나눔터 사업평가 및 개선방향

- 수놓음육아나눔터는 살고 있는 지역의 일정한 장소에서 같은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부모들의 돌봄 활동을 위한 지역 거점 육아 사랑방으로 확산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나눔터의 운영·관리는 상시 관리 인력 없이 민관협력 방식의 자율 운영 형태로 관리되고 있음. 이로 인해 운영진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낼 수밖에 없어서 그에 따른 책임 부담과 피로도가 높아짐
- 또한 나눔터마다 공간 이용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인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 공간 이용률 편차 발생은 물론 새로운 나눔터 공간 발굴의 어려움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생겨나고 있음
- 향후 안정적인 수놓음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민관협력 수탁기관의 무보수 자율 운영 참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참가자 대상으로 수요자가 많은 시간대별 희망자를 모집·선정한 후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나눔터 운영 활동가의 시간과 에너지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의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 또한 지역사회 내 공유경제의 측면에서의 방과 후 시간이나 야간, 주말에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다각적 인센티브 제공 등 유도 방안도 요구됨

○ 사회적 돌봄(수놓음 육아) 공동체 발굴·육성

- 추진 실적 : '16년 18개 공동체 팀 95가족·319명 참여 → '17년 37개 공동체 팀 257

가족·881명 (누적 352가족·1,200명) 참여 → '18년 49개 공동체 팀 365가족·1,111명(누적 717가족·2,311명) 참여

- 제주 지역 내 지속적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확산 : 2016년 6개 지역 → 2017년 7개 지역 → 2018년 9개 지역으로 확산

○ 제주도내 사회적 돌봄 공동체 팀의 활동 지역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음

연 도	합계 (곳)	제주 시동	한림 읍	애월 읍	구좌 읍	조천 읍	서귀 포동	대정 읍	안덕 면	남원 읍	성산 읍	표선 면
'16	6	•		•			•			•	•	•
'17	7	•	•	•			•	•		•	•	
'18	9	•		•	•	•	•	•	•	•	•	

주: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은 사회적 돌봄(수놓음육아) 공동체 팀 없음

○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사업의 집행 기준 변화 추이

- 집행 주체 : ('16~'17년)제주특별자치도 → ('18년)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 사업 공고 및 협약 체결 : ('16~'17년)제주특별자치도 → ('18년)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 사업 정산 및 평가 : ('16~'17년)제주특별자치도 → ('18년)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 컨설팅 지원 : ('16~'18년)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 집행 기준 : ('16~'17년)제주도 보조금집행기준 → ('18년)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집행기준
- 자녀 기준 : ('16년)만0세~초등3학년 → ('17년)만0세~초등6학년(단, 3학년 이하 자녀 수가 50%이상 차지) → ('18년)만0세~초등6학년
- 신청 자격 : ('16년)3인 이상의 부모자조모임 → ('17년)5인 이상의 부모자조모임
(※보조금심의위원회 제안사항 반영) → ('18년)5인 이상의 부모 자조모임

○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사업평가 및 개선방향

- 사업 운영 3년차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서류와 회계처리와 같은 행정처리의 어려움 등 다양한 요구들이 표출되어 이를 개선하고, '18년부터는 서류 간소화 및 찾아가는

7) 수놓음육아 기본사업 참여 팀 수입. 2018년 수놓음육아 공동체 공모사업은 수놓음육아 기본사업(49개 팀 선정) 및 지역연계사업(6개팀 선정)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고, 지역연계사업의 경우에는 마을연계 특정 다수의 돌봄 활동으로 계획서상에 참여가족 수를 명시되지 않아 제외시킴

- 사업설명회,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여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 및 인식확산에 기여함
- 그러나 사업시행 이후 돌봄 공동체 사업에 참여했다가 중단한 전체 26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중단사유를 조사(중복응답)⁸⁾한 결과, 회계 처리 어려움(7팀), 공간 확보 어려움(4팀) · 참여부모 취업(4팀), 구성원 간 갈등(2팀) 순으로 응답함
 - 이는 제주도의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과 달리 사업 초기인 2016년도부터 매년마다 지원 한도액, 집행기준, 신청자격 등 명확한 기준 없이 추진되어 온 것과 동일 맥락에서의 문제라고 판단됨
 - 향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업의 미래 지향점에 맞는 체계적 지원방안 및 예산집행 공동기준 · 세부기준 마련, 올바른 사업 이해를 위한 사전 상담제 등 필요함

3. 추진 한계에 따른 개선점

가. 안정적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입법화

- 민선 6기와 민선 7기 도정 공약에 맞춰 2단계로 추진할 계획에 있는 수놓음육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서울시⁹⁾와 같이 마을공간의 설치 · 운영이나 자원 공유(共有)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의 제 · 개정 등 제도화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나. 지원기준, 컨설팅, 교육 등 체계적 공동체 활동 지원 체계 마련

- 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위해 우선 일관성 있는 사업의 지원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고, 컨설팅지원단 운영을 통해 구성원 간 연결고리를 강화하여 결속력을 증진 시키고 지속적으로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활동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체계적인 공동체 활동을 위한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의 기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량 확대에 따른 인력 보강 등 운영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8) 조사대상 : '16.~'17. 제주도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에 참여했다가 중단한 전체 26개 공동체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 '18.5.15~6.4일간, 메일 · 문자 · 면접 등 조사(응답율 53.8%)

9) 서울시는 지역 자원 활용 및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2.3.15.제정)(제27조 마을공간의 설치 · 운영) 및 '서울특별시 공유(共有)촉진 조례(2012.12.31.제정) '(제2조 정의, 제5조 공유 촉진정책, 제8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등)를 제정 · 시행함

다.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강화

- 마을공동체사업의 성패여부는 사업을 운영 관리하는 방식이 행정 중심에서 행정 공무원, 주민, 중간지원조직 간에 민관협력으로 전환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자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김찬동, 2015)
- 마을 안에서의 공동체 활동을 확장시키는 경험은 향후 사회적 돌봄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체에 관련이 있는 다양한 주체들 간에 원활한 네트워크 형성 필요

제4장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공동체 사업 운영 실태와 시사점 : 면접조사 결과

1. 면접조사 개요

- 면접조사 대상, 조사 방법, 조사 기간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조사 목적 : 이해당사자별 돌봄 공동체 사업 수행과정의 어려움 및 정책수요 파악
 - 면접 대상 :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 참여 특성(지역, 참여기간, 참여유지 등)별 돌봄 공동체 참여자, 수눔음육아나눔터 수탁기관 담당자 및 나눔터 공간 발굴 관련 공공기관·민간기관 관계자, 활동가 등 총 77명¹⁰⁾
 - 면접 내용 : 이해당사자별 특징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의 참여경험, 사업성과, 정책요구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질문
 - 조사 방법 : 연구진에 의한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고 내용은 녹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녹음하는 것에 민감할 경우 등을 고려하여 연구진이 현장 손 기록 병행정리
 - 조사 기간 : 2018년 4월 13일 ~ 7월 31일, 연구진 2인이 직접 면접조사 수행
 - 표본추출방법 : 특성별 공동체는 사업 초기부터 활발하게 돌봄 활동을 하고 있는 육아팀 및 신규 참여 육아팀 중에서 면접조사를 수락한 팀을 우선 선정함. 나눔터 공간 관련 관계자는 지역별 공동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혹은 갈등 상황에 있었던 도서관, 복지관, 나눔터 관계자 등 소개를 통한 눈덩이 표집으로 편의 추출

10) 면접 대상자의 수는 편의상 돌봄 공동체 팀별 대표 제안자 혹은 수눔음육아나눔터 등 공간 관련 기관 담당자 외에 다수 동석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어도, 공동체 팀별 리더 혹은 공간 관련 기관 담당자 1명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단순 명수로 표기함

○ 전체 면접 대상자의 기본 현황

구분		돌봄 공동체 참여 팀							나눔터 및 공간 발굴 관련자	공동체 관련 활동가 등
		지역별		성별		지속 참여 여부				
		제주시	서귀포시	남	여	지속 참여팀	신규 참여팀	중단 참여팀		
합계	77	32	19	2	49	15	33	3	19	7
소계		51							19	7

주: 공동체 관련 활동가 및 전문가는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본 장의 분석 내용에는 제외하였음

2.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참여 경험

가. 돌봄 공동체 참여 계기 및 구성 경로

○ 돌봄 공동체 구성 경로

- 보육시설, 초등학교 등 돌봄의 사회관계를 통한 그룹이 가장 보편적
- 바람직하나 참여자 모집이 어려운 놀이터, 위아래 집 등 마을 기반 그룹
- 공유하는 가치를 통해 만나게 된 지속성이 예상되는 그룹
- 각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온라인 카페에서 만난 그룹
- 그 밖에 학연, 친구, 지인 등 개인적 친분관계의 부모들이 만든 그룹
- 이미 공동육아 모임이 있었으나 사업참여 후 좀 더 자주 만나게 된 그룹
- 드물지만, 나눔터 운영 수탁한 복지관 실무자의 권유로 구성된 그룹

○ 돌봄 공동체 구성 관련 기준 설정

- 한 그룹의 가족 수가 많은 경우의 어려움
- 기존 그룹에서 분리, 재그룹된 그룹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 문제
- 부모들 간 일상적 만남과 돌봄을 위해 특히 거주근접성이 중요

○ 한부모, 조손가정, 장애인 가정 등 다양한 가정에 대한 고려

- 아빠가 없는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감수성 향상 필요
- 중산층가정 중심의 사업을 넘어선 다양한 가정의 돌봄 공동체 참여 시도

○ 돌봄 공동체 활동의 홍보 방법

-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부모들의 구전 홍보효과

- 참여부모들의 구전홍보 그 이상의 적극적 홍보활동
-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홍보 필요

○ 지역 선주민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

- 지역 선주민의 상대적으로 낮은 공동체 돌봄 참여
- 여성들의 높은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자녀 돌봄의 상대적 어려움
- 상대적으로 넓은 친인척 네트워크로 인한 시간제약
- 지역 선주민의 경우, 가족지원 가능성으로 인해 공동체 참여 동기 낮음
- 지역 선주민과 이주민 간, 부모역할에 대한 중요성 인식 차이

나. 돌봄 활동

○ 돌봄 활동 일시

- 평일 돌봄활동이 가능한 영아자녀 그룹들
- 다양한 이유의 시간적 제약으로 주말 돌봄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룹들
- 토요일에도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주말 돌봄활동

○ 아빠의 돌봄 공동체 활동 참여로 인한 성평등적 아빠 역할로의 변화

- 아버지 역할에 있어 아빠에 따라 개인적 차이
- 주 양육자 역할을 하는 아빠들
- 아빠의 직업군에 따른 가족생활 참여의 현실적인 격차 여전
- 돌봄 공동체의 주변적 참여자가 되는 아빠들

○ 돌봄 공동체 자녀의 연령별에 따라 활동에 미치는 요인들

- 영아기 자녀의 건강상태, 날씨, 집중도 등에 따른 활동의 어려움 발생
- 유아 연령 공동체의 다양한 돌봄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가능성
- 자녀 연령별 분리와 통합을 병행해 돌봄 공동체 활동 진행의 이점

다. 돌봄 공동체 운영

○ 돌봄 공동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돌봄 마을생활에 대한 가치

- 아이키우기 좋은 가족친화적인 마을생활에 대한 생각
- 사교육 지향보다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 부모와의 애착형성에 가치 공유

- 여전히 경쟁적 교육방식과 돌봄 공동체 방식 사이에서의 방황
-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부모역량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

○ 돌봄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 사교육 지양한 체험, 전통놀이, 독후활동, 밥상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 학년이 올라가면서 사교육으로 전환하는 모습 드러나기도
- 돌봄공동체 활동의 확장, 나눔터·농촌학교 기반의 초등돌봄 활동 진행
- 돌봄 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안전, 활동비 등 체계 필요

○ 돌봄 공동체 팀의 운영 역량

- 돌봄 공동체 참여팀별 체계적 업무 분담의 정도는 다양
- 리더를 중심으로 주축이 되어 업무를 담당하는 몇 명의 부모들
- 다양한 자격과 열의 등을 갖춘 높은 기획능력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신규 참여 공동체팀의 돌봄 활동에 대한 부담감 및 다양한 어려움
- 돌봄 공동체 참여팀 전체 대상 및 부모들만의 교류 모임 필요
- 돌봄 공동체 팀별 리더의 책임감과 업무과중의 지속 등에 따른 소진문제
- 돌봄 공동체 팀의 운영자인 리더의 마을 돌봄 공동체 정착에 대한 바람
- 자발적 참여로 주고받음에 있어 계산이 개입되지 않는 공동체 운영 방식
- 돌봄 공동체 팀별 지원 금액의 충분한 지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
- 중산층 주부들을 위한 돌봄 공동체 지원사업은 아닌지 생각해보기
- 수월해진 회계 관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한적 예산지출 기준

○ 운영위원회 및 회의 방식

- 민주적이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체계화하려는 돌봄 공동체 팀
- 돌봄 공동체 팀의 활동 운영 수단으로서의 SNS역할

○ 돌봄 공동체 팀의 갈등, 지속성, 해체

- 갈등요소로 예상되는 업무분담, 예산지출, 나눔터 운영진으로서의 부담감
- 돌봄 공동체 활동에 대한 마을 어르신과 부모 간의 갈등
- 대부분 그룹들이 돌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속 의사를 가짐
- 행정업무처리 부담, 지원예산 감축, 부모의 취업, 이사 등으로 참여 중단
- 돌봄 공동체 사업 참여 중단 이후에도 인근 나눔터에서 만남 지속
- 사업시행 이후 돌봄 공동체 사업에 참여했다가 중단한 전체 26개 팀을 대상으로

중단 사유를 조사(중복응답)¹¹⁾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돌봄 공동체 활동의 특징으로 본 유형

기준	긍정적 특징		부정적 특징
거주근접성 x 일상적 교류	근접거주하며, 일상적 교류 빈도가 높음		일상적 교류 빈도가 낮음
돌봄 활동 프로그램	체험과 놀이중심		성과 및 학습지향
구성원들의 공동체 참여배경	공유된 공동체 가치가 있음	보육시설, 학교 등으로 친분관계	자녀 잘 키우기의 개인적, 이기적 동기
리더십	공동체 가치가 내면화된 리더		공동체 가치가 내면화되지 않은 리더
공유할 수 있는 마을의 돌봄활동공간	작은학교, 아파트단지, 마을의 공유된 돌봄활동 공간		마을과 연결된 공유 공간 없음

○ 돌봄 공동체 팀의 활동 이용 공간

- 자택, 나눔터, 놀이터, 야외, 상업 공간 등 다양한 활동 공간 이용
- 주거 공간 사용의 어려움 및 어린이 요리활동 등 다양한 활동 공간 부재
- 제한적 도서관 이용에 대한 제약 및 이용 수칙에 대한 문제
- 마을 내 공동시설 공간 이용 사례 및 경로당과의 갈등 사례
- 돌봄 공동체 활동의 공간 확보를 위한 공식적 지원체계 필요
- 농촌지역 및 다세대 밀집 지역 등의 돌봄 공동체 활동 공간 확보 필요
- 수놓음육아나눔터의 이용 접근성, 내부 공간 조성 및 관리 강화 등 필요

11) 조사대상 : '16~'17. 제주도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에 참여했다가 중단한 전체 26개 팀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 '18.5.15~6.4일간, 메일·문자·면접 등 조사(응답율 53.8%)

-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장난감보다는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빈 공간
- 보육시설 하원 혹은 방과 후, 주말 수놓음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부모들

○ 주민자치방식의 운영 정도에 따른 수놓음육아나눔터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운영 주체	주민자치 방식 운영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확산 요소		
				사업 목적	사업 방향	홍보, 관리 등 운영 역량
그룹 1	사례 A	민간	O	O	O	O
	사례 B	민간	O	O	O	O
그룹 2	사례 C	민간	O	O	O	△
	사례 D	민간	O	O	O	△
	사례 E	시민단체	X	O	O	△
	사례 F	복지관	△	O	O	△
	사례 G	복지관	X	O	O	△
그룹 3	사례 H	복지관	X	O	△	△
	사례 I	복지관	X	O	△	△
	사례 J	복지관	X	O	△	△
그룹 4	사례 K	복지관	X	O	△	X
	사례 L	민간	O	△	X	△

라.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성과와 시사점

1) 돌봄 공동체 사업에 지속 참여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

○ 3년 지속 참여 공동체의 변화

- 돌봄 공동체 활동의 유연한 대처 및 각기 다른 현재의 긍정적 모습

○ 2년 지속 참여 공동체의 변화

- 사업이 갖는 부담으로부터 편안해짐, 인식변화, 아빠들의 친밀감 등 형성

○ 신규 참여 공동체의 사업 참여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변화

- 초기 미안해하기의 단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담감, 편안해지기 노력

2)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상대적인 탁월한 점

○ 일시 거주를 함께 하는 불편을 참아내는 수준의 도움 주고받기

○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긴요한 도움

- 방과 후 돌봄 등 틈새 돌봄 수행 등 역량 발휘
- 돌봄 공동체 활동 확장선상에서의 초등돌봄 프로그램 운영 역량
- 돌봄 공동체 팀의 정서적 자원, 물적 자원의 교환관계망으로 기능
-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가족의 확장으로서의 동네 이모들
- 마을 단위, 학교 단위의 아이들을 함께 돌봐주는 자녀 돌봄 이루어짐
- 작은초등학교 중심의 온 마을 주민이 마을 돌봄에 참여
- 돌봄 공동체 활동이 자녀 동반 이주민의 제주 정착에 도움을 줌

3.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성과와 시사점

가.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

- 관 주도 방식을 지양,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거버넌스 지향의 정책 시행
- 다수 이주민들의 사업 참여가 돌봄 공동체 사업의 성과 창출에 기여
- 핵심적 교집합 가치로서 부모역할의 중요성과 공동체 가치
- 사업의 의의 : 공동체 경험 기회, 질적인 돌봄, 일상적 도움으로의 확대

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시사점

-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 정립 필요
- 수놓음육아나눔터의 기능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의 검토 필요
- 돌봄 공동체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거주 근접성 기준 검토 필요
- 돌봄 공동체 지속성 확보를 위한 리더들의 소진 문제 검토 필요
- 부모들의 지속적 참여를 위한 초등 고학년 이상을 위한 콘텐츠 필요
- 초등돌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검토 필요
-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 참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마을 연계 협력을 통한 공간 확보의 문제 검토 필요

제5장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 방향 및 추진전략과 과제

1. 활성화 방향에 따른 추진전략

-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정책의 지속 발전과제와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마을 안에서 함께 아이를 돌보는 민관협력 주민자치형의 사회적 돌봄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음
- ‘함께 만들어가는 제주 여성·가족 모두의 행복한 삶’을 목표로 하는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정책은 3개의 추진 전략, 5개의 정책 과제로 구성됨

〈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정책의 추진 전략 및 정책 과제 〉

함께 만들어가는 제주 여성·가족 모두의 행복한 삶			
추진 전략	돌봄 공동체 활성화	주민 자주적 참여 활성화	마을 기반 돌봄 공동체 유대 형성
	·단기 전략 ·중장기 전략	·사업별 연계 공모 추진 ·체계적 공모사업 수행	·돌봄 공동체 연계 협력 강화 ·거주근접성 공동체 발굴 강화
정책 과제	1. 제도적 기반 마련	· 공간 발굴 및 조성 관련 조례 제·개정★ · 마을 공간 제공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2. 사회적 돌봄 공동체 추진 실행력 강화	·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 방향성 정립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기능 강화	
	3. 마을연계 협력 강화	· 마을 내 공간 발굴 협력 방안 마련★ · 마을 관련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돌봄 공동체 역량강화	· 신규 돌봄 공동체 체계적 교육 강화 · 유연한 돌봄 공동체 활동 및 나눔터 운영 기준 마련 · 돌봄 공동체 간 멘토-멘티 연계 지원★ · 유형별 수놓음육아나눔터 컨설팅 지원 · 수놓음육아나눔터 실무협의체 운영 지원★	
	5. 제주형 사회적 돌봄 마을 공동체 조성	· 제주형 사회적 돌봄 마을 시범 사업 운영★	

★ : 신규과제

가. 돌봄 공동체 활성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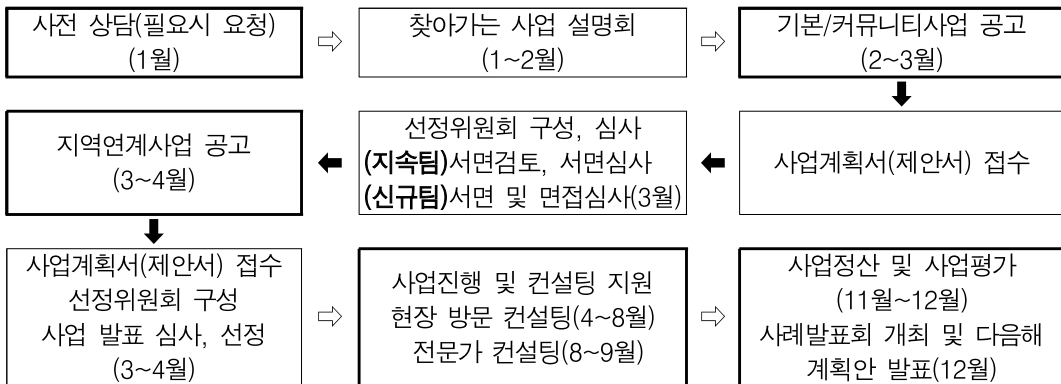
- 단기 전략 :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 중장기 전략 : 돌봄 공동체 활동 전문가로의 성장 지원

나. 주민 자주적 참여 활성화 전략

- 사업별 연계 공모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 방식 및 가산점의 예는 다음과 같음

구 분		1차 공모	2차 공모
		기본(+부모커뮤니티)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
신청 가능 공모 형태	유형 1	○	-
	유형 2	-	○
	유형 3	○	○
심사 가점	연계 협력	가점 1	· 전업주부와 취업맘 혹은 한부모/조손/장애인/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 간에 방과 후 돌봄, 방학 중 돌봄 등을 계획하고 있는 공동체
		가점 2	· 마을 내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학부모회 등의 자생단체와 연계한 방학 중/하교 후 초등 틈새 돌봄, 농번기 저녁 마을밥상 등을 계획 시
	지속 참여	가점 3	· 전년도 사업정산사업 평가 결과 근거, 우수한 팀의 경우 가점 반영
	거주 인접	가점 4	·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자연스러운 일상 돌봄 및 긴급 돌봄 계획 시

- 체계적 공모사업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안)은 다음과 같음



다. 마을 기반 돌봄 공동체 유대 형성을 위한 전략

- 돌봄 공동체 연계 협력 강화 및 거주 근접성 공동체 발굴 강화를 위한 가산점 필요

2. 주요 정책 과제

- 이상의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지역의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에 따라 정책 제언을 하였으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정책 과제	세부 과제	비 고
제도적 기반 마련	- 공간 발굴 및 조성 관련 조례 제·개정 ★ - 마을 공간 제공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	신규과제 신규과제
사회적 돌봄 공동체 추진 실행력 강화	-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 방향성 정립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기능 강화	보완·강화과제 보완·강화과제
마을연계 협력 강화	- 마을 내 공간 발굴 협력 방안 마련 ★ - 마을 관련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신규과제 보완·강화과제
돌봄 공동체 역량강화	- 신규 돌봄 공동체 체계적 교육 강화 - 유연한 돌봄 공동체 활동 및 나눔터 운영 기준 마련 - 돌봄 공동체 간 멘토-멘티 연계 지원 ★ - 유형별 수놓음육아나눔터 컨설팅 지원 - 수놓음육아나눔터 실무협의체 운영 지원 ★	보완·강화과제 보완·강화과제 신규과제 보완·강화과제 신규과제
제주형 사회적 돌봄 마을 공동체 조성	제주형 사회적 돌봄 마을 시범 사업 운영 ★	신규과제

가. 제도적 기반 마련

○ 공간 발굴 및 조성 관련 조례 제·개정

- 지속적인 돌봄 공동체 활동을 위한 거점공간 확보는 매우 중요함. 특히, 민선 6기와 민선 7기의 도정 공약에 맞춰 2단계로 추진될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이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건물에서 돌봄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와 타지자체의 경우처럼 공적 자원 관련 조례의 제·개정 등 합법화 과정 필요

○ 마을 공간 제공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 마을의 신규 다세대주택,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내에 수놓음육아나눔터를 설치하는 경우 혹은 기존 유휴공간의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을 희망하는 경우에 내부 공사비, 관리자 활동비 등 인센티브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마을 내 공유 공간 활용 수놓음육아나눔터 설치 시 읍면동 기관장 평가 반영 검토

나. 사회적 돌봄 공동체 추진 실행력 강화

○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 방향성 정립

- 지역의 수놓음육아나눔터 이용 대상자별에 따른 돌봄 수요 대응안

구 분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이용 이전 단계	이용 단계	
영유아		주중 돌봄	주말 돌봄	-
초등 저학년	전업주부	-	-	주말 돌봄
	취업주부	-	-	방과후프로그램 기능 주말 돌봄
		-	-	방과후프로그램 불가 주중 돌봄

- 자녀연령별 돌봄 공동체 맞춤형 지원
- 유형별 수놓음육아나눔터 발굴 및 지원

유형별 나눔터		발굴조성 지원 방향 (☞ 운영주체별×지역별)
운영 주체별	주민자치형	· 기존 및 신규 조성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혹은 빌라단지 내 공간 발굴 및 조성
	공공기관형	· 지역 내 복지관 및 작은 도서관, 마을리사무소 등 공공기관 공간 발굴 및 조성
	직장형	· 지역의 기업 내 공간 혹은 인근 기업 간 연계한 유휴 공간 발굴 및 조성
지역별	도심형	· 자녀 대상 교육 및 문화시설이 풍부한 도시지역의 특징 고려한 육아 나눔 공간 - 지역 주민이 함께 모여 돌봄 활동을 하는 사랑방 공간으로서의 발굴, 조성, 지원
	농촌형	· 자녀대상 교육 및 여가문화시설 부족한 주로 농촌지역의 특징 고려한 문화 공간 - 농번기 등 안전한 자녀 놀이 공간 및 다양한 돌봄 활동 프로그램 제공 공간 ※ 학교 중심 방과 후, 방학 중 돌봄은 가능하나, 학교 운동장 외에는 놀이 공간이 없는 농촌 지역 특성 고려, 아이들이 모여 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조성, 활용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기능 강화

- 단계별 체계적인 교육 및 컨설팅 방향 정립
- 참여자들의 소속감, 자긍심,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전체 프로그램 운영
- 돌봄 공동체의 자조역량 강화를 통한 활동 전문가로 성장 지원

다. 마을연계 협력 강화

○ 마을 내 공간 발굴 협력 방안 마련

○ 마을 관련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라. 돌봄 공동체의 역량강화

○ 신규 돌봄 공동체 체계적 교육 강화

- 신규 참여 공동체의 두려움과 부담감 최소화 위한 단계별 체계적 교육 지원

○ 유연한 돌봄 공동체 활동 및 나눔터 운영 기준 마련

- 돌봄 공동체 리더들의 자원봉사 실비 등의 활동비 지원
- 일상생활 적응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아 고려, 자녀연령 기준 확장
- 돌봄 공동체 활동 인원 기준 완화
- 수놓음육아나눔터 운영비 사용 기준 완화

○ 돌봄 공동체 간 멘토-멘티 연계 지원

- 사업 참여의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신규 및 기존 공동체 간의 멘토-멘티 연계 지원

○ 유형별 수놓음육아나눔터 컨설팅 지원

- 주민주도형, 공공기관 및 복지관, 운영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나눔터별 컨설팅 지원

○ 수놓음육아나눔터 실무협의체 운영 지원

- 나눔터별 구체적 사업계획, 사전·사후 컨설팅, 담당자 교육 등 지원
- 나눔터 운영 관리 관련 다양한 문제점에 따른 컨설팅 지원

마. 제주형 사회적 돌봄 마을 공동체 조성

○ 제주형 사회적 돌봄 마을 시범 사업 운영

- 목적 : 제주도가 자녀 중심의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사업의 확장 선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해체된 사회적 관계망의 회복과 육아문제를 넘어선 장애인 및 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주민자치 사회적 돌봄 마을 시범 사업 운영
-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노력 :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지역연계 공모사업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 마을 관련 부서의 마을 돌봄 공동체 사업으로 확장하여 추진해 볼 수도 있을 것임
-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집행기준 등 검토 노력 : 본 연구 결과, 초등 돌봄 등 다양한 돌봄 요구가 있고 실행하고자 계획하는 부모들이 있지만, 돌봄 인력에 대한 보상체계,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관계, 주체적 참여에 의한 돌봄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집행기준 검토 필요

- **시범사업을 통한 기대성과** : 지역 주민의 자발성과 적극성에 기대고 운영하는 마을 돌봄 공동체 회복으로 인해 아이들, 부모들, 장애인, 어르신 상관없이 지역 주민 누구나 교류하며 서로를 돌보고 나눌 수 있는 사회적 돌봄 마을 실현

〈 제주형 사회적 돌봄 마을 공동체 추천 사례 〉

구 분	특 징
사례 B (나눔터)	- 작은 단지규모라서 가능한 부분이지는 하나 아파트 단지 전체 주민이 나눔터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 갖추 - 대표의 공동체 가치 및 민주적 운영방식에 대한 신념이 뚜렷하며, 이를 실천하고 있음 - 지역주민들이 자주 만나고 교류하는 기회로서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강사는 주민으로 구성 - 여성들만이 아니라 남성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 상주관리자 없이도 운영되는 개방적, 자율적 시스템으로 나눔터가 운영됨
사례 A (나눔터)	- 적어도 나눔터 이용 아이들은 마을에서 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 마을 이모들, 오가며 들리는 마을 사랑방과 같은 나눔터 - 여성의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친화마을 요건으로 볼 수 있는, 거주, 여가, 경제의 3요소 중 경제까지 충족되고 있는 사례
사례 36 (공동체)	- 덕*리에 유일한 초등학교인 덕*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진과 겹치는 상황으로서 해당 팀의 돌봄활동이 아니라 이미 마을 중심의 아이들 돌봄을 하고 있음 - 사회적 돌봄 마을로서 물리적 조건이 우수함 - 도보권 내에 초등학교, 마을회관, 도서관이 있고 돌봄 활동이 초등학교 전학생 대상임
기타 (나눔터)	추가로 조*리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나눔터 D의 경우 장시간 농업노동으로 자녀돌봄이 어렵고 돌봄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모형으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 엿보임

- 목 차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4
3. 사회적 돌봄 공동체 용어의 조작적 정의	5
4. 연구의 방법 및 절차	7

제2장 사회적 돌봄 논의와 국내·외 사례

1. 사회적 돌봄 논의와 대표적 유형	11
가. 사회적 돌봄의 필요 상황	11
나. 돌봄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12
다. 사회적 돌봄 공동체의 대표적 유형	17
2.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24
가. 국내 사례	24
나. 국외 사례	29
다. 시사점	34

제3장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추진과 한계

1. 추진 배경	39
가. 추진 기반 마련	39
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 계획 수립	40
다.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 수립 및 추진	41
2. 추진 성과	44
가.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개요	44
나. 사업의 추진 성과	46
3. 추진 한계에 따른 개선점	53
가. 안정적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입법화 ..	53

나. 지원기준, 컨설팅, 교육 등 체계적 공동체 활동 지원 체계 마련	53
다.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강화	54

제4장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공동체 사업 운영 실태와 시사점: 면접조사 결과

1. 면접조사 개요	57
가. 면접조사 개요	57
나. 이해당사자별 면접 대상자	58
2.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참여 경험	61
가. 돌봄 공동체 참여 계기 및 구성 경로	61
나. 돌봄 활동	74
다. 돌봄 공동체 운영	82
라. 돌봄 공동체 사업 참여에 따른 변화	145
3.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성과와 시사점	160
가.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	160
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점	162

제5장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 방향 및 추진전략과 과제

1. 활성화 방향에 따른 추진전략	167
가. 돌봄 공동체 활성화 전략	168
나. 주민 자주적 참여 활성화 전략	168
다. 마을 기반 공동체 유대 형성을 위한 전략	170
2. 주요 정책 과제	171
가. 제도적 기반 마련	171
나. 사회적 돌봄 공동체 추진 실행력 강화	172
다. 마을연계 협력 강화	177
라. 돌봄 공동체의 역량 강화	179
마. 제주형 사회적 돌봄 마을 공동체 조성	185

참고문헌	187
부 록	189

- 표 목 차 -

<표 1-1> 돌봄 공동체 관련 전문가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8
<표 2-1> 제주지역 보육기관 이용 아동 현황(2013~2016)	13
<표 2-2> 제주지역 영유아 돌봄 서비스 현황 및 한계	14
<표 2-3> 제주지역 초등 돌봄 서비스 현황 및 한계	15
<표 2-4> 제주지역 육아휴직 사용률 추이	16
<표 2-5> 운영 주체에 따른 사회적 돌봄 공동체의 대표적 유형	19
<표 3-1>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현황(2016~2018)	44
<표 3-2>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현황(2016~2017)	47
<표 3-3> 제주형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비 지원 내용	49
<표 3-4>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사업 참여 공동체팀 현황(2016~2018)	50
<표 3-5> 제주도내 사회적 돌봄 공동체 팀의 활동 지역 변화 추이(2016~2018)	50
<표 3-6> 제주도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사업의 집행기준 변화 추이 (2016~2018)	52
<표 4-1> 면접조사 개요	57
<표 4-2> 전체 면접조사 대상자 기본 현황	58
<표 4-3> 돌봄 공동체 참여 팀별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58
<표 4-4> 수눌음육아나눔터 및 공간 발굴 관련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60
<표 4-5> 돌봄 공동체 활동의 특징으로 본 유형	122
<표 4-6> 주민자치방식의 운영 정도에 따른 수눌음육아나눔터 유형	134
<표 5-1>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사업별 연계 공모안	169
<표 5-2> 제주지역의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171

<표 5-3> 지역의 수놓음육아나눔터 이용 대상별에 따른 돌봄 수요 대응안	173
<표 5-4> 운영주체별, 지역별에 따른 수놓음육아나눔터 발굴안	175
<표 5-5> 돌봄 공동체 및 수놓음육아나눔터 대상 교육 및 컨설팅 방향	176
<표 5-6> 수놓음육아나눔터 운영 관련 다양한 문제점에 따른 지원 방향	185
<표 5-7> 제주형 사회적 돌봄 마을 공동체 추천 사례	186

- 그 립 목 차 -

<그림 2-1> 제주지역 성별·연령별 고용률(2016)	16
<그림 2-2> 정부의 온종일 돌봄 시범사업의 개요	21
<그림 2-3> 서울시의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의 추진 개요	22
<그림 2-4> 서울시의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의 민관 협력 추진 체계	22
<그림 2-5> 은평구 진관동의 물푸레 북카페 관련 사진	26
<그림 2-6> 마포구 염리동의 우리동네 나무그늘과 동네 사랑방 관련 사진	28
<그림 2-7> 일본 고호쿠구의 도롭푸(Drop) 관련 사진	30
<그림 2-8> 일본 고호쿠구의 도롭푸(Drop) 내부 위치도 및 외부 전경	31
<그림 2-9> 독일의 마더센터 관련 사진	33
<그림 3-1>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리의 전략 및 핵심과제	42
<그림 3-2>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추진 체계	43
<그림 3-3>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추진 개요	45
<그림 3-4> 수놓음육아나눔터 및 사회적 돌봄 공동체 팀 분포 현황('17년 12월 기준) ·	46
<그림 4-1> 제주도 돌봄공동체 사업 참여(2016~2017) 중단팀 조사 결과	116
<그림 5-1>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정책의 추진 전략 및 정책 과제	167
<그림 5-2>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공모사업 추진체계(안)	170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3. 사회적 돌봄 공동체 용어의 조작적 정의
4.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그동안의 아동돌봄 정책은 제1의 핵심 돌봄주체는 소외되고 시장화된 보육기관을 그대로 이용해야 하는 보육환경, 장시간 노동, 경직된 노동시간 구조로 인해 많은 가족들이 아동을 안전하고, 안심하며 키우는데 여러 문제가 있었음(송다영, 2018)
-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라 일부 집단이 아닌 보편적 집단에서의 일·가정 양립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해결책으로 가족과 국가 정책 사이의 돌봄 연계에 공백을 메워주거나 연결해주는 공동체방식의 사회적 돌봄은 매우 시급하게 여겨짐
- 다시 말해,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에서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의 저출산 대응전략은 보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양육수당 지급만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여성이 일하면서 결혼·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별에 따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성평등한 양육문화 조성에 더 노력을 기울이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임
- 이는 향후 아동대상의 돌봄 서비스가 종전의 국가 중심의 공적 보육과 맞벌이 혹은 취약가정 등 특정 대상 위주의 정책 지원을 넘어서 국가, 가족,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방식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임
- 공동체 돌봄에 대한 관심은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부모들의 출퇴근 전후의 돌봄, 하원·하교 후 돌봄, 방학기간 동안의 돌봄에 대한 어려움은 물론 그동안 영유아 대상의 보편적 보육정책과 달리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초등 돌봄 공백 해소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실임
- 이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한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임. 또한 국정과제로 지난 4월 온종일 돌봄을 위해 9개의 지자체를 선정하고 3개년동안 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발표함
- 그러나 현재의 아동돌봄 정책은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되기 보다는 정부의 일방적 제공 방식에 머물러 있고, 소관부처 간에는 유사한 서비스가 분산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동체방식의 돌봄 활성화는 미흡한 실정임
- 이런 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2015년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인 “제주처럼”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중간지원조직인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간의 행정 중심 정책 사업의 문제점을 넘어서 주민 참여의 자녀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공동체간 연결고리를 생성하며 민관협력의 사업을 추진한 점은 매우 의미하는 바가 큼

- 2018년은 제주처럼 프로젝트에서 계획한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시행 3년차 종료시점이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향후 실질적인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할 것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돌봄 정책 평가와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성과 평가 및 실태분석 결과 등에 근거하여,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정책의 지속 발전과제와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마을 안에서 함께 아이를 돌보는 민관협력 주민자치형의 돌봄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가. 연구 내용

1) 사회적 돌봄 공동체 관련 이론적 논의 및 국내·외 사례 분석

- 사회적 돌봄의 필요 상황 및 정책 현황의 한계와 문제점 제시
- 사회적 돌봄 공동체 대표적 유형의 개념 및 유형 방식 제시
- 돌봄 공동체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에 근거한 시사점 논의

2)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추진 성과와 한계 분석

- 제주의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추진 배경 및 계획 수립, 추진체계 제시
- 수놓음육아나눔터 및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 성과분석에 근거한 조례 제·개정, 체계적 지원, 네트워크 강화 등 향후 개선점 논의

3)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실태분석을 통한 성과 및 개선점 파악

-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 참여경험, 성과, 정책요구 등을 통한 개선점 도출
-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타시도 사업과의 상대적 성과 및 유형화 논의

4)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 방향 및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제안

- 연구의 주요 결과에 근거,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향 및 정책 과제 제안

나. 연구 범위

1)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적 범위

-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률에 따른 연령¹²⁾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이 영유아 돌봄에서 초등 돌봄까지의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맞춰 영아에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연령대로 한정함

3) 유형적 범위

- 돌봄 공동체의 유형은 운영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정부제공 서비스 방식과 민관협력 주민자치 방식으로 구분됨.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연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마을기반의 자발적 돌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함께 돌봄을 나누는 민관협력 주민자치형 공동체 방식으로 한정함

3. 사회적 돌봄 공동체 용어의 조작적 정의

가. 사회적 돌봄 공동체 용어의 조작적 정의

- 본 연구는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을 통해 핵가족으로 인한 육아 문제를 개인, 가족, 지역이 아이를 존중하고 양육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누는 방식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동체 방식의 돌봄인 '돌봄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돌봄 공동체'로 접근하고자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돌봄 공동체'는 여러 사회적 돌봄 방식 중 하나로서 공동체가치 및 유대에 의한 돌봄 활동을 하는 그룹을 의미하며, 공동체가치 및 유대에 기초한 공동체 방식의 돌봄 활동이라 정의함(약어: 돌봄 공동체 또는 공동체탐)
 - 또한 사회적 돌봄 공동체의 전통적 유형으로서의 품앗이육아, 제주지역의 전통문화로서 수눌음육아 공동체를 동일한 용어로 사용(또는 혼용)함

12) 영유아보육법에서의 아동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제2조제1항),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제2조제1항), 청소년기본법에서의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제3조제1항)를 말함

나. 사회적 돌봄 공동체 유사 용어의 정의

- ‘품앗이육아’는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이웃과 정을 주고받는 우리의 전통적 관습인 품앗이처럼 부모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육아문제를 지역사회 안에서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개인적 동기에 의해 돌봄에 대한 품을 서로 덜고 나누는 방식임
- ‘공동육아’는 육아의 관점에서 대안적 보육의 의미가 큼. 부모들이 기관 보육의 대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부모는 물론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육아지원으로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서 생활 공동체로 등장한 돌봄 방식임

다. 사회적 돌봄과 유사한 제주도식 단어인 ‘수눔음육아’의 정의

- ‘수눔음육아’는 일손이 부족한 제주지역 고유의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부상조 문화를 강조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의미가 담긴 품앗이육아와 유사한 돌봄 방식임
- ‘수눔음육아 공동체’는 수눔음 육아를 하기 위해 부모들로 구성된 팀 또는 팀의 구성원을 말함(약어 : 돌봄 공동체 또는 공동체팀)
- ‘수눔음육아나눔터’는 지역의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모여 수눔음육아 활동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사랑방과 같은 돌봄 나눔 공간임(약어 : 나눔터)
 - 나눔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방식과는 달리 나눔터를 담당하는 상시 관리 인력이 없이 민관협력 주민자치적인 공동체 방식으로 자율운영 관리되고 있음

4. 연구의 방법 및 절차

가.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 사회적 돌봄 공동체 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등 검토
-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관련 정책 현황 및 통계 자료 등 검토

2) 이해당사자별 대상 면접조사

- 조사 목적 : 이해당사자별 돌봄 공동체 사업 수행과정의 어려움 및 정책수요 파악
- 면접 대상 :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 참여 특성(지역, 참여기간, 참여유지 등) 별 돌봄 공동체 참여자, 수놓음육아나눔터 수탁기관 담당자 및 나눔터 공간 발굴 관련 공공기관·민간기관 관계자, 활동가 등 총 77명¹³⁾
- 면접 내용 : 이해당사자별 특징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의 참여경험, 사업성과, 정책요구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질문
- 조사 방법 : 연구진에 의한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고 내용은 녹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녹음하는 것에 민감할 경우 등을 고려하여 연구진이 현장 손 기록 병행정리
- 조사 기간 : 2018년 4월 13일 ~ 7월 31일, 연구진 2인이 직접 면접조사 수행
- 표본추출방법 : 특성별 공동체는 사업 초기부터 활발하게 돌봄 활동을 하고 있는 육아팀 및 신규 참여 육아팀 중에서 면접조사를 수락한 팀을 우선 선정함. 나눔터 공간 관련 관계자는 지역별 공동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혹은 갈등 상황에 있었던 도서관, 복지관, 나눔터 관계자 등 소개를 통한 눈덩이 표집으로 편의 추출

3) 전문가 및 공무원 등 의견수렴

- 전문가 의견수렴 : 돌봄 공동체 관련 운영진, 컨설턴트, 활동가 등의 의견수렴
- 공무원 의견수렴 : 주무부서 및 관련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등의 의견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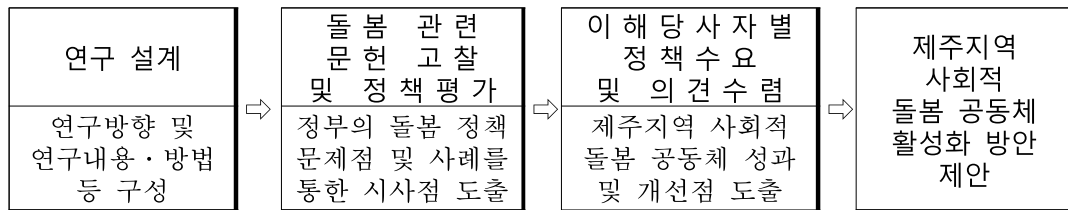
13) 면접 대상자의 수는 편의상 돌봄 공동체 팀별 대표 제안자 혹은 수놓음육아나눔터 등 공간 관련 기관 담당자 외에 다수 동석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어도, 공동체 팀별 리더 혹은 공간 관련 기관 담당자 1명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단순 명수로 표기함

〈 표 1-1 〉 돌봄 공동체 관련 전문가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연번	구분	관련 기관 및 직위	관련 경력	면접일
1	전문가 (활동가)	소금꽃마을 마더센터 운영위원	전화인터뷰	6.15
2		전 서울시 공동육아 사업 컨설턴트	10년 이상	6.15
3		서울시 공동체 컨설팅 지원단 담당자	5년 이상	6.15
4		물푸레 북카페 운영진	10년 이상	6.21
5		은평구교육혁신지원단 관계자	10년 이상	6.21
6	중간지원 조직	제주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담당자	2년 이상	6.28
7		전 서울시 공동육아 관련 사업 담당자	10년 이상	6.28

나. 연구 절차

○ 연구수행 절차는 아래와 같음



제2장

사회적 돌봄 논의와 국내·외 사례

- 1. 사회적 돌봄 논의와 대표적 유형
- 2.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1. 사회적 돌봄 논의와 대표적 유형

가. 사회적 돌봄의 필요 상황

- 돌봄은 전통적으로 주로 가족, 특히 여성에 의해 전담되어지는 성(性) 역할 분담으로의 특성을 지님. 그러나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자녀 돌봄의 위기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사적 영역에서 수행되어 온 돌봄이 공적, 제도적 영역으로 이전하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김윤정·문순영, 2009)
- 정성훈(2014)에 의하면 사회적 돌봄은 여성이 치러야 할 당연한 자기희생으로 간주 되어왔던 '돌봄'에 대한 전통적 사고방식의 전환으로 그에 따른 노동, 책임, 비용을 가족, 시장, 국가, 그리고 자발적 영역의 담당자가 서로 나누어 맡게 된다고 강조함
- 일하는 여성들은 출·퇴근 전후의 돌봄, 하원·하교 후 돌봄, 방학기간 동안의 돌봄 등을 위한 사회적 돌봄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로 남겨지는 등 가족 간에 돌봄을 둘러싼 갈등과 긴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현 상황임
- 이는 자녀 돌봄의 주체가 더 이상 가족, 특히 가족 내 여성의 전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 주체들 간에 돌봄 네트워크를 통한 참여로 지역 사회 내에서 성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임
- 우리나라에서의 자녀 돌봄에 대한 제도적 근거는 그리 오래되지 않음. 1921년 태화 기독교사회관의 탁아서비스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나, 1980년대 기혼여성들의 사회진출이 급증한 시기까지도 정부의 보육에 대한 최소의 책임도 외면되었음(김윤정·문순영, 2009)
- 이러한 상황에서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영유아 돌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의 근거가 마련되어 보육시설을 양적으로 증대하기 시작되었지만, 국·공립시설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공급주체의 공공성이 확보되지는 못한 실정임
- 결과적으로 최근까지도 사회적 이슈로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운영의 고질적 문제인 아동학대, 통원차량 아동 방치사건 등 공적 돌봄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사고들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또 한편에서는 2013년부터 아동보육법 개정으로 시작된 모든 아동이 보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무상보육 확대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맞벌이여부 상관없이

- 필요 이상으로 보육기관에 보내는 등 왜곡된 공적 돌봄의 현실이 나타나기도 하였음
- 그럼에도 최근에는 정부의 무상보육과는 무관하게 부모들 간에 자녀 돌봄에 대한 자발적 영역의 비중은 미미한 편이지만 사회적 돌봄의 개념에 가까운 다중적 담당자들에 의한 돌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정성훈, 2014)
 - 여기서 사회적 돌봄으로의 돌봄이 실현되었을 때 여성의 일·삶 균형이 이루어지고 여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아동수당의 도입, 온종일 돌봄 사업이 추진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돌봄의 질이 확보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임
 - 이러한 의문에 대해 현 시점의 돌봄 상황을 짚어보고, 동시에 그동안 우리나라 전통방식의 돌봄은 오직 가족과 엄마의 몫만이 아니라 일상이 만나는 마을에서 서로 아이를 돌보고 맡기면서 품앗이 형태의 비공식적인 사회적 돌봄이 있었다는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음
 - 더 이상은 전통적인 이웃, 친척 등 비공식적 돌봄이 어렵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많아지고 있지만 남성들의 육아참여도가 제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과거 공동체 방식인 돌봄 공동체가 갖는 중요한 함의를 찾을 필요가 있을 것임

나. 돌봄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1) 아동 돌봄 중심의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

-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아동 돌봄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아동 돌봄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임
 - 첫째는 현행 정부의 돌봄 서비스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고, 어린이집 등의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는 긴급 일시보육 등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 둘째는 정부의 근로기준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율이 높지 않고,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는 아직 미미한 점
 - 셋째는 초등 돌봄 서비스의 경우 영유아 대상의 보편적 보육정책과는 달리 여전히 저소득층 아동 대상의 정책들이 대부분으로 체감도가 낮고, 맞벌이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조차도 비용, 이용시간대 등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

2) 아동 돌봄 관련 서비스의 현황과 한계

- 지난 20~30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영유아 돌봄의 제도화로 인해 어린이집 수는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였고 무상보육이 되었다고 해도 모든 아동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었음. 즉, 제주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무상보육이 시작된 2013년 92.0%에서 2016년 89.4%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보육의 공공성 확대로 모든 아동들이 보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김윤정·문순영, 2009)과는 달리 보육의 질 등의 문제를 놓고 취업여성들 중 일부는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추가 비용부담을 느끼면서도 주변의 시부모, 친정 부모, 친인척, 이웃 등 비공식적 돌봄에 의존하게 됨

〈 표 2-1 〉 제주지역 보육기관 이용 아동 현황(2013~2016)

(단위 : 명, %)

	2013	2014	2015	2016	2016 비율
0~5세 영유아 수(a)	35,380	35,968	36,800	37,120	100.0
어린이집 이용원아 수(b)	27,256	27,402	27,109	27,231	73.4
유치원 이용원아 수(c)	5,295	5,296	5,547	5,943	16.0
보육기관 이용아동 수(b+c)	32,551	32,698	32,656	33,174	89.4
0~5세 보육아동 대비 보육기관 이용 원아추이(b+c/a)	92.0	90.9	88.7	89.4	-

참고 : 고지영(2017). 「2017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 2009년도부터 정부는 공적보육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으로 가정보육을 하는 부모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위한 양육수당 도입과 그동안 비공식적 돌봄에 머물러 있던 0~2세 자녀를 둔 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모성 돌봄과 제도적 돌봄 간의 공백을 이어주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하기 시작하였음(김윤정·문순영, 2009)
- 이와 더불어 또 다른 의미 있는 변화는 정부의 제도적 돌봄이 1990년대의 과도기를 지나 2000년대 정착기에 들어서면서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출산전후휴가 확대, 육아 휴직 대상 연령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모성 돌봄의 강화는 물론 남성의 육아 휴직권도 도입이 되었다는 것임(김윤정·문순영, 2009)

- 또한 국정과제로 2018년 9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권리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멕시코, 터키, 미국을 제외한 OECD 국가 35개국 중 32번째로 뒤늦게 시행한 국가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돌봄 관련 다양한 제도의 시도는 모성 돌봄의 실행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결과와 동시에 여성의 책임으로만 여겨졌던 돌봄 영역에서 제도적으로 남성의 돌봄 참여권을 보장하는 돌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노력임

〈 표 2-2 〉 제주지역 영유아 돌봄 서비스 현황 및 한계

구분	보육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양육아동수당	육아휴직제도
지원 내용 변화	- 영유아보육료지원 (‘08)0~4세 차등지원 (‘11)0~4세 차등지원 상향: 70% (‘12)0~2세 전액지원 (‘13)0~5세 보육료 전계층 전액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18)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확대 40% 달성 (‘22년까지)	돌봄서비스 지원 (‘09)돌봄서비스도입 (‘11)영아종일제도입 12개월 (‘13)영아종일제 확대 24개월	- 양육수당 지원 (‘09)양육수당도입 만1세 미만 차상위 계층 (‘12)만 2세 미만 (‘13)만 5세 이하 전계층 - 아동수당 신설 (‘18)아동수당(신설) 0~5세, 월10만원 (소득하위 90%)	육아휴직제도적용 (‘08)만3세미만 40→50만원 (‘10)만6세미만(40%) 최고상한100만원 (‘14)만8세이하 확대 (‘16)자동육아휴직제 (‘17) 첫 3개월 육아 휴직급여 2배 인상,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근로시간준수,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등 (‘18)휴직기간 근속기간포함¹⁴⁾
운영 규모	89.4% (영유아37만명) (‘16년 기준)	시간제이용자 44,016명 (‘16년 기준)	26.9% (영유아37만명) (‘16년 기준)	남성육아휴직자 10% 미만대 ※ 전 출생아수 대비1.5%
한계	전(全)어린이집 527개중 국공립 비중 5.5%, 이용 률 7.0%에 그침(‘17년 기준) 민간 비중 46.8% 차지 ※ 기관 미이용 아동 긴급 일시보육 한계	돌봄비 인력 제한 ※ 아이돌보미 271명 (‘16년 기준) 이용시간대 및 이용지 역 요구 반영 미흡	‘18년 신설된 아동수당 의 경우, 전 계층 대상이 아닌 소득하위 90%에 그침	도내가족친화인증기업(‘17 년 기준 36개) 고용보험적용전사업체 35,855개 대비 0.1% 그침 ※ 도내 10인 미만기업 88.5% 차지

참고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고지영(2017). 2017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내부자료., 서귀포건강가정지원센터 내부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7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 및 2017 교육통계연보., 고용노동부(2017.4.),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14)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항 제3호(시행일: 2018.5.29.): 최근 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됨

- 정부의 보편적 영유아 돌봄 서비스 노력에 비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한
- 초등 돌봄 상황을 제주도 내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 이용자를 통해 가늠해보면, 약 6천 명 정도에 불과함. 이는 도내 전체 초등학교생(40만명)의 1.54%만을 포괄하는 수준이고 초등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대상이 거의 취약계층 아동에게만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운영형태를 보면 사업 간, 기관 간 매우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2017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제주지역의 나홀로 아동을 추산¹⁵⁾해보면, 하루 동안 자녀가 혼자(또는 형제 자매)만 보내는 시간은 1~2시간이 35.5%, 3~4시간 27.9% 순의 높은 현실로 나타났음

〈 표 2-3 〉 제주지역 초등 돌봄 서비스 현황 및 한계

구분	교육부 (교육청)		보건복지부 ¹⁶⁾ (지자체)	여성가족부 (지자체)		제주도 (지자체)
돌봄 서비스	초등돌봄 교실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 후아카데미	아이돌보미	수눔음육아 나눔터
지원 근거	초·중등교육 과정총론 교육부 고시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아이돌봄 지원법	생활체감형양 성평등정책 ‘제주처럼’
시행 시기	2004	1995	2004	2005	2007	2016
지원 대상	초 1~초6	초 1~초6	만18세 미만	초 4~중3	만12세 이하	0세~초6
지원 형태	무상 (프로그램, 간식비 등 일부 자부담)	유상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무상 (소득별 이용료 5만원 이내 부담)	무상 (학습 및 생활지원 등)	소득수준별 이용료자부담	무상
운영 형태	취약층/맞벌이 가정 상시돌봄	자율선택 일시 돌봄	취약계층 중심 상시 돌봄	취약층 중심 상시 돌봄	영유아중심 상시/일시돌봄	부모자조모임 상시/일시돌봄
운영 규모	178개교실 초등4천명 (초등40만명)		1일이용아동 초등1천9백명 (초등40만명)	도내 9개소 초등260명	시간제이용 44,016명 (‘16년 기준)	전체 20개소 (‘17년 기준)
한계	초1~초2 중심 운영 및 소득/맞벌이 등 우선순위	돌봄 개념이 아닌 선택 프로그램 수강	소득 등 제한된 이용자의 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한부모/취약계층 가정의 나홀로 대상 한정	소득별 차등에 따른 자율신청	상시 인력 부족으로 인한 나눔터별 이용 접근차 발생

참고 : 정여진 외(2017).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전략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법제처 <http://www.law.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포럼자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http://www.youth.go.kr/>,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15)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7. 제주지역 영유아·초등저학년 주양육자 1,000명 대상 ‘제주지역 아동돌봄 실태조사’결과(2017.5.12~5.31.수행)

16) 보건복지부는 2017년 맞벌이 가정 중심 상시·일시 돌봄 시범사업인 ‘다함께돌봄사업’을 실시

- 자녀 돌봄을 위한 일하는 부모의 모성권과 부성권에 따른 현실을 육아휴직제 사용 현황을 통해 살펴보면, 제주 지역 역시 여성에게 편중되고 있는 상황임
- 남성의 육아휴직의 경우에 아빠휴직 보너스제 등 휴직제도 사용 독려에도 불구하고 2010년 2.8% → 2016년 8.2%로 10%미만이며, 전체 출생아수 대비 1.5% 수준임

〈 표 2-4 〉 제주지역 육아휴직 사용률 추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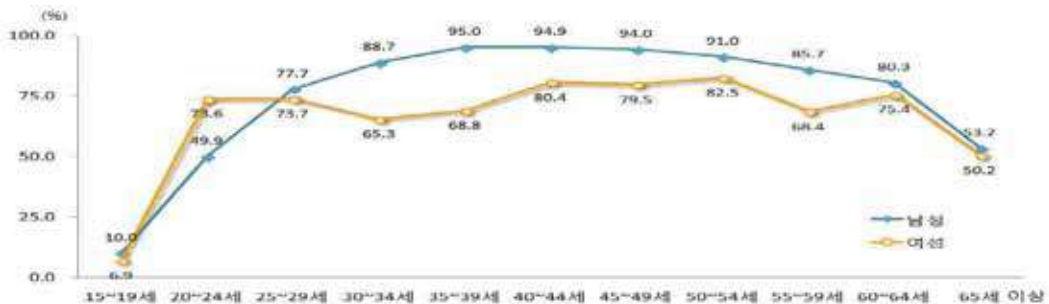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출생아수(a)	5,657	5,628	5,992	5,526	5,526	5,600	5,494
육아휴직자전체(b)	460	615	644	697	904	908	1,000
육아휴직사용률(b/a)	8.1	10.9	10.7	12.6	16.4	16.2	18.2
남성육아휴직자(c)	13	11	27	22	38	71	82
남성육아휴직자비율(c/b)	2.8	1.8	4.2	3.2	4.2	7.8	8.2
전체 출생자 중 남성육아휴직자비율(a/c)	0.2	0.2	0.5	0.4	0.7	1.3	1.5

자료 : 고지영(2017). 2017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통계; 통계청, 2016년 사회조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 이러한 현실은 여성들의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의 노동권 포기의 사유로 작용됨
- 즉, 제주 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나 남성에 비해 여성은 2000년 61.2% → 2016년 63.4%로 증가추세 인듯하지만, 연령대로 살펴보면, 30대 초반(30~34세)에 함몰하는 M자형 패턴으로 경력단절 형태를 나타냄

〈 그림 2-1 〉 제주지역 성별·연령별 고용률(2016)

(단위 : %)



자료 : 고지영(2017). 2017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3)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돌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무상보육과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면서 자녀 돌봄 현실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 이런 이유로 정부는 2008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가족친화 직장환경과 가족친화 마을환경을 통해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강조하고, 결과적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지향하는 것일 것임
- 그러나 정부의 영유아 돌봄에서 초등 돌봄까지 연속성 있는 사회적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소관부처별 돌봄 정책 간의 긴밀한 협력방안은 물론 남성의 돌봄 참여 등 사회문화적으로 양육 패러다임 전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따라서 부모의 돌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 외에도 비공식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돌봄 공백 메우기가 가능한 자녀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살고 있는 마을 안에서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체 방식의 돌봄 확산은 매우 필요할 것임

다. 사회적 돌봄 공동체의 대표적 유형

1) 사회적 돌봄 공동체의 개념

- 공동체(community)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개념화하면 살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상호의무감, 정서적 유대, 공통의 이해관계 등 지역 사회 안에서의 공동 관심을 서로 공유하여 갖는 사회적 관계망이라고 할 수 있음
- 공동체방식의 돌봄은 그동안 돌봄이 전통적으로 가족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이고 거의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어 왔으나,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인해 일부 집단이 아닌 보편적 집단에서 돌봄 공백해결의 절박성이 크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게 된 것임
- 즉,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해결하던 육아문제를 부모, 이웃, 지역사회 모두가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되고 아이를 함께 키워가는 새로운 사회적 육아 방식인 품앗이육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사전적 의미에서의 품앗이는 ‘품’과 ‘앗이’가 합쳐진 단어임. ‘품’은 어떤 일에 드는 힘이나 수고, 노력을 말하며, ‘앗이’는 ‘앗다’의 명사형으로서 ‘일을 해주고, 다시 일로써

갇게 하다(국어연구원)의 의미로 주고받음과 관련된 인간행동을 말함. 즉, 품앗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음’과 ‘마음’의 교환에 비출 수 있는 상부상조로서의 배려와 신뢰 문화가 담겨져 있는 것임(차성란, 2010)

- 제주에서도 품앗이와 유사한 개념의 전통적으로 동네에서 일손이 필요할 때 이웃 간에 서로 도움을 주는 ‘수눌음’이라는 끈끈한 공동체 문화가 있고, 이러한 전통방식으로 2016년부터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선행연구에 의하면, 품앗이육아는 뜻이 맞는 어머니들이 지역 기반의 육아공동체를 만들어 품앗이 방식으로 자녀 육아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김정희, 2000; 김선미, 2009; 임나은, 2014; 조한혜정·차성란, 2017에서 재인용)
- 육아는 양육의 책임을 누가 맡고 있느냐에 따라 가정육아와 사회육아로 구분할 때, 품앗이육아는 나와 이웃,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키우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의 접근에서 사회육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정병호, 1992; 차성란, 2010 재인용)
- 우리나라에서 품앗이육아는 1980년대 후반 맞벌이 가족의 증가와 사회적 육아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어(유해미·김문정, 2013),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머니들 사이에서 공동육아의 이념을 따르면서도 공간마련이나 출자금의 부담이 없는 품앗이육아를 시도하게 된 것임(조한혜정·차성란, 2017)
- 이런 접근에서 품앗이육아는 부모 참여와 아동 중심성을 핵심원리로 하여(유해미·김문정, 2013), 어머니들 간에 주로 인지교육이 아니라 생활교육, 자연친화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협동적으로 진행함(김정희, 2000). 그래서 적은 비용에 비해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성 발달 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차성란, 2010)
- 결과적으로 품앗이육아는 어머니 혼자만의 고립된 육아를 넘어선 지역 기반의 새로운 공동체방식의 돌봄으로서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돌봄 공동체로 확대하여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 ‘사회적 돌봄 공동체’는 여러 사회적 돌봄 방식 중 하나로서 공동체 가치 및 유대에 의한 돌봄 활동을 하는 그룹을 의미하며, 공동체가치 및 유대에 기초한 공동체 방식의 돌봄 활동임(약어 : 돌봄 공동체., 제주의 유사 용어 : 수눌음육아 공동체)

2) 사회적 돌봄 공동체의 대표적 유형

-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 돌봄 공동체의 유형은 운영 주체에 따라 두 유형, 즉 정부제공 돌봄 서비스 방식과 민관협력 주민자치형 공동체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정부제공의 돌봄 서비스 방식은 여성가족부의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들 대상의 가족 품앗이¹⁷⁾ 사업과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될 온종일 돌봄¹⁸⁾ 사업이 대표적이고, 민관협력 주민자치형 공동체 방식은 2018년도부터 시작된 남원시¹⁹⁾의 ‘육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을 제외하면 서울시의 ‘공동육아활성화사업’과 제주도의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사업’이 대표적인

〈 표 2-5 〉 운영 주체에 따른 사회적 돌봄 공동체의 대표적 유형

구분	정부제공 돌봄 서비스 방식		민관협력 주민자치형 공동체 방식	
	여성가족부	교육부·여가부·복지부 행안부	서울시	제주도
사업명	가족품앗이 사업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공동육아활성화 사업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시행 시기	2008	2018	2012	2016
법적 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아이돌봄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아이돌봄지원법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생활감채형양성 평등정책 ‘제주처럼’
지원 조직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건강가정지원센터, 학교 등	(협력)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컨설팅)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제주가족친화 지원센터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	초등1~6학년	돌봄아동 5명 이상 (영유아 우선 원칙) 3인 이상 주민모임	0세~초등6학년 5가족 이상
운영 형태	상시·일시 돌봄	상시·일시 돌봄	상시·일시 돌봄	상시·일시 돌봄

참고: 여성가족부 2018년도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17.5.) “다함께 돌봄”시범사업 공모 계획 및 관계부처 합동(2018.4.)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기본계획과 관련 보도자료(2018.6.28.); 서울특별시 2018년도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 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산 언급(2017.7.19.발표)
 18) 정부는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중심으로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기본계획을 발표(‘18.4.19.)
 19) 남원시는 2018년도부터 육아로 여유가 없는 엄마·아빠들의 자조모임 및 소규모 육아 공동체 발굴 및 지원할 목적으로 ‘관내 시민 중 만1세~만9세 영유아부모 5가정 이상의 부모모임·단체’ 대상의 공모 사업을 진행함(남원시 공고 제2018-1074호, 남원시 홈페이지 ‘18.8.16. 검색자료)

가) 정부제공 돌봄 서비스 방식 ① : 여성가족부의 가족품앗이 사업

- 여성가족부의 가족품앗이 사업은 가족돌봄기능 약화로 어려워진 개별가정의 양육 문제를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고, 2008년 전국 10개²⁰⁾의 센터를 시작으로 확대 중임(차성란, 2009)
- 가족품앗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활동 부모뿐 아니라 센터 실무자들의 공간에 대한 요구가 많아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하고 2010년 5개²¹⁾ 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 이래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음(※ 국정과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조성)

○ 가족품앗이 사업의 개요

- 법적 근거 : 「아이돌봄지원법(2012.2.1.제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 이용 대상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
- 활동 장소 : 회원의 가정 또는 공동육아나눔터
- 활동 내용 : 학습지도, 놀이, 체험활동, 등하교 안심동행 품앗이 등 돌봄의 공백 지원
- 공동체 모집 : 신청자가 있을 경우 실무자가 부모의 욕구와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품앗이 팀을 구성해주거나 기존 팀의 동의하에 기존 팀을 확대하는 형태로 구성

○ 타지자체의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아이돌봄지원법」 근거 관련 조례 제정,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운영 지자체 : 세종시('17.7.20.), 서울시동작구('17.11.9.), 익산시('17.11.20.), 공주시('17.12.8.)
- 의왕시의 경우 관련 조례는 없지만 '15년부터 주민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조직으로 하여 2015년부터 부곡동, 내손2동, 고천동, 내손1동, 오전동 주민센터 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여 '18년 8월 현재 총 5개 운영함(중부일보 2018.8.6. 기사)

○ 가족품앗이(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대상) 사업의 한계점

-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조모임 돌봄 공동체 구성·활동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

20) 관악구, 금천구, 성북구, 서울중구, 부산진구, 대구달서구,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중구, 인천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21) 고양시, 관악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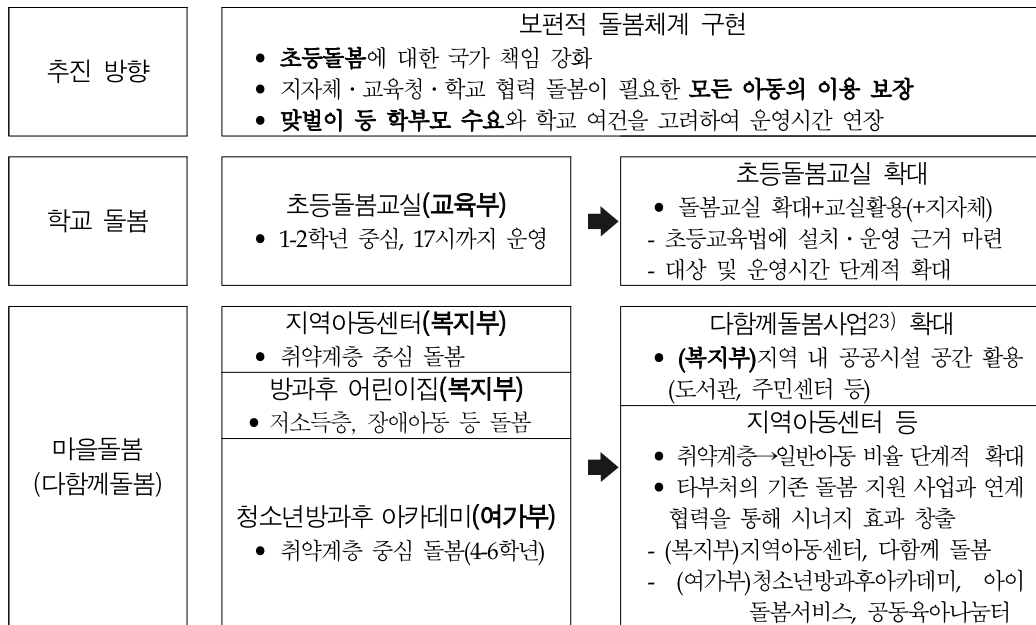
나) 정부제공 돌봄 서비스 방식 ② :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시범)사업

○ 국정과제인 아동(수요자) 중심의 질 높고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18.4.4, 서울 경동초등학교) 이후, 정부는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중심으로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기본계획('18.4.19.)을 확정함

○ 온종일 돌봄 사업의 개요

- 사업 목적 :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 및 학교·지자체 협력을 통한 빈틈없는 돌봄 구현
- 기간 및 예산 : 2018년~2020년(3년), 사업비 총 80억 원, 전국 9개 지역 시범²²⁾운영

< 그림 2-2 > 정부의 온종일 돌봄 시범사업의 개요



참고 : 보건복지부(2017.5.) “다함께 돌봄”시범사업 공모 계획 및 관계부처 합동(2018.4.)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기본계획과 관련 보도자료(2018.6.28.)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22) 2018년 6월 28일 교육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에 9개 지자체가 선정된 것으로 발표함. 선정지역은 서울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대전 서구, 경기 시흥시, 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로 총 9개 지역임

23) 다함께 돌봄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행정안전부 협력 사업임. 다함께 돌봄사업의 목적은 안전하고 접근성이 높은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모든 6~12세 대상 아동에게 열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서비스를 위해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복지관·도서관 등 공공시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 등을 리모델링함. 사업의 운영은 지자체 직영, 공동운영, 위탁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며, 재원은 설치비와 인건비는 국비·지방비 매칭 지원으로, 운영비는 이용자 자부담 등을 활용하며 그 외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함

다) 민관협력 주민자치형 공동체 방식 ① : 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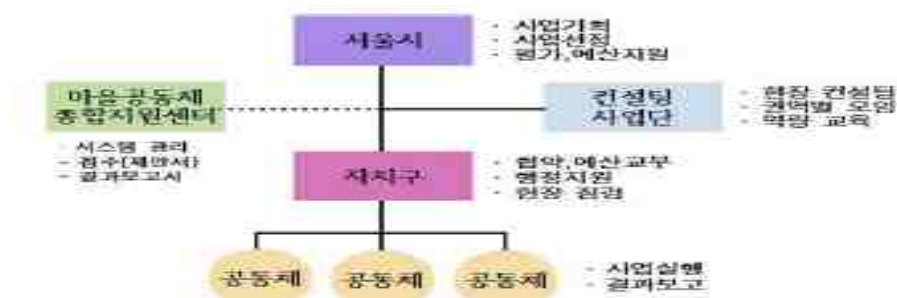
- 서울시는 2012년부터 지역 내에서 육아를 매개로 공동체를 육성하고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와 이웃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을 민·관 협력으로 지원하고 있음
- 2018년 서울특별시의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추진개요
 - 법적 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2.3.15.제정)
 - 사업 목적 :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육아공동체를 확대하고 공동체간 격차 해소 지원을 위한 맞춤 컨설팅 및 안정적인 공동체의 육성, ‘열린육아방’ 공간 조성 지원
 - 신청 자격 : 3인 이상 주민모임, 최소 돌봄 아동 5명 이상(영유아를 원칙으로 함)
 - 필수 조건 : 주2회 이상 공동육아활동과 월정기모임 1회 이상의 회의, 공동육아 활동, 품앗이 육아, 마을주민 참여(공개) 활동, 공동육아 교육 참여(기본 및 심화교육)

< 그림 2-3 > 서울시의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의 추진 개요

공동육아활성화사업(공모) (2012년~)	공동체 컨설팅 지원 (2014년~)	열린 육아방 조성 (2017년~)
· 지원 목표 : 50개 내외 · 지역적 균형을 위한 분배 · 내실 있는 활동 지원	· 사업 계획단계부터 맞춤 컨설팅 · 지역자원과 공동체간 교류지원 · 참여자 역량 교육	· 확충 목표 : 5개소(총16개소) · 공동육아, 부모모임 활동공간 · 리모델링비 지원 · 운영비 지원 - 관리비용(공과금, 보험 등), 관리자 자원봉사 실비, 영유아프로그램비 등

자료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2018년도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 그림 2-4 > 서울시의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의 민·관 협력 추진 체계



라) 민관협력 주민자치형 공동체 방식 ② : 제주도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7월 양성평등기본법의 전면 개정·시행에 맞춰 정부 육아·품앗이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여성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양성평등정책인 ‘제주처럼’을 통해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함

○ 여성가족부의 공동육아나눔터(및 가족품앗이) 사업과의 다른 점

- **추진 방향** : 정부의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의 지향점에 맞춰 사업 초반부터 자발적 공동체 발굴·육성 사업과 공간 조성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지역 돌봄공동체 확산
- **제주도 자체 예산 투입** : 지역 내 가정과 지역사회 연계로 자녀돌봄을 해결하고 다양한 돌봄 방식의 하나인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수눔음육아 공동체 발굴·육성’ 사업 및 ‘제주형 수눔음 육아나눔터’ 구성에 제주도의 자체 예산으로 추진
- **운영 방식** : 5가족 이상 자발적으로 구성된 공동체별로 인근의 수눔음육아나눔터, 놀이터, 오름, 공동체 팀원의 가정집 등에서 부모 재능 나눔으로 기획한 프로그램 실행
- **중간지원조직** : 제주특별자치도는 각 공동체별 활동 공유를 통한 돌봄 공동체간 연결고리를 생성하고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인 2016년 5월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타시도와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공동체 활동을 지원

○ 성과

- 제주도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돌봄 공동체 삼자간 긴밀한 협력관계 효과로 사업 시행 3년차인 2018년 1월에는 여성가족부 주최 가족정책 포럼²⁴⁾에서 나눔터 기반으로 활동한 제주의 돌봄 공동체 활동 팀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발표되어 주목되었음

24)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8). ‘2018년 제1차 가족정책포럼’, 주제: “82년생 김지영” 세대 자녀돌봄과 지역공동체 역할, 일자 및 장소: 2018.1.22.,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2.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가. 국내 사례

1) 은평구의 물푸레 북카페²⁵⁾

□ 품앗이육아를 시작하게 된 배경

- 2008년 12월 맞벌이·독박육아로 힘들고 지친 상황에 공감하는 엄마들이 숲동이 놀이터 활동(생협의 생태보전시민모임에서 하는 숲속자연학교)에 참여하면서 만난 3명의 엄마로 시작된 공동육아 모임이 물푸레 북카페의 전신인 숲동이임
- 즐겁게 아이를 키우며 사회적 관계를 맺고 아이들과 함께 뭘 할까하는 고민을 해소하며 생태적 가치를 공유하고자 시작한 것이 숲 활동 공동육아로 이어진 것임
- ‘물푸레’의 의미에는 가치를 물에 담그면 물이 푸르게 변한다는 물푸레나무처럼 우리 마을을 멋지게 물들여보자는 꿈이 담겨져 있음

□ 숲동이에서 물푸레 북카페까지의 과정

- 첫해에는 단순히 호기심과 기대로 숲 활동도 하고 집집마다 놀러 다니면서 유대감도 생겼지만, 동시에 소소한 갈등도 경험하게 되면서 3년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엄마도 아이도 모두 친숙한 신뢰감이 형성되는 관계로 성장하게 됨
- 이후 자녀들의 성장에 맞춰 영유아기에는 숲동이 놀이터 →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는 방과후 놀이터인 ‘오후의 숲동이’ → 현재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녀들의 엄마들과 함께 마을문화공간 ‘물푸레 북카페’로 발전·성장하며 활동 중에 있음
- 숲동이 활동을 하면서 일상적 품앗이육아 실천
 - 일주일에 세 번 숲 활동을 하며, 엄마들은 달마다 최소 회비를 걷어 비용을 보탬과 동시에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하여 품앗이 육아를 실천하고, 당번에서 제외된 엄마들은 그 시간에 쉬거나 배움의 시간을 갖으면서 개인 역량강화의 기회를 얻게 됨

25) 물푸레 북카페 운영진 대상 인터뷰(2018. 6. 21. 연구진이 직접 수행)결과를 토대로 내용을 정리함

□ 물푸레 북카페 공간 조성 배경

- ‘서울시의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일환으로 은평뉴타운 미분양 상가를 SH공사에서 리모델링하게 되었고, 은평구에서 무상 임대하는 형태로 101호 공간은 북카페로 활용하고 102호 공간은 지역주민의 다목적 모임공간으로 활용하게 됨

□ 물푸레 북카페의 운영 개요

- 운영 대상 : 마을 주민 누구나
- 운영 방향 : 마을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알고 지내며 연결고리가 촘촘해지고 풍요로워지며 함께 배우고 즐겁게 연결되는 마을의 문화 공간 및 일상 돌봄 공간
 - 일상 돌봄 지향 : 방과 후 아이들이 편하게 와서 간식²⁶⁾을 먹을 수 있고, 자원봉사자가 5세~초등 저학년 대상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솜씨를 뽐내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간단한 전시, 작은 공연, 소모임 대관도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
 - 친환경 지향 : 아름다운커피의 공정무역 유기농 원두, 핫초코, 홍차 제품 등을 판매하고 간식류와 가벼운 식사 등의 재료는 모두 친환경 제품을 사용
 - 착한 가격 지향 : 지역사회의 협력과 자원봉사, 재능기부로 이익보다는 공익 우선
- 지역주민 모두의 커뮤니티 공간
 - 내부의 일부 공간은 벽면과 마루 아래 공간을 활용해 어린이 책과 아이들의 교구로 꾸며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편안하게 책을 보기도 하고 교구 놀이도 할 수 있도록 마루바닥 형태로 조성함
 - 이 공간은 아이가 낮잠을 잘 경우에도 잠깐 재울 수도 있도록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었음. 또한 카페 기둥과 기둥 사이 등의 공간마다 책장으로 꾸며 청소년, 여성육아 등 다양한 연령층의 도서들로 채워져 있음

26) 진관동의 ‘신나는 마을 공동부엌’에서도 직장맘들 대신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신청한 아이들에 한해 방과 후 아이들에게 건강한 간식을 제공하는 간식 돌보미를 운영함. ‘신나는 마을 공동부엌’은 서울시의 예산으로 공간을 조성하고 마을 주부들이 모여 공동으로 재료를 구매해 반찬을 만들어 독거노인, 새터민 아이들,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반찬 봉사를 실천하며 먹거리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공간임. 매달 2만원의 회비를 내면 집에서 먹을 반찬을 이곳에서 같이 모여 만들고 나누어 갈 수 있는 돌봄 공간이자 마을의 사랑방과 같은 장소임

□ 물푸레 북카페의 운영 성과

○ 아이를 키우며 더 행복한 엄마로 성장하는 기회 제공

-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단절된 재능들을 나누고 서로를 알게 되면서 한 식구가 되는 친밀한 경험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금 덜 힘들고 조금 더 행복한 엄마로 성장하는 기회 마련

○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한 마을의 문화 공간 조성

- 내 아이, 남의 아이에 대한 구분과 경쟁에서 벗어나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과정을 통해 갈등이나 문제 해결에 대한 모두의 합의된 원칙²⁷⁾을 정하고,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얼굴도 알게 되고 마을 주민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는 마을의 공간으로 활용

< 그림 2-5 > 은평구 진관동의 물푸레 북카페 관련 사진



물푸레 북카페 입구



마루바닥 공간 주변의 아이들 책과 교구



다양한 프로그램 안내



다목적 모임 공간

27) 숲동이 놀이터의 원칙으로는 ① 자유롭게(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되도록 개입하지 않는다.), ② 자연에서(만들어진 장난감은 갖고 오지 않고 자연에서 찾아서 논다.), ③ 함께(서로 다투거나 다치더라도 이해한다.), ④ 느리게(모든 활동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려준다.), ⑤ 엄마도 즐겁게(엄마의 행복이 아이의 행복만큼 중요하다.), ⑥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세상(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로 키운다.) 참고: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2017). 2017년 첫 번째 공동육아포럼 자료집 p.46.

2) 마포구의 소금꽃마을 마더센터²⁸⁾

□ 소금꽃마을 마더센터의 탄생 배경 및 활동

- 소금꽃마을 마더센터는 2014년 10월부터 그림책 철학, 반찬 만들어 나누기, 벼룩 시장, 인형모임, 뜨개모임, 일상 돌봄 등을 하며 마포구 염리동과 대흥동을 중심으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만들게 된 돌봄 공동체임
- 2015년부터는 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에 연속 참여하여 수행했고 현재는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받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음
- 활동 공간은 소금꽃마을네트워크로, 주민과 함께 공공성과 사회성이 있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마을의 거점 공간인 ‘우리동네나무그늘’²⁹⁾을 활용하여 일상 돌봄 등 공동체 돌봄 활동을 하고 있음
- 소금꽃마을 마더센터는 아이들을 함께 키우기 위해 아이와 아이, 어른과 아이, 어른과 어른이 서로 돌보는 마을공동체를 위해 ‘마을 방과후’ TF팀을 꾸리는 등 작고 의미가 있는 마을 돌봄 공동체를 꿈꾸며 운영 중에 있음

□ 소금꽃마을 마더센터의 운영개요

- 회원 현황 : 현재 12가정 정도(조합원 회원 중심)
- 돌봄 형태 : 일상적 자녀 돌봄 및 부모 간 만남
- 돌봄 인력 : 조합원 중 아이를 키우면 일하고 싶은 초등 학부모들 중에서 2~3명의 부모가 주중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고 있음

□ 방과 후 돌봄 운영

- 참가 인원 : 현재 조합원 12가정 외에 홍보를 통해 인원수 확대 가능
- 운영 시간 : 오후 1시 ~ 6시(※ 학교방과 후 시간 고려하여 운영)
- 부모 자부담 : 5만원 ~ 10만원

28) 소금꽃마을마더센터 운영진 중 한 분과의 전화인터뷰(2018. 6. 15. 연구진이 직접 수행)내용 중심 정리

29) ‘우리동네 나무그늘’은 30명이 출자해서 만든 염리동의 대안공간이며 주민 카페와 공유트럭, 재활용가게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임. 이곳은 초등학교 바로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주민들이 함께 재능을 살려 공공성과 사회성이 있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자는 뜻으로 조성한 소금꽃마을 네트워크의 거점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임.

□ 소금꽃마을 마더센터의 운영의 한계

○ 활동할 사람을 모으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 조합원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는 점

○ 마더센터 운영 방향에 대한 구성원 간 갈등

- 조합원 간에 마더센터의 운영과 공동육아 가치 등 차이로 인한 갈등 발생

○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공동체 형성의 어려움

- 조합원의 잦은 이사 등 주거 불안정성으로 인한 도시 공동체 형성 어려움 및 안정된 공동체 활동 공간 확보의 어려움

-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한 공동육아어린이집 운영 중단

- 운영기간 : 10개월 정도 운영

- 중단사유 : 아이들의 3월 입학에 맞춰 공동육아어린이집 개원을 위해 회원별로 출자금과 월 지원금을 내고 공간 확보 및 시설을 갖추 시작했지만 8명 정도의 회원별 큰 비용 부담과 회원 중 이사로 인한 탈퇴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운영 어려움 발생

< 그림 2-6 > 마포구 염리동의 우리동네 나무그늘과 동네 사랑방 관련 사진



마을공동체 가게 위치 안내



물품 판매 공간



마루 바닥의 어린이 공간



염리동 사랑방 역할을 하는 옷가게 모습

나. 국외 사례

1) 일본의 도롭푸(Drop)³⁰⁾

□ 지역의 육아지원 공간 도롭푸의 설립 배경

- 일본의 육아지원 정책은 육아기에 있는 개인과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정책을 넘어서, 앞으로 육아기를 맞이할 예비부모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정책 시행의 주체가 국가 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 특히 2000년 초반 이후에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양육 불안의 해소, 상담, 양육 커뮤니티의 형성, 양육지원, 양육문제의 발견·해결, 양육 의식 만들기, 양육 즐기기 등의 사업을 통해 ‘육아하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지원 사업을 펼쳐왔음
-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에 맞춰 요코하마시 고호쿠구는 2011년 이후부터 어린이·장애인·노인친화적인 지역사회 마을만들기 사업을 꾸준히 시행하였음(손태주, 2016)
- 이런 정책적 환경 속에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인 ‘비노비노’는 자녀를 키우는 엄마가 집에서 혼자 고립되어 육아를 담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초가 되어 민관협력 방식의 양육 지원 사업인 도롭푸를 운영하게 됨
- 도롭푸는 ‘마을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육아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고호쿠구 지역의 육아 지원 거점 공간이며,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의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도롭푸의 운영 개요

- 이용시간 : 화요일 ~ 토요일, 09:00 ~ 16:00
- 이 용 료 : 무료
- 지원인력 : 요코하마 육아지원시스템 사무국의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
 - 자원봉사자 중에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학생 자원봉사자도 활동
- 지원 내용 : 육아 중인 모든 가정 및 육아 지원 관련자들을 위한 서비스
 - 육아 중인 모든 가정을 위한 내용
 - 놀이 공간 : 주로 0세~3세까지의 미취학 아동과 보호자가 교류할 수 있는 공간 제공.

30) 요코하마시 고호쿠의 도롭푸 홈페이지 2018.7.21. 연구자 검색. <http://www.kohoku-drop.jp/>

-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이용하며, 분유와 이유식을 제외한 음식물은 점심시간(12시~13시15분)에만 가능하며, 사용한 아기 기저귀는 부모가 갖고 감
- 육아 고민 및 불안 상담 : 전문 상담원과 상담할 수 있는 날을 설정하고 일상적인 간단한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
 - 육아 정보 제공 : 지역 육아에 관한 각종 이벤트 안내, 유치원·보육원 등 정보 제공
 - **아이를 맡기고 맡는 육아 협력 촉진**(요코하마 육아지원시스템 고히쿠구지부 사업국 운영 사업) : 아이를 맡기고 싶은 분과 맡아줄 분이 회원 등록하여 지역차원의 육아 지원을 추진
 - 육아 지원 관련자 분들을 위한 내용
 - 네트워크 구축 : 육아 중인 분 및 육아 지원 관련자 간 정보 교환 네트워크 구축
 - 연수회 개최 : 육아 중인 분 및 육아 지원 관련자 분 대상의 연수회, 양성강좌 실시

□ 운영 성과

○ ‘다함께 육아’하는 공간

- 지역 내에서 아이를 낳고 길러가며 많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나서 관계를 맺고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누구나 들릴 수 있는 육아 나눔 공간

○ 지역 육아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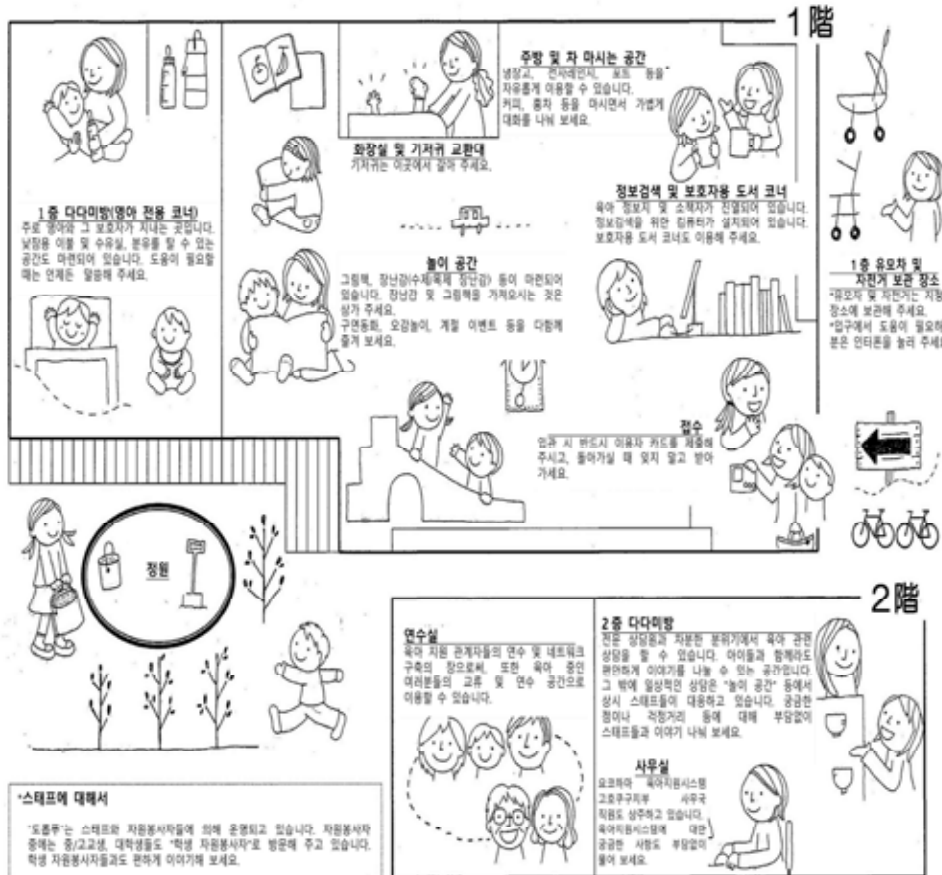
- 육아 중인 모든 가정은 물론 육아 지원 관련자들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내 육아를 보다 풍요롭게 하고 아이를 모든 사람이 함께 키운다는 지역육아공동체 회복

< 그림 2-7 > 일본 고히쿠구의 도롭푸(Drop) 관련 사진



자료: 요코하마시 고히쿠구의 도롭푸 홈페이지 2018.7.21.검색

〈 그림 2-8 〉 일본 고호쿠구의 도롭푸(Drop) 내부 위치도 및 외부 전경



자료: 요코하마시 고호쿠의 도롭푸 홈페이지 2018.7.21.검색

2) 독일의 마더센터

□ 마더센터의 탄생과 특징

- 마더센터는 독일 폴뿌리 여성운동의 결과로, 1980년대 처음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공동체이며, 스토리텔링과 동료 학습 전략을 통한 돌봄 공동체 분야의 모범적인 사례임. 처음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3개의 모델센터로 시작되었음
- ‘아이 하나 키우는 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확산시키며, 지역사회와 함께 해체된 사회적 관계망 회복과 육아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주민자치 모델을 보여주며, 마을 안의 공공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운영되고 있음

□ 운영 철학 : 자조(self-help)와 역량강화(empowerment)

- 마더센터는 직장맘이나 전업맘 모두가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두 가지 원칙인 자조와 역량강화를 원칙이자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자조는 모든 활동이 개인의 자발성과 적극성에 기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
 - 역량강화는 엄마와 여성, 지역주민, 시민사회가 서로의 재능과 강점을 인정하고 도와가며 향상시켜 개인의 행복을 높이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든다는 의미 내포

□ 마더센터의 특징

- 마더센터만의 4무(無) → 4유(有)
 - 수직체계 → 팀 활동
 - 여성 스스로 가진 재능과 경험들 모두 제 가치로 인정받고 만나면서 엄마들은 시간제로 일하고 팀을 꾸려 운영을 살피며 일주일 단위로 만나는 적어도 1년간 유동적인 자조모임 활동을 통해 갈등해소를 위한 적절한 행동과 기술을 배우도록 활동함
 - 시간 제약 → 100개 열쇠
 - 초창기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어 이용자가 적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아이를 데리고 언제나 들릴 수 있고 시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 운영됨
 - 전문가 → 생활전문가
 - 마더센터에서의 전문가는 기존 전문가와 차별화된 생활전문가로서의 평범한 엄마들로서, 모든 일은 엄마들 스스로가 조직하고 기획하며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함

● 재원 → 공적 보조금

- 자금과 공간은 마더센터 운영의 필수조건임. 카페운영, 벼룩시장, 판매와 서비스 등 마더센터 운영비는 연간 8천만원 정도이고, 보조금 없이 운영되기는 어려운 구조임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

- 마더센터는 전통적인 기관 돌봄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카페형의 시간 제약 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이며,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들을 동시에 채울 수 있는 돌봄 및 정보 나눔, 상담, 일자리 등 교류 공간임

□ 운영 성과

○ 지역공동체 회복의 공간으로서의 역할

- 마더센터는 전업맘이나 워킹맘 상관없이 누구나 여러 어려움에 대해 서로 지지와 용기를 주며 안전하게 돌봐주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됨으로써 지역 내 사회적 관계를 활성화하고 마을 기반의 돌봄 공동체 생활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함

○ 가족친화적 공동체 방식의 돌봄 실현

- 마더센터는 지역의 돌봄 공동체 회복으로 인해 아이들, 부모들, 어르신 상관없이 지역 주민 누구나 교류하며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고 서로가 행복을 경험할 뿐 아니라 여성들의 돌봄에 대한 이중부담을 가족친화적인 공동체 방식으로 실현하고 있음

< 그림 2-9 > 독일의 마더센터 관련 사진



사진출처: 문유경·마경희, 2012. '해외출장복명서', p.22, 2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 시사점

1)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방식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앞서 살펴본 국내·외 사례의 공통점은 육아와 돌봄이라는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부모모임에서 시작하여 아이를 함께 키워보겠다는 마을 공동체 방식의 지역 사회 네트워크로 활동이 확장되었다는 것임
- 육아의 어려움은 전업맘이든 직장맘이든 상관없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돌봄 공동체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육아라는 동일한 문제의식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임
- 이런 면에서 제주도의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은 현재 타지자체의 건강가정지원 센터의 가족품앗이사업과는 달리 돌봄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모인 부모들이 함께 육아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의 사회적 돌봄 공동체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김

2) 안정적 돌봄 공동체 활동 공간 확보

- 돌봄 공동체를 위한 활동 공간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과 육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또래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며 부모 이외의 어른들과도 신뢰관계를 쌓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임
- 은평구의 물푸레 북카페와 일본의 도롭푸, 독일의 마더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간에 대한 공적 지원을 통해 돌봄 공동체 활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건물 임대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봄 공동체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임
- 안정된 공간은 돌봄 공동체의 지속적 돌봄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현재 제주도의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 사업은 향후에도 서울시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유(共有) 촉진 조례³¹⁾ 등의 사례에 근거한 민관협력 방식의 지역 내 공유경제 차원의 공간 발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31) 서울시는 공유의 촉진을 위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할 목적으로 2012년 '서울시공유(共有) 촉진 조례'를 제정함

3)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확산을 위한 장기적 공적재원 투자 필요

- 일본의 도립푸와 독일의 마더센터는 모두 아이를 지역에서 함께 키운다는 관점에서 아이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양육친화적사회환경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돌봄 서비스 지원과 운영 방식에서는 두 사례 간에 차이가 있음
 - 일본의 도립푸는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차원에서 요코하마시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거점 육아 공간이면서 담당 상주 인력과 다양한 계층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지역 돌봄 협력 체계, 육아 정보 및 부모 상담과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 이에 반해 독일의 마더센터는 공간과 제반 세금에 대한 공적 지원과 대표 1인 시간제 임금 보장 외에는 지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후원, 공공사업 수행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마더센터 내 지속적 돌봄 공동체 활동을 위한 참여 유인에 대한 고민과 지역공동체 재정자립 등에 대한 향후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임
- 따라서 제주도의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과의 방향성이 유사한 독일의 마더센터 사례의 과제는 향후 제주도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돌봄 공동체 확산을 위한 참여자들의 자조와 역량강화, 공간 운영을 위한 장기적 공적재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임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추진과 한계

- 1. 추진 배경
- 2. 추진 성과
- 3. 추진 한계에 따른 개선점

1. 추진 배경

가. 추진 기반 마련

1) 제도적 기반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면 개정·시행
 - 2007년 제정되어 그동안 제주도 여성정책의 근간이 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면 개정·시행됨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2015.12.31.제정)는 “정치·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지사의 책무 및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일과 가정생활 병행 및 아동양육·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법적 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2.6.11.제정)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 환경으로 “가족친화기업” 및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을 동시에 명시하고 있음

2) 민관 거버넌스 구성

-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조
 - 목적 :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제적이고 강력한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기능 수행
 - 구성 : 총 34명(위촉직 20명, 당연직 14명) 3개 분과 즉, 일가정·일자리 분과, 성평등·인권 분과, 돌봄·소통·상생 분과로 구성하여 운영함. 제주지역의 수놓음육아 관련 사업의 심의·조정은 돌봄·소통·상생 분과에서 담당함
 - 향후, 제주도정의 성평등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기능 수행 내실화 필요

3) 지역 여성가족정책 전문연구기관 설립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13.9.25.)을 근거로 2014년 3월 개원
- 2014년부터 제주 여성·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정책, 성 주류화, 가족, 돌봄, 일자리,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 및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제주특별자치도 위탁)와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여성가족부 위탁) 등 정책추진 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 계획 수립

□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5~2017)」 수립

- 중앙정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고려하여 그간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정책 계획을 4년마다 수립되었던 것과 달리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3개년 계획으로 수립함
- 6개의 정책영역은 양성평등정책 기반정비와 촉진, 여성폭력 근절과 안전사회 구축, 돌봄과 일·가정 양립 기반 강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여성·가족의 복지와 건강 증진,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며, 이에 따른 15개 정책과제를 제안함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근거,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세부 시행 계획 수립

- 「양성평등기본법」(제7조~제8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함

다.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 수립 및 추진

1) 추진방향 및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을 근거로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고, 가족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을 발굴하여 프로젝트로 추진함

□ 추진개요

- 추진 절차 : ‘2015 제주지역 여성정책 수요조사’(제주여성가족연구원, ‘15.3~7월) → 도민 제안 및 의견 접수(437건) : (1순위) 육아문제 해결, (2순위) 가족지원 프로그램, (3순위) 일자리 창출 → 현장방문, 분야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 분석 → 정책발굴 지원팀(전문가·정착인사 그룹, 공무원 주니어보드) 제안·토론 → 압축된 정책과제에 대해 전문가 자문 추진 → 우선순위 ‘4대 핵심과제’ 도출
- 추진기간 : 2015년 ~ 2018년(3개년)
- 소요예산 : 402억원³²⁾(‘15년 18억원, ‘16년 94억원, ‘17년 133억원, ‘18년 173억원)
- 추진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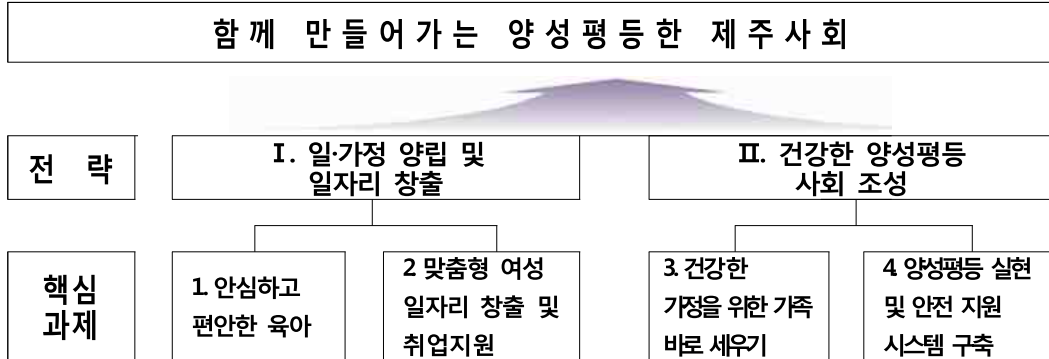
2) 비전과 전략

-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한 제주사회”를 비전으로 2개 전략 및 4개 핵심과제 제안
- 수놓음육아 관련 사업은 ‘안심하고 편안한 육아’ 핵심과제 설정에 따른 세부과제³³⁾ 중에서 3개의 과제가 있음. 구체적으로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제주형 수놓음육아 나눔터」,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사업이 해당됨

32) ‘18년 조정된 예산임(참고: 2018.6.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제주처럼’ 자료)

33) ‘안심하고 편안한 육아’ 핵심과제의 6개 세부과제는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제주형 수놓음육아나눔터,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제주 여성·가족 종합정보망 구축, 저출산 극복 대응 사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임. ‘15년 당초 세부과제였던 ‘바로보육어린이집 운영’ 사업은 2016년 7월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긴급보육 바우처 등)시행으로 폐지함

〈 그림 3-1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리의 전략 및 핵심과제



3)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추진 동력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설치·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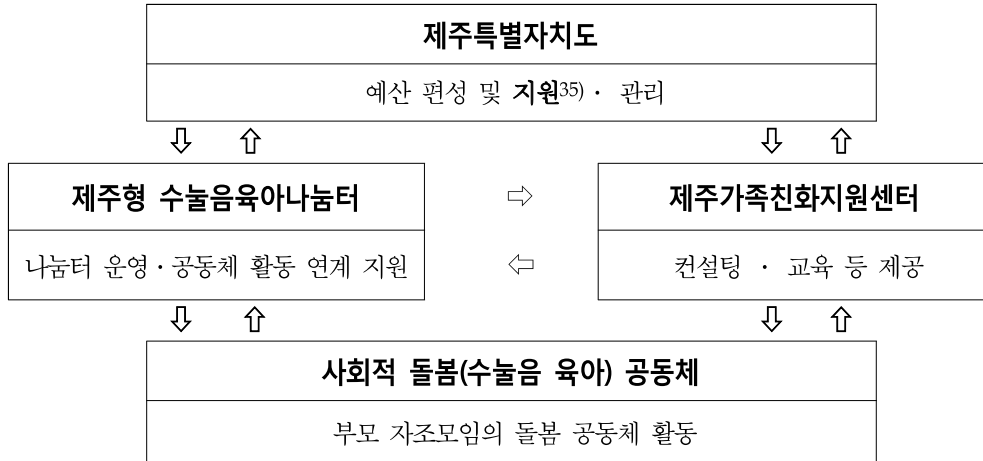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2016.5.20.개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가정 양립의 차원을 넘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의 큰 틀에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함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사업 및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사업 등을 통하여 제주지역의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기여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위탁 운영 : 위탁기간(3년) 2016. 3. 24~ 2018. 12. 31.
- 조직 및 인력 : 센터장 1명³⁴⁾, 팀장 1명, 팀원 2명

□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추진 체계 마련

- 그간의 행정 중심 정책 수행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주민(나눔터 운영진 및 공동체 팀) 간 긴밀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추진체계 마련함

34) 당초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겸직→18년 2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겸직으로 변경

〈 그림 3-2 〉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추진 체계



□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2016년 5월 개소 이후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확대 등에 따른 사업은 증가추세이나 실무 인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 관련 팀장 1명, ‘가족친화 지역 환경’ 관련 팀원 1명, 독립채산제 운영에 따른 ‘회계 등 업무’ 관련 팀원 1명, 총 3명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많음
- 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제주지역 가족친화 정책의 방향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위탁기관인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2018년 2월부터 연구원 본연의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 손실을 감수한 채, 그동안 센터의 총괄 업무를 맡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센터장 겸직체제를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겸직으로 변경하여 센터 총괄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 뿐 아니라 공기관업무대행사업에 대해 관련 행정 부서와 위탁기관 간에 위탁 업무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고, 제주도정의 전반적인 가족친화사업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방향성이 마련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35)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사업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 초기의 2016년~2017년도 까지 예산집행 및 사업 정산을 했지만, 보조금집행기준에 따른 경직된 회계처리 및 서류 등 행정 처리 어려움에 대한 돌봄 공동체 참여 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2018년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산 집행을,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예산 지원 및 사업 정산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됨

- 앞으로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의 기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량 증가 및 위탁 사업 변화에 따른 인력 보강 및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관련 행정부서와의 명확한 역할 정립 및 민관협력 협의회 구축 등 제주 도정의 가족친화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임

〈 표 3-1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현황(2016~2018)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예산액(천원)	200,000 (민간위탁사업비)	300,000 (공기관대행사업비)	550,0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사업비(천원)	47,320	137,662	350,000
실무 인력(명)	3	3	3
(센터장 제외)	팀장 1, 팀원 2	팀장 1, 팀원 2	팀장 1, 팀원 2

주: * 2016년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기간 : 2016. 5. 20 ~ 12. 31(약 7개월)

2. 추진 성과

가.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개요

1) 사업 목적

- 공적 돌봄 서비스 한계 극복을 위한 가족 및 이웃 간 돌봄 공동체 문화 활성화
- 지역 중심의 돌봄 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 및 사회적 돌봄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 추진 근거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 프로젝트

2) 추진 개요

□ 제주형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 사업

- 추진 현황 : 20개소(제주시 13개소, 서귀포시 7개소, '17.12.기준)
- 설치 장소 : 마을회관, 복지관, 아파트 등 지역 유휴공간
 - 공간확보 33㎡(10평) 이상(최소 5년간 운영 유지 담보)
- 추진 방식 : 공모를 통해 대상지 발굴, 선정

- 운영 주체 : 수놓음육아나눔터를 운영하려는 마을회, 비영리단체 등
- 지원 내용 : 1개소당 5,600만원(공간조성비 5,000, 운영비 600/연간)
- 운영 관리 : 민관협력 주민자치방식의 나눔터별 자율 운영 관리

□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사업

- 추진 현황 : 55개 공동체 팀(기본사업 49개 공동체 팀, 특화사업 6개 공동체 팀)
- 지원 대상 : 5가족 이상의 부모 자조모임(특화사업 : 5가족 이상의 주민모임)
- 활동 내용 : 일상의 돌봄 공동체 활동 및 모임 지원(특화사업 : 지역연계 돌봄 활동)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2만원(특화사업 : 공동체 사업별 500만원)
- 추진 방식 : 공모를 통해 공동체 발굴, 선정

< 그림 3-3 >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추진 개요

제주형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 사업 (2016~2018년)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2018년 기준)
· 현황('17.12.) : 20개소 · 장소 : 마을회관, 복지관, 아파트 등 지역 유휴공간 · 자격 : 나눔터를 운영하려는 마을회, 비영리단체 등 · 지원 : 1개소당 56백만원 (공간조성비 50백만원, 운영비 6백만원/년) · 방식 : 공모를 통해 대상지 선정	① 기본 사업 : 49개 공동체 팀 · 대상 : 5가족 이상의 부모 자조모임 (자녀연령 : 만0세~초등 6학년) · 내용 : 일상의 돌봄 공동체 활동 및 모임 지원 · 지원 : 자녀 1인당 2만원 · 방식 : 공모를 통해 선정, 사업비 지원 ② 특화(지역사회연계)사업 : 6개 공동체 팀 · 대상 : 5가족 이상의 주민모임 · 내용 : 지역사회 연계한 돌봄 공동체 활동 지원 · 지원 : 사업별 500만원 · 방식 : 공모를 통해 선정, 사업비 지원 ③ 커뮤니티지원 사업 : 10개 수놓음육아나눔터 · 대상 : 수놓음육아나눔터 · 내용 : 나눔터 내 모임, 돌봄 공동체 팀 활동 지원 · 지원 : 나눔터별 50만원 · 방식 : 공모를 통해 선정, 사업비 지원
↓	
· 조성 유형 : 민간형, 복지관/마을회 등 공공형 · 운영 관리 - 민간형 : 주민자치형 공동체의 자율 운영 관리 ※ 운영진은 공동체 팀의 리더 또는 팀의 구성원임 (20개 나눔터 중 4개 나눔터) - 공공형 : 복지관 등 기관의 담당자 중심으로 관리	

□ 수놓음육아나눔터 및 사회적 돌봄(수놓음 육아) 공동체 팀 분포 현황

〈 그림 3-4 〉 수놓음육아나눔터 및 사회적 돌봄 공동체 팀 분포 현황('17년 12월 기준)



□ 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 공간 확보 및 지역 연계 네트워크 체계 마련

- 2017년 12월 기준 사회적 돌봄 공동체 팀의 활동 지역을 보면 수놓음육아나눔터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새로운 수놓음육아나눔터 공간 발굴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돌봄 공동체 활동 팀은 있지만 나눔터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공공기관 및 자생 단체 등과의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휴공간의 발굴 및 인센티브 지원 방안 필요

나. 사업의 추진 성과

1) 제주형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운영

□ 추진 개요

- 사업 목적 : 자발적 돌봄 공동체 활동을 위한 소통 공간 및 자녀 양육 정보공유
- 운영주체 : 수놓음육아나눔터를 운영하려는 단체 또는 주민모임

□ 추진실적

○ 제주도내 수놓음육아나눔터 공간 조성 및 운영

- 2017년 기준 총 20개소 조성·운영 : '16년 10개소 → '17년 10개소

〈 표 3-2 〉 수놓음육아나눔터 운영 현황(2016~2017년)

구분	운영 주체	지역	운영 시간	주요 운영 프로그램 (‘18.7.기준)
1호점	삼화2차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화북동 (제주시)	· 월요일~일요일 09:00~20:00	· 공동체 팀별 프로그램 운영 (현재 기준, 5개 공동체 팀) · 마을밥상, 우크렐라, 엄마표 창의미술/요리/체육 활동 등
2호점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도지회	연동 (제주시)	· 월/수/금요일 08:00~17:00 · 화/목요일 08:00~20:00 · 토요일 08:00~13:00	· 레고교육, 베이비마사지 등
3호점	제주영락종합 사회복지관	일도2동 (제주시)	· 월요일~금요일 09:00~17:30	· 동화구연, 아동요리교실 등
4호점	제주시건강가정지 원센터	삼도2동 (제주시)	· 월요일~토요일 09:00~18:00	· 월별 프로그램 다르게 운영 · 부모힐링타임(요가), 요미요미 퍼포먼스미술, 편엔집 놀이체 육, 요리교실, 오감놀이 등
5호점	아이좋아라 작은도서관	성산읍(신산) (서귀포시)	· 월요일~토요일 10:00~21:00 · 일/공휴일 10:00~19:00	· 미술놀이, 영어 독서캠프 등
6호점	동부종합 사회복지관	성산읍 (서귀포시)	· 월요일~금요일 10:00~19:00 · 토요일 10:00~15:00	· 방학 중 돌봄, 퍼포먼스 미술 활동 등
7호점	제주YWCA	연동 (제주시)	· 월요일~금요일 09:00~17:00	· 단동심훈 도리도리 잼잼 등
8호점	제주순복음종합사 회복지관	건입동 (제주시)	· 월요일~금요일 09:00~17:30	· 미술심리치료 등
9호점	서부종합사회 복지관	한림읍 (제주시)	· 월요일~금요일 10:00~17:00 · 토요일 10:00~16:00 (10명이상 신청 시)	· 오감놀이, 공예 프로그램 등
10호점	동제주종합 사회복지관	구좌읍(평대) (서귀포시)	· 월요일~금요일 09:00~18:00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프로그 램 지원, 운영
11호점	서귀포서부종합사 회복지관	대정읍 (서귀포시)	· 월요일~금요일 10:00~18:00 · 토요일 10:00~15:00	· 오감발달·도리도리 잼잼 · 놀이체육, 창의독서, 부모교육
12호점	은성종합사회 복지관	아라동 (제주시)	· 월요일~금요일 09:00~18:00 · 토요일 09:00~17:00	· 부모교육, 오감놀이

구분	운영 주체	지역	운영 시간	주요 운영 프로그램 (‘18.7.기준)
13호점	서귀포동홍아파트 2단지관리사무소	동홍동 (서귀포시)	· 월요일~금요일 10:00~18:00	
14호점	서귀포시 혁신LH2단지청년회	대륜동 (서귀포시)	· 월요일~금요일 15:00~18:00 · 토요일~일요일 10:00~18:00 · 공동체 팀 활동 18:00~21:00	·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 리얼숲체험, 바다학교 · 아이스영화방, 수놓음체육관
15호점	조수1리마을회	한경면 (제주시)	· 월요일~금요일 10:00~18:00 · 토요일 10:00~18:00	· 주말 프로그램 운영 · 오감쑥쑥 발달놀이, 재미있는 요리교실, 스스로 만들어 좋아, 자연관찰 등
16호점	대륜교회	대륜동 (서귀포시)	· 월요일~금요일 10:00~18:00 · 토요일 10:00~15:00	· 10개 소그룹 공동체팀 활동 · 필요시 단기 프로그램 운영 · 엄마표 영어모임, 어린이집 미 이용 자녀육아 활동, 건강반찬 공유, 12개월 미만자녀 활동 등
17호점	제주삼화LH3차 관리사무소	삼양동 (제주시)	· 예약제로 운영 ※ 상시 관리자 없음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프로그 램 지원, 운영
18호점	서귀포 동홍3아파트 관리사무소	동홍동 (서귀포시)	· 월요일~금요일 10:00~18:00	
19호점	참꽃작은도서관	오라동 (제주시)	· 예약제로 운영 ※ 상시 관리자 없음	
20호점	함덕에덴빌리지2차주 민자치회	조천읍 (제주시)	· 월요일~금요일 10:00~20:00	· 필요시 단기 프로그램 운영 · 엄마와 함께하는 미술놀이, 요 리수업, 캘리그래피, 요가 등

□ 사업평가 및 개선방향

- 수놓음육아나눔터는 살고 있는 지역의 일정한 장소에서 같은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부모들의 돌봄 활동을 위한 지역 거점 육아 사랑방으로 확산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나눔터의 운영·관리는 상시 관리인력 없이 민관협력 방식의 자율 운영형태로 관리되고 있음. 이로 인해 운영진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낼 수밖에 없어서 그에 따른 책임 부담과 피로도가 높아짐
- 또한 나눔터마다 공간 이용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인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 공간 이용률 편차 발생은 물론 새로운 나눔터 공간 발굴의 어려움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생겨나고 있음
- 향후 안정적인 수놓음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민관협력 수탁기관의 무보수

자율 운영 참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참가자 대상으로 수요자가 많은 시간대별 희망자를 모집·선정한 후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나눔터 운영 활동가의 시간과 에너지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의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 또한 지역사회 내 공유경제의 측면에서의 방과 후 시간이나 야간, 주말에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다각적 인센티브 제공 등 유도 방안도 요구됨

〈 표 3-3 〉 제주형 수놓음육아나눔터 운영비 지원 내용

구분		제주형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	서울특별시 공동육아 활성화사업 (열린 육아방 조성)
운영비	지원금액	· 연간 6백만 원 이내	· 개소 당 월 50만원
	지원내용	· 관리비용 :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 프로그램 운영비 등	· 관리비용 : 공과금, 보험 등 · 관리자 지원봉사 실비 · 영유아프로그램비 등

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공고 자료 및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자료(제주도/서울시 홈페이지 검색)

2) 사회적 돌봄(수놓음 육아) 공동체 발굴·육성

□ 추진 개요

- 사업 목적 : 자발적 돌봄 공동체 활동을 통한 돌봄 어려움 해소 및 공동체 회복
- 활동 장소 : 공동체 구성원의 가정집, 오름, 학교 운동장, 도서관, 나눔터 등 활용
- 활동 방식 : 공동체 팀 내 부모들과 지역의 자원 연계로 재능 및 돌봄 나눔 진행
- 활동 횟수 : 공동체 팀별 주 1회 ~ 월 2회 등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 횟수 다름

□ 추진실적

○ 사회적 돌봄(수놓음 육아) 공동체 발굴·육성

- '16년 18개 공동체 팀 95가족·319명 참여 → '17년 37개 공동체 팀 257가족·881명
(누적 352가족·1,200명) 참여 → '18년 49개 공동체 팀³⁶⁾ 365가족·1,111명(누적
717가족·2,311명) 참여

36)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공모사업 중 기본사업 참여 팀 수입. 2018년 공모사업은 기본사업(49개팀 선정) 및 특화사업(6개팀 선정)으로 구분하여 진행함. 특화사업의 경우는 참여 대상이 지역 내 참여 가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의 가족이므로 정확한 참여 가족 수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외함

〈 표 3-4 〉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사업 참여 공동체팀 현황(2016-2018)

(단위: 공동체 팀)

돌봄 공동체		2016년	2017년	2018년
신규 참여		18	26	34
연속 참여	'16-'17(2년)	-	11	-
	'17-'18(2년)	-	-	12
	'16-'18(3년)	-	-	3
참여 공동체 팀 합계		18	37	49 ※ 특화사업 6개 공동체 팀 제외
참여 가족 수 합계 (참여 인원 수)		95가족(319명)	257가족(881명) ※ 누적 352가족/1,200명	365가족(1,111명) ※ 누적 717가족/2,311명

주: 2018년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사업 중 '기본사업'을 제외한 '특화사업'의 경우에는 참여 대상이 지역 내 참여 가족을 포함하여 불특정다수의 가족이므로 정확한 참여 가족 수 산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기본사업 참여 팀만 산정함

○ 제주 지역 내 지속적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확산

- 변화 추이 : 2016년 6개 지역 → 2017년 7개 지역 → 2018년 9개 지역으로 확산

〈 표 3-5 〉 제주도내 사회적 돌봄 공동체 팀의 활동 지역 변화 추이(2016-2018)

연 도	합계 (곳)	제주 시동	한림 읍	애월 읍	구좌 읍	조천 읍	서귀 포동	대정 읍	안덕 면	남원 읍	성산 읍	표선 면
'16	6	•		•			•			•	•	•
'17	7	•	•	•			•	•		•	•	
'18	9	•		•	•	•	•	•	•	•	•	

주: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은 사회적 돌봄(수놓음육아) 공동체 팀 없음

○ 2018년부터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및 회계 교육, 정산 컨설팅 지원

- 2018년부터는 공동체 참여 팀들의 행정서류 작성 및 보조금 시스템 사용 등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사업의 예산 집행과 평가 등의 업무를 제주가족친화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집행기준을 변경하고 추진하게 됨
-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는 지역별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7회, 92명 참석)와 오리엔테이션(2회) 등을 추진하여 사업계획서 작성법, 예산 집행 방법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과 궁금증에 대해 설명하고 홍보하는 기회를 제공함

□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사업의 집행 기준 변화 추이

- 집행 주체 : ('16~'17년)제주특별자치도 → ('18년)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 사업 공고 및 협약 체결 : ('16~'17년)제주특별자치도 → ('18년)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 사업 정산 및 평가 : ('16~'17년)제주특별자치도 → ('18년)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 컨설팅 지원 : ('16~'18년)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 집행 기준 : ('16~'17년)제주도 보조금집행기준→('18년)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집행기준
- 자녀 기준 : ('16년)만0세~초등3학년 → ('17년)만0세~초등6학년(단, 3학년 이하 자녀 수가 50%이상 차지) → ('18년)만0세~초등6학년
- 신청 자격 : ('16년)3인 이상의 부모자조모임 → ('17년)5인 이상의 부모자조모임
(※보조금심의위원회 제안사항 반영) → ('18년)5인 이상의 부모 자조모임

□ 사업평가 및 개선방향

- 사업 운영 3년차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서류와 회계처리와 같은 행정처리의 어려움 등 다양한 요구들이 표출되어 이를 개선하고, '18년부터는 서류 간소화 및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여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 및 인식확산에 기여함
- 그러나 사업시행 이후 돌봄 공동체 사업에 참여했다가 중단한 전체 26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중단사유를 조사(중복응답)³⁷⁾한 결과, 회계 처리 어려움(7팀), 공간 확보 어려움(4팀)·참여부모 취업(4팀), 구성원 간 갈등(2팀) 순으로 응답함
 - 특히 구성원 간 갈등에 대한 세부 의견을 살펴보면, 수동적 참여자로 인한 대표 제안자의 업무편중으로 인해 공동육아 활동을 그만 둔 것으로 응답하였고, 신청 기준이 3가족에서 5가족으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구성원을 찾지 못해 포기한 팀도 있음
- 이는 제주도의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과 달리 사업 초기인 2016년도부터 매년마다 지원 한도액, 집행기준, 신청자격 등 명확한 기준 없이 추진되어 온 것과 동일 맥락에서의 문제라고 판단됨
-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업의 미래 지향점에 맞는 체계적 지원방안 필요함
 - 예산집행 공동기준 및 세부기준 마련 및 올바른 사업 이해를 위한 사전 상담제 필요

37) 조사대상 : '16~'17. 제주도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에 참여했다가 중단한 전체 26개 공동체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 '18.5.15~6.4일간, 메일·문자·면접 등 조사(응답율 53.8%)

〈 표 3-6 〉 제주도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사업의 집행기준 변화 추이(2016~2018)

구분	제주도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사업	서울특별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 주체	(‘16~‘17년)제주특별자치도 (‘18년)제주특별자치도	(‘16~‘18년)서울특별시
사업 공고	(‘16~‘17년)제주특별자치도 (‘18년)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16~‘18년)서울특별시
상담 접수	(‘16~‘17년)제주특별자치도 (‘18년)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16~‘18년)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
협약 체결	(‘16~‘17년)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체 (‘18년)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 공동체	(‘16~‘18년)서울시 자치구 ↔ 공동체
컨설 팅	(‘16~‘18년)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 공동체	(‘16~‘18년)컨설팅지원단(위탁) ↔ 공동체
정산 평가	(‘16~‘17년)제주특별자치도 (‘18년)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16~‘18년)서울시 자치구/서울시
지원 금액	(‘16년)공동체별 800만원 한도 (‘17년)공동체별 700만원 한도 (‘18년)자녀 1인당 월20,000원 지원	(‘16년)300만원~4,000만원 (‘17년)350만원~1,000만원 (‘18년)350만원~1,000만원
신청 자격	(‘16년)3인 이상 공동명의 (‘17년)5인 이상 공동명의(*보조금심의위원회의견반영) (‘18년)5인 이상 공동명의	(‘16~‘18년)3인 이상 공동명으로 제한
자녀 연령	(‘16년)만0세~초등3 (‘17년)만0세~초등6(모임의 3학년 이하 자녀수 50%이상) (‘18년)만0세~초등6	(‘17년)돌봄아동 5명 이상(영유아 50% 이상) (‘18년)돌봄아동 5명 이상(영유아원칙)
집행 기준	(‘16~‘17년)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집행기준 (‘18년)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집행기준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사업 집행 기준 · 서울특별시 공동체 표준 운영규칙 제시 - 목적, 회원가입 및 탈퇴, 정기회의 등 - 주2회 이상 공동육아활동, 월1회 이상 정기회의 실시 등 필수 기준 제시
추진 근거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제주처럼’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2.3.15.제정) - 총칙, 계획, 마을만들기위원회, 종합지원센터 등 내용 및 - 제10조의2(지원사업 선정) - 제12조(사업비의 환수) - 제15조(위원회 구성):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조항에 따라 구성 - 제27조(마을공간의 설치·운영) 명시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2012.12.31.제정) - 목적, 정의, 공유 촉진정책, 위원회 등 내용

주.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내부자료 및 서울시, 법제처 홈페이지 검색

3. 추진 한계에 따른 개선점

가. 안정적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입법화

- 공동체 활동의 거점역할을 하는 공간의 불안정성은 공동체의 결속을 저해요소로 작용(조막래·김한별, 2015)한다는 점에서 공동체 활동을 위한 거점공간 확보는 중요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16년부터 수놓음육아나눔터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공동체 수요에 따른 공간 확보 어려움, 나눔터별 공간 이용률 편차 발생, 다양한 연령대가 통합적으로 이용하기에는 공간규모의 한계 등 다양한 어려움 요소가 발생함
- 민선 6기와 민선 7기 도정 공약에 맞춰 2단계로 추진할 계획에 있는 수놓음육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서울시³⁸⁾와 같이 마을공간의 설치·운영이나 자원 공유(共有)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의 제·개정 등 제도화과정을 거쳐야할 것임
- 만일 관련 조례의 제·개정 없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도지사가 교체되면 언제든지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김찬동, 2015)에서 향후까지 수놓음육아 사업을 통한 지역 내 돌봄 공동체가 지속가능성이 있게 하려면 입법화 과정은 필요할 것임

나. 지원기준, 컨설팅, 교육 등 체계적 공동체 활동 지원 체계 마련

- 사업 운영 3년차에 접어들면서 공동체별 활동은 회원 참여정도, 소통구조, 역할분담 정도 등이 얼마나 친밀하게 자주 만나는 지에 따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특히 돌봄 공동체 활동 중단 팀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단사유 조사 결과를 보면, 수동적 참여자 등으로 인해 대표제안자가 소진되어 품앗이육아 활동의 지속성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원기준 등의 변동으로 포기한 경우도 있었음

38) 서울시는 지역 자원 활용 및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2.3.15.제정)(제27조 마을공간의 설치·운영) 및 '서울특별시 공유(共有)촉진 조례(2012.12.31.제정)(제2조 정의, 제5조 공유 촉진정책, 제8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등)를 제정·시행함

- 주민참여 사업의 경우는 행정 관료제의 최소한의 예산 집행 기준 등 기준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참여자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만약 이에 따른 역량이 부족하다면 참여 주민 대상의 교육 지원과 자문, 컨설팅 등이 필요할 것임
- 향후에는 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위해 우선 일관성 있는 사업의 지원기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컨설팅지원단 운영을 통해 구성원 간 연결고리를 강화하여 결속력을 증진시키고 지속적으로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활동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체계적인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의 기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량 확대에 따른 인력 보강 등 운영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강화

- 마을공동체사업의 성패여부는 사업을 운영 관리하는 방식이 행정 중심에서 행정 공무원, 주민, 중간지원조직 간에 민관협력으로 전환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자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김찬동, 2015)
- 즉, 지역사회 내 마을공동체가 형성되고 이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할 것임
- 지역 내에서의 수놓음육아 공동체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들 간의 소통과 동시에 수놓음육아나눔터 운영진 등과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회적 돌봄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마을 안에서의 돌봄을 넘어 마을의 관심 의지를 확장하고 공동체 활동을 확장시키는 경험은 향후 사회적 돌봄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체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에 관련이 있는 다양한 주체들 간에 원활한 네트워크 형성 활동이 필요할 것임

제 4 장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공동체 사업 운영 실태와 시사점 :면접조사결과

1. 면접조사 개요
2.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참여 경험
3.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성과와
시사점

1. 면접조사 개요

가. 면접조사 개요

○ 이해당사자별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표 4-1 〉 면접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 참여 특성(지역, 참여기간, 참여유지 등)별 돌봄 공동체 참여자, 수놓음육아나눔터 수탁기관 담당자 및 공간 발굴 관련 공공·민간기관 관계자, 돌봄 공동체 관련 활동가·전문가 등 총 77명 ³⁹⁾ (공동체 51명, 나눔터 및 공간관련자 19명, 전문가 및 활동가 7명)			
조사 내용	● 이해당사자별 세 개의 내용, 즉 지원사업의 참여경험, 성과, 정책요구 등으로 질문			
	● 이해당사자별 질문 요지			
	구분	돌봄 공동체 참여 팀	수놓음육아나눔터 및 공간 발굴 관련 기관 담당자	활동가 및 전문가 등
	일반 사항	지역, 연령, 참여시기, 지속여부, 자녀연령 등	연령, 담당기간, 공동체 관련 사업 경험 여부 등	연령, 참여기간, 담당업무 등
	참여 (운영) 경험	· 공동체 참여 팀 대상 - 팀 구성 경로, 활동유형 - 역할분담, 갈등요소 등 · 공동체 중단 팀 대상 - 중단사유 등	· 수놓음육아나눔터 담당 대상 - 운영위원회 운영 및 지원인력 여부, 어려움 등 · 공간 발굴 관련 기관 담당자 - 돌봄 공동체 사업의 인지여부, 공동체 활동 공간 사용에 대한 요청/수용여부 등	· 컨설팅지원단 활동가 대상 - 운영사례, 업무분장 및 컨설팅단 구성, 유형, 유의사항 등 · 돌봄 공동체 운영진 대상 - 참여동기, 배경, 갈등경험, 어려움 및 제언 등 ·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대상 - 업무조직 및 제주도의 사업 추진 시 해야 할 사업업무 등
	참여 (운영) 성과	참여에 따른 가족경험 변화, 연속참여에 따른 변화 등	담당자의 자체평가 및 개선사항 등	· 컨설팅지원단 활동가 대상 - 운영사례 및 개선사항 등 · 돌봄 공동체 운영진 대상 - 프로그램 운영 등 ·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대상 - 우수사례 등
정책 요구	행정 및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한 정책 요구 등			제주도 사업을 위한 제언 등
조사 방법	● 녹음 및 녹음에 대한 민감함을 고려하여 면접자 손 기록 병행 내용 기록			
	● 공동체 참여를 중단한 26개 팀 대상으로는 전화, 메일, 문자 등 조사 병행 실시			
조사 기간	● 2018년 4월 13일 ~ 7월 31일, 2명의 연구자가 직접 면접조사 수행함			

39) 공동체 참여 팀별 다수 인원이 참석한 경우에도 공동체 팀별 1명으로 선정함

나. 이해당사자별 면접 대상자

1) 전체 면접 대상자의 기본 현황

- 이해당사자별 면접 대상자는 전체 77명이고, 이 중에서 돌봄 공동체 팀은 51명(여성 49명, 남성 2명, 제주시 32명, 서귀포시 19명), 수놓음육아나눔터 및 공간 발굴 관련 공공·민간기관의 담당자는 19명, 공동체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는 7명으로 구성됨
- 면접 대상자의 수는 편의상 공동체 팀별 대표 제안자 혹은 기관 담당자 외에 다수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어도, 돌봄 공동체 팀별 대표 리더 혹은 기관 대표 1명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단순 명수로 표기함

〈 표 4-2 〉 전체 면접조사 대상자의 기본 현황

(단위: 팀, 명)

구분		돌봄 공동체 참여 팀							나눔터 및 공간 발굴 관련자	공동체 관련 활동가 등
		지역별		성별		지속 참여 여부				
						지속 참여팀	신규 참여팀	중단 참여팀		
제주시	서귀포시	남	여	지속 참여팀	신규 참여팀	중단 참여팀				
합계	77	32	19	2	49	15	33	3	19	7
소계		51							19	7

주: 공동체 관련 활동가 및 전문가는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본 장의 분석 내용에는 제외하였음

2) 돌봄 공동체 참여 팀 면접 대상자의 기본 현황

- 돌봄 공동체 참여 팀의 면접 대상자는 총 51명(팀)임. 지속 참여별로 살펴보면, 사업에 지속 참여한 공동체 팀은 15팀(3년 지속참여 3팀, 2년 지속참여 12팀), 신규 참여 공동체 팀은 33팀, 참여 중단한 팀·미참여 팀은 3팀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2명, 여성 49명으로 돌봄 공동체 팀의 리더들은 여성(96.1%)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표 4-3 〉 돌봄 공동체 참여 팀별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사례	지역	참여 연도	성별	연령	면접일
1	제주	'16.~'18.(3년 참여)	여성	30대	4.20
2	제주	'16.~'18.(3년 참여)	여성	40대	4.21
3	제주	'16.~'18.(3년 참여)	여성	40대	4.14

사례	지역	참여 연도	성별	연령	면접일
4	제주	'17.~'18.(2년 참여)	여성	40대	5.16
5	제주	'17.~'18.(2년 참여)	여성	40대	4.27
6	제주	'18.(신규 참여)	여성	40대	4.28
7	제주	'17.~'18.(2년 참여)	여성	30대	5.11
8	제주	'17.~'18.(2년 참여)	여성	40대	4.13
9	제주	'16.~'17.(참여 중단)	여성	30대	5.15
10	제주	'17.~'18.(2년 참여)	여성	30대	4.14
11	제주	'17.~'18.(2년 참여)	여성	40대	4.20
12	서귀	'17.~'18.(2년 참여)	여성	40대	5.10
13	서귀	'17.~'18.(2년 참여)	여성	40대	6.09
14	서귀	'17.~'18.(2년 참여)	여성	30대	5.17
15	서귀	'17.~'18.(2년 참여)	여성	30대	5.19
16	서귀	'17.~'18.(2년 참여)	여성	40대	5.09
17	제주	'18.(신규참여)	여성	40대	5.26
18	제주	'18.(신규참여)	여성	30대	5.11
19	제주	'18.(신규참여)	여성	40대	4.28
20	제주	'18.(신규참여)	여성	40대	4.27
21	제주	'18.(신규참여)	여성	30대	5.18
22	제주	'18.(신규참여)	여성	30대	5.26
23	제주	'18.(신규참여)	여성	40대	4.28
24	제주	'18.(신규참여)	여성	30대	5.11
25	제주	'18.(신규참여)	여성	30대	5.19
26	제주	'16.(참여 중단)	여성	30대	5.15
27	제주	'18.(신규참여)	여성	30대	5.18
28	제주	'18.(신규참여)	여성	30대	5.18
29	제주	'18.(신규참여)	남성	30대	5.16
30	제주	'18.(신규참여)	여성	40대	5.12
31	제주	'18.(신규참여)	여성	40대	5.15
32	제주	'18.(신규참여)	남성	30대	4.14
33	제주	'18.(신규참여)	여성	40대	5.18
34	제주	'17.~'18.(2년 참여)	여성	30대	6.01
35	서귀	'18.(신규참여)	여성	40대	5.10
36	서귀	'18.(신규참여)	여성	40대	4.21
37	서귀	'18.(신규참여)	여성	30대	5.29
38	제주	'18.(신규참여)	여성	40대	5.16
39	서귀	'18.(신규참여)	여성	40대	5.29
40	서귀	'18.(신규참여)	여성	30대	5.09
41	서귀	'18.(신규참여)	여성	40대	5.09
42	제주	'18.(신규참여)	여성	40대	5.16
43	서귀	'18.(신규참여)	여성	40대	5.29
44	서귀	'18.(신규참여)	여성	30대	5.10
45	서귀	'18.(신규참여)	여성	30대	5.10
46	서귀	'18.(신규참여)	여성	40대	5.09
47	서귀	'18.(신규참여)	여성	40대	5.17
48	서귀	'18.(신규참여)	여성	40대	5.09

사례	지역	참여 연도	성별	연령	면접일
49	서귀	'18.(신규참여)	여성	40대	5.09
50	서귀	'18.(신규참여)	여성	30대	5.10
51	제주	미참여 공동체 팀	여성	30대	4.20

3) 수놓음육아나눔터 및 공간 발굴 관련 기관 면접 대상자의 기본 현황

- 나눔터 및 공간 발굴 관련 민간·공공기관의 면접 대상자는 총 19명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놓음육아나눔터 운영 담당자는 12명(여성 10명, 남성 2명)이고, 돌봄 공동체 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거나 혹은 갈등 상황에 있었던 관련 도서관, 복지관, 종교시설 등의 공간 발굴 관련자는 7명(여성 4명, 남성 3명)임

〈 표 4-4 〉 수놓음육아나눔터 및 공간 발굴 관련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사례 연번	지역	관련 기관 및 직위	성별	연령	개소년도	면접일
A	제주	수놓음육아나눔터 운영진	여성	30대	2016	5.18
B	제주	수놓음육아나눔터 운영진	남성	40대	2017	5.16
C	서귀	수놓음육아나눔터 운영진	여성	40대	2017	5.09
D	제주	수놓음육아나눔터 운영진	여성	40대	2017	7.12
E	제주	수놓음육아나눔터 운영진	여성	30대	2016	7.20
F	제주	수놓음육아나눔터 담당자	남성	30대	2016	7.12
G	서귀	수놓음육아나눔터 담당자	여성	20대	2017	6.09
H	제주	수놓음육아나눔터 담당자	여성	20대	2016	5.24
I	제주	수놓음육아나눔터 담당자	여성	50대이상	2016	5.24
J	제주	수놓음육아나눔터 담당자	여성	50대	2017	5.11
K	제주	수놓음육아나눔터 담당자	여성	30대	2016	6.07
L	서귀	수놓음육아나눔터 운영진	여성	40대	2017	5.09
M	제주	사립도서관 관장	여성	40대	-	4.13
N	제주	시민단체 공간 관련 관리자	여성	30대	-	7.20
O	제주	공공도서관 관장	여성	40대	-	7.30
P	제주	마을관련 공공기관 대표	남성	50대	-	7.19
Q	제주	공공도서관 관장	여성	50대이상	-	7.31
R	서귀	종교시설 공간 관련 책임자	남성	50대이상	-	5.17
S	서귀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남성	50대이상	-	5.17

2.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참여 경험

가. 돌봄 공동체 참여 계기 및 구성 경로

1) 돌봄 공동체 구성 경로

□ 보육시설, 초등학교 등 돌봄의 사회관계를 통한 그룹이 가장 보편적

- 같은 보육시설, 같은 초등학교를 보내고 있는 부모들끼리의 친분관계가 돌봄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통로가 되고 있음. 어린이집 등하원이나 학부모모임에서 지나치며 인사하고 알게 되면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약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음

어린이집에서 오고가면서 인사하면서 엄마들끼리 애들끼리 요거 하기 전에 이 엄마 둘이 알고, 이 엄마 둘이 알고 연결되어서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엮여서 (사례 44)

(어린이집 카톡방에) 이거 공동육아 있는 데 어때요. 이미 ***엄마가 모아서 카톡방 공지사항에 '이렇게 (공동체돌봄 저희랑) 한 번 해 보세요' (사례 28)

- 보육시설과 비교할 때, 초등학교 학부모 관계로 구성된 그룹은 1차적으로 같은 초등학교, 다시 2차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 이외의 활동이 통로로 작용함. 북스타트 활동, 운동, 운동장 놀이모임, 형제자매 등의 그룹 구성에 영향을 주고 있었음

저는 이 엄마랑 우리 큰 애랑 자모인 거예요. 초등학교 자모. 북스타트를 같이 했어요, (중략) 내가 꺼도 되는지 했더니 괜찮대서 저도 들어갔어요. (사례 6)

초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 같은 반이었는데(지금은 3학년, 10살) 친해져서 동생들로 구성하게 되었어요. (사례 46)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남아있는 아이들 엄마, 저희 정도만 아이들 데리고 오고 엄마들 끼리, 나무아래 민트팀 . . . (사례 42)

저희가 목요 운동장 모임을 하고 있었구요. (중략) 학원 뭐 다녀 이러다가 아, 1학년들은 놀아야 하는 데, 근데 놀데가 없다. 놀 시간도 없다. 학교에서 놀아볼까 해서 맘 맞는 엄마들끼리. 그 날은 학원 빼고 뭐 빼고 날 잡아서 한 번만 놀게 하자. 해서 시작한 거예요. (사례 43)

□ 바람직하나 참여자 모집이 어려운 놀이터, 위아래 집 등 마을 기반 그룹

- 거주하고 있는 마을놀이터나 집 주변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이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친분관계를 쌓게 되어 그룹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었음.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매개로 한 그룹과 비교할 때, 빈도수는 낮으나 지역공동체가 사라진 현대사회에서 지역기반 그룹형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사례 23에서는 돌봄 활동에서 배제되는 같은 친구들의 소외감을 걱정하여, 같은 아파트에서 모여 놀 수 있는 자녀들로 그룹을 만드는 배려를 찾아볼 수 있었음

학교 엄마들이예요. 제가 제의를 했을 때 같이 하고 싶다는 사람이 몇몇 있었어요. 같은 반이 되었는데 반에서 하게 되면 파벌은 아닌데 우리끼리만 자꾸 모여 놀면 못 끼는 아이들이 속상한 일이 생길까 봐 같은 아파트에서 모여 놀 수 있는 팀으로 하자 해서 했는데 의외로 저도 하고 싶어요 해서 끼기도 하고 다른 반 엄마들도 오고해서 9명으로 했고. (사례 23)

놀이터에서 자주 모이고, 도장에도 다니고, 아이들 나이가 같고, 같이 만나면서 (사례 49)

할머니들도 좋아해서 할머니도 몇 분 같이 애기 키워주러 오시거든요. 과자 같은 거 하나 들고 (놀이터에) 나가면 손자손녀들이 내 거를 먹으니까... 서로 말 하고 인사하거든요. (사례 32)

처음은 아파트 이사 와서 아랫집 윗집, 그리고 두 친구는 저랑 학교 엄마. . . (사례 16)

□ 공유하는 가치를 통해 만나게 된 지속성이 예상되는 그룹

- 개인의 행동은 그 사람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가치관의 표출이라 할 수 있음
 - 유기농 먹거리, 환경보존, 영아기 부모의 직접양육 가치, 자연치유 양육방법, 집밥의 가치, 정치성향 등이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활동반경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을 것임. 가치 공유 그룹들의 공통점은 사업 참여 이전에도 이미 그룹을 구성해 만남을 지속해오고 있었다는 점임
- 서울시 은평구에서 돌봄협동조합으로 발전된 대표적 돌봄공동체인 숲동이의 경우도 환경보전 관련 기관 참여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음(전문가 사례 4). 결속력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룹 형성을 위해서는 공동체 가치가 연결될 수 있는 지역의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우리가 *** 마을모임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모임에 이사 오신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오셨어요. 얘기를 나누다보니 아이도 비슷한 또래가 있고 공동체적인 생각이. 부천에서도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셨는데 (중략) 내려오시게 되어서 이거 해볼래? 해서 ok하신 거예요. (사례 47)

저희 모인 계기가 *** 이고 이럴 때 전부 다 마인드가 수유도 24개월까지 하고 (중략) 자연치유를 하고 애가 셋인 집들도 있고 아직까지 5살 된 애를 올 해 보내는 집도 있거든요. 그렇게 병원 잘 안보내고 면역력 치유하고 엄마가 제일 좋고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례 4)

아이들한테 모유 먹이고 싶고 약도 거의 안 먹이고 싶고... 이런 욕심이 딱 둘이 되면서부터 계속 충돌이 되는 거예요 (중략)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텐데... 그래서 둘째 하면서부터 이런 생각이 필요하고 같이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례 20)

사람을 어디서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남녀관계도 이 사람을 만난 장소에 따라 신뢰도가 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엄마들 역시 육아에 관련된 교육이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있는 육아관들이나 가치관들이 비슷해요 (사례 2)

작년부터 했는데요, 일단 3가정이 먼저 만났구요, 사실 작년에 촛불집회 했잖아요, 거기서 유난히 아이들이 몇몇 보이는데 잘 놀더라구요. 그래서 친해져서 끝나고 항상 저녁 먹으러 가는데... 알고 보니 아는 사람이 있긴 했어요. 선배도 알고 해서 하다가 집에도 놀러 다니고. (사례 7)

□ 각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온라인 카페에서 만난 그룹

- 독박육아 양육자의 사회적 관계 욕구, 취업모의 양육정보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상의 부모들의 모임인 카페를 흔히 이용함
- 다른 그룹들과 비교할 때, 시작 단계에서의 사회적 유대를 위한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형성되어, 친밀감 형성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맘카페에서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인 팀이라. 사실 더 친밀감을 조성을 하고 자주 만나고 했었어야 점점 탄탄해지고 덩어리가 컸을텐데.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사례 3)

흔히 조리원 동기라는 분이 많은데 저는 조리원 동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아이와 같은 또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개월 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또래를 찾아주고 싶어서 지역 카페에 올렸어요. (사례 22)

8명이 **맘카페에서 아라동모임을 했는데 복춘엄마도 끼게 되었고, 조천 엄마도 오고, 삼화 엄마도 끼게 되고, 그 중 함덕 엄마가 수놓음을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사례 30)

□ 그 밖에 학연, 친구, 지인 등 개인적 친분관계의 부모들이 만든 그룹

- 이미 선후배, 친구 등으로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연령대가 비슷하고 친목 모임의 성격을 동시에 충족하고자 모임을 만들

관계는 있었고, 대학교 친구들이니까. 그리고 아이들 연령대가 비슷비슷하다보니까. (사례 17)

선후배랑 친구로 묶어진 대학 관계로. (사례 27)

82년생 엄마들이 같은 시기에 출산을 하게 되어서 저희 친구, 친구의 친구 이렇게. (사례 34)

□ 이미 공동육아 모임이 있었으나 사업참여 후 좀 더 자주 만나게 된 그룹

-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과 관계없이 이미 만나고 있던 양육기 부모들 그룹이 많았음. 사업에 참여하여 돌봄 활동을 하면서부터는 만남의 횟수가 늘어나고, 단순 친목모임에서 돌봄 활동으로 변화가 나타남
- 지자체에서 사업형태로 돌봄 공동체 형성 및 유지를 위한 정책서비스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로 볼 수 있음

이거 외에도 공동육아 작게 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사례 10)

첫째가 2살인데 구성원 중에 작년에 참여했던 분을 아시는 분의 얘기로 이 사업을 알고 있었는데, 신청하기 전에 이미 모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도 한 번 해보자 해서. (사례 22)

밥은 못 먹고 수다만 떨고, 엄마들도 1시간 정도 더 놀고 했었으니깐 (이전 모임 할 때는) 수다 떨었던 거고, 날씨 안 좋을 때는 비자람힐링센터에 갈 사람 해서 시간 맞는 사람 모여서 같이 가고. 바쁘면 저녁 준비할 때 몇 명 데리고 가고 밥 같이 먹여주고. (사례 42)

친한 친구는 있는데 일 년에 두세 번 밖에 못 만났고 이 사업으로 자주 만나게 되서. (사례 27)

방과후 활동도 같이 하다 보니 아이들은 서로 친했지만 엄마들은 얼굴은 아는 정도였는데 자주 만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계기로 자주 만나게 된 거죠. (사례 39)

□ 드물지만, 나눔터 운영 수탁한 복지관 실무자의 권유로 구성된 그룹

- 나눔터를 수탁 운영 중인 복지관 실무자가 상시 프로그램 참여부모를 대상으로 돌봄 공동체 구성 및 사업신청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본 조사에서는 한 사례임
- 여성가족부의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가 품앗이그룹이 구성되도록 지원하고 있음
- 나눔터 수탁기관 실무자들이 나눔터 이용자 확대를 위한 홍보에서 나아가 그룹을 구성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저희가 원래 넷하고 오늘 오지 않은 엄마랑 **랑 6명이 베이비마사지하러 자주 나오는 사람들 있었어요. 베이비마사지 정예멤버라고 할 수 있어요. 얼굴을 몇 번 정도였죠. 그런데 요렇게 팀을 한 번 만들어 보시면 어때요 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그럼 한 번 해 보죠 해서. (사례 60)

2) 돌봄 공동체 구성 관련 기준 설정

□ 한 그룹의 가족 수가 많은 경우의 어려움

- 그룹으로 돌봄 공동체 활동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한 그룹의 적정 가족 수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례 41의 경우는 한 그룹의 21개 가족으로 전체 지원예산 규모가 커지게 됨. 21개 가족을 소모임으로 구분하여, 소모임의 부모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예산을 다시 배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었음
- 사례 4, 사례 3에서는 전체 활동 인원수가 많아지다보니 활동 공간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음

(소모임에) 예산을 줄 방법 자체가 (없어요). 저희가 맞춰서 (21가구를 모아)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거죠. (사례 41)

(진행하던 요리활동이 빠졌네요) 네, 가구도 많아지고 공간도 구하기 힘들고. (사례 4)

일단 장소가 왜냐하면 저희가 (자녀수를 포함하여) 23명이었는데 그 애들을 데리고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 경로당 안 똥은 데가 없어요. 가서 무대뽀로. (사례 3)

□ 기존 그룹에서 분리, 재그룹된 그룹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 문제

- 사례 33은 함께 참여하고 있던 그룹 안에서 자신의 역할, 자신의 역할을 통한 존재감을 찾기 어려워 그룹이 재구성된 경우임. 기존 그룹의 돌봄 활동과 자신의 그룹에서 하고자 했던 돌봄활동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른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사례 48의 경우는 그룹내 자녀들의 연령범위가 너무 넓어 함께 활동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그룹 재구성의 이유였음
- 그룹 재구성의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며, 정책적인 면에서 볼 때, 3년까지 예산지원을 한다는 사업기준을 그룹단위에 적용시킬 것인지, 또는 개인에게도 적용시킬 것인지에 따라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 잠재함

제가 17년 *** 회원이었는데 같은 해 10월 가을쯤 △△△ 라는 우쿠렐레를 가르치는 모임을 했었는데 그 회원들이 올해 넘어오면서 (중략) 일단은 ***을 하면서 제가 일을 하면서 함께 활동하다보니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을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그래서 ***는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쿠렐레가 더 관심이. (사례 33)

저희 연령차가 너무 심해서. 언니들의 애들은 지금 6학년이고 저희는 애들이 너무 어려서. 우선 미술활동을 할 때 각자의 수준에서 뭔가를 하긴 했었는데 그게 뭔가 쪼개서 품앗이를 늘리면 (중략) 우리가 자발적으로 팀을 쪼개서 각자의 수준에 맞는 아이들을 더 모아서. (사례 48)

저희가 3년차라서 원래대로면 내년부터는 지원을 할 수 없는데 만약 그게 규칙이라면 지원받지 않더라도 저희끼리 소소하게 이어나가도 되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만 참여를 했고 올 해 새로 들어온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를 빼고서라도 지원금을 받으면 어떨지. (사례 1)

□ 부모들 간 일상적 만남과 돌봄을 위해 특히 거주근접성이 중요

- 그룹 구성원들의 거주지가 인접해 있는 경우, 정기적인 돌봄 공동체 활동을 위한 만남이 좀 더 용이할 수 있을 것임. 돌봄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지만 양육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 만나 돌봄 활동을 위해 이동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음
- 특히 자녀가 어린 경우 차를 이용해 움직이려면 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해 어려움이 있음.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거의 매일 만나고 있는 사례(사례49)를 보더라도, 거주근접성은 돌봄 공동체 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횃수요, 횃수 채우는 거 (중략) 직접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정말 동네 엄마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같은 아파트, 동 사는 거, 단지 아니면 힘드니까. (사례 2)

예전에는 아라동까지였는데 아라동 엄마는 지금은 힘드셔서 가끔 오시거든요. 다 제주도긴 한데 아라, 베라체, 도남, 연동, 일도이동 거리가 있는 (중략) 거의 따로 만나지는 않고. (사례 2)

아라 3명, 삼화 1명, 인재 1명, 서귀포 1명, 성산 1명. (사례 26)

삼화지구에는 젊은 엄마들이 많거든요 (중략) 저는 일단 삼화지구 내에서만 모이기를 원했어요.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가까이 살아야 자주 만날 수 있고. 차 이동은 조금 힘들잖아요. (사례 22)

애들이 워낙 어리다보니까 동선이 짧았으면 하는 건데, 그래서 격주로 정할 때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고. (중략) (차로 거의 20분 이상 걸릴텐데) 그렇죠. 그런 게 조금 애로사항. (사례 17)

같은 단지에 있어서 거의 매일, 못 보면 일주일에 2번 정도 뮤지컬 있으면 보러 가고. (사례 49)

- 그룹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 간의 거주 근접성이 낮은 경우, 일상적 도움을 받기도 어려워지며, 만남의 횃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음. 결국 그룹 구성원들 사이의 유대감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귀에서 조천까지. 이게 사실 힘들거든요, 공동육아가 아니라고 생각돼요. 옆집에 마음대로 맡길 수 있는. 그래서 가까워야 된다는데 작년에 공동육아 엄마들 있지만 그런 멀리 있는 엄마들은 30분 차를 타고 가야 하기에 안 해져요. (사례 3)

이렇게 한 네 팀은 같은 지역에 5분, 10분. 요 근처에, 그리고 4팀은 또 5분, 10분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가까이 거주하는 네 가족) 돈독한데 저기는 아직까지. (사례 34)

3) 한부모, 조손가정, 장애인 가정 등 다양한 가정에 대한 고려

☐ 아빠가 없는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감수성 향상 필요

- 돌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들은 아빠의 돌봄 활동 참여가 부부가족이 아닌 가정의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상처에 직면하는 경험을 하고 있었음. 이 같은 경험을 했던 피면담자는 다양한 가정을 고려하는 감수성 향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함

아빠랑 함께 할 수 없는 가정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하기가... 너무 조심스럽고 해서 처음에 아빠도 오라고 하다가 나중엔 그래서 아빠 안 오셔도 된다고...(사례 3)

모든 가정이 아빠가 있진 않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예민한 감성을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나 다양한 가족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애기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사례 13)

□ 중산층가정 중심의 사업을 넘어선 다양한 가정의 돌봄 공동체 참여 시도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경제적 취약가정 등 다양한 유형의 가정의 자녀들은 돌봄 공동체가 더욱 필요할 수 있음. 그러나 암묵적으로 현재 돌봄 공동체 사업의 참여는 중산층, 부부가정을 중심으로 모집, 운영되고 있음
- 지역의 돌봄복지서비스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가정, 그 밖의 다양한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돌봄 공동체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보여줌

저희들은 엄마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엄마들이 같이, 근데 개네들은 혼자 와야 되고...(중략) 아빠랑 혼자 살거나 할머니랑 혼자 사는 애들도 있고. 같이 뭔가를 하고 싶지만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설프게 뭔가를 하다 괜히 상처를 줄까봐. (사례 36)

근데 그 부분이 여기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육지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한부모 가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은 지역 돌봄을 많이 하더라구요. (사례 19)

- 좀 더 많은 돌봄 요구가 있는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돌봄 공동체 활동은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함으로써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 될 수 있음
- 하나의 그룹을 구성해도 돌봄프로그램, 돌봄활동공간 및 관련 시설의 부족을 개별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공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유일한 장애아 가정 그룹인 사례 26의 피면담자는 단기적 해결방법으로 초등학교까지의 장애, 비장애자녀 통합 돌봄공동체를 희망하고 있었음

저희가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장애아가 있으니까. (사례 26)

정말 그건 좋을 것 같아요. 육아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면 이게 참 고민이 되는 게 저희 애들이 커갈수록 갈 때가 없어요. 기관도 그렇고 점점 커 갈수록 어디 갈 때도 없고 사회적으로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그래서 우리끼리 우리 엄마들끼리 우리 (장애를 가진) 아이를 위해서 뭔가 만들어야 하나 (중략) 엄마의 어떤 의지만으로는 힘든 부분이 분명 있어요. (사례 26)

통합적인 것은 초등학교 미만인 경우는 좋지만 그 이상으로는 통합적인 것 보다 (중략) 중학생 이상의 장애아들인 경우는 이 아이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체계만 만들어 줘도, 그 환경만 만들어 줘도 전 충분할 것 같아요. 굳이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비장애다 아니다 통합을 한다고 해도 욕이라고 하면 여기에 형제자매들이 있을 거고, 어린 아이가 있으면 있을 거고 폭을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중략) 딱히 기준을 뒀서 하는 거는 별로이고, 기준을 둔다 치면 초등학교까지 통합, 그 이후로는 장애아가족 단위로. (사례 26)

4) 돌봄 공동체 활동의 홍보 방법

□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부모들의 구전 홍보효과

- 이미 사업신청을 통해 돌봄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던 부모들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사업참여의 긍정적 효과를 구전하는 것이 참여자 확대에 큰 역할을 함
- 기존 참여자들은 지원사업 시행 정보 제공, 참여자로서 만족스런 경험뿐만 아니라 잠재적 신규 참여부모들에게 활동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좀 더 용이하게 사업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음
- 여러 홍보 방법 중 하나로 기존 참여자들이 새로운 참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추가적인 홍보 전략이나 문화프로그램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저는 그냥 하자고 해서 들어온 거고. 지인 분들 중 했던 분께서 해보니 좋다고 해서. (사례 18)

우리 유치원에 했던 친구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엄마 중 한 분이 육지에서 하다가 내려왔는데 여기에도 있어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아 그럼 우리도 새로 사업 시작할 때 하면 되겠다 해서 모았죠. (사례 12)

그냥 서로 같은 교회다보니 알고는 있었는데 서로 이거를 하시는지는 몰랐어요. 제 카스같은 걸 서로 공유를 하는데 그걸 보시면서 제가 학교엄마들과 같이 놀러 다니는 걸 보시고 지금 이런 기회가 있는데 한 번 해보시겠냐고 연락이 왔더라구요(중략) 편하게 시작을 했어요. (사례 19)

지인이 2016-7년도에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좋다고 설명을 해줘서 그걸 듣고 온 ***엄마가 자기친구들, 저희 친구들 단톡에 초대해서 이런 모임이 있는데 이거 해볼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중략) 그럼 해보자 해서 동의를 됐었어요. (사례 34)

□ 참여부모들의 구전홍보 그 이상의 적극적 홍보활동

- 사업홍보는 그룹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돌봄공동체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리더들이 돌봄 활동 이외에 추가적으로 적극적 홍보활동을 하고 있었음
- 사례 1의 경우, 부모들이 나눔터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로 아파트 게시판에 모집 안내문을 게시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었음
- 사례 3은 지원 예산에서 단체 티셔츠를 만들어 입고 활동한 사례로, 사업홍보를 목적으로 한 경우였음. 돌봄 공동체 활동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사업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음
- 사례 3의 응답자는 홍보의 중요성을 다른 팀에게도 강조해온 터였으며, 이에 사례 32은 첫 회 돌봄 활동을 하는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에서 아이스크림을 나누어주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었음

그 둘은 애기 데리고 산책하다가 만났고요, 동네에서 만났고 (중략) 수놓음 육아 하면서 엄마들이 많이 모였어요, 개소하면서도 **씨가 엄마들 모이라고 아파트 공공게시판에. (사례 1)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니까. 이게 보이기 위한 거라도 티라도 입고 (중략)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는 노란 걸해서 히트를 쳤거든요. 함덕 서우봉 가서. 어디 어린이집에서 왔냐고. (사례 3)

지금 주중에 모이고 있는데 저보다는 (다른 팀이) 먼저 (도 사업에 참여) 하셨잖아요. 홍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내년에도 생각해보면 홍보를 위해서 여름에 놀이터 오면 덥잖아요. 그럼 아이스크림 사서 놀이터에 오는 아이들 다 나눠주는 방법으로 도와주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를 알려주고 이런 공동체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다. 이러면서. (사례 32)

□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홍보 필요

-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을 이야기함. 양육기 부모와 같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 정보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보검색을 하지 않으면 습득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기 때문임
- 주변에 참여하고자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으나 미처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해 참여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보임. 이미 참여하고 있는 부모들은 지원사업의

유익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음

일반사람들이 알긴 어려운 정보인 것 같아요. 공동육아 프로그램이 있다는 자체를, 저는 일단 온지 얼마 안 됐고, 이걸 알게 된 게 운이 좋았고, 보통은 관심 있게 보지 않으니까. 알고 싶은 정보만 알게 되는 거니 이렇게 내가 나서서 찾는다는 것은 일반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니까 적극적인 홍보, 예를 들면 물론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되니까 상관없지만 동사무소에 배너라든지, 동사무소에 민원24시 창구에도 배너 같은 것을 배치(다른 피면담자) 난 배너보다 소아과에 배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들이 무조건 가니까. (사례 30)

일단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따로 하자고 하면 안 모인단 말이에요. 참석율이 높은 부모교육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 앞뒤로 한 10분 정도 할애해달라고 해서 어찌면 그것도 건강한 가정 일환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사례 47)

저 들어간 이후로 한 2-3명이 더 들어갔어요. 인원이 많아지니까 더 이상 못 받는 거예요. 저희 이렇게 모이는 것 보고 아는 엄마들 들어오고 싶어하는 엄마들 되게 많아요. 아는 엄마들 주위에서 이런 거 있으니까 만들어서 해보라고. 공동육아 해보라고 하니까 자기도 큰 애는 또래도 같이 있으니까 모이면 되는데 애는 늦둥이다 보니까 그런 모임 자체가 없대요. (사례 6)

5) 지역 선주민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

□ 지역 선주민의 상대적으로 낮은 공동체 돌봄 참여

- 이주민 입도가 지난 2010년부터 급속한 증가를 이어오고 있다고 하지만, 제주도 전체 인구의 약 80%는 제주 원주민임.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제주도의 공동체 돌봄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돌봄 공동체는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의미도 있지만 자녀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적기에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자녀로 성장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할 것임

제가 노형에 살았을 때는 다 제주분이셨고 다 같이 교육받고 같이 공부하고 부모교육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했던 분이 다 제주 사람이었고 근데 지금 하귀같은 경우는 80프로가 이주민인데... (중략) 여기서도 한 20프로가 제주 분들이신데 20프로 참여하는 분들도 자기들은 어딜 가면 다 외지 사람들 밖에 없다고 제주사람은 다 일하러 갔나보다 라고. (사례 2)

□ 여성들의 높은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자녀 돌봄의 상대적 어려움

- 제주의 여성 고용률('18.5.기준 제주 61.8%, 전국 51.6%)은 통계상으로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남편의 직장이동으로 제주 이주를 하게 된 많은 이주민 여성들은 새 거주지에서 직업을 찾기 어렵거나 직업을 찾는 기간이 필요하므로 좀 더 전업주부의 가능성이 높을 것임
- 공적 돌봄서비스와 비교할 때 공동체 돌봄은 좀 더 부모역할을 위한 시간을 필요로 하며, 공동체 돌봄을 위한 정보수집을 하는데도 시간적 투입이 이루어져야 함
- 여성 취업이 보편적 문화로 인식되고 있는 제주지역 어머니들의 자녀 돌봄 시간에 제약을 받는 이유가 되고 있음

제주도는 안 놀아요. 엄마들이. 요즘엔 방과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3일 하고 급여는 100만원 조금 넘게 받고 (중략) 처음에 조금 힘들지만 학교 2군데 정도 하나보더라고요. (사례 20)

생활패턴이나 이런 건 제주망이나 여기나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이주하신 분들은 아빠 직장으로 인한 이주가 많잖아요. 대체로 아빠 직장으로 인한 이주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업이 많고 제주망들은 여기서 어릴 때부터 졸업하고 일하고를 하다보니 워킹맘이 있는 것 같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건지 정보력이 좀 부족하고. 애들 패턴은 비슷해요. (사례 15)

우선은 제주도 엄마들은 정말 바빠요. 그리고 이런 데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모이는 엄마들을 보면 약간 깨어있는 엄마들을 보면 바깥에 누가 있다거나, 육지에 있다가 왔다거나. (사례 48)

□ 상대적으로 넓은 친인척 네트워크로 인한 시간제약

- 제주의 전통문화인 권당문화는 친인척과의 교류, 경조사 챙기기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어서 이주민과 비교할 때 제주민들은 양가 부모 돌봄이나 형제자매와의 만남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됨
- 친인척 네트워크의 범위 및 강도가 높다보니 그에 따른 경조사 빈도도 높아지고, 공동체 방식으로 자녀 돌봄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음

저 같은 경우는 시댁이 없지만 다른 분들은 다 제주에 계시잖아요. 그럼 친정도 돌아야 하고 시댁도 가야하고 형제도 만나는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어서 매주 만나는 건 힘들어요. (사례 2)

저도 아이 육아휴직 할 때 제주시에 살 때 맘카페에서 **이 또래 친구들을 한 번 모아자 해서 가봤어요. 가서 나름 저는 또래친구 만들어주고 싶어서 가서 봐보니 다 저희 이주엄마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그런 게 엄마들하고 융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이 뭔가 스스로 봤는데 저는 여기 시댁이나 친정이나 다 여기 있다보니까 시댁이나 친정이나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참여가 어렵더라고요. (사례 15)

저는 시댁이든 제사든 뭘 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깐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할 만큼만. (사례 33)

□ 지역 선주민의 경우, 가족지원 가능성으로 인해 공동체 참여 동기 낮음

- 좀 더 넓은 친인척 네트워크는 지역 선주민 부모들에게 자녀돌봄 시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자녀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원으로도 기능함
- 지역 선주민들은 주중에 시댁, 친정 부모로부터 자녀 돌봄을 도움 받는다거나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형제자매와의 접근성이 양호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었음
-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의 선주민 사례 15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 공동체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지역 선주민들의 사업 지원 정보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었음

이주민과 원주민 할 때 원주민이 약한 게 정보력 인 것 같아요. 관심도도 아무래도 제주도에 거주하다 보니 기댈 곳이 많거든요. 자연스레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친정엄마한테 맡기면 되니까. 이주민들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정보에 관심을... 어떻게 보면 저희 원주민도 사업이 좋거든요. 필요성이 어떻게 보면 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좋거든요. 근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이트를 우리가 검색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게. 공익광고. 솔직히 맘카페도 이주민들이 많거든요. 원주민보다. 그러면 이주민보다 쉽게 노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노출하는 게 좋지 않을까..(사례 15)

일을 하고 있는 엄마들은 주중에 거의 할머니가 봐 주고 있고 주말에는 엄마랑 아빠가 번갈아가면서 활동 참여하고 있고. (사례 17)

아무래도 여기는 이 주변에 동네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육지보다는 아는 사람이 특성 상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도움도 많이 받게 되고 형제자매도 다 가까운데 살게 되고 하다보니까 굳이 공동육아를 하지 않아도 육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서 참여도가 낮지 않나. (사례 10)

(우리 팀 중에)세 집 정도 그렇게(조부모님의 돌봄) 하고 있어요. (사례 34)

□ 지역 선주민과 이주민 간, 부모역할에 대한 중요성 인식 차이

- 아래의 사례들(2, 15, 21)은 지역 선주민들의 돌봄 공동체에 대한 가치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음
- 그러나 제주지역의 선주민들이 부모역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음. 제주의 선주민이나 이주민의 구분 없이 부모역할이 자녀의 성장과 건강한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우리 모임 같은 경우는 제주 분들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오픈해서 모이는 분들이 있기에 한 건데 친한 엄마한테도 그 친구들은 제주사람이고 그 친구들은 친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쪽이랑 공동육아 안 해요? 하고 저도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결같이 다르다고 생각이. 아이에 대해서 나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우리 아이의 행동을 바꿔주고 싶으면 말로 해서 안 되잖아요, 때려서도 안 되고. 그럼 내 행동이 바뀌어야 하는데. (사례 2)

처음에는 교육관이라든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생각의 차이도 있었고, (중략) 조금 더 넓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면 아까도 아이들 자기 아이들만 생각하지 그 외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하셔서 어차피 저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만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엄마들이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많은 거예요. 어쨌든 제 맘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완화해 주고 싶은 생각도 없잖아 있어요. (사례 21)

제주맘이라고 하기 좀 그런 게 제가 그랬어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갈 생각을 아예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관심의 차이. (사례 15)

나. 돌봄 활동

1) 돌봄 활동 일시

□ 평일 돌봄활동이 가능한 영아자녀 그룹들

- 제시한 사례(1, 22, 37, 15)는 주중, 평일에 돌봄활동을 하고 있었음. 이들 사례를 비롯해 영유아기 자녀들이 주를 이루는 그룹들의 경우, 평일에 만나는 경우가 많았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 주중 만남이 가능할 수 있음

- 사례 23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가장 숫자가 많지만 주중 돌봄활동을 하고 있으며, 함께 하고 있는 취업 중인 어머니는 주중 만남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면서라도 참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

(제일 어린 아기가) 6개월이요. (중략) 6세까지, (중략) 6세팀, 3-4세팀, ... (중략) 평일 오후에요. 늦은 오후예요. 워킹맘들이 많고 이래서. 모이면 노는 거에 저는 정말 만족해요. 주말은 가족끼리. 저희 팀 성향이 주말에는 가족들끼리 보내고 싶은 성향이 있고. (사례 1)

네, 평일에 3시에 이용했었는데. (중략) 월요일에 하는 건 주 1회 엄마표 활동이에요. 주제 한 가지 정해가지고 주제 내에서 한 가지씩 자유롭게. 왜냐면 워낙 아기들이니까. (사례 22)

총 6가족, 총 자녀 12명, 가장 어린 2살부터 6살까지 (중략) 촉감놀이는 둘째, 넷째 수요일 낮 시간에. (사례 37)

(아이들 나이가) 3-7살까지. (중략) 7살 2명, 6살 1명, 3살 3명, 4살 2명, 5살 1명. 매일 만난 친구도 있고 일주일 3-4번 정도. 평일 3번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례 15)

1학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동생들 4살부터 6학년까지 있어요. (1학년은) 9명이요. (중략) 거의 일하시는 분 아이들은 아이만 보내기도 하고 끝나고 나중에 합류하기도 하고 거의 다 휴가를 내서라도 참여하시더라구요. 반차를 써서. (사례 23)

□ 다양한 이유의 시간적 제약으로 주말 돌봄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룹들

- 영아들이 주중 돌봄활동이 이루어지는데 비해 주말 돌봄활동은 좀 더 연령이 높은 유아 및 초등학교 자녀 그룹인 경우가 좀 더 많았음
- 그러나 주말에 만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해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하지 못할 때 오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모두 모일 수 있는 토요일 방과후에 모이는 경우(사례 45), 참여부모들 모두 전일제 취업중인 경우(사례 27), 초등학교 고학년들의 주중 많은 일정(사례 2), 나눔터 사용이 가능한 시간을 고려한 경우(사례 32, 45), 가장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는 요일에 대한 고려(사례 17)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방과후 시간에 여유가 없어서(사례 25, 37, 50) 등 그 이유가 다양했음
- 보육시설이나 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공적 돌봄서비스에 의존하게 되면서 주중

돌봄의 요구를 상당부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도, 주중 여러 이유로 바빠 주말 모임이 좀 더 용이한 것으로 보임

우리 애들만 생각하고 우리끼리만 하는 좋은 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주변에 작은 학교다보니 아이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토요일 방과 후 끝나고 모이는 경우가 많은데. (사례 45)

4살이 3명, 5살 3명, 3살이 2명이고 그리고 한 살 터울로 한 명씩.(중략) 저희가 모두 같은 직장 에 종사해서(중략)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만나시나요?) 네, 저희가 평일은 어려워서. (사례 27)

저흰 토요일마다 만나요. (중략) 아이들이 스케줄이 안 맞는 거예요. 고학년이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팀이 활동한다고 해서 양보한 것도 있구요. (사례 16)

옆에. 저희가 처음에 거기서 만나서 활동할 때 8시인가 9시에 나온 것 같은데 애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놀면서 막 떠들고 하니까 살던 분이 내려와서 가만히 지켜보는 데, 저희들은 대개 불안하고 소름끼치고 그랬어요(중략)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낮에 활동시키는 걸로. (사례 31)

토요일이나 일요일인데 격주로 날짜를 보면서 시간이 참석 많이 할 수 있는 날로 해 가지고 잡는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사례 17)

여기 유치원 같은 경우 5시 쯤 끝나고 학교 같은 경우에도 방과후 하고 나면 5시 이후가 되거든요. 저녁 6시 이후에 많은 인원이 만나서 하는 공간도 없고 다음 날 학교 가는데 시간적 여유도 없기에 주말학교는 하면 맞벌이하는 집은 잠깐씩 돌아가면서 애들 맡겨서 하면 되고. (사례 50)

작년에는 한달에 한 번 평일 만났어요. 근데 사실 평일이 힘들더라구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유치원생이 많을 때는 괜찮았는데 (중략) 그러다가 같이 뭐 하자 하면 일요일날 만나기도 하고. (사례 2)

다 저희는 문화 예술 프리랜서예요. (중략) 주로 일요일이요.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 생기니까 평일 낮 모일 수 없고 주말에. (사례 25)

□ 토요일에도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주말 돌봄활동

- 특히 아버지의 토요일 근무(사례 37), 정해진 휴일없이 일하는 농업종사자나 자영업자(사례 46)인 경우, 일요일에만 만남이 가능해, 직업적 특성이 주중 돌봄활동 시간의 여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주말에도 일하는 아빠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토요일만 가니깐. 애들도 주중에는 어린이집에 가고 그런 상황이라서 가장 참여율이 높은 토요일에 엄마들이랑 가는 걸로 하는 거고. (사례 37)

아직까지는 평일엔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구요. 저희가 토요일에 한 엄마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날은 저희가 모임을 하고 있어서 일을 봐라, 그러면 우리가 애들을 챙기고. (사례 34)

농사하는 언니도 농업관련 전문적으로 일을 해서 (중략) 가게 하는 애가 저녁에 장사하는 일 있어서 일요일날 오후에 만나요. (사례 46)

토요일에 오전까지 일하는 분이 계셔서 일요일에 만났어요. (사례 7)

2) 아빠의 돌봄 공동체 활동 참여로 인한 성평등적 아빠 역할로의 변화

□ 아버지 역할에 있어 아빠에 따라 개인적 차이

- 양육기 어머니가 생각하는 아빠들의 양육참여는 이주민이나 지역 선주민의 차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성향에 따른 차이로 여기고 있었음
- 돌봄 공동체 활동을 통해 상대적으로 양육참여가 적은 아버지들은 좀 더 성평등적 태도와 가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됨

네 맞아요. 저 아빠들을 보면 배울 점이 많아요. 한 아빠 보면 엄마는 제사음식 하러 가고 아빠가 혼자 오는 거예요 (중략) 오시는 분만 오세요. 저희 신랑도 잘 안 오고..... (사례 6)

반반. 이주민 원주민 차이도 없고 아빠 개인적인 성향. 아이들 좋아하는 아빠도 있고 어떤 아빠들은 내 애도 힘든데 어떻게 남의 애도 보냐. 3명 아빠는 애를 잘보고 3명 아빠는 새벽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낮에는 일 하고 나머지 3명 아빠한테는 애들만 맡기고 엄마들만 놀러간 적도 있구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확산하고 싶어하죠. 아빠들도 모임을 만들고..(사례 7)

□ 주 양육자 역할을 하는 아빠들

- 아내들 중심으로 모이는 돌봄 공동체 활동에 육아휴직 중인 아내를 대신하여 아빠들이 참여하거나, 주말 모임에도 엄마 참여 없이 아빠만 참석하여 다른 엄마들과 함께 활동을 해, 아빠가 주 양육자 역할을 하는 사례도 발견되었음
- 사례 10의 경우는 남성육아휴직인 상태에서 어머니 대신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음

아빠들만 해서 (돌봄 공동체 그룹에) 보내고. 엄마들은 ‘오늘은 저희 설께요’ 이러면서 (중략) 어차피 (아빠랑) 놀이터에서 놀거나 공원에서 놀거나 이럴 때가 있어서. (사례 2)

참여하러 펜션까지도 그랬어요. 아빠가 왔어요 엄마 대신에... 우리가 친하니까. (중략) 워낙 프로그램이 좋고 인식이 좋으니까 아빠들은 강제성으로..안가면 안 된다는 인식. (사례 8)

(공동체돌봄 활동에) 아빠들이 대신 오는 거예요. (아내의 육아휴직 중인 아빠들 네 명이 모두 대신 참여하는지?) 때에 따라 달라요. 엄마들이 사정이 있어서 못 올 때에는 아빠들이 오고, (엄마 아빠들이) 얼굴은 다 알아가지고. (사례 10)

프로그램 참여가 제일... 아빠들이 와서 애들이랑 놀아줘요. 야외 가서 프로그램 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도 많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아빠들이 봐줘요. 작년에 모였을 때 애기들이랑 막 놀아주는데 저런 거 했냐면서... 내 아이와 놀아주는 모습 말고 다른 아이와 놀아주는 모습이 또 달라서 애들도 잘 놀더라구요. (사례 4)

□ 아빠의 직업군에 따른 가족생활 참여의 현실적인 격차 여전

- 아버지의 직종, 근무유형, 업무량 등 근무 환경에 따라 임의사용시간에 차이가 있으며, 그로 인해 자녀의 돌봄 공동체 활동 참여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영업의 경우, 총 근로시간이 길며, 주말에도 근무해야 하는 직종의 종사자, 직장 업무부담이 큰 경우 등에서 양육참여를 위한 절대적 시간량의 부족을 느끼고 있음

저희 신랑은 참여를 못해요 아무래도 가게를 운영하다보니까...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사회성이 결여되어있는 사람임에도 오려고 하더라구요. 근데 더 있어야 해요. (사례 12)

근데 자영업자가 제일 바쁘더라구요. (사례 1)

아뇨, 아직 그건 진행을 못 하는 게 저희 남편은 경찰이라 주말에 일을 하는 시간이 많아요. 저희는 주말에 자주 보는데 주말에 안 되는 아빠들이 많아서. 아빠들도 불편하고. (사례 15)

아빠들은 이제 직장엔, 주말에 나가는 팀도 있으니까 아직은 거의 엄마 위주로. (사례 17)

작년에 M.T. 갈 때 우리 사진 찍어야 한다. 가족사진,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오기싫어하면서 오고 어떤 사람은 애들이랑 놀러 오고... 근데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들 놓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몸이 너무 힘들니까... 회사에서 흡사당해서...(사례 7)

- 육아휴직 상태인 아빠가 공동체돌봄 활동에 엄마 대신 참여하는 적극적인 아빠들이 있었으나, 이는 아직까지 일부 직종에서만 가능한 일임

저도 작년까지는 2번 휴직하고 그러니까 2년 휴직했죠. 첫째 때, 둘째 때, 일반회사에서 휴직하는 건 엄마도 어려운데 남자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례 10)

□ 돌봄 공동체의 주변적 참여자가 되는 아빠들

- 여성이 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는 돌봄 공동체 안에서 아빠들은 주변인이 되고, 아빠들끼리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 쉽지 않음
- 사례 10의 아빠는 출산후 조리중인 아내를 대신해 그룹활동에 참여한 경우로, 자녀 양육의 의사가 분명함에도 그룹 구성원으로 포함되는 것이 어려움을 이야기하였음

재밌게 지내구 한번 같이 놀러가구 활동할 때 아빠들 혹시 시간이 나거나 하면 같이 참여하고 이랬는데 아빠들은 영 안 친해지더라구요. . (중략) 놀이터에서 아빠들과 놀아봐도 그렇게 데면 데면 형식적인 말만 주고받고. (사례 1)

(아버지) 사람 성향인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에 낯선 사람들과 친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집사람이 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처음 본 사람들과 친해지냐 하며 어려웠었는데 그게 어려웠던 거지 애한테 내 시간을 뺏기는 게 싫었던 건 아니에요. (사례 10)

3) 돌봄 공동체 자녀의 연령별에 따라 활동에 미치는 요인들

□ 영아기 자녀의 건강상태, 날씨, 집중도 등에 따른 활동의 어려움 발생

- 영아나 초기 유아기 정도의 연령인 경우, 아기들의 질병이나 건강상태, 곳은 날씨가 그룹 활동을 위한 만남을 어렵게 하고 있었음. 양육자의 경우도 출산시기 동안 일시적 활동 중단이나 아기의 건강상태를 상시 살펴야 하는 집중적 돌봄을 해야 하므로 좀 더 긴 돌봄 시간과 체력적 부담을 갖고 있었음
- 이런 이유로 사례 1의 어머니는 나눔터의 초기 셋팅을 담당하 어머니였으나 나눔터 운영과 자녀 돌봄을 병행하기 어려워 나눔터 운영진에서 탈퇴하였음
- 또 다른 나눔터 운영진인 사례 16의 어머니는 여러 그룹들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영유아 그룹들의 공동체돌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

아기가 너무 어려서 제가 그런 일들을 맡을 감당이 안 되었구요.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마음 먹고 세팅 하려다 보니까 정말 뛰어들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한데 저는 그럴 힘도 없고. (사례 1)

현재 상황으로 보면 어쨌거나 품앗이는 연령대가 주로 초등학생은 되어야... 제 개인적인 생각에 어린 엄마들은 공간을 줘도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것 자체가 힘들구나 생각을. (사례 16)

- 영아 그룹들의 돌봄 활동은 사전에 정해진 활동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기는 하지만 활동을 통한 교육 목표와 연결시키기 어려우며, 단지 활동의 소재를 정하는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음

하는 데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중략) 애들이 어려워. 가서 텃밭 해볼까요? 하면 기어 다니고 과자 먹겠다고 울고 (중략) (그래도) 애들 되게 잘 놀아요. (사례 25)

연극놀이처럼 프로그램화된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진 않아요. 원가 과일 던져주고 큰 애들은 꼬치 끼우고 작은 애들은 먹고 문지르고. 활동 자체를 난장 치면서 놀지 교육적으로 프로그램을 잡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저희끼리는 만나서 먹고 놀고 (중략) 놀이가 중점 되고. (사례 1)

- 영아기 자녀 경우, 날씨나 활동공간이 내부, 외부인지 여부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프로그램의 장소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았음

80%정도는 계획대로 하고 있고 아이들이 어려서 나머지는 유동적으로 하고 있어요. (중략) 렛츠런파크 가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자고 했는데, 당일에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렛츠런파크가 실외니까. 그럼, 아이들이 연령대가 너무 낮다보니까 어떻게 할 건지. 각자 돈은 내서 키즈카페 갈 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 건지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서 활동을 하는 데. 그 날은 그럼 여미지 식물원으로 다시 가자고 해서 가서, 일정을 소화해 낸 거죠. 그런 식. (사례 37)

- 영아기 자녀의 집중적, 상시 돌봄 요구로 인해 양육자는 자녀 곁을 잠시도 떠날 수 없는 상황임. 함께 모여서 돌보는 그룹 돌봄 그 이상의 품앗이 돌봄이 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우리도 조금 더 크면 애들만 이렇게 해놓고 집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공동육아, 품앗이가 되는 거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친정엄마한테 맡기듯이...(사례 6)

□ 유아 연령 공동체의 다양한 돌봄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가능성

- 사례 25, 사례 15의 경우를 보면, 영유아기 자녀들이 연령이 높아지면서 프로그램 계획에 의해 돌봄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음. 혼합 연령 그룹인 사례 1의 경우도 6세 연령 자녀들을 대상으로는 계획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시간 이내는 잘 놀 때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봤고 많이 커서 그 사이에. 이 공간이 익숙하고 서로 형제처럼 살갑진 않지만 놀아요. 그렇게 막 기어다니는 애들 붙잡고 다니는 수준은 넘었어요. 조금씩 뭘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례 25)

너무 좋죠. 공동육아로 같이 키운다는 의미가 애들이 좀 크면 6세들은 뭘 할 맛이 나더라고요. 뭘 가져가도 체계적으로. 근데 6세들 3명을 풀기 위해 나머지 돌잡이 한 8명 그렇게. (사례 1)

아이들이 한 살 늘었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늘고. (사례 15)

□ 자녀 연령별 분리와 통합을 병행해 돌봄 공동체 활동 진행의 이점

- 형제자매가 있는 가족들로 구성된 그룹들은 자녀연령이 두개 이상 그룹핑이 될 수 있음. 연령층이 다른 모든 아이들이 하나의 활동에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언니, 오빠들이 어린 동생들을 위험으로부터 막아준다거나 놀아주기를 해주고 있으며, 언니, 오빠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활동의 규칙을 익히는 사회화의 효과를 갖기도 함

너무 좋죠. 큰 애들은 작은 애들 돌봐주고. 뭐 위험한 데 가려 한다. 애기들을 6세들이 못 가게도 해주고 싸우면 이렇게 좀 알려주기도 하고 오히려. (사례 1)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동네 큰 애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구요. 큰 애들이 작은 애들을 픽업하는거죠. 그리고 저희 다 아까 **씨 아이가 되게 어리거든요. 근데 교육돌봄 방학 할 때 와서 재능기부로 합창하고 연극하는 활동을 했었어요 (중략) 엄마들이 바쁘면 아이들이 봐주고 개네들이 따라가서 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엄마들이 조금 자유롭게 준비하구요. (사례 11)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애들이 둘 뿐이니깐 어린이집에 자기 또래들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는 9살 언니도 있고 다른 집에는 9살 오빠도 있고 해서 저희 애들이 첫째도 둘째도 그렇고 둘 다 세요. 그래서 언니 오빠들 만나서 둥글어지기를 뵈족한 부분이 둥글어 지기를 바라는 지금은 놀러 온 친구들이 당연한 것으로. (사례 44)

- 자녀 연령층이 넓은 경우, 처음에 세웠던 돌봄 활동 계획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후, 연령 분리 프로그램과 연령 통합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음

처음엔 열 몇 명 2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계획서를 만들었죠. 큰 애들 것도 놓고. (중략) 근데 이 애들은(큰 아이들은) 월 많이 하고 싶은데 작은 애들은 작잖아요. (함께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럴게 하고 저희가 15명이긴 한데 수준 차이가 있어서요, 학년을 저학년과 고학년 나눴어요. 월수는 다 같이, 화목은 반을 분리해서. 화목은 보통 도서관과 분리해서 요리를 했어요. 그 날은 아이들이 만든 걸 다 같이 먹는 걸로 해서. (사례 11)

프로그램은 주로 우쿨렐레가 주로 했기 때문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되구요. 미취학아동같은 경우도 우쿨렐레를 배울 수 있는 경우는 배우고 안 되는 아이는 다른 활동을 하고. (사례 33)

그래서 저희가 3월에 프로그램을 의논하면서 처음엔 두루두루 참여하게 했는데 연령감이 있어서 그 땐 수정에 들어갔어요. 3살은 3살대로, 조금 큰 애는 다르게 해보자고 했어요. (사례 34)

저희가 연령대 보면 알겠지만 연령대 별로 활동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한 장소에서) 나눠서요. (중략) 같이 믹스되면 힘들어서. (사례 20)

다. 돌봄 공동체 운영

1) 돌봄 공동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돌봄 마을생활에 대한 가치

□ 아이키우기 좋은 가족친화적인 마을생활에 대한 생각

- 양육기 자녀를 둔 몇 명 양육자들의 돌봄 공동체 활동이지만, 마을이라는 지리적 경계 범위 안에서의 마을생활, 마을만들기의 가능성,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체적 삶의 방식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
- 사례 2의 경우는 돌봄 공동체 지원사업의 시작단계에서부터 마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왔음을 밝히고 있음. 내 아이 하나만 잘 키우자는 이기적 생각에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서 출발했지만 마을의 이웃들이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이상적 모형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가까운 지역에서 모이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동네 문화는 사라지고 동네에서 그 또래를 찾기 힘들니까 이렇게 힘들게 모인 거잖아요. (사례 4)

(마을 중심의 공동체 돌봄) 그쵸, 그럼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겠쵸. 마을 만들기도 할 수 있지 동네사람들 모아서 놀이터도 만들고. (사례 7)

참여부분도 좀 고민하던 부분이었거든요. 아예 안 오는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 오는 분들도 있으니까 문턱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마을 분들하고. (사례 36)

1년차, 2년차 물론 그 때도 (우리 그룹은 이미) 지역사회 연계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 얘기를 했었는데 3년차 면접 때 이게 특 튀어나오다시피 앞으로 지역사회에 뭘 어떻게. (사례 2)

□ 사교육 지향보다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 부모와의 애착형성에 가치 공유

- 돌봄 공동체의 참여 동기는 다양하며, 참여자들은 공동체 가치를 수용하는 경향을 갖고 있음. 그것보다 더 기본적인 가치로 자녀 돌봄의 중요성, 부모로서, 양육자로서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음
- 자신의 자기실현의 기회로 참여했던 활동이나 직장에서의 업무 등이 자녀 돌봄에 우선할 수 없다는 생각이 다시금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음

이걸 열심히 하고 싶어서 자꾸 저희 얘기를 울리게 되더라구요. 제가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일이지만 내 애를 울려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싶어서. (사례 1)

저도 이번 달로 여기 활동가를 접어요. 접는 이유가 처음에는 이게 가치관이 너무 바르고 (중략) 이런 가치관에 애들을 끌어들이고 싶어서 자주 왔는데 도와주다보니 본의 아니게 일들이 다 나에게 집중이 되는 게 되어버려서...내가 뒤를 돌아봤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사례 5)

제가 9-6시 풀근무를 하면 요즘은 인권과 근무환경이 좋아져서 과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카톡이라는 방대한... 또 저희는 서울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중략) 애들을 귀찮게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때부터 안 되겠다 하며 애들하고 맞춰서 놀고. (사례 23)

- 영아기 애착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는 부모들은 정부의 보육시설 서비스 지원이 있음에도 부모양육을 통해 애착 형성을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음. 캐나다 거주 경험이 있는 사례 47의 경우는 부모 자녀 간 애착이 미래 사회적 비용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음

(캐나다)는) 마인드 자체가 어릴 때는 충분히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게 차후의 사회적 비용에도 효과적이라는 의식이 있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환경이 좋다는 게 선진국이라는 게 아니라 각자 얼마나 교육을 받아서 의식이 높아졌느냐가 선진국이라는 거라고 느꼈어요. (사례 47)

저는 어린이집은 원래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데리고 있었어요. 굳이 저는 지금 정부 지원사업 있잖아요. 정말 직장인 엄마한테만 한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선생님들도 더 많은 처우를 받을 수 있고 아이들도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중략) 36개월까지는 부모 품에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많이 변화가 와야 해요. (사례 12)

- 그룹 활동을 통해 공부를 시켜 학교 시험성적 향상이나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경우는 한 두 사례를 제외하면 발견하기 어려웠음

저는 다른 엄마와 너무 달라서 왜 공부를 안 시키냐고 할 정도이고. (사례 33)

아니요, 저희 애들이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 과학하는 중학생 친구(자원봉사자)가 활동이 일찍 끝날 때가 있잖아요. 수학도 가르쳐주고 싶다고 애들한테 (중략)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받아쓰기 20점 받고 자랑스럽게 캔디 오늘 나 다 틀렸어 이러는. (사례 5)

- ‘놀이’에 대한 가치는 대부분 돌봄공동체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중요한 가치였으며, 공동체 방식의 돌봄에 참여토록 하는 영향력 있는 요인인 것으로 보여짐

일단 제주에 온 게 그런 것에서 탈출하려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 쪽에는 두드러진 분들 없어요. 신나게 놀면 되지. 사회성 키우고. (사례 12)

(요즘 아이들이)스케줄도 있고 하니깐 예전보다 못 뛰어놀더라구요. 놀게 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 제가 바빠서 애만 보내기 미안하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것도 엄마들끼리 친하지 않으면 어렵더라구요. 방학 때 심심해하는 애들 보면서 애들 좀 뛰어놀게 해줘야겠다. (사례 23)

학습보다 놀이. 놀 수 있는 환경과 미세먼지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놀 때와는 달리 바깥놀이 제한이 생기다보니, 그리고 동네 언니오빠 만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다보니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줘야 하는 상황으로 사회가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게 공통된 바람이죠 (중략) 또래집단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환경도 좋잖아요. (사례 15)

□ 여전히 경쟁적 교육방식과 돌봄 공동체 방식 사이에서의 방향

- 사교육, 경쟁적 문화에서 탈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제주로의 이주를 감행하기도 하고, 부모들의 관심과 노력을 요하는 공동체 돌봄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두 가지 가치관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례들도 있음
- 돌봄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들은 현재,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자녀돌봄문화의 영향 범위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이제 시작단계라 할 수 있는 공동체돌봄에 참여 하면서 결눈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임

귀가 있고 눈이 있으면 힘들어요. 제가 여기 제주에 오면서도 사교육을 안 시키고 싶은 거예요. 친구가 그러는데 달에 천만 원은 우습대요. 고등학교데~ 이렇게 키워야 할까? 그래서 제주로 왔는데. 제주 엄마들도 미술학원을 보내고 영어를 하고 막~~다 하는 거예요. 안 시켜도 예체능 하나는 해야지, 악기 하나는 해야지 이렇게~우리 아이는 안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사례 14)

어찌되었건 서울에 있을 때보다는 공부를 많이 내려놓기는 했지만 다른 학년, 6학년 엄마들이 저희가 매주 모여서 노는 걸 보고는 6학년 애들이 시험인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하긴 했었어요. 근데 많이 내려놨다고는 하지만 절대 내려놓지 못 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사례 16)

□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부모역량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

- 부모들의 역량강화에 대한 요구는 단지 성장발달단계별 특징을 이해하고, 단계별 발달과업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와 같은 기술적 측면보다, 양육과 관련된 가치관, 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 등과 관련된 좀 더 기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었음

제 개인적으로는 제대로 된 분노 교육 같은. 이런 육아모임 대상이 아니라 전체적인 교육. 제주 지역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질 높은 강의. (사례 13)

엄마들이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전 수놓음육아나눔터에서 왜 엄마들을 위한 철학 강의를 안 해주냐고. 아이들은 놀고 물론 시끄러울 수 있겠지만. (사례 7)

교육을 좀 엄마들 왜냐하면 또 워킹맘들이 많잖아요, 자꾸 한 번, 두 번 들어보고. (사례 3)

- 사례 3의 어머니는 자신이 이끌고 있는 팀의 운영에 대해 리더로서 고민을 하고 있었음. 그와 같은 맥락에서 중간지원조직에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는 돌봄 공동체 참여의 잠재적 대상인 아이들이 많이 관찰되고, 이들 부모들이 좀 더 많이 돌봄 공동체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게 교육의 필요성이 있어요. 센터에서는 교육의 참여율이 낮다 하지만 그래도 참석하는 사람들은 하거든요. 그런 것에 저는 목말라 있었고, 여기 이사 온 것도 복잡한데 학원 안보내도 되고 하는 것에(중략) 사실 저희가 공동육아를 하는 걸 제가 해보니까 부모교육도 그렇고 지금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프로그램으로 엄청 고민을 하거든요. (사례 3)

인문학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가 초빙해서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 없는 분들이 많아요(중략) 좀 부담없이 소수라도 배울 수 있을만한 그런 게 없을까...(사례 36)

2) 돌봄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 사교육 지양한 체험, 전통놀이, 독후활동, 밥상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 만들기, 미술활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체험프로그램을 돌봄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었음. 깎두기김치담기, 티셔츠만들기 등과 같은 체험프로그램, 놀이터나 자연 속에서 전래놀이 등 다양한 놀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음

처음엔 함께 무밭도 제공해줘서 깎두기도 만들고, 거기서부터 첫날부터 아이들이 썰고 만들고 하니깐 잘 먹고, 두 번째는 티셔츠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고치가치 이름도 새기고. (사례 35)

옛날 우리 놀았었던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물총놀이도 하고. (사례 17)

그 전엔 미끄럼틀 타고 그네 타고 축구하고 그냥 노는 시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애들끼리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중략) 그래서 우리도 우리 얘기만 하지 말고 아이들 노는 것도 개입을 해야겠다고 해서 전래놀이 이런 거 배워서 아이들한테 배워서 해보자 해서 연계된. (사례 43)

돌아가면서 한 주는 과학, 미술, 전통놀이, 보드게임, 제기차기도 하고. 제기차기할 때는 제기를 직접 만들어서 하고~ 확실히 애들이 오래된 게임을 좋아하더라고요. 윷놀이도 좋아하고 닭싸움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중략)몸으로 하는 놀이를, 남자아이들이다 보니. (사례 49)

역사탐방이랑 공동체성 활동으로 텃밭도 가꾸고(나눔터 앞에 화분으로), 전통음식도 하고, 농사 짓는 언니가 있어서 농산물을 파는 것도 하고 ** 미술관이나 박물관도 가고. (사례 46)

- 매우 많은 수의 그룹들이 오름, 휴양림, 숲과 바다 등 아이들과 함께 하기 좋은 제주의 자연환경을 돌봄 활동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었음. 특히 이주민들은 ‘풍부한 자연환경이 있어 제주가 아이키우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음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지난주에는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목공체험소, 그 전 주엔 산악박물관에서 위급상황 시 응급처치 체험하고 비자림도 가고. (사례 45)

숲활동도 하고 모래놀이도 놀고 한 집에서 돌아가면서 했었거든요. 어차피 인원수가 많으니까 (중략) 저희는 아빠들 참가도 굉장히 많은 편이었거든요. (사례 4)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것 하고 계절에서 할 수 있는 것 하고 별자리 관측도 하고 비가 오거나 하면 청을 만들다거나. (사례 23)

- 책읽기 역시 빈번하게 등장하는 돌봄활동 프로그램이었음. 책읽기를 하거나 책을 읽은 후 내용과 연관시켜 다양한 독후활동을 하고 있었음

책을 무조건 많이 읽어주는 것보다 엄마들이 읽고 아이들한테 읽어주고 싶은 책을 선정을 해서 한권을 깊이있게. (사례 2)

저희는 메인이 책이니까 한 집에 한 달에 10권씩 책을 읽어요, 그 책을 읽고 부모랑 아이가 어떻게 소통하는지 아빠가 엄마가 읽기도 하고 때로는 애들이 읽어주기도 하고. (사례 8)

고전읽기 하면서 했던 거라서 책, 4-2주 정도는 고전 들어가고. (사례 20)

월별로 주제를 선정해서 그 관련된 책을 읽어서 관심 유도하고 다음 주는 외부활동. (사례 43)

-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식구(食口)를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생각이 담겨있는 것이라 해석됨. 여러 그룹에서 ‘함께 밥을 먹는 일’이 공동체로서의 결속력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이 그룹의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였음

저희는 먹는 거 밥상... 제일 중요한. (사례 11)

밥 같이 먹는 것. (사례 16)

무조건 밥은 같이 먹자주의라서 비용을 나눠서. (사례 49)

- 아이들과 함께 하는 역사체험 프로그램들은 흔히 지역의 역사보다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유적지, 사회 교과서에 실린 유적물을 찾아가 공부하는 사례들이 많음
- 제주 역사의 아픈 곳, 그동안 육지에 비해 소외되어 왔던 곳이라는 인식이 최근 사회적 인식변화에 합류해, 제주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그룹 안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음

4월은 저도 제주도민이긴 하지만 4.3에 대해 잘 몰랐잖아요.. 4. 3, 10주년이기도 하고 엄마들도 알아보고 아이들도 알려주면 좋겠다 해서 4월은 4.3공원 같은 곳 가고 해서 그 전에는 꽃만 들어서 가져갔거든요. (사례 20)

□ 학년이 올라가면서 사교육으로 전환하는 모습 드러나기도

- 사례 42은 작은학교살리기가 추진된 곳으로 이주민들로 구성된 그룹이었음. 많은 그룹들이 지금까지의 경쟁적 사교육 문화를 탈피하고자 놀이와 독서, 체험프로그램을 돌봄활동으로 진행한 것에 비해 사교육에서 흔히 하는 영어 학습, 농구, 발레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 사례 38은 주변에 학습을 위한 교육시설이 없으며, 영어, 수학문제지 등의 학습을 진행하고 있었음

재능기부로 방학 중에 영어를 10회 가르쳤는데, 일주일 2-3번, 재미는 있었는데 애들이 많으니깐, 쉽지 않드라구요 (중략) 여기는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음악도 그런데 운동이 부족해요. 같이 할 수 있는 스포츠 농구, 발레 등 선생님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사례 42)

저는 국문과도 나오고 글쓰기도 할 수 있다~ 애들에게 글쓰기를 봐 줄 수 있다, 그러니깐 한 엄마는 내가 영어를 가르치겠다, 한 엄마는 수학문제지를 해서 품앗이 교육인 거죠. (사례 38)

- 놀이와 독서 프로그램을 함께 하던 그룹들의 경우에도 자녀의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업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고, 사교육으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나타났음

(학교에서 끝나고)학원이죠. 영어랑 수학하고 전과목하는 공부방 보내고 있어요 (중략) 네, 피아노를 보내거나 영어를 보내거나. (사례 16)

□ 돌봄공동체 활동의 확장, 나눔터·농촌학교 기반의 초등돌봄 활동 진행

- 전업주부인 사례 19은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포함해서 방과후 돌봄 형태로 공동체 돌봄을 할 예정이라 했으며, 계획을 잠시 보류하고 있는 그룹도 있었음

네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포함해서 방과후 돌봄을) 할 예정이구요 (중략) 픽업을 5명 내외 엄마들이 직장 다니는 분, 농업하시는 분 계시는데 작년에 도자기 체험 했었어요. 그 픽업들 다 하고 하겠다는 친구들 받아서 체험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사례 19)

사실 방학 동안 20일동안 풀로 돌봄 해주는 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시골이다보니 애들 점심도 못 먹고 하는데 학원갈 때까지. 그래서 점심 먹고 학원가기 전까지 3시간. (사례 43)

- 나눔터를 기반으로 방학중 초등돌봄을 진행했던 사례 11의 어머니는 아이들 15명을 매일 돌봄하는 일이 쉽지 않았고, 필요한 돌봄인력이나 투입되어야 하는 노력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비용이 책정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음

아이들 15명을 매일 9시부터 2시까지 학교 선생님을 존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컨트롤 되는 아이들 있지만 아닌 애들이 있기에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고. 두 명이긴 하지만 (4명이) 거의 다 참여를 했었거든요. 한 분은 조리를. 저희가 간식, 점심 제공을. (사례 11)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두 달 동안 어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일이 있어서 잠깐 떠나있었지만 나머지 분들은 불박이로 붙어있었어요. (사례 11)

맞벌이 엄마한테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애가 어디 안전하게 잘 있고 밥을 잘 먹고 있구나 확인하는 기능적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이용자도 많고. (사례 11)

-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시간에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프로그램이나 돌봄교실 신청에 어려움이 없는 농촌 지역은 초등돌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아이의 안전과 간식, 식사챙기기가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인 취업주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초등 방과후 돌봄은 돌봄서비스

수요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안전한 보호가 최선의 방법이라기보다 그마저도 해결하기 어려운 초등생 방과후 돌봄의 현실적 문제에 따른 수요는 아닌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5시까지 학교에 있어요. 학교 끝나고 방과 후도 있고 돌봄도 있고 교실에 항상 선생님이 교실에 있어서 학교에서 놀아요(중략) 해 저물 때까지 계속 운동장에서 놀아요. (사례 42)

□ 돌봄 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안전, 활동비 등 체계 필요

- 사례들을 통해 마을돌봄, 가족친화마을 조성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문제될 수 있는 점들도 있어서 돌봄 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 활동비 등 사전적 사업구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여김

사실 다른 엄마들도 숟가락 하나 들고 와 해도 오시는 엄마들은 알아서 준비를 해오고 아이들 먹거리나 이런 것도, 간식이나 이런 거 다 준비합니다 해도 가지고 오고. (사례 19)

학교다보니 엄마들이 안 오는 아이들도 분명 있잖아요. 엄마들이 안 오는 애들도 저희들이 데리고 올라가고. 그럼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례 19)

데리고 오겠다는 친구 그러면 여기 원래 엄마가 이 아이 친구 엄마 없이 데려오면 책임진다. 다른 친구들 새로 온 사람들이 데려오면 그 분이 책임지는 걸로. (사례 19)

(맞벌이 엄마들은 직장에서) 끝나고 5-6시에 와요. 같이 데리고 오고 이런다는 것들이 그냥 공동육아 모임에서 그런 식으로 이뤄지는데 그게 경계선 없이 하다 보니까. (사례 36)

- 또한 돌봄 공동체 활동의 경우, 활동을 위한 시간 및 노력이 구성원들 사이에 배분되는 구조임. 리더역할을 맡고 있는 부모가 좀 더 책임을 맡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감당하는 일의 양이 크게 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비해, 이미 마을돌봄 차원에서 돌봄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2~3팀의 경우,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모들의 시간 및 노력이 매우 큰 상태임. 도의 돌봄 공동체 사업이 마을까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마을을 위해 시간적,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면서 기꺼이 마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운영진에게 일정 부분 보상이 필요함

제가 회계 담당인데 조금 아쉬운데 저희가 자료 만들고 그림책도 만들고 하는데 하다보면 좀 인력들이 필요한데 인건비 예산이 없잖아요. 그냥 봉사인거야(중략) 휴가를 내야하기도 하고, 알바면 일당이 빠지는 거니까 보상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본인 생업에 지장을. (사례 36)

3) 돌봄 공동체 팀의 운영 역량

□ 돌봄 공동체 참여팀별 체계적 업무 분담의 정도는 다양

- 업무분담을 공식화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해진 것 없이 해야 할 일이 발생했을 때, 하루 이틀 전에 정하는 유연한 형태도 있음. 업무분담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도,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할 일을 함께 해결하는 유연함과 자발성이 발견됨
- 다음은 업무를 가능한 전 구성원들이 고르게 분담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례들임. 사례 3의 경우는 사업예산 회계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리더가 담당, 좀 더 많은 업무를 하고 있으나 그 외 업무를 활동사진 찍기, 밴드에 사진 올리기, 사업회계 외에 자부담회계 정리하기, 월 1회 정산 회계 밴드에 올리기, 필수교육 참석하기 등 업무를 세분화하여 좀 더 체계적 업무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그 사람이 활동 사진을 다 찍고 활동을 다 알아야 하고 그 사람이 오롯이 올리면 출력은 다른 사람이 따로. 자부담회계 따로. 둘이 합쳐버리면 헛갈려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씩 회계보고. 그거는 회계가 (중략) 결과보고서는 제가. 대표가 (중략) 교육가는 건 엄마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 그건 제가 좋아하니까 제가 하고. (사례 3)

네, 지금 놀이수학만 제가 주도해서 하구요, 한 어머니는 회계 담당하시고 통장관리하시고 입금해야 하거나 재료비 관리 하시고 서류 저희 보고서 활동 할 때 쓰시고 사진 찍는 분 따로 계시고 역할 분담을 했어요. (중략) 서로가 덜 미안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사례 21)

- 앞의 사례들은 업무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룹 전체 구성원들이 분담하는 방식이었다면, 아래 사례들은 동일 업무를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담당하는 형태의 분담 방식임
- 사례 43의 경우는 월별 활동에 대한 담당자는 순번으로 돌아가지만 그것도 조편성을 하여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세부 활동별 담당자를 배정하고, 외부활동

일지, 어머니활동일지, 회의 기록, 바깥놀이 등으로 구체적, 체계적 분담을 함

전반적 대표적으로 총괄하는 건 제가 하는 거구요. 월별 관련 활동은 월별 담당자가 맡아서 하고. 그리고 월별 세부적으로 A조, B조로 나뉘져 있어서. 그 조만 담당해요. 마음은 불안하고 아이들이 어리니까 같이 갈려고도 하지만 일이 생겨서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정예요원 A조, B조로 나뉘서 하면 제가 일이 생겨서 빠졌어도 덜 미안하고 덜 부담스럽게 (중략) 엄마들이 모이면 회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 회의기록도 있고. 바깥놀이는 또 다른 담당자 있고. (사례 43)

세부 분담을 했어요. 달을 정해서 그 두 분이 혼자 하면 힘드니까 안건을 준비하고... 한 사람이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일이 되어버리더라고요. 7개월이니까 2개월씩 하고 세부 취합하고 이런 건 대표들이 하고 (중략) 스케줄 짠 거에 최대한 맞춰서. (사례 23)

□ 리더를 중심으로 주축이 되어 업무를 담당하는 몇 명의 부모들

- 사례 20은 리더와 몇 명의 어머니들이 전체 업무를 도맡아 담당하고 있는 경우임
- 공동체돌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 초보단계의 업무분담 구조라 할 수 있음.
공동체의 운영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 가족 수가 많아 아직은 돌봄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 초기 단계 참여자들의 부담을 줄여, 그룹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라 해석할 수 있음

14가족. 많아요. 너무 많다보니 중간에 관리를 못하겠는 거예요. 본인 개개인에게 업무가 주어지면 부담스러워서 나는 못 할 것 같아. 이럴 텐데 주축이 되는 엄마 몇 있고 따라오는 엄마들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절물 가거든요. 그럼 주축이 되는 엄마들이 바쁜 거죠. 가려고 하면 오는 엄마들은. (중략) (주축이 되는 엄마들은) 지금 한 3명? (사례 20)

- 대부분 그룹들이 업무분담의 틀이 있는데 비해, 일정한 업무분담의 규칙을 갖고 있지 않은 몇 그룹들이 있었음
- 사례 25의 경우, 유사한 업무 경험에 있어 부담을 크게 갖지 않는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가 담겨 있었음. 사례 13의 경우, 업무분담 구조가 없는 것에 대해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그로 인한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도 없다고 답하였음. 업무분담을 구조화하지 않아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수준의 유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관계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 사례 42의 경우는 업무분담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아직 활동일지 작성을 하지 않은 채 사진만 촬영해 놓은 상태였음

그냥 그 때 그 때 모여서 하고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의지가 있다면 괴롭지 않은 선에서 해보라 하면서 주고 있어요. (업무 내용은) 장보기도 있고 사진 찍거나 기록들 남기시고 영수증 붙여오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신다는 거죠?) 네. 지금으로서는 굳이 괴롭게 하면서 하진 않고 있어요. 부담을 안 드리려고. (사례 25)

아직까지 분담은 안 했어요. 누가 알아볼래? 하면 시간되는 분이 예약했어 그렇게. (중략) 사진만 많이 찍어 뒀어요. 아직, 영수증만 제가 모으고 딱 지정해서 너가 담당 그런 업무분담을 하진 않았어요.(중략) 업무분담을 해야 맞는 건지. (사례 42)

- 어린아이가 있는 다자녀 가정의 어머니, 취업모, 임신부와 같이 그룹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담당하기에는 버겁거나 아직 공동체돌봄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참여자에게 업무를 분담시키지 않는 암묵적 배려를 하고 있었음

아이가 셋 있는 엄마가 있잖아요. 그 엄마가 전일제인데 그 엄마는 장도 볼 수가 없고, 회계 안 하고 장도 볼 수가 없고. 또 그 엄마의 아이가 3살이어서 제일 어려서 뭘 맡길 수가 없어요. 활동일지 쓰고 있으면 그 아이가 오면 못하고. 그래서 오롯이 안 하는 엄마가 생기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암묵적으로 저 엄마는 봐주자 하지만. 그걸 공식화하진 않고 있어요. (사례 14)

기준을 그렇게 잡았어요. 기존에 했던 엄마들 3번 하고 신규엄마들 2번 하자. 횟수로 나누면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구요. 그 말이 나왔어요. 직장 일 하는 엄마들 배려해주라. 그럼 2번 해라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욕심 있는 엄마들은 더 하거든요. (사례 4)

한 분이 임신을 하게 되어서, 제외를 시킨 거죠. 임신 초기고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매일 활동을 할 때 신경이 쓰여요, 준비과정에서부터. (사례 35)

□ 다양한 자격과 열의 등을 갖춘 높은 기획능력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

- 많은 돌봄공동체들에 재능있는 부모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아이들과 함께 돌봄 활동을 할 수 있는 재능의 종류도 매우 다양했음
- 인형극, 스토리텔링, 미술활동, 예절, 포크아트, 천문지도사, 줄넘기지도사, 독서환경

지도사, 자기학습지도사 등이 활동 가능한 재능으로 제시되었음. 충분히 스스로 돌봄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조역량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새로 온 할머니는 인형극을 할 것 같더라구요. 국어선생님이셔서 학교 다니면서 인형극을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또 다른 엄마는 연극을 했었어요. (사례 4)

어떤 수업 목표라기보다는 함께 같이 놀아주고 하는 목표로 활동 준비해서 바나나, 원숭이 이렇게 주제 정해서 바나나 오감놀이도 하고 관련된 이야기. 그 한 분이 또 유아교육 전공하셔서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엄청 잘하셔요. 그래서 그 분이 항상 스토리텔링을 맡기로 했어요. (사례 22)

그렇죠. 그런게 엄마들 과반수가 미술학과 출신들이라서, 그래서 미술활동을 많이. (사례 17)

한 엄마는 성균관 쪽에서 예절 보시던 엄마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포크아트 그림 그리는 거... 다른 분들은 미술 전공 하신 분 계세요. 그 분이 미술 관련된 거 하시고. (사례 19)

저는 진로하고 학습 컨설팅 쪽으로 하고 있는데 초, 중, 고등학교 진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만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배우고. (사례 21)

선생님이니까 다 잘해요. 천문지도사도 있고요, 줄넘기지도사도 있고 경찰도 하나 있어요. 안전 교육도 책임지시고. 연 만들기 해서 연도 날릴 거고. 해봤더니 도서관 뒤에 운동장이 최적이에요 (중략) 저는 또 국문학 전공해서 국어활동 지도하고 있거든요. (사례 23)

네 엄마선생님이 테마예요. 각자의 재능기부를 다들 저희 구성원 자체가 독서환경지도사, 자기 학습지도사 다 했던 엄마들이라서 한번 씩 돌아가면서 책임랑 자기가 선택하고 같이. (사례 2)

○ 돌봄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며, 이 때 참여 부모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기획능력을 나타내고 있었음

처음에는 이렇게까지는 상상을 못했어요. 교육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도 있다보니 이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하나하나씩 하다보니까 엄마들도 욕심이라기보다는 열심도 생기고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아이들도 하면서 너무 좋아하구요. (사례 21)

공개 활동을 했었는데 그 때도 카톡에 먼저 올려요. 파스타가지고 뭘 할까요? 제가 생각했던 건 이거고, 여기에 하나만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막 나오거든요. (사례 22)

- 돌봄활동을 진행하는 부모들의 재능은 반복되는 활동 진행을 통해 경험이 축적되고, 좀 더 나은 진행을 위해 스스로 공부하는 노력을 통해 마을에서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음

아이들이 기다리고 저의 손길을 기다릴 정도로 그리고 엄마들도 서로 공부도 더 하게 되고 더 애기도 나누고 더 기다려지고. (사례 24)

돌봄활동에 엄마들이 특화, 역량강화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사례 7)

□ 신규 참여 공동체팀의 돌봄 활동에 대한 부담감 및 다양한 어려움

- 부담없이 바깥활동을 하며, 돌봄을 하던 부모들이 그룹을 만들고,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이전과 달리 무언가 계획된 프로그램으로 돌봄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음

(수놓음 육아나눔터 이용을)안 해봤어요. 나눔터가 있는지는 알았는데 굳이 실내에서 모여서 하려고 하지 않았고, 주말엔 아빠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오름을 간다거나 야외활동을 주로 많이 했는데 만약 실내에서 있으면 엄마들은 (중략) 뭔가 행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사례 9)

(**맘카페에) 삼화지구이면 좋겠다고 글을 올렸는데 한 분만 왔고, (중략)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에 안 모였던 이유는 (중략) 엄마표 놀이,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준비도 돌아가면서 집도 돌아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부담이 되었던 엄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례 22)

- 돌봄 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경험은 물론, 공식적인 정부 사업 참여경험이 대부분 부모들은 없을 것임. 한번 경험해 본 팀의 경우에는 행정업무 혹은 활동을 쉽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신규팀들에게 돌봄 공동체 운영은 어려운 과제로 다가옴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힘든 데 우리는 (품앗이육아) 모른 상태에서 처음 들어온 거라. (사례 18)

하다보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하다못해 컴퓨터도 못 하는 데 경리하는 친구에게 가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해줘, 뉘달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사례 26)

지금은 4점정도.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렇지만 나중에는 8점 정도까지는 높아질 것 같아요. 얼마 전 5월에 가족행사가 있어서 저희들의 물건을 모아서 장터를 한 번 해볼까 했었어요. 의욕만 좀 앞서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애들도 아프고 하면서 흐지부지됐어요. (사례 34)

- 매주 모임에 활동계획 수립, 활동 준비물 구입, 진행자 역할분담 등을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음. 그럼에도 또한 프로그램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 계획에 의한 돌봄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횟수 및 계획에 근거한 활동 기준을 완화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이야기하고 있음

제가 했을 때는 되게 뻘뻘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너무 아쉬워요. 1번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고 1번은 그냥 놀려줬으면 좋겠어요. (사례 4)

모임 할 때만 하는 건지, 할 때마다 하는 건지, 재료 준비를 할 때마다 해야 하는 지. (사례 35)

- 대부분 공동체들이 부모들 스스로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었지만 드문 1~2 사례에서는 부모들 사이에 인지도가 있는 상품화된 프로그램을 강사초청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음

***(상품화 프로그램) ~ 네 네. 강사님이 오시는 날은 기본적으로 금요일요. 오늘같이 날씨가 좋은 날은 야외에서 할 경우에 토요일이나 주말에 잡아서 아빠들이랑 동행해서 가고. (사례 18)

- 돌봄활동으로 진행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참여부모들의 재능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외부의 강사를 초청하여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었음

올 해 (강사초청 프로그램) 해봤는데 좋더라구요. 저희 재능으로 부족한 부분을 해봤는데 5월이 가정의 달이어서 이미 5월이면 카네이션을 만들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드릴 것 하고 그림 그릴 시간 가졌는데 애들도 너무 좋아해서 저희가 못하는 부분은 강사초청도 필요. (사례 15)

- 자녀양육기에 있는 부모들의 이동은 좀 더 힘들 수 있음. 중간지원기관 방문, 오리엔테이션, 교육 등 참여를 위해 제주시까지 이동하는 것이 서귀포시나 원거리 거주자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었음

저는 제주시를 나가야 하는 게 좀 힘들구요. 차라리 이쪽으로 오셔서 해주시면 너무 가볍게 참여할 수 있을텐데 원거리 가야하는 거. (사례 12)

아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주시 안가는 거...하루 휴가내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사례 36)

□ 돌봄 공동체 참여팀 전체 대상 및 부모들만의 교류 모임 필요

- 공동체 돌봄에 있어 친분을 쌓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하는 첫걸음이며, 소속감을 통해 공동체돌봄의 필요성을 확신하게 되고, 참여자로서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임. 공동체돌봄의 확산, 정착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자 전략이라 할 수 있음

애들이 서로 부딪혔을 때 재는 이렇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으려면 만남이 있어야 하는 데 그걸 엄마가 주도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건 힘들니까 센터에서 5월 어린이날이다 하면 예로 서귀포 시내권에서 품앗이팀에게 친구가족 하나씩 데리고 모여서 같이 하는 만남의 장을. (사례 48)

네. 때가 되면 공동육아들끼리 한마당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준비를 하면 하나의 일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아이디어예요. 캠핑을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야영장을 터만 만들어놓고 준비해오라고. 서로 알아가고 교류해보라고 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사례 47)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팀 별로 모임시다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전문가들은 아시잖아요. 전체가 모였을 때. 그것만 해도. 우리는 서로 안면은 알아. (사례 3)

- 부모들만의 모임은 여러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함께 의사결정 해야 할 안전에 대한 회의, 배려하고 양보하는 공동체 유대형성을 위해 서로의 성격, 성향, 가치관에 대한 상호이해, 공동체돌봄활동의 역량강화를 위한 부모들의 공부모임 등의 목적일 것임. 돌봄 활동과 구분해 부모들만의 만남을 희망하는 요구가 있었음

사실 그 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 빼고 엄마들끼리 유대관계를 가지는 것. 아이들과 있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례 11)

음. 아무래도 모이게 되면 애들이 있으니까 수다처럼 하게 되는 데 여긴 이렇게 생각하는 데 거긴 어때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수준이고.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애들이 잘 때 밤에 특방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해야 서로 얘기한 것도 기억을. (사례 34)

- 자녀돌봄을 위해 필요한 돌봄활동 프로그램, 견학이나 체험 등이 가능한 문화시설, 자연을 공부할 수 있는 숲이나 오름, 다른 그룹들의 돌봄활동 프로그램이나 활동 상황, 자녀의 성장단계에 따른 발달특성 등 정보습득, 구성원 사이의 정보교류, 신규팀의 돌봄활동지원 등을 위한 정보제공의 창구가 필요할 것임

처음 접하는 팀을 위한 프로그램, 정보, 프로그램 등 응용할 수 있는 정보(필요해요). (사례 28)

장소 같은 거 섭외할 때 공동육아를 이야기하면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활동 일지를 문서화해서 제출을 하잖아요. 서로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 10)

프로그램은 좋은 게 있으시면 안내를 해주시면. 저희는 저희가 찾아서 하고 있어요. (사례 12)

이렇게 3살, 4살들이 놀 수 있는 거, 저희들이 잘 모르는 거, 이런 데 뭐 방향. . . 공간 안내나 지도 방향이나 (프로그램을) 어떤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나. (사례 17)

아직은 얼마 안 되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보 같은 것... 지역행사들. (사례 19)

홈페이지를 열면 월간운영일지 계획안, 어떤 행사도 카페에서 알 수 있게 연계를. (사례 29)

□ 돌봄 공동체 팀별 리더의 책임감과 업무과중의 지속 등에 따른 소진문제

- 그룹의 리더는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듣고 그룹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음. 리더에게만 정보가 전달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정보를 들었을 때, 리더는 돌봄 공동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시점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 돌봄 공동체 확산에 있어 어떤 방법으로 실행력이 있는 보다 많은 리더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수 있음

제가 한 건 아니고 리더 언니가 지인한테 들어서 신청을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신청했던 언니가 최종 리드 하시구요. 서류나 회계는 제가, 간식준비는 다른 엄마가 하고 있어요. (사례 40)

처음에 제주도청에서 이런 걸 지원한다는 걸 이분(리더)이 알게 되니까. (사례 10)

- 그룹의 리더는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 책임감을 갖게 되며, 업무가 리더에게 배정된 것도 아니고, 구성원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좀 더 많은 일들을 스스로 감당함. 주부들이 흔히 접해본 업무가 아닌 회계 관리, 문서작성을 해야 하는 활동일지 등을 도맡아 하며, 그룹의 돌봄활동이 진행, 유지되는데 필요한 잡무나 총괄을 하고 있었음
- 사례 42은 육지에서 거주할 당시 돌봄 공동체에 대한 의사가 있었으나 좀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할 리더의 부재로 실행되지 못한 경우를 얘기함. 돌봄 공동체에서 리더의 책임감과 자발적 희생이 공동체 구성과 유지에 중요하다는 것을 추측이 됨

육지에서 같은 친한 팀이 있어서 같이 품앗이 하자 말만. 행동이 안 되는 하고 친한 친구들로만 남기고 하진 못했어요. 누군가 총대를 매고 타다다다 해야 하는 데 하지 못했어요. (사례 42)

아, 단체생활을 하면 그럴 수 있는 데, 아무래도 언니가 먼저 주도하고 정보도 많이 주고. 아무래도 리더 한 사람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례 27)

다들 역할 분담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대표기 때문에 약간 제게 주어진 게 더 있어요. (사례 22)
그냥 결과보고서는 제가. 대표가 하고. (중략) 교육 활동일지는 내가 다 하겠다. (중략) 회계는 제가 먼저 올 해는 하겠다 해서 서류라던지 제가 먼저 챙기겠다. (사례 32)

공동육아 할 때 제가 총대 메고 담당하겠다 하고, 프로그램 제안할 때도 제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장소제공도 저희 집에서 할 때도 많고 하다 보니. (사례 21)

- 리더의 책임감으로 그룹을 위해 좀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반복되고, 다른 구성원들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분담 체계가 마련되지 못하는 경우, 리더의 추진력은 소진되고 서로 미안해하는 심리적 부담감을 갖게 됨
- 그룹이 구성될 때 업무분담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리더에 대한 일종의 보상체계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행정적인 것은 제가 거의 다 했고, 그래도 다른 분들이 거의 다 참여하면서 행사가 있거나 할 때는 많이 도와주긴 했는데 (중략) 저도 사실은 부담이 되고 다른 분들은 미안해하고. (사례 9)

계속 번아웃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하는 엄마만 하기에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 (사례 8)

- 리더는 돌봄 공동체의 지속적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암시함. 구성원들이 부담을 느끼면 공동체가 해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염려가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자신이 짐을 더 지려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음

부담이 되면 계속하기 힘들다 (중략) 그래서 그런 건(부담되는 일) 제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수박은 제가 사 갈게요. 그러면 스토리텔링은 언니가 해 주시고, 수박 스티커 붙이기는 누가 해주실래요? 하면 서로들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해 주니까. (사례 22)

컴퓨터 못하시는 분 있으니까 글로라도 써서 주라. 그러면 이제 종이로 하면 간단하게 10분도 안 걸리더라구요. 부담감을 일단 없애주고 하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례 32)

정예요원 A조, B조로 나눠서 하면 일이 생겨서 빠졌어도 덜 미안하고 덜 부담스럽게. (사례 43)

- 리더가 담당하는 역할과 구체적 업무량이 많은 것은 모든 공동체에서 확인됨.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 리더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상황임. 몇몇 공동체의 경우 시간제 또는 남편과 함께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부분 전업 주부가 리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

사실 저는 원래 취직을 했었다가 사업신청서 낼 때는 취직한 엄마로 냈다가 그만두고... 작년에는 전업주부여서 조금 더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사례 19)

□ 돌봄 공동체 팀의 운영자인 리더의 마을 돌봄 공동체 정착에 대한 바램

- 리더 중 몇몇은 공동체돌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맡는다거나, 많은 량의 힘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자원하고, 사비를 충당하면서도 일을 진행시키는 등 마을 활동가로서의 잠재적 역량을 보여주고 있었음

여기가 생기는 걸 보고 그 때 얘기 100일 밖에 안 되었는데 관리소장님한테 가서 제가 연극놀이도 하고 아이들 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데 나눔터가 생기면 여기서 자원봉사를 좀 해보고 싶어요. 하니까 소장님이 너다.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사례 1)

저는 그래서 수놓음 나눔터 생긴다고 할 때 사실 굉장히 희망에 부풀었어가지고 그걸 제가 운영하는 입장이 아니라 저는 운영하는 것도 같이 해봤고, 그런 걸 관리소장님한테 말씀했어요.

자리잡을 때까지는 제가 하겠다. (사례 3)

처음에는 제 사비로 하다가 동아리 지원금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재료비 지원율. (사례 36)

- 내부의 공동체 역량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돌봄공동체가 유지되는 데는 공동체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는 리더십이 작용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음
- 일부 구성원들의 이기적 행동, 주고받음에 대한 계산, 다양한 성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갈등 상황 등을 좀 더 포용적으로 받아들이는 높은 수용력을 보여주었으며, 좀 더 많이 도움을 받는 데 대한 미안함을 갖는 것조차 불편하게 느끼고 있음
- 즉 공동체는 계산적 관계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정(情)의 관계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생각은 다 비슷하니까 같이 출발한 것 같은데 약간 양체같은 엄마들? (그런 분들이) 1/3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 보고 하라고 하면 난 못해 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을 기꺼이 이끌고 가는 이유는) 조금 기다려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분은 조금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례 20)

(맞벌이인 어머니가)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똑같이 일하는 엄마인데 불평불만이 없고 알아서 잘 하는데 잘 안하면서 그걸 힘들어하고 요구만 하시는 엄마들도 있고. 저는 요구만 해도 그래 알았다 하고 받아주거든요. (중략) 그 엄마들이 (혜택을) 받아가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이. 내가 손해를 절대 안 보려고 하는 기준에서 그러는 거예요. (사례 4)

서로 미안해하지 않기. 활동하다가 애가 울면 안치우고 가도 미안해하지 않기. 그래도 계속 미안해는 하지만 오늘 내가 애가 아프고 이래서 참여를 못하게 되고 내가 출산한지 얼마 안되어서 일지 쓰거나 재료준비 못해도 그냥 시간되는 사람이 기꺼이 하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즐겁게 놀면 그만이지 (중략) 그냥 애들 안 다치고 엄마들 잘 했으면 그게 전부지 굳이...(사례 1)

- 리더로서 팀 전체를 이끌어가는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의 목표도 명확히 갖고 있었음

첫 시작팀이니까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돈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우리가 맞춰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없애는 게 올 해 저희 목표예요. 우리가 한 번 해보니까 다음에 더 잘 할 수 있어 하는 게 올 해 저의 생각인거고 (중략) 근데 항상 카톡으로 대답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공동육아 체계에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개개인으로. (사례 32)

- 사례 20의 리더들은 내 자녀, 내 자녀가 속해있는 돌봄공동체만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동체돌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음
- 이들은 좁은 범위의 돌봄공동체 가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 ‘공동체적 삶의 방식’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주축이 되는 분들은 일단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공동체 모임을 지속하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고 내가 애들 키우면서 더 좋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힘들면 다른 사람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사례 20)

아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집 아이도 생각해주고 (중략) 그 엄마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은 자식으로 생각하면서. (사례 21)

- 돌봄공동체 지속성에 대한 소망을 갖는 리더들을 발견할 수 있었음. 사례 11의 경우는 좀 더 낮은 연령의 어머니들이 나눔터를 지켜주기 바라며, 마을의 나눔터로 기능하기를 기대하였음. 사례 11의 리더이자 나눔터 운영진은 영유아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함께 이용하는 나눔터의 성격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음
- 마을 기반 나눔터로서의 그림을 그리고 있으나 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피력하였음

그 분들이 그런 마음(이기적이었던 나를 기다려줘서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저희가 빠지고 했을 때 그 분들이 이어받아서 했으면. (사례 20)

언제까지 저희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와야지 저희가 여기에 평생 있을 게 아니니까. 그게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의 엄마들이었으면 훨씬 오래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사례 11)

□ 자발적 참여로 주고받음에 있어 계산이 개입되지 않는 공동체 운영 방식

- 사례 5의 경우는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자녀들이 혼합 구성된 팀의 리더로서 전업주부들이 좀 더 많은 시간을 돌봄에 사용하게 되는 상황에, 취업주부들이 그에 대한 보상하려는 시도를 차단하였음
- 사회적 관계에서 주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받음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기본적 작동 기제임. 다음 단계에서 상호간에 형성된 신뢰는 계산을 뛰어 넘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기능하여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를 가능케 함

- 돌봄 공동체 내 돌봄서비스가 교환될 때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은 주고받음에서의 불균형을 사회적 자본으로 뛰어넘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임
- 그러나 정부 사업을 시작으로 구성된 그룹이 견고한 신뢰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자녀를 양육하는 똑같은 부모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는 돌봄 공동체에서 볼 수 있는 뛰어난 리더십이 작동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일 것임

(맞벌이가정의 자녀돌봄에 대한 보상을) 본인들은 하려고 하셨죠. 근데 저희가 일제 차단을 시켰고 처음부터 아이들이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모인 거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 없었으면 좋겠다하는 거죠. (사례 5)

- 사례 16에서는 취업주부 한 명이 업무분담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그 부분에 대해 다른 구성원들이 불만을 얘기하거나 갈등관계로 진전되고 있지 않은 경우임
- 한편 해당 취업주부는 자주는 아니지만 식사 대접으로 다른 구성원들의 수고에 보상을 하고 있었음. 계산적 관계라면 어쩌다 한 번의 식사대접으로 누군가의 업무분담이 제외된다고 할 때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주고받음의 관계였음

음, 저희가 어쩌든 말씀은 운영진이니깐 저희가 많이 하자고 그랬어요. 결정적인 중요한 타이밍이 되면 결국은 돌이켜 하게 되지만. 그 분(업무분담에 참여하지 않은 맞벌이가정 부모)이 시간이 되면 밥을 완전 맛있게 해서 주고. 그렇게 되고 있고. (사례 16)

- 정해진 업무분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자발적 참여, 자원하는 사례들이 흔히 발견되고 있음
- 이 같은 경향은 상대방이 자신의 수고를 기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고, 나도 기꺼이 수고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줌으로써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혹시 이거 준비해주실 수 있는 분? 하면 모두 서로 제가 할게요 해요. (중략) 자연스럽게 이거

더 해주실 분하면 잘 도와주고 하는 거 보면 함께 하자는 의지가 다들 높아요. (사례 22)

다 분배하는 분위기 인 것 같아요 통장 만든 친구가 카드 가지고 있으니깐 장봐 오겠다고 하면, 어떤 애는 패드를 가지고 오겠다고하고, 저는 애가 둘이니까 하나는 봐 주겠다고 하고. (사례 30)

기본적으로 일을 미루시는 분들 아니에요. 공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어서. (사례 25)

이 분이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자기는 와서 활동 준비 못하고 하니까 활동일지 받고 지출결 의서 받고 집에서 컴퓨터로 할 수 있으니까 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어요. (사례 6)

- 여러 그룹에서 사업신청 시 돌봄 공동체 팀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부모와 자녀들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개방성을 보이고 있음
- 돌봄 공동체 구성원이 아닌 참여부모나 자녀들은 ‘시간될 때만 참여하는’ 일방적 수혜자이나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며, 우리 그룹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었던 예산의 일부를 그들과 ‘나누는 행동’임. 나아가 우리 아이들하고만 할 수 있는 활동을 일부러 ‘그룹 밖 아이들을 모아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그룹의 이 같은 돌봄 활동은 마을의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음

처음에는 와서 2시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핀도 만들고 방학 때는 같이 만두도 만들고. 방학 때는 부모들만 모일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자꾸 활동(참여인원) 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사례 36)

저희가 하는 것 보고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오늘도 어떻게 공동육아에 가입할 수 있어? 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저희가 2학년 애들이 많은데 여자애였는데 애가 거기 가서 놀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놀 수 있어? 하길래 그냥 보내면 돼 그랬죠. 회비 없어? 하니까 언니 베이커리 하니까 애들한테 베이커리 가르쳐줘 하니까 내가 매번 가능하지 이러시더라구요. (사례 5)

태권도장이 3층이다 보니 우리 놀고 있으니까 와서 보는 거예요. 왜 오고 싶어? 하니까 네 하길래 우리 수목금 있으니까 엄마한테 허락받고 그 때 오면 되 하니까 엄마들 전화오고 아이들 오고 했거든요. (사례 5)

비자숲 힐링센터 하루 프로그램 저희가 신청해가지고 저희랑 친구들이랑 한 20명 정도 간 것 같아요. 한 7가족. 근데 아쉬운 게 아빠들이 없으니까 엄마들이 다 운전해서. (사례 48)

저희가 인라인도 타거든요. 오세요 하면 더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오시고(중략) 다른 친구들도 우리가 간식 해 줄테니까 놀다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 엄마들도 이 사업 알게 되고 조금 더 애들 보는데 도움이 되더라 하니까 참여했어요. 그 분들도 오실 때 조금 부담이 덜되고. (사례 19)

- 사례 5는 엄마가 오지 못해 위축되는 아이들을 배려해 엄마들이 한명씩 돌아가며 아이들을 돌보는 사례임. 이러한 배려의 가치는 아빠참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음
- 최근 특히 남성의 육아참여에 대해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 돌봄공동체 사업에서도 아빠참여를 권장하는 것은 마찬가지임. 아빠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의 감정을 고려하여 품앗이육아를 진행하고 있었음
- 또한 사례 5는 조손가정의 자녀들을 돌봄공동체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주고 있음

저희는 모임에는 웬만하면 엄마 한명만 있자. 애들이 다 초등학생이고. 엄마 여럿이 있다 보니까 엄마 이러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못 오는 애들이 위축되는... 난 한가하기에 수목을 보겠다. 대신 금요일은 엄마들에게 돌아가면서 해라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돌아갔거든요. 애들이 그렇게 위축되면 엄마 한명이 낫겠다. 애들이 어느 정도 컸기에 손이 많이 안가잖아요. (사례 5)

근데 되는 여건에서 해야지 안 되는 여건에서 억지로 하려면... 작년에 할아버지와 지내는 아이가 한명 끼었어요. 만약에 집에 가면 할아버지밖에 없고 해서 저도 여기서 같이 놀면 안돼요? 해서 같이 놀자 했는데 애가 어느 순간 띄엄띄엄 오더라구요. 왜?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우리 엄마는 여기 나올 수 없는데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온다는 거죠 (중략) 그래 이모가 기다리게 하고 지나가거든요. 되는 것만 해야지. 안 되는 것까지 하는 건 좀...(사례 5)

아빠랑 하는 걸 해주고 싶었는데 몇몇 아빠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엄마들도 본인들이 있으면서 본거지. 우리 엄마가 없을 때 아이가 위축되고. 우리 아빠가 없을 때 위축되겠구나. (사례 5)

□ 돌봄 공동체 팀별 지원 금액의 충분한 지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

- 지원 예산 규모 축소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음. 충분하다는 의견을 보인 경우는 지원액을 자녀수 기준으로 계산해보았을 때, 자녀연령이 낮아 식비지출이 필요 없는 상태였음. 강사비 외에는 크게 지출해야 할

항목이 없어서, 지원액이 줄었지만 활동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충분하다는 것임.

○ 또한 자녀수 기준은 각 가정마다 다른 자녀수를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는 의견임

지금도 충분한 것 같아요. 2만원 굶하기 아이들 수해서. (사례 1)

네. 다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거라서. 한 번에 7만원이니깐 $7 \times 8 = 56$ 만원인데, 저희가 받은 예산은 160만 원 정도니깐 보통은 강사비로 나가고 그리고 애들이 어리다 보니깐 점심 값이 거의 안 들어요. 왜냐면 우유나 이유식을 먹어야 하니까. (사례 18)

한 집 당 아이수가 다르니까 아이 인원수에 따라 주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이라서 그런지 사업비는 처음 안 것보다 엄청 많이 줄었지만 생각해보니까, 따져보니까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엄마들끼리 월별 모이는 돈도 있고 해서 입장료도 되고 완전 좋다 이려고. (사례 43)

○ 이에 비해 전년도 지원금액의 경험치가 기대치로 작용하는데 따른 아쉬움, 활동비로는 충분하나 아빠를 포함한 가족단위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보임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 엄마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한 아이당 2만원인데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깐. 횡수는 많이 만나는 게 좋으니깐. 우리 입장에서는. (사례 14)

예산이 작아요. 작아. 프로그램 작년에 5만원이었잖아요. 1인당. 프로그램이 돈이 걸려있으면 그것에 대한 증빙이 확실해야 하지만 저희 같아서는 사비를 보태서 할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티랑 모자도 맞추고 하는 건데 예산적인 것들이 추가로 들어갈 것들이 많은데. (사례 23)

○ 다른 한편으로는 지원 금액이 과연 노동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인가의 관점에서 고민했던 경우도 있었음. 이 노동가치는 돌봄노동의 가치라는 점에서 정책적인 시사점이 있음. 시설보육 대신 부모들이 시간을 투자해 직접 돌봄하는 활동에 대한 정부지원금이라는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음. 노동과 여가 시간 가치가 산업사회의 금전지향적 사회와 달리 역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젊은 부모들에게 지원금 대비 노동의 요구가 커진다면, 돌봄 공동체 사업 참여의 동기 활성화는 어려울 것임

저도 그 고민을 잠깐 했었어요. 사실 한 달 우리 아이 4만원. 이 4만원 때문에 내가 사업계획서 이만큼 쓰고 해야 하나하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반강제적인 틀이 있으면. (사례 2)

근데, 2만원씩 주면서 이렇게 교육도 오라고 하고 인터뷰도 오라고 하면. 그건 확실해요. 안 해요 (중략) 월 2만원 거저 생기는 돈이라고 하라고 해도. 안 한다는 엄마들이 많아요. (사례 48)

□ 중산층 주부들을 위한 돌봄 공동체 지원사업은 아닌지 생각해보기

- 사례 14의 경우는 지원예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양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통해 해당 사업의 지원예산 증액에 대한 희망을 말하고 있었음

아이를 키우려면 애들 식재료도 사야하고, 기저귀도 사야하고 물론, 많이 안 들어가면 좋는데 많이 들어가거든요. 장난감도 사 주고 싶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아이를 더 안 낳고, 나아가서는 사교육까지 그런 것들 때문에. (사례 14)

□ 수월해진 회계 관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한적 예산지출 기준

- 전 년도에 비하면 올해는 항목별 사용가능 금액 기준, 예산 배정 프로그램 회기 수, 총괄적 예산지출 방식 등 회계 관리가 매우 수월해졌다는 응답이었음

간식비 같은 것도 제한이(사용가능 금액 한도) 늘어나고 식비도 늘어나고 하니까 늘어나도 어차피 돈은 줄었지만 엄마들 생각에는 와 이거 정말 편하게 잘 쓸 수 있겠다. (사례 4)

예산부분도 별로 스트레스 같은 거 없이 잘 쓰고. 정말 재미있게 잘 하고 있어요. (사례 22)

그게 줄어들어서 좋았고 예산은 자율적으로 바뀌는 것에 따라 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사례 5)

- 예산사용 기준은 그룹에 속해있지 않은 가족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예산과 관계없이 팀이 아닌 부모와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팀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있음
- 사업 신청시 자녀수 기준으로 예산이 산정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준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부모들, 그리고 자녀들을 팀 활동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것임

저희는 인원이 작다 보니까 주변에서 하고 싶어 하는 엄마들이 있으니까 같이 꺼서 하자 명단에 올리지 못해도 같이 하자고 하는 데, 제도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사례 30)

- 자산 성격의 물품 구입에 대한 지출을 제한하는 기준이 필요하기는 하나, 나눔터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예산지출 기준이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수놓음 육아나눔터 처음에 할 때도 운영비로는 자산성 용품을 쓰면 안 된대요. 근데 주방을 하니까 너무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대표님이 ‘일단 써,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책임져주겠다’ 그래서 일단(중략) 10만원 이렇게 해서 사서 쓰고 그랬거든요. (사례 11)

- 활동일지 작성이나 기타 필요한 문서, 회계 정산 등 행정적인 절차나 양식들이 간소화되어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음. 활동일지 조차 온라인상에서 간략한 내용만 입력할 수 있도록 더욱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도 있었음

작년에 많았는데 올 해 많이 개선되었어요. 시스템에서 많이 복잡해서 가끔 되게 일스럽다고 느껴졌었는데 올 해에는 작년에 비해 되게 많이 줄어들었고. (사례 1)

아예 줄여서 일지를 한 장으로 해서 되게 편해지긴 했는데 이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담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건 있긴 해요. 근데 서류가 간소화되면 편하죠. 아무래도. (사례 2)

요즘 다 이뤄졌는데요, 뭐 .서류 간소화되고. 서류가 정말 많아서 힘들었거든요. (사례 5)

회계랄 것도 없어요. 간소화시켜 주셔가지고 저 친구가 하고 있죠. (사례 15)

(사업신청 할 때) 그 사업계획서를 쓰고 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보니까... (온라인상에서 처리하도록)그렇게 하면 되게 많이 참여할 것 같아요. 그럼 쉬울 것 같아요. (사례 10)

4) 운영위원회 및 회의 방식

☐ 민주적이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체계화하려는 돌봄 공동체 팀

- 문제해결, 돌봄 활동 사전준비, 활동 후 평가 등의 목적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 돌봄 공동체 운영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음

지금은 몇몇 분이 바뀌어서 생각을 맞추려고 회의를 해요. 월 1회 회의를 해요. 우리 안의 문제

점에 대해 나누고 다음 달에는 어떻게 보완해서 하면 좋을지 어떤 재능을 기부할지.....(사례 5)

한 달에 한 번 정례 회의를 마지막 주 월요일에 하거든요. (사례 29)

애들 위주로 하다 보니 엄마들이 사전 작업 시간이 없고, 부모의 시간이 없어서 일요일에 휴무를 내서 만나는데 사전 작업 시 한 번 만나서 하고. (사례 35)

우리 계획했으니까 이거 해야지,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나서는 평가를 짚막하게라도 하는 데. (사례 43)

- 회의운영은 다른 사례에서도 나타났지만 사례 11은 정기회의 외에, 활동 후 평가 회의의 형식으로 자주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현되지 않고, 누적되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음
- 사례 25은 리더가 업무의 대부분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업무수행을 의사결정의 권력과 연계시키고 있지 않았음

매 달 정기회의는 매 달 한 번씩 마지막 화요일 하고 밥상이든 활동 끝나서 이야기 할 것 있으면 모여서 임시로 하고. (사례 11)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건 그런데 제가 리더처럼 끌고 가고 있진 않아요. (사례 25)

□ 돌봄 공동체 팀의 활동 운영 수단으로서의 SNS역할

- SNS는 부모들에게 매우 익숙한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모임 공지, 운영 회의, 정보공유, 돌봄활동 약속, 프로그램 기획, 참여자 모집 등. 자녀돌봄으로 바쁜 부모들에게 SNS는 정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돌봄활동에 없어서는 도구로 자리 잡고 있음
- 사례 10의 경우는 구성원들의 거주지가 멀어 돌봄활동을 위해 일주일이 한번만나는 것 이외에 다른 만남이나 교류가 없었음. 그럼에도 그룹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도구로서 SNS가 역할을 해내고 있었음
-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부모들에 대한 접근성, 참여하고 있는 부모들끼리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 교환 등 공동체돌봄 사업의 발전적 확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모임 관련 공지 방법은?) 카톡 저희는 전체 카톡 있으니까요. (사례 6)

저희 카톡에서도 수없이 대화를 하고, 정말 가족보다도 더 많이. (사례 48)

거의 따로 만나지는 않고 이 모임하면서 주1회 (만나고 있어요.) (중략) 카톡으로 계속 연락하고 활동하면서 그냥 이야기 하고 정보 나누면서 여기 우리 가보자해서 갈 때도 있고. (사례 10)

우리가 뭐 준비해야 하는 거? (중략) 그 때도 카톡에 먼저 올려요. (사례 22)

(그룹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밴드에 올렸어요. (입주민) 밴드가 있거든요. (사례 32)

5) 돌봄 공동체 팀의 갈등, 지속성, 해체

□ 갈등요소로 예상되는 업무분담, 예산지출, 나눔터 운영진으로서의 부담감

- 구성원들 사이에 업무분담이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러한 불균형 상태가 반복되면 내부 갈등으로 표출될 수 있을 것임
- 사례 14, 사례 16는 그 같은 업무분담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이 잠재되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사례 42은 아직 업무분담을 하지 않고 돌봄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음. 그룹의 리더는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이나 유대감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업무분담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음
- 사례 3은 맘카페를 통해 알게 된 부모들끼리 모인 그룹으로 리더 어머니가 단체 티셔츠를 만들어 입는다거나 품앗이육아 활동을 위해 개인적으로 나눔터 공간발굴을 하는 등 매우 열정을 가진 경우였고, 사람들을 포용하려는 공동체 의식도 높았음
- 온라인상의 맘카페가 갖는 익명성, 정보습득을 위한 개인적 동기, 공유가치 부재 등의 특성은 공동체로서의 결속력을 만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왜 항상 나만 하는지) 얘기 하죠, 매번 나만 해요? 만약 오늘 인터뷰를 그 엄마가 하게 되었다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깨질 수도 있는(중략) 그냥 아이들끼리 유대가 좋아서 하는. (사례 14)

(사업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공동체의식이라는 표현이라고 말하면 맞을 것 같아요. (사례 33)

예를 들면 청소를 하면 같이 하잖아요. 제일 먼저 청소기를 들고 하다보면 없어요. 재활용 버리러 아까 나갔는데 끝날 때쯤 들어오시고. 조금 그런 캐릭터이신 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하시는 (중략) 본인이 내킬 땐 돌봐주거나 나눠주기도 하지만 그건 본인의 방식인거죠. 공동체를 하다보면 본인이 원치 않을 때도 해야 할 때가 있어야 하는데. (사례 16)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더 연락을 하고 싶은 데 의견을 모을 때 쉽지 않을 게 예상이 되기도 하고 우리 애들도 친밀하진 않으면 여기서도 말은 안 해도 힘들 것 같고, 인원을 늘리지 않은 이유가 그런 (중략) 막상 내가 뭔가 하려면 다들 하자고 했다고 부담이 되니까. (사례 42)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을 좀 더 키우고. 제가 그 그릇이 안되는 게 그런 사람들 품어야 하는데 (중략)**카페에서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인 팀이라 (중략) 역할분담을 했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열심히 안하는 사람들 있어요 (중략) 공짜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끌고 가기 어려운 부분들. (사례 3)

- 자녀수를 기준으로 돌봄공동체 사업예산이 책정되었기에, 모든 자녀가 참석할 수 없으며 돌봄활동을 위한 만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임. 사업예산에 묶어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묶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임
- 이와 같은 예산지출에 따른 문제는 그룹의 유대감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갈등 유형으로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논란이 예상되는 가능한 모든 예산 지출 기준들을 제시해 줌으로써 초기 공동체의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늘상 자주 만나고 시간될 때 2-3명 만났었는데 편하게 했었는데 막상 어디 갈려고 했더니 6명 모두 주말에 다 시간이 있어서 만나기가 힘들더라구요 (중략) 그건 그런데. 돈을 쓰는 게 미안해서(정해진 요일에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사례 42)

네. 그럴 때 우리 예산을 쓰면 좋겠지만 모두 다 참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쓰면 안 되고. 공동의 활동이 아니다보니 그런 점들은 조금 어려운 듯. (사례 14)

- 그룹 내 구성원들의 개인적 성격, 가정환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동체 의식에서의 차이는 품앗이육아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의견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

- 다양성은 잠재적 갈등의 원인이자 동시에 그룹의 역동적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임.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에서 오는 일시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습득해 나가는 것은 공동체가 거쳐야 할 과정이며, 발전적 역량이 될 수 있음

뭔가 공동체적인 느낌이 약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분이 한 두 분 계시니깐 뭔가 그런 애기를 할 때는 매주 한 번 보자 하면, 왜 그렇게 자주 만나, 2주에 한 번만 보자. 그리고 밥 해 먹자 하면 그냥 사서 먹자. (사례 16)

체계적이 되고 아빠들의 만남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데 대신에 부담감이 있어서 힘들다는 거죠. 지출하는 것에 부담이 되고 또 서로 의견들이 다르기도 하고. (사례 9)

- 기관에서 나눔터를 운영하는 경우와 달리 주민들이 운영진으로 활동하는 경우, 나눔터 운영에 대한 부담과 함께 같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는데 따른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음

엄마들이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저런 거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다는 아니어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싶은데 그게 압박으로 (중략) 일종의 부담으로 오기도. 운영진을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건 아닌데, 막상 하다 보니 공인처럼 저희가 하지도 않았는데 공격 아닌 공격을 받게 되는. (사례 16)

여기는 작년에 했던 활동들을 *** 이름으로 했던 게 너무 많고 저희는 언제든 누구나 같이 참여 가능하십니다. 라고 하지만 또 저 팀이 하네 저 팀이 하네 이런 식으로 박히다 보니까 수눌음이 저희 때문에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 것 같구요 (중략) 귀를 기울여서 들긴 하는데 우리가 다 해먹는다는 식으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사례 11)

□ 돌봄 공동체 활동에 대한 마을 어르신과 부모 간의 갈등

- 마을 안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젊은 세대와 생애주기 후반의 노년 세대 사이에 같은 마을 주민으로서의 유대가 사라진 요즈음, 마을에서의 돌봄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마을이 아이들의 놀이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볼 때, 마을 주민들 사이의 세대 간 교류를 위한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줌

공터가 있어요. *** 어머니집 옆에. 제가 큰 아이들을 데리고 전래놀이를 해 주려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시던 동네 어르신이 여기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활동을 그만한 적이 있었어요. (사례 34)

- 돌봄활동을 통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웃의 부모들을 만나고 심리적,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은 필요하지만, 돌봄활동이 정기적으로 진행될 때, 약속된 일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음
- 진정한 공동체라면, 자신이 쉬고 싶을 때, 활동에 빠져야 할 때, 이유를 말하고 빠지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필요가 있을 것임

일이 너무 많은데 어떤 날은 이게 아 제가 까먹거나 좀 쉬고 싶은데 목요일날 가야하지 이런 부담감 한 번 느낀 적 있어요. 애들 어린이집 다 맡기고 쉬고 싶다. 하고 한 시간만 누워있을까 그런 정도인데 어쨌든 미안한 마음에 가야 하는 거죠. 이걸 준비해준 사람도 있고 약속이 있으니까. 막상 오면 좋은데 가끔씩 그런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사례 1)

지금은 참여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해 하는 (중략) 오히려, 가고 싶은 데 죄송해요. 하고. (사례 28)

□ 대부분 그룹들이 돌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속 의사를 가짐

- 많은 그룹들이 사업예산 지원이 중단된다고 해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돌봄활동이나 만남을 지속할 것이라는 답을 하였음
-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지금도 일부 자비로 충당하고 있거나,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었음. 그러나 모임의 횟수가 준다거나 활동 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음

지금처럼 잘 노는 거. 특별히. . . (예산 지원이 없어져도) 그래도 잘 놀 것 같은 데. (사례 48)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도) 계속 일상이 되지 않을까요? (사례 15)

2019년에 지원이 중단된다...그러면 저희들끼리 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자비 내거든요. 저희는 두 당 한달에 10,000원, 36개월 이하는 오천원 이렇게, 36개월 이상은 10,000원씩, 그제 한 백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사례 3)

작년보다 사업비가 많이 줄었다고 해서 조금 우리끼리 얘기했었는데. 그냥, 처음에 생각했던 건 다 하자. 모자라면 모으면 되지. 이 생각을 했어 가지고. (사례 22)

저는 그냥 그래요. 가족 같고 내 동기 같고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어서...애네는 애네끼리 알아서 하겠지만 저희도 저희들끼리 유대가 있어서 끊기지 않을 것 같아요. (사례 12)

초등학교까지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은 저희가 어리다보니까 중고등학교까지는 생각을 안했고. 자주는 아니지만 언니오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저희끼리는 사업이 선정 안 되더라도 자비로라도 하자 이랬었어요. (사례 10)

수놓음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작년에도 해 왔던 터라 저희 수놓음은 계속 할 것 같아요. 회비가 없을 때는 여기 모다들영 통장 말고 별도 회비를 모아서 돌려쓰고 있어서. (사례 46)

오래 갈 것 같은데... 글썄요. 애들 커서도 만나지 않을까요.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만날거거든요. 공동 화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중략) 초등학교 간 이후에는 월 모임으로 가더라도. (사례 6)

저는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모든 활동을 8가족이 다 모일 수는 없지만 연락망 그런 게 있어서. 그 전과 달리 일주일에 한번 씩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 27)

- 가치는 바람직한 것에 대한 개념으로서 행동을 예측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 비슷한 가치를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비슷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임을 말해주는 것임. 자녀교육의 가치가 공유된 그룹들은 좀 더 오랜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자녀의 학교 진학이 돌봄공동체의 중단가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는 사례도 있었음

**어머님은 이주하기 전에 큰아이를 약간 그런 형태로 6개월 정도 경험을 한 적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마을 공동체 관련 취지나 가치를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얘기를 나눠보면 육아에 대한 가치가 같았던 것 같아요 (중략) 요즘 세상은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공동체가 마을에서도 사라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잘 맞는 거예요. (사례 43)

내 아이만이 아니라 같이 키우는 것에 초점 맞추기 때문에 싸워도 같이 보는 거죠. (사례 13)

사람을 어디서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남녀관계도 이 사람을 만난 장소에 따라 신뢰도가

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엄마들 역시 육아에 관련된 교육이다 보니까 (중략) 아이가 잘못하고 있으면 정말 내 아이처럼 가서 따끔하게 혼을 내주거나 단도리 시켜주고. (사례 2)

애들이 중학교로 가니까 (그룹이 해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 16)

- 자녀교육의 가치를 넘어 개인과 가정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 가치를 공유하는 경우, 그 결속력은 더욱 높은 강도를 발휘해, 그룹의 지속성을 장기화시킬 수 있음
- 자녀교육의 가치는 자녀교육의 방법과 방향에 대한 가치인데 비해 공동체 가치는 자녀교육을 포함해 좀 더 넓은 가족의 모든 생활영역에 적용되는 가치임
- 공동체 가치는 경쟁적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보편적 가치는 아님. 의식수준의 높이가 더 높은 만큼 공동체 가치가 공유되었을 때 구성원 개개인과 그룹으로서의 활동이 갖는 영향력은 더욱 크며, 결속력을 더욱 강화될 것임

크게 마찰이 전혀 없어요. 내 의견을 내서 상대방을 하는 게 전혀 없고 이 의견 저 의견 났을 때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것 같고 분위기가 적극적이에요. 이런 공동육아 모임 책임을 지고 뭔가를 이끌어가는 게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기부할 생각이 있기에 모이는 거예요. 다들 관심이 있고 가치관이 비슷하기에 그런 것 같아요. (사례 23)

사업으로 뭉친 사람들은 아니에요. 있으나 없으나 이 관계는 관계로 갈 거고 사업 때문에 괜히 과해지면 와해될지도 모를까봐 오히려 조심스러워요. 어쨌든 모여 있는 사람들 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학습에 대한 욕구들이 있고 공동육아나 대안교육이거나 공동의 가정보육까지도 사실은 거의 아버지들이 대부분 같이 육아를 하고 계시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 지향하는 부분이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례 25)

- 사례 11은 돌봄공동체의 지속성 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으며 대안으로 돌봄협동조합을 검토하고 있었음. 사례 7은 경력단절을 경험한 부모로서 개인의 일자리와 동시에 돌봄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 사례 3은 공동체적 삶의 방식 확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로, 정부의 공동체돌봄사업이 발전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음

수놓음육아나눔터요? 아님 저희 공동체 미래요? 저는 계속 가고 싶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

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냥 공동체로는 오래 갈 것 같지 않더라구요. (중략) 자율적으로 하면 나중에 부담감으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잘 운영이 안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 처음부터 조합은 어렵겠지만 자율에서 나중에 조합으로 가는 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조합원이 되고. (사례 11)

어머니들 중에 계속 육아만 할 게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자. 지원이 엄청 많이 되고 특히 경력단절여성 뭔가 저도 사회적기업 같은 것 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하고 싶죠. 근데 이런 지원 사업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긴 한데. (사례 7)

□ 행정업무처리 부담, 지원예산 감축, 부모의 취업, 이사 등으로 참여 중단

- 사업시행 이후 돌봄 공동체 사업에 참여했다가 중단한 26개 팀을 대상으로 중단 사유를 조사(중복응답)⁴⁰⁾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그림 4-1 〉 제주도 돌봄 공동체 사업 참여(2016-2017) 중단팀 조사 결과

(단위: 년도, 팀)



주: 연도는 돌봄 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연도임

- 1차 년도와 비교할 때 대폭 축소된 지원 사업예산 규모는 그룹들의 이후 연속적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예산 축소에도 연속 참여한 사례 2는 함께 했던 그룹들의 중도하차 이유가 예산규모 축소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40) 조사대상 : '16~'17. 제주도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에 참여했다가 중단한 26개 팀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 '18.5.15~6.4일간, 메일·문자·면접 등 조사(응답율 53.8%)

자신들도 지원예산 대비 요구되는 노력이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음

아마 이번에는 신규팀들이 많은 이유가 금액이 줄어서 인 것 같아요. 8가족이여도 작년은 600이었는데 올 해는 240이니까. 저도 그 고민을 잠깐 했었어요. 사실 한 달 우리 아이 4만원. 이 4만원 때문에 내가 사업계획서 이만큼 쓰고 해야 하나 하다가. (사례 2)

- 문서 작성 경험이 없거나 오래전 경험인 경우가 대부분인 전업주부들에게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하는 일은 부담이 됨. 당초 공동체돌봄을 하고자 했던 참여동기나 목적이 무엇이었던가 다시금 생각해 만듦으로써 그룹의 해체 또는 사업의 중도하차 가능성을 높인다고 봄

가장 큰 이유는 저한테는 행정적 업무가 부담이 제일 컸어요. 서류 챙기는 게 가장 큰 이유였고, (중략) 그리고 예산을 쓰기 보다는 수놓음 돌봄처럼 돌봄을 같이 하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작년에 진행해보니 굳이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끼리 하는 게 더 편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사례 9)

지원되는 금액이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쓰기 어려웠어요. 어디는 되고 어디든 안 되고, 엄마들이 공무원이 아니다보니 (중략) 이거 정말 못해먹겠다. 내 돈 내고 그냥 놀러 가자. (사례 26)

더 열심히 해보자 해서 하게 되었는데 돈이 줄어서 작년에 했던 행정적인 게 저는 덜 힘들었는데 엄마들은 그런 걸 안했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자고. (사례 4)

- 전업주부의 취업 또는 재취업, 원거리로 거주지 이사 등의 이유는 더 이상 그룹의 돌봄활동에 참여를 어렵게 만듦. 특히 제주의 경우는 ‘한번 살아보고 싶은 곳’으로 인식되면서, 일시적 거주나 직장 발령으로 단기간 거주 후 다시 육지로 되돌아가는 사례들이 빈번함. 돌봄공동체가 해체되거나 그동안 활동했던 그룹이 더 이상 활동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음

엄마들 중에서도 취업을 한 사람이 있었고 아빠들 중에서도 사업을 하시면서 참여하기가 힘들어졌고, 이사를 갔는데 멀리 이사를 가게 되어서 힘들어졌어요. (사례 9)

제주도는 생각해보니까 이사가 잦아서 변동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팀하고도 저희가 저번에

교육 받았을 때도 이야기 해보니까 거기도 작년에 했었는데 올 해는 왜 안했냐고 하니까 거기
도 이번에 지원을 안 했더라구요. 왜 안했냐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거기도 이사를 가니까 이
게 안 되는 거예요. (사례 3)

두 집이 이주민이었는데 (두 가구 모두) 복귀를 했어요. (사례 4)

육지로 이사 간 사람도 있고. 저희 *** 5명 중 2명이 가버려서. 남편이 발령받아서. 이랬는데
저희가 셋 밖에 안 남아서 올 해는 사업 쓰지 말고 우리끼리 하자 하다가 한 거예요. (사례 1)

- 최근 이주한 이주민의 경우, 새롭게 거주할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속적
으로 상승하는 주거비용은 다른 곳으로의 재이주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음. 함께
활동하던 그룹으로부터 탈퇴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음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 살기 힘들다, 장성으로 이사를 갈까 고민을 하고 있대
요. 거긴 1년에 150에 살 수 있는 집이 있는데 여긴 1년에 600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조언을 했죠. 제주는 외지에서 많은 사람이 오니까 배척이 없는데 거긴 외지로 갈수록 모른다,
그리고 일거리도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 온다는데 그런 부분 고민이. (사례 47)

근데 그게 계속 되면 집값도 계속 오르다가 지금 멈춰잡아야요. 계속 오르면 육지 시골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희 친정은 강원도 춘천에 사세요. 아빠는 춘천 사람이라... 여기는 이모 밖에 안
계세요. 연휴 때 강원도 갔다 왔는데 좋은 거예요. 장난감도서관도 마더센터도 좋고. (사례 7)

- 그동안 놀이와 체험, 바깥활동의 돌봄을 해왔던 부모들이 자녀가 초등 고학년이
되면서 학업성적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됨.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학업의 기본과목
으로 여겨져 온 국, 영, 수 과목의 점수를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학원보내기를
선택하는 사례들이 나타남. 또는 돌봄공동체에 참여했던 부모의 가족구조 혹은
가정환경 변화로 인해 학원을 대안으로 선택하면서, 마을에서 돌봄을 받던 자녀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기도 함

학원으로, 중학교에 가야하니까 학업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더라구요. (사례 48)

4학년 되면서 학원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빠지고, 조손가정 있던 아이들도 할아
버지랑 있으니까 공부를 봐줄 사람 없어서 아빠가 영어 학원 끊어 줬어요 하길래. (사례 5)

- 자녀의 중고등학교 진학 이후의 상황에 대한 부모의 걱정이 제주에서의 계속 거주를 망설이게 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룹 해체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음. 초등 고학년이 되면서 사교육으로 전환하는 사례와는 반대의 상황이 전개됨
- 비평준화 체계의 중고등학교 입시제도는 성적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생활을 강요하고 있고, 자유교육을 희망하는 공동체돌봄의 가치를 지닌 부모들은 이를 피해 대안학교나 육지의 평준화 학교로의 진학을 고려하게 됨
-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이주민 부모들은 중학교 입학시기, 고등학교 입학시기에 자녀의 학교 문제로 재이주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었음

초등학교 졸업 할 때까지는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평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입시도 심하고... 최근까지는 입시가 비평준화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중고등학교는 위로 대안학교를 보내던지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저희랑 비슷한 성향을 가진 선배들을 보면 아이는 다 위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중략) 그렇다고 아이만 혼자 보내긴 그렇고. (사례 7)

크게 서로 안볼 일 생기지 않은 이상은 지금 관계가 계속 꾸준히 가서 이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한 중학교로 가게 되어있어요 (중략) 근데 육지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고등학교를 여기서 보내야하나 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례 19)

중3이라서 고민 되어요. 육지에 보내야 되나. (사례 29)

지역이 달라지면. 예를 들면 육지로 학교 가든 지역이 달라진다면 못할 것 같아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 다닐 때쯤이면 가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어요. (사례 14)

- 공동체돌봄의 경험이 짧고, 미처 공동체 가치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라 할지라도 리더의 강력한 리더십은 그룹을 지속시킬 수 있게 됨. 그러나 구성원들의 공동체돌봄의 중요성이나 공동체 의식이 낮은 상태에서 강력한 리더의 부재는 그룹의 해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없었어요. 저도 막 하고 싶지 않고. 아빠들도. (사례 9)

다른 엄마들은... 공동육아에 대한 생각도. 그 생각을 키워줬어야 했는데 그것도 안 되었고. 일단 장소도 안됐으니까, 그냥 회사, 그리고 다른 중요한 일들을..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례 3)

□ 돌봄 공동체 사업 참여 중단 이후에도 인근 나눔터에서 만남 지속

- 사례 16은 굳이 공동체돌봄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아이가 엄마가 있는 나눔터에 드나드는 일종의 마을 사랑방 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음.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나눔터는 이미 사례 16이 공동체돌봄을 해오던 곳이고, 엄마와 동네 이모들이 있는 친숙한 곳이기에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임
- 사례 3은 나눔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지역에서 그룹 리더가 개인적으로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음. 리더가 속해있던 그룹은 해체되고, 현재는 그룹명만 유지한 채, 다른 지역, 다른 구성원들과 공동체돌봄을 진행하고 있음. 활동공간의 문제가 그룹의 해체를 가져온 사례임
- 안정적인 활동공간의 확보가 공동체돌봄의 유지, 발전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사업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면) 네네. 사실 그게 고민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놀자고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애 같은 경우는 학교 마치고 엄마 없으면 여기로 와요. 수놓음으로. 집에서 숙제 해 하면, 거기서 할게. 이렇게 (중략) 이렇게 그런 공간이어서 내년에도 품앗이를 못해도 저흰 뭔가의 모임은 계속 할 것 같아요. (사례 16)

(활동할 때) 너무 좋았는데 그 장소가 되었더라면 **팀이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사례 3)

- 사업 참여 이전의 그룹들이 부정기적으로, 가끔씩 만나는 형태를 유지하다가 사업 신청 이후에는 자주, 체계적인 돌봄 활동을 하던 것처럼, 사업 참여가 중단된 그룹은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음
-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동체돌봄의 경험이 있는 그룹들이 그동안 형성된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유대를 토대로 지역에서 공동체돌봄을 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임

네, 만남의 횟수가 많았고, 아빠들도 참여를 더 잘, 사업을 하는 아빠들이 많아서 이거를 한다고 하니깐 그래도 어렵게라도 시간을 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젠 하지 않으니까 엄마들만 만나게 되고 하는 거예요 (중략) 그래서 아쉬움이 있죠, 횟수도 줄고. (사례 9)

6) 돌봄 공동체 활동의 특징으로 본 유형

- 본 조사 결과,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 부합되는가의 관점에서 돌봄 공동체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음
- 첫째, 그룹 구성원들의 거주 근접성에 따른 일상적 교류의 빈도임. 구성원들의 거주지가 도보로 이동가능한 정도로 가깝거나 차로 이동해야 하지만 비교적 짧은 거리여서 일상적인 도움이 빈번히 교환되는 경우임. 거주지가 가깝기에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이르거나 늦은 시간에 구애를 덜 받으며, 짧은 틈새시간의 돌봄 공백을 서로 해결해줄기가 용이함. 일상적 교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만큼, 구성원들 사이의 친밀감과 유대가 견고하게 형성될 수 있어 마을에 기반한 자원교환 관계망으로서 기능을 훌륭히 할 수 있게 됨
- 둘째, 그룹의 돌봄 활동 프로그램이 체험과 놀이중심인지, 아니면 성과와 학습 지향인지에 따라 아이들이 돌봄 공동체에서 경험하고 배우는 내용이 달라짐. 체험과 놀이중심의 활동은 서로 배려하고 돕는 공동체 가치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창의적 학습, 자유학습이 가능한 교육으로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이에 비해 성과지향, 학습지향의 돌봄 프로그램에서는 경쟁적 가치, 자기중심적 태도, 자기철학 없이 대중적 문화 따라가기의 학습 가능성이 높아짐
- 셋째, 구성원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가치관이나 공동체적 삶의 방식에 대한 가치관이 공유되는 그룹은 추구하는 목표점이 같으므로 돌봄 공동체의 지속성이 높으며, 보다 짧은 시간에 내부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 중간 그룹인 보육시설이나 초등학교 학부모 친분관계를 통해 구성된 그룹은 학부모로서의 지위를 공유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학부모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시점이 되면, 돌봄 공동체를 유지할 동기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음. 정보습득, 내자녀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성장에 관심 두는 개인적이며, 이기적 동기로 구성된 그룹은 구성원들 사이에도 경쟁적, 계산적 관계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음
- 넷째, 리더의 공동체 의식이 리더십으로 발휘되는가에 따라 그룹의 내부 구성원들의 관계역동, 의사결정 구조, 갈등 해결 방식, 돌봄 활동의 목표가 달라질 수 있음. 사람에 대한 존중, 가족 다양성에 대한 수용,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 그리고 조금 더 주기, 미안해하지 않기, 기다려주기와 같은 리더십이 리더의 공동체 가치로 내면화된 그룹은 체면차리기의 긍정적 효과가 발휘됨. 리더의 공동체 가치가 부족한

- 경우, 그룹이 해체되거나 사교육 따라가기에 급급한 돌봄 활동의 가능성이 높아짐
- 다섯째, 공유할 수 있는 마을의 돌봄활동 공간은 가장 먼저 아이들이 마을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 부모들이 나눔터에 있는 아이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함. 부모가 돌봄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지 않더라도, 나눔터 이용이나 이웃부모의 돌봄 활동에 아이가 참여할 수 있는 마을돌봄의 가능성이 높아짐

〈 표 4-5 〉 돌봄 공동체 활동의 특징으로 본 유형

기준	긍정적 특징		부정적 특징
거주근접성 x 일상적 교류	근접거주하며, 일상적 교류 빈도가 높음		일상적 교류 빈도가 낮음
돌봄 활동 프로그램	체험과 놀이중심		성과 및 학습지향
구성원들의 공동체 참여배경	공유된 공동체 가치가 있음	보육시설, 학교 등으로 친분관계	자녀 잘 키우기의 개인적, 이기적 동기
리더십	공동체 가치가 내면화된 리더		공동체 가치가 내면화되지 않은 리더
공유할 수 있는 마을의 돌봄활동공간	작은학교, 아파트단지, 마을의 공유된 돌봄활동 공간		마을과 연결된 공유 공간 없음

7) 돌봄 활동 공간

□ 자택, 나눔터, 놀이터, 야외, 상업 공간 등 다양한 활동 공간 이용

- 나눔터 개소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부모들은 좀 더 많은 나눔터, 마당이 있는 나눔터를 희망하고 있었음. 또한 설치된 나눔터도 이용의 편의성이 높아져야 하며, 키즈카페와 같은 상업적 공간 외에 자유교육의 가치관에 부합되는 놀이 환경에 대한 요구도 하고 있었음

공동육아 꽤 많잖아요. 그럼 공간이 있으면 좋죠. 맘껏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아까 말한 공간 좀 만들어줬으면... 마당도 좀 있고...(사례 6)

그 외 가장 큰 어려움은 장소예요. 수놓음육아나눔터를 계속 개소를 하고는 있지만 그거를 얼마나 엄마들이 활용을 하느냐는, 활용하기까지는 아직 많이 힘들다는 생각이예요. (사례 26)

공유지가 부족해요. 카페도 다 노키즈 존. 여기는 관광지니까 육지보다 더 하더라구요. 아이들을 좋아하는 곳도 있지만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는 곳도 있어서 그리고 시내권은 키즈 카페 말고 갈 수 있는 곳이 없을까? 모험놀이터 만들어주면 안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례 7)

- 기본적으로는 많은 팀들이 활동공간으로 나눔터를 이용하고 있었음. 그밖에도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집을 포함하여, 야외의 자연환경, 외부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필요 시, 이용요금을 지출해야 하는 상업적 공간도 이용하고 있었음
- 영아 그룹의 활동에는 실내의 좌식공간이 매우 중요한 조건이나, 자녀의 연령이 높아지면 돌봄활동의 내용이나 방법들이 다양해지며, 이를 수용하는 공간도 다양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는 자녀 연령에 따라 나눔터의 내부 공간 이용 수요가 달라진다는 점을 말해줌

** 작은도서관(나눔터)에서 많이 하긴 했는데 거기에서 시간적 제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녁에는 많이 받아서 야외에서 많이 했었고, 아이들과 활동을 바깥에서 많이 하려고 하긴 했는데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안에서 해야 할 경우는 **에서 만나서 하는 걸로. (사례 31)

여기서 애들이 놀아도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오전에 모일 때는 여기서(** 도서관 내 독립실) 놀고 키즈 카페 가서 놀고 밥 먹고,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장소도 조용해야 하잖아요. 강당에만 있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애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점심먹이고 키즈 카페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4시로 시간을 바꾸다보니 그 시간에 키즈카페 가려면 부담인 거예요. 언니 우리 집 가자 해서 그 집 가서 짜장면 시켜 먹고 그럴 때도 있구요. (사례 6)

가정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중략) ... 월 3회를 모이기로 했는데 한 달에 1번은 여기로 오고(나눔터), 1번은 가정, 1번은 야외로 가기로 했어요. (사례 18)

- 여러 명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돌봄활동을 하려면 비교적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고, 활동에 따른 사전준비와 뒷처리 등 수고를 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을 활동공간으로 기꺼이 제공하는 사례들이 많았음
- 공동체돌봄에 대한 적극적 참여의사가 이를 가능케 할 수 있었을 것이며, 또한 육지에 비해 좀 더 여유있는 주택규모가 공간제공 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저희 공간에서 했어요. 단독주택 2층 저희 집이니까. 왔다갔다 열 몇 명 애들이 놀고. (사례 8)

역할분담을 할 때부터 장소제공은 내가 할 게 하고 한 거예요, 자원한 거예요. (사례 35)

지금은 저희 집에서 계속 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많이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사례 22)

- 자택을 이용한 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순번으로 집을 돌아가며 활동하는 사례들은 기꺼이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동체돌봄 활동이기에 청소 및 정리 등의 불편을 감수하는 사례들도 보였음

비 올 때 쓸 수 있는 공간... 다들 마음이 적극적이고 좋다 보니까 다 적극적으로 오픈할 마음이 있고 허브 만들기 했는데 그 많은 아이들 허브 만들고 뛰어놀고 다 자기 집에 부를 마음이 되어 있더라구요. (사례 23)

오늘은 **네 집에서 보자 하면서 집을 돌아가면서. 그리고 작년에 사업신청 할 때도 여기 사용법을 모르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했었어요. (사례 15)

매장 안에 있는 공간에서 저희가 썼거든요. 거기 직원들이 점심을 드셔야 하니까 집에서 모이게 됐어요. 우리 집에서 개최하고 그럼 내가 주인이 돼서 무슨 요일에 할지 정해서...(중략) 집이 안 되면 마당에서 했어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20-30평대는 되는 것 같아요. (사례 4)

우리 집에서 할 때도 있고, **이네 집에서 할 때도 있고, 아, 너네 집하자 이렇게. 좁은 집은 싫어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해서 그냥 하는 편이고 (중략) 서로 서로 하는 건 아니죠. 엄마들은 귀찮으니까. 치우는 게.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사례 14)

□ 주거 공간 사용의 어려움 및 어린이 요리활동 등 다양한 활동 공간 부재

- 자원해서, 기꺼이 자택을 돌봄활동 공간으로 제공하는 사례들이 많기는 하나 많은 수의 인원이 폐쇄적 공간인 집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함. 조리활동이 어렵다거나 집에 있는 장난감으로 인해 활동에 집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부모들이 뒷정리를 함께 한다 해도 자택을 제공한 부모는 활동 전 준비, 활동 후 청소나 정리활동에 대한 부담을 더 안게 됨

그런데 막상 하자니 13명이 아이가 집에서 하게 되면 선뜻 우리 집에서 하자고 하는 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 쿡쿡하고 싶은데 선뜻하지 않은 상태. (사례 42)

그러고 싶는데 바로 집이 붙어있으니까 참여가족에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가 집으로 가면 우리 가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는 가지 않아. 여기서만 활동할거야. 라고 해도 그게 잘 안되니까... 분리가 되면 관계가 없는데. (사례 50)

집에서 하게 되면 집중도가 떨어져요. 장난감이 일단 있다 보니까. 장난감 일단 하게 되고 활동을 하다가 또 장난감 놀이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집중도 떨어지게 되고. 장난감까지 다 정리해줄 수 없어요. 활동 정리만 하지. 그래서 집에서 모이는 건 어려운 점. (사례 10)

- 최근 식문화에 대한 사회전반의 높아진 관심도, 그리고 공동체돌봄에 있어 함께 식사하는 것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요리활동은 선호도가 높은 돌봄 프로그램임. 조리시설을 설치한 나눔터는 2~3곳 정도이며, 일부 복지관에 설치된 나눔터의 경우,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조리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정도임
- 높은 요구도를 고려할 때, 요리활동이 가능한 공간은 매우 찾기가 어려운 실정임. 그나마 조리시설이 있는 나눔터를 이용하고 있는 그룹들은 주방이 협소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조성과정에서 부모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요리 같은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3가구가 되니까. 수놓음센터가 많긴 한데 요리가 되는 곳은 **밖에 없어요. (사례 4)

사실 나눔터 보면 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거 보면 취사는 못해요. 안전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는 밥을 먹으러 집이나 식당을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가능한 곳을 만들어주면 안될까... (중략) 공유부엌을 만들어주시면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사례 7)

그런 건 주방이 협소하다는 것.(중략) 만들 사람하고 쓸 사람이 우리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해줘가 아니라 건축설계사가 생각한대로 지은 것을 그냥 엄마들이 쓰는 거예요. 그니까 그 공간에 맞춰서 활동이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례 11)

□ 제한적 도서관 이용에 대한 제약 및 이용 수칙에 대한 문제

- 지역의 도서관(작은 도서관)은 양육기 자녀와 부모들이 빈번하게 드나들며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돌봄공동체 활동에 대해 도서관측의 수용적 태도 여부에 따라 그룹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공간임
- 그러나 도서관의 기본기능이 있기에 다른 이용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거나 비공식적으로 허락받고 이용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음
- 사례 8의 경우는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공동체돌봄과 부합되는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돌봄공동체의 활동에도 도움을 받는 경우였음. 양육기 가족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물리적인 내부공간의 문제가 없는 한 도서관에서 돌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여기서 그 (도서관) 관장님네가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서 참여하고 여기서 동창이어서 만나고 그런 식으로 옆에 친구들도 같이 친해지고 여기가 좀 그런 분위기에요. (사례 8)

주중에 모이는 건 여기(도서관) 강당에서 하구요, 도서관에서 빌려주셨어요. 저희가 할 때에는 (도서관 내 북카페) 의자를 밀어놓고, 근데 그 시간에 오신 분들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사례 6)

저희가 ***살거든요, 그 안의 작은도서관 쓰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여러 공동체에게 줄 수 없으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책도 읽고 뭐 할 수 있는데. (사례 23)

-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공간이므로 기관의 기본 이용수칙은 지키는 것이 당연함. 돌봄공동체의 활동을 허용하는 도서관의 경우에도, 활동에 따른 소음을 관리해야 하므로 활동내용에 제약을 받게 됨
- 또한 필요할 때 언제라도 사용하기는 어렵고, 한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 가변성이 많은 아이들과의 활동 공간으로서 어려움이 있음

도서관도 여기서는 아이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 다른 도서관에서는 이런 공간이 없어요. 다른 데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와서 할 수 있는 곳... 진짜 조용해야 하고. **는 전혀 없고 ***도 가봤지만 데스크를 회의실처럼 만들어놔서...(사례 6)

(어린이 도서관에서) 하긴 하는데 시끄러울 수 없어서 활동이 한정적이긴 해요. (사례 10)

***도서관 (중략) 네.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사전에 예약을 해서, 5월에 쓸 거면 4월에 미리 예약을 해서. 다른 팀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한 프로그램은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된다고 했다고 들었고 우리 색종이 접기 등 조용히 해서 아직까지는 있어요. (사례 27)

- 도서관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돌봄활동을 허락한 그룹들이 뛰어다니며 시끄럽게 하거나, 활동 후 정리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면, 돌봄공동체의 활동을 허용하기가 어려울 것임

책을 읽으려면 우선 도서관은 조용해야 하죠. 그런데 음식물과 음료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다른 이용객들이 보기에 우리는 왜 안 되느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르게 되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고 주의를 주면서 양해차원에서 3번까지는 부탁을 드린 것으로 들었어요. 특히 세미나실에서 물감활동을 하고 나서 뒷정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면 다음 이용객들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하는 데 여기 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려 정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요. (사례 O)

엄마들이 너무 자신들 얘기나 활동에 빠져서 애들이 돌아다니거나 뛰어다니거나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한두 번 얘기해도 안 되는 경우는 주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사례 Q)

- 돌봄공동체에 대한 사전 안내나 정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심지어 돌봄 활동이 가능한 독립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룹의 도서관 이용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도서관은 아동의 성장발달과 떼어 놓을 수 없는 중요 시설이며, 도서관 설치 목적에 분명 아동 관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성장발달이라는 점에서 지향점이 동일한 아동돌봄 그룹의 도서관 이용을 거부하는 것은 단지 기관관리자의 입장에서만 접근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상이한 소관 부처간 협력적 사업추진, 지자체의 도서관 내 돌봄활동의 협조지원, 도서관협의회와의 협력 등 이후 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저 성산**도서관에 실망했다고 전해주세요. 같은 공공기관끼리 협조를 해주셔야 ... 분명 열린 공간이거든요.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중략) 사실 맨 처음에 당연히 도서관 생각했었어요. (중략) 근데 도서관에서 굉장히 협조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가 같은 주민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몰찬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하게... (중략) 공문을 가져오라는 식으로... 여

가부 쪽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독립실이) 엄청 많아요. 정말 너무 실망했어요. 비용을 지불하고도 대관을 하겠다 했더니 절차 설명도 없이 못해주겠다 해서...(사례 12)

일요일에 활동하는 데 다 거부하게 되었어요. 시끄럽다고. 그 집은 맞벌이도 있고 해서 일요일에 하는 데 일요일에 오지 말라고 애들 시끄럽다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주도내 어린이 도서관에서 오지 말라고 해요. ***도 그렇고 ###도 그렇고. 애기들 시끄럽다고 오지 말라고 해요. 활동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는데. (사례 18)

□ 마을 내 공동시설 공간 이용 사례 및 경로당과의 갈등 사례

- 노인회, 노인정과 같은 공동시설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사례, 상업적 교육시설 공간, 협동조합 관련 공간을 무상임대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었음
- 하지만 조사된 사례들은 한시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이거나 해당 시설과의 갈등으로 이용이 중단되는 등의 경우도 있음

지금 여기 사용이 가능한 게 노인회 자체가 주중에는 운영이 되는데 주말에는 운영이 안 되어요. 그래서 계약서로 하는 건데 주중에는 노인회 프로그램이 다양하더라구요. (사례 50)

공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했어요. 주말에는 수업이 없으니까 열어달라고 해서. 그리고 원래 아이들 수업 했던 곳이니까 프로젝터, 색연필, 가위 다 있으니까. (사례 2)

일층은 간단하게 조리시설이 있어요. 거기서(경로당) 팔죽 만들고 만두 만들고 가능했던 게 엄청 넓은데 조리시설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사례 36)

- 나눔터 이외의 공간을 사용하는 몇몇 사례들이 있지만, 마을의 공용공간 내, 나눔터 활동을 위한 공간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첫째, 기득권과의 경쟁적 구도임. 주로 마을 노인들이 사용하는 공간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음. 아파트단지가 신축 분양되어 공용공간의 용도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경로당과 돌봄공간 사이에 일종의 세대 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법적 설치 공간인 경로당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상태로서 돌봄이 이루어질 때, 공간을 내주어 함께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 내부에 비치하게 되는 물품과 경로당에서 원하는 물품과의 충돌, 돌봄활동 전후의 청소 등 공간관리의 부담 등으로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태도가 강한 것으로 여김

- 둘째, 타지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임. 또 다른 마을 내 공간을 돌봄활동 공간으로 확보하고자 했던 사례 5는 제주 원주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마을 어르신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경험을 해야 했음. 부모들이 돌봄공동체 활동을 위해 직접 마을안의 공간을 찾고자 할 때, 그들의 공식적인 지위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근데 거기에(아파트 단지내) 안 쓰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 공간을 하면 되는데 아파트단지 입주회에서는 건강진흥원처럼 런닝머신 가져다놓고 그러고 싶으시데요. 애도 없으시니까 그걸 하지 귀찮게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셨어요. (사례 5)

한 분 할머니가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경로당을 원하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저희같이 주로 세대 입주하신 30-40대 엄마가 많은데 경로당에 들어오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사례 32)

경로당 같은 거는 해주고 싶으신데 운동기계라던가 tv, 노래방기계 같은 게 있어서 아이들이라서 왔다갔다하면서 물건 파손시, 집기가 2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해줄 수 없다고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경로당이 정말 좋아요. 공간이 넓고..(사례 23)

처음에 공간이 너무 노후가 되어있어서 나눔터로 조성을 하자 했었어요. 이장님도 설득을 했고... 좋다 해서 허가서 까지 받아서 진행할 것처럼 다 되었는데 (중략) 여기 토박이 엄마들도 많은데 듣도 보도 못한 여자가 와서 우리 마을 재산을 쓰겠다고 하네 이게 된 거예요. (사례 5)

□ 돌봄 공동체 활동의 공간 확보를 위한 공식적 지원체계 필요

- 어린이도서관 이용을 거부당했던 사례 26은 돌봄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기관이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음
- 그보다 먼저, 마을 담당 공무원인 사례 P는 기존 건물에서 돌봄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축 집합주거단지 조성할 때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음. 서울시와 타지자체의 경우, 공간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 볼 수 있음

제주도내 어린이도서관에서 오지 말라고 해요. (중략)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협조

사항으로 공문을 통해 솔직히 해준다면 굳이 개인 가가지고 장소를 구하는 거랑 공공기관측에서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일요일만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관 측에서 할 수 있는 절차만이라도 저희에게 알려주신다면 이러이러 기관을 이용하면 협조가 가능하다고. (중략) 그런 것을 그런 과정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 18)

10년 이상 건물에는 거의 유휴공간이 없다고 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조성할 때 처음부터 만들도록 하거나 기존 건물인 경우는 임대하는 방식으로 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소규모 아파트나 연립단지 조성할 때, 그런 건물은 대부분 학교 근처나 마을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도 많을 거고 나눔터를 조성하더라도 더 좋을 거예요. (사례 P)

□ 농촌지역 및 다세대 밀집 지역 등의 돌봄 공동체 활동 공간 확보 필요

-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가문화시설이 적으며, 놀이터 시설도 부족한 상황임. 여기에 덧붙여, 농업종사자의 특성상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게 되는 농촌가정의 자녀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보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나눔터와 같은 공간을 더욱 필요로 함
- 다른 한편으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곳에 거주하는 사례 7은 아파트 거주가 어려운 경제적 약자층의 거주지역에는 돌봄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을 말하고 있음
- 농촌과 유사하게,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마을의 경우, 나눔터 설치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더욱 많을 수 있을 것임

시골이 도시보다 놀 공간이 필요해요. 아이들끼리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상황, 차라리 도시는 학원을 돌리더라도 하는 데 농어촌쪽에 많아야 할 것 같아요. 주말에 애들만 놔두고 엄마아빠들이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놀다가 배고프면 다른 곳에서 먹고 놀고 가요. (사례 45)

제주에는 공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나갈 때가 없어요. 놀이터를 나가려고 해도 날씨가, 갈 때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이랑 집 밖에 갈려면 갈 때가 없어요. 제가 제주시에 살면 키즈카페라도 가는 데 성산포는 지금 많이 발전했지만 (중략) 아기랑 나갈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례 44)

지역에 센터(나눔터)가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했는데 딱 남원리만 없더라구요. (사례 50)

아파트는 살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있고 마을에 사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지금은 없거든요.(중략) 근데 아파트니까 가능한거지, 돈이 없으면 아파트 못사는데... 육지에서도 느낀 건데 (중략)저는 빌라인데... 어쩔 수 없다. 아파트 사는 사람만 이용한다? (사례 7)

□ 수놓음육아나눔터의 이용 접근성, 내부 공간 조성 및 관리 강화 등 필요

- 영유아로 구성된 사례 32은 거주지 근처에 나눔터가 설치되어 도보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음. 이에 비해, 초등생 자녀가 중심이 되는 그룹들은 초등학교 근처와의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었음. 이는 나눔터까지의 안전한 이동을 고려한 부분이며, 동시에 초등돌봄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임

너무 멀죠. 바로 아파트 근처에 있어야 해. (사례 32)

우리는 원하는 게 그런 공간이 있는 것은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학교 근처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례 45)

학교 근처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시간 빌 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주 크게 하는데 솔직히 그런 공간이 멀리 있으면 필요가 없어요. 10분 안에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멀리 있으면 있으나 마나거든요. (사례 50)

- 나눔터 이용은 영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의 아이들까지 비교적 넓은 연령층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들은 나눔터 이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음
- 나눔터 사례 A의 운영진은 초등학생들은 나눔터 이외에도 이용가능한 시설이 많다는 점, 영유아에게는 실내 돌봄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 나눔터 사업 방향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임

아이들 나이로 하면 전 이미 끝났죠. 아이들은 이제 거의 잘 안와요. 3-5학년. (중략) 이 육아나눔터라는 공간은 분명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례 11)

(나눔터에서 연령 간 충돌이 있다면) 영유아에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냥 스쳐가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초등만 되도 학원도 다니고, 유치원만 되도 피아노든 뭐든 다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오후에 사실 갈 데가 많아요. 개들은. (사례 A)

- 일부 나눔터의 경우, 실내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특히 영유아 돌봄을 하는 그룹들의 불편한 이용 상황이 드러나고 있음
- 또 다른 사례는 보안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수유공간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의 문제, 성적 불감증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곰팡이를 방치하는 등을 발견할 수 있었음. 내부공간 조성시 필수적 기준 준수와 상시적인 공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장소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게 참 불편하더라구요 (중략)외부로 나가면 2층 작은도서관에 있지만 애들 같은 경우에 급할 경우 가다가 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난감하거나, 또 비가 오거나 할 때도. (사례 31)

수유실에 카메라 있어서 사각지대에서 수유를 해야 해요. (사례 30)

보시는 것처럼 저런 부분 있잖아요. 시간이 흘러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저희는 외관상 괜찮은데 아이들이 어린 엄마들한테는 좀... 그리고 뒤에도 보면 곰팡이들이 많거든요. (사례 11)

□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장난감보다는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빈 공간

- 장난감 도서관의 경우, 장난감 이용을 위한 서비스 제공의 개념임. 부모들은 서비스 이용에 따른 혜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 부모들의 힘으로 아이들을 잘 돌보는 부모역할을 하고자 하는 돌봄공동체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들이었음. 나눔터 조성 시 공동체돌봄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함

수놓음나눔터가 장난감도 많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활동이 요리나 퍼포먼스나 물감 같은 걸 하는데 이런 데에서는 하긴 좀 그렇죠. 이런 시설 같은 걸 쉽게 주말에 이용할 수 있게. 굳이 장난감 없어도 그냥 사무실만 있어도 냉난방만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도. (사례 10)

곳곳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비어있고... 그런 부분들 개방해서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게. 나눔터처럼 완벽하게 안 해줘도 실내공간 화장실 있고 (중략) 지금은 장난감 비싼 거 사다놓고... 사실 육지도 똑같아요. 장난감 도서관이라고 해서 갔는데 장난감만 비싼 거 사다놓고 보육교사가 4명 계세요. 계속 장난감을 정리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사례 7)

여기는 저희가 세팅 할 때 (중략) 장난감을 가져와서 노는 키즈카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활동을 준비해서 아이들과 같이 하는 빈 공간으로 취지를 두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구 같은 게 있었어요. (중략)그것도 사실 상주관리자가 있어서 쓰고 넣어 놓고 가야 하는데 아이들이 있다 보니 다 쓰어버렸거든요. (중략) 아이들이 서로 갖는다고 싸우고. 그리고 놀이감이 없으니까 엄마들이 오히려 더 놀아주고 깨끗하고 (중략) 없는데도 애들은 친구끼리 잘 놀아요. (사례 11)

- 나눔터는 현재 0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넓은 연령범위를 이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용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영유아 부모들은 초등생들의 활발한 신체활동과 넓은 활동범위로 인해 안전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었음

애기들 엄마는 큰 애들이 다가가면 자기애들을 안고 그래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안 가게 돼요. 위험할까봐 오히려 피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공간을 넓히거나 분리 같은 경우를 하면 환경개선이 되지 않을까. (사례 26)

여기서 놀다보니까 여기 큰애들이 오더라구요. 학교 끝나고. 우리 애들이 치어요. 우리 애들이 어리니까. 움직임도 크고~ 애들이 크다보니 소리도 크고 하니까 우리 애들이 스트레스 받고, TV보고 하니까. 여기는 TV보러 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중략) 큰 애들이 가지고 놀 책을 본다 던지, 예를 들면 도서관이든지 차라리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큰애들은 그쪽으로. (사례 30)

나이차이가 3세부터 9세까지 있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같이 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미술활동이라고 하긴 했지만 (중략) 진짜 정신이 없더라구요. (사례 44)

육아나눔터라는 곳이 어떤 곳이어야 되나 생각했을 때 저희는 (중략) 지금 뭔가 정말 정확한 하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육아나눔터가 계속 앞으로 갈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례 A)

□ 보육시설 하원 혹은 방과 후, 주말 수놓음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부모들

- 부모들은 보육시설에서 하원한 이후 또는 주말에 돌봄활동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음. 이 같은 수요를 수용하는 나눔터들도 있지만, 또한 많은 기관 수탁 나눔터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 나눔터 개방을 연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

시간대가 거의 5시에 마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면 5-6시 되고 저녁 먹기 전까지 1-2시간 정도 짧게 모이는 거라서 (중략) 수놓음 직원 근무시간 자체가... 저녁때까지 좀 해주시면 (중략) 이용하기 조금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사례 21)

저희 공간의 제약이 너무 많아요. 여기를 일요일에 열라고 할 수도 없고 (중략) 집에서는 매 주 모일 수 없고. 그런 장소의 문제, 공간이 좀 더 넓고 대관도 주말에는 잘 안 해요. (사례 12)

8) 주민자치방식의 운영 정도에 따른 수놓음육아나눔터 유형

- 현재 수놓음육아나눔터 운영 상황은 제주도의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방향성에 맞게 부모들의 자조역량에 맞는 돌봄 활동 및 사교육을 지양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즉, 수놓음육아나눔터 운영진 혹은 담당자의 돌봄 공동체 확산에 대한 사업의 목적, 사업의 방향, 사업 홍보 및 관리 등의 운영 역량의 세 개 요소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었음
- 2017년 말 기준, 개소된 수놓음육아나눔터 중 본 조사 결과 분석에 근거한 수놓음육아나눔터만을 대상으로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음

〈 표 4-6 〉 주민자치방식의 운영 정도에 따른 수놓음육아나눔터 유형

		운영 주체	주민자치 방식 운영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확산 요소		
				사업 목적	사업 방향	홍보, 관리 등 운영 역량
그룹 1	사례 A	민간	○	○	○	○
	사례 B	민간	○	○	○	○
그룹 2	사례 C	민간	○	○	○	△
	사례 D	민간	○	○	○	△
	사례 E	시민단체	x	○	○	△
	사례 F	복지관	△	○	○	△
	사례 G	복지관	x	○	○	△
그룹 3	사례 H	복지관	x	○	△	△
	사례 I	복지관	x	○	△	△
	사례 J	복지관	x	○	△	△
그룹 4	사례 K	복지관	x	○	△	x
	사례 L	민간	○	△	x	△

□ 그룹 1 : 돌봄 공동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주민자치적으로 관리, 운영

- 그룹 1은 부모운영위원회가 나눔터를 운영하며,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 사업방향, 홍보 등 운영역량을 갖추고 있는 나눔터임. 모든 영역에서 우수한 나눔터는 본

- 조사결과에 의하면 2개소였음. 이 두 나눔터들은 모두 민간 수탁이었으며 부모들이 운영진을 구성하여 주민자치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음. 돌봄 공동체 사업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사업운영 방향, 사업운영 능력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음
- 사례 A는 대표와 운영진으로 구성된 부모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음. 나눔터 이용자 확대를 위한 모집 및 홍보를 위해 나눔터가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분기별로 돌봄 공동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 홍보를 하고 있었음
 - 사례 A는 선행 나눔터 운영사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눔터 개소 당시 리더였던 영아자녀를 둔 부모는 나눔터를 서비스 제공 공간이 아니라 부모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나갔음. 이런 과정에서 돌봄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주민이나 다른 부모들과의 마찰이 생기기도 했었음

미끄럼틀도 놔주고 뭐도 놔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눔터는 딱 여기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는 애를 맡기고 이런 공간이 아니고 부모가 함께 와서 활동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놀이시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대신 엄마랑 아이들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걸 많이 만들었죠. 그 뭐 교구라던가 그런 걸 많이 샀죠 교재 교구 이런거 근데 초창기에 조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중략) 같이하는 사람들이 그걸 발을 못 맞춰줬기 때문에 이건 뭐 누구의 잘못이나 실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례 A)

- 바로 리더역할을 이어받은 현재 나눔터 운영위원회 대표는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나눔터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단지 내 거주자들의 저항을 이겨내며 운영하였음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한 작업들은 뭐였냐면 그 때만해도 여기가 인식이 자기들끼리 쓴다. 우리 마을кен데 외부인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느냐 그런 게 되게 강했어요. 저는 누가 하든 상관없지만 어쨌든 이 수놓음육어나눔터가 우리 마을에 있어서 좋아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마을주민이 해야 쓰는 사람도 편하게 하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례 A)

- 사례 A의 운영진들은 자신들만의 공간, 자신들 아이들만의 돌봄 활동으로 여기지 않고 대부분 경력단절 상태인 자신들과 비슷한 여성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 마을의 소통에도 관심을 갖는 등 공동체 의식이 매우 높았음

엄마들의 친교를 높여서 수놓음 문턱도 더 낮추고 엄마들이 이런 걸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자기는 할 용기가 없는 엄마들한테 용기도주고, 그다음에 이런거 괜찮으니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도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누구 엄마는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고 저도 오랫동안 커피를 좋아해서 막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하면서 엄마들하고 소통을 좀 더 많이 동네 주민들 좀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중략) 소통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것 같구요. (사례 A)

- 대표를 중심으로 꾸려진 몇 명의 임원진들은 끊임없이 거의 매일 만나 회의를 반복하는 힘들고 고된 작업을 해나갔으며, 지금도 여전히 정기적인 운영회의를 통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나눔터를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음

다음 달 정기회의를 하면 이런 작은 문제들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사례 16)

- 사례 A에서는 공식적인 요청이나 과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돌봄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방학중 초등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많은 취업주부들이 틈새돌봄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후에 학원을 보내고 있으나, 그마저도 학원은 방학 여부와 관계없이 오후 시간에 운영되기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주부의 자녀들을 위한 돌봄프로그램으로 운영한 것임

저희가 (방학 중에) 9시부터 2시까지 돌봄시간을 정해놓고 안에 프로그램을 엄마들이 다 재능 기부로. 이끌었던 엄마들은 네 분이구요, 아이들은 그 때 12-15명 이내였구요. (중략) 맞벌이 엄마들이 애들 케어 못하시니까 학원가기 전까지 돌봐주자 해서. (중략) 학원이 아홉시부터 두시까지 학원을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방학 때도 힘든 게 점심을 챙겨주기 힘들잖아요. 맞벌이한테 제일 힘든 시간은 오전과 점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엄마들이 점심 챙겨주러 일하시는 엄마들이 신제주에서 일부터 다시 집에 와서 점심을 챙겨주고 간다던가 아침에 만들어놓은 식은 밥을 아이들한테 준다던가 아니면 식당에 돈을 끊어놓고 아이들이 먹게 한다던가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중략) 학습은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9시에 하는데 프로그램 10시부터 보통 시작하거든요. 애들이 와서 숙제나 독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사례 A)

- 사례 B 경우 아파트 단지 내 거주하는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눔터 설치 신청에서부터 내부조성 과정, 이후 나눔터 운영의 모든 구체적인 사항들을 주민의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하고 있음. 진정한 민주주의적 방식에 의한 주민자치적 나눔터 운영의 사례라 할 수 있음

(**사장님이) 아이디어만 준 거구요, 그 다음부터는 자치회에서 다 했죠. (자치회의 구성은?) 주민들 다 죠. 가입되어있는데. (운영은) 회장단이 있죠. 회장단 대여섯 분 있죠. (종락) 결정을 해서 자치회의를 소집을 하죠. 동대표회의 소집해서 동의 받고 아이디어 내면 소집해서 동의받고 반복하는 거예요. (종락) (전체 주민이 모여서 선출한 것이니 매우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네요.) 그거는 좀 철저하게 했어요. (사례 B)

- 운영진 중 리더 역할의 부모는 자녀교육에 있어 자신의 가치관이 매우 분명했으며, 자유교육 가치관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극단의 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있었음

공교육을 안 좋아해서. 성향이 틀에 박힌 걸 싫어해요. 똑같이 앉아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희 아이들도 거기 넣긴 싫더라고요. 책을 좋아하거나 공부를 좋아하면 그렇게 했을텐데 그렇지 않고 운동을 좋아하고... 그래서 아이들 생각하면서. (사례 29)

- 돌봄 공동체 모집에 있어서도 ‘나’의 경계를 넘어 ‘우리’를 지향하는 수준이 높았음. 공동체 그룹을 구성하면서 지인의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고, 나눔터 밴드를 통해 희망하는 부모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음. 인원수가 너무 많아지면 문제되는 상황 때문에 일정 인원수가 확보된 이후 마감하였음

(어쨌든 공개적으로 모집이 된 팀이네요,) 네. (그럼 몰랐던 사람도 엮어진 거잖아요?) 아이들이 모이는 게 목적이죠. 같이 사니까 모이자는 게. (우리 그룹만이 아니라) 같이 모이자. (사례 29)

- 운영진조차 몇 명이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정제된 방식이 아니라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순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음

근데 저희가 정례회하면서 운영진을 1달마다 바꾸고 있거든요. (한 조 구성원이) 3, 4명. 사업 기획이나 회계나 이런 걸 답사 다녀오고 식당이나 이런 거 다 해서 마지막 결제만 체크카드로 결제하구요. 나머지는 조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조에서 운영진을 뽑을까 했는데 운영진한테만 과중이 되고 하니까 돌아가자 해서 매 달 마다 인원을 변경하고 있어요. (사례 29)

- 나눔터 운영 사례 중 사례 B에 있어 가장 획기적인 것은 상주 관리하는 인력 없이 아파트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임. 아파트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나눔터 밴드에 회원등록을 하고 나면, 거주지와 관계 없이 누구든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고 있었음. 안전이나 도난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될 수 있어서 CCTV는 설치하였지만 누구에게나 개방함으로써 친숙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운영진의 의도를 실행에 옮긴 사례임

(처음에 열 땀 누가 여세요?) 가장 먼저 이용하는 사람이겠죠. (그럼 달는 사람은?) 마찬가지로요. (중략) 제가 고집 부렸어요. 다른 거 아니고 진입장벽을 초기에 없애자. 공동육아에 대해서 철학적 고민을 가지고 모인 건 아니지 않냐. 아직까지도 우리가 물음표가 많은데 운영을 폐쇄적으로 가면 안 그래도 외지 분들 많거든요. 오셨을 때 안내하고 같이 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 문 잠궈 놓고 하지 말고 무조건 열어놓자고 주장하고 해서. (사례 B)

○ 당연히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나눔터 운영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아이들 데리고는 저희가 둘째, 넷째 주에 만나구요, 한 달에 한 번 정례회를 마지막 주 월요일에 하거든요. (사례 B)

○ 사례 B의 운영진이자 사례 29의 리더이기도 한 어머니는 자신이 속해있는 돌봄공동체에 지원되는 예산을 기본으로 마을의 아이들과 함께 하는 돌봄활동,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돌봄활동, 마을주민들이 제안하고 참여하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주민 중 한 사람으로서 아빠들이 나눔터 내부공간 구성에 주체적으로 참여를 했으며, 아이들과 어른들, 돌봄과 여가가 모두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친화적인 마을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음

회장, 총무 외에는 기존 주민들이었죠. 공교롭게 마침 인테리어 하는 분(남성) 있고 저(남성)는 시각 디자이너거든요. 그런 분들이 술깃해서 재미있겠다 모여서. (중략) 수놓음 밴드에다가 공지 올려서. 같이 모여야 하니까. 고명 올릴 것 하나씩 가져오라고 해서 같이.... 국수는 여기서 끓이면 되니까 모여서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자. ... 국수, 멸치는 수놓음 회비로.....어린이 요리교실 해서 (동네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오라고 해서) 피자만들기와 샌드위치도 여기서 함께 만들었어요.. (중략)... 비빔밥도 했는데, (동네에 사시는 모든) 엄마들 점심모임으로. ... 반찬을 가져오고 밥은 여기서...(중략) (돌봄활동 프로그램으로) 클레이는 (동네) 언니가 좀 많이 하긴 했었어요. 클레이, 요리교실.. (중략) 그것도 매 번 무료로 재능기부 해주고 계세요. (중략) 기타도 요청을 받은 거고, 캘리도 요청을 받아서 할 거고. 직업이 짝 나오잖아요. 자연스럽게 아 이거 잘 하신다는데 잘하시면 여기 오세요. 이렇게 된 거죠. (사례 29)

□ 그룹 2 : 사업 방향에 맞게 관리, 운영하고자 하나 운영 역량 부족

- 그룹 2는 주민자치 방식으로 운영하는 나눔터 2곳을 포함해 5개 나눔터가 그룹2로 분류되었음. 그룹 2의 나눔터들은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나 사업방향에 부합되도록 운영하고자 하나 역량 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들임
- 사례 C의 운영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돌봄 공동체 사례 48은 엄마들이 스스로의 자조역량으로 아이들 돌봄을 하는 것이 돌봄 공동체의 가치에 부합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함께 모여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이 공동체성 향상에 기여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도 알고 실천하고 있었음

아, 엄마표 활동, 미술활동 이런 거 (중략) 저희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밥 먹고. (사례 48)

- 하지만 사례 C의 나눔터의 운영진인 사례 48은 이번 사업 이전에 돌봄 공동체의 경험이 없었으며, 사업에 참여하면서 소중한 가치를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었음

그렇게 애 키우기가 힘들었던 그런 찰나에 뭔가 모다들었 사업이 있다는 걸 들었고, 이걸 하게 되면서 제가 폭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중략) 그 전에는 뭐, 애를 기본적으로 잘 키우자는 마음은 엄마들이면 누구나 다 똑같겠지만. 이걸 하면서 눈을 떴다고 해야 하나. (사례 48)

- 사례 48은 돌봄 공동체 사업의 하나인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통해 초등돌봄을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정작 자신의 자녀들은 초등돌봄에 참여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돌봄 공동체와 나눔터 운영에 참여하면서 부모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돌봄 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인식하였음

일단, 오후에는 학원을 보내는 엄마들이 많아서 오전이 비는 시간이 많더라구요. 애들이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한 아이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중략)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여기 오는 엄마들이나 품앗이 하는 엄마들에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돌봄을 하겠다고 하면 자기애를 보낼 거라고. (중략) 그건 (운영 기준) 정말 저희 고민하고 있어요. (중략) 자부담은 재료비 발생하는 부분하고 식비를 넣긴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일단 정확히 책정해서 받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례 48)

- 하지만 사례 48은 그룹에서 진행하는 돌봄 활동 프로그램을 마을 아이들과 공유

하고자 오픈 클래스 형태로 진행할 때, 참여하는 마을 부모들의 돌봄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제공자와 참여자 모두 불편함을 느끼는 갈등을 경험했음. 참여 부모들은 프로그램 제공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며, 일종의 문화센터 프로그램일 것으로 기대하는데 따른 문제 상황임.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모들끼리 프로그램 정보가 공유되어 자녀를 참여시키는 오픈 클래스인 경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짐. 사례 48은 나눔터를 중심으로 마을의 이웃에게 프로그램을 공개한 경우로서 마을돌봄으로의 확대를 할 때 구체적인 진행 방법에 대해 체계화할 필요성을 말해주었음

너무 힘들더라구요. 아는 분이 아니니까. 저희는 연령대가 낮다 보니까 뭘 해도 난장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어느 정도 수용해서 와야 하는 데, (중략) 근데 이 엄마 둘은 처음부터 끝까지 뒹집이고, 허, 이게 뭐야 하는 식으로. 저희가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냥 놀아요, 특별히 뭘 하는 것도 아닌, 특별하게 뭘 해 드립니다도 아니었고. 그리고 우리 애들이 손님들을 초대해서인지 뭔가 업 되어있어 가지고 (중략) 너무 신나가지고. 뭔가 우리도 난장판이긴 했는데 그 엄마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문화센터 그런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중략) 그러면서 우리 이거 왜 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사례 48)

- 사례 48이 겪고 있는 또 다른 어려움은 자신의 나눔터 운영에 대한 생각이 그릇되지 않았음에도 그리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주변 다른 나눔터의 운영 방식에 흔들리게 된다는 점임

저희 같은 경우는 이곳에 영유아 아기들 오시는 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조금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힘드셔서 옆에 있는 나눔터로 옮기셨어요. (중략) 가면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그램 할 때 재료비 몇 천원을 내면... 그런 서비스를 받는 개념이 더 크신 거예요 (중략) 영향을 안 받고 싶어도요, 자꾸 뭔가 크게 그렇게 되거나 우리도 뭘 해야 하나...(사례 48)

- 자신의 그런 모습에 일부 실망하면서, 돌봄 공동체 역량을 키우고 싶다는 욕구를 갖고 있었음

경쟁하는 건 아닌데 공동체나 사업 속에 녹아들고 있는 과정에 엄마들의 이야기와 오시는 분들 보면 흔들린다기보다는 우리 방향이 맞나. 운영진들에게 공동육아에 대한 이런 교육. (사례 48)

- 사례 D의 경우, 나눔터가 생김으로써 마을어르신들이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안전지킴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마을 어른이 아이를 데리고 오가며, 야단도 치는 마을의 아이들로 키우기를 하고 있는 사례임

낮에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랑 아이들이 이용하고 방과 후랑 토요일에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냥 마을 아이들이 이용하는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중략) 아이들 공간이 생겼다는 부분이 가장 좋아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이들이나 엄마들은 딱히 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죠. 그렇지만 이곳은 누가 오더라도 안전하고, 아무도 없어도 1층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오고가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믿고 편하게 둘 수 있는 것 같아요. (중략) 토요일에 이곳이 없었다면 엄마들은 아이들을 집에 방치했을 것예요. 토요일엔 제가 와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못 오는 아이는 제가 오는 길에 데리고 오고 여기서 장난을 치면 혼내고 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례 D)

- 앞의 사례 C와 비교할 때, 사례 D는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수준은 미흡하나 아이들이 즐길만한 문화프로그램이나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추므로 기능하고 있었음

촌이다보니 주말에가 아무 곳에도 갈 곳이 없으니깐 그것에 맞춰 토요일프로그램이 많아요. 평일은 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마치면 5시가 훌쩍 넘으니깐 큰 필요성이 없지만 토요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와서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그냥 놀기도 하면서 5시까지 있고, 일요일도 오는 경우가 많아요(중략) 문은 상시 열어두고, 아무도 없지만 그러려니 다들 이용하고 있어요. (사례 D)

- 사례 D의 나눔터 역시 아직 나눔터 운영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했으며, 중간지원기관인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의 컨설팅을 희망하고 있었음

가끔 이렇게 찾아오는 형태로 잘하고 있는지 컨설팅해주면 좋겠어요. (사례 D)

- 사례 E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 직원들의 자녀돌봄 문제를 공동체방식으로 해결하고자 나눔터를 설치 신청한 사례임. 상주 관리하는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 중 엄마들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을 지속할 수 없어 중단되었음. 보조인력 부재로 인한 중단이었으며, 운영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016년 개소한 후에는 오후 5시경에 어린이집 하원에 맞춰 애들을 데리고 와서 나눔터에서 놀게 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애들 안전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 중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돌봐야 하는 경우가 생겼고, 그 당시에는 시니어분들도 없었죠. 그래서 더 엄마들끼리 돌아가면서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중략) 계속 하려고 했지만 업무를 하면서 애를 돌보는 것이 쉽지 않아서 주춤하다가 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어요. (사례 E)

방학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이 갈 곳이 없으니깐 그 때는 방학 중 돌봄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고, 지금은 시니어분들이 있으니깐 가능할 것 같아요. (사례 E)

- 사례 E의 운영 총괄을 하고 있는 사례 34는 나눔터 설치확대와 더불어 운영의 내실화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피력하였음

더 기억해야 할 건 나눔터 수만 늘리다간 기존 나눔터들 운영이 더 어려워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중략) 만들어만 놓는 것보다 운영이 잘 되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용자가 있는 지 수요파악을 해서 만약에 적절한 인원이 된다면 부녀회나 청년회 등에 의견을 조율해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지, 돌보미를 지원하면 되겠는지 등 절차를 통해서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해요. 그렇게 하면 공간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지역마다 특색에 맞게 운영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사례 34)

- 나눔터 F는 기관 수탁 나눔터 중에서는 드물게 부모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음. 나눔터 개소 당시 작성한 나눔터 홍보 리플렛에 처음부터 부모운영위원 모집에 대한 안내문이 담겨져 있었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의 나눔터가 아니라는 점을 사업시작 단계에서 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부모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15명 정도이나 참석하는 분들은 5~8명 정도이구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입학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부모위원회 활동을 잘 나오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새로운 영유아 엄마들이 부모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적절한 인원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 F)

- 나눔터 C, 나눔터 D와 달리 기관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나눔터 F는 돌봄 공동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돌봄 공동체와 관련이 있는 자유교육의 가치를 다소나마 이해하고 있었음. 영유아와 비교할 때, 초등학교 아이들의 경우 돌봄 공동체 활동 시

바깥 활동이 필요하고, 바깥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음. 또한 나눔터에서 실시하는 상시프로그램의 내용도 학습이나 사교육의 특징을 지닌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아이들도 되게 역동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아이들 외부로 나가서 노는 게 더 신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지금 하는 것 보니까. (사례 F)

도리도리잼잼은 영아, 놀이체육은 3-5세의 영유아, 창의독서하는 6, 7, 8세 한 팀 더 있구나, 지금 저희 행복한 책 읽기라고 부모 독서모임 있어요. (사례 F)

□ 그룹 3 : 복지관 등 기관에서 사업의 목적에는 동의하나 역량은 부족

- 그룹 3에는 3개 나눔터가 분류되었음. 3개 나눔터 모두 기관에서 수탁, 운영하는 특징이 있었으며, 돌봄 공동체 사업 목적에는 동의하나 사업방향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았으며, 사업운영 역량면에서도 부족한 점들이 드러나고 있었음
- 나눔터 H의 경우, 부모님 대상 취미활동을 상시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어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런 상황이다보니, 부모님 활동을 위해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음

어머님들의 반응은 정말 좋았는데, 어머님들은 돌봄방에서 뜨게를 하는데 아이들은 나눔터에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들과 같이하는 걸 하고 싶다고. 엄마들이 쉬는 데 쉬는 것 같지 않은. 시니어 어르신들이 봐주시는 하는 데 애들이 엄마! 하면서 자주 찾고 하니까 쉬는 게 쉬는 게 아닌 거잖아요. (사례 H)

- 나눔터 I의 경우, 기관의 프로그램과 나눔터의 상시프로그램과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루어지는 프로그램의 내용도 돌봄 공동체에서 지향하는 자유교육과는 거리가 있었음

지금 저희가 발레라든지 교육문화, 영어 유치도 있고. (중략) 저희 복지관은 유아, 유치원 대상 교육문화가 굉장히 붐이 되어버렸어요. 수놓음이 오면서 더 막. 발레랑 방송댄스랑 7세까지 엄청 인기가 많아서. (중략) 수놓음에는 엄마들 미술치료할 때 작품을 전시회같이. (사례 I)

- 또한 돌봄 공동체의 운영 방향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 일방적으로 제공받는 복지서비스의 관점에서 돌봄서비스를 요구하는 부모의 요구나 돌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사항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어머니 중에 한 명이 조금 바쁘신 분은 일 보시고 그럼 좋겠다해서.(중략) 애를 맡겼더니 발가락에 밥풀 묻혀왔더라(라고 불만을 이야기하셨어요). (사례 I)

- 나눔터 I는 가장 어려운 업무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나눔터 이용자 모집 및 상시 프로그램 기획이라는 답을 하고 있어, 가장 기본적인 나눔터 운영 업무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음

프로그램을 짜는 것,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짜는 것, 그리고 신청자 모집하는 것. (나눔터 I)

- 나눔터 K는 부모운영위원회에 의한 나눔터 운영을 희망하고 있었으나 아직 실행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으며, 나눔터 I와 비슷하게 부모들의 돌봄서비스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듯 보였으며, 부모들의 주체적 참여에 의한 돌봄활동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음

그렇게 운영회를 해서 관리한다고 하면 운영을 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저도 찾고 있어요. 연락을 해봤어요. 여기 자주 오는 엄마에게, 첨단과학지에 이사 오신 분이 자주 오시길래 개인으로 오긴 하는 데 자기가 엄마들을 잘 몰라서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사례 K)

다른 요구는 부득이 없고, 애들만 맡기면 돌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사례 K)

□ 그룹 4 : 돌봄 공동체 사업의 필요성, 목적과 방향 등에 대한 이해 부족

- 그룹 4에는 2개 나눔터가 분류되었으며, 2곳의 수탁운영기관이 각각 상이했음. 사업 목적, 사업방향, 홍보와 모집 등 사업운영역량 세 영역 각각에서 부족한 점이 드러나거나 문제를 노출하는 경우들이 발견되었음

- 그룹 4에서는 상시프로그램이 돌봄 공동체 활동을 하는 부모들이 돌봄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발견되었음. 아이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거나, 사교육에서 인지도가 높은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음

월1회 만들기 프로그램을 초1, 초3대상으로 원예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사례 K)

해피잉글리쉬스토리, 트니트니파티, 뮤직아이특강, 플리마켓, 한글아특강, (중략) 사교육은 엄마들의 선택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례 L)

- 나눔터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 상주인력을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이해하고 있었음

1순위는 어머님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받고 싶어도 애를 따로 맡겨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 상주하는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비로 상주하는 인력을 쓰면 어머님들이 교육을 받을 때 애들이 울고 하는 일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사례 K)

라. 돌봄 공동체 사업 참여에 따른 변화

1) 돌봄 공동체 사업에 지속 참여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

□ 3년 지속 참여 공동체의 변화

: 돌봄 공동체 활동의 유연한 대처 및 각기 다른 현재의 긍정적 모습

- 공동체돌봄 사업에 3년 연속참여한 그룹은 3개 그룹이었음. 3년 연속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 그룹의 구성통로, 구성원들의 평균적인 공동체 의식 수준이 상이했으며, 그에 따른 활동내용과 방식, 이루어낸 성과 등 모두가 다른 모습을 보임
- 공통적인 변화는 돌봄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있는 돌봄활동 운영’이라 할 수 있음. 돌봄활동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돌봄활동 진행 일정을 아이들의 상황, 부모들의 상황에 맞게 변경시켜, 스스로 부담감을 덜어내고 있었음

제가 올 해 내려놓자 했어요. 잘돼야 해 하는 생각을 하니까 안 되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들 하고 좀 편하게 했었어야 했는데. 그리고 처음에 제가 발표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나봐요. (사례 3)

책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 달에 한 번이에요. 한 달에 네 번이니깐. 네 번 만났다고 했을 때 네 번 다 준비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이번엔 이거에 관련해서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엄마 욕심인거죠. 그거는 준비하는 거는 한 번이고 나머지는 자연에서 어울리거나 큰 준비없이 할 수 있는 거. 간식이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거 많거든요. 국립제주박물관에서는 되게 무료공연 같은 거 많아요. yes24에서 천원씩만 내면 볼 수 있는 공연들이 많아서, 엄마들이 조금 더 가볍게 갈 수 있게. (사례 2)

저희는 개인적으로 작년까지는 매 번 교안활동을 짜서 사전, 봄, 활동을 가면 저희 열정은 이만 큼인데 하고나면 왜 이렇게... 저희 끼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걸 보면서 올 해는 우리 모든 걸 내려놓고 너무 힘쓰지 말자. 하고 다 워킹맘들이라서. (사례 1)

전체 운영에 대한 변화는 없었고요. 회차를 채워야했기 때문에. 세부변화를 말해보면 우리가 날 짜를 잡을 때는 처음에는 여덟가족에서 적어도 다섯가족 이상 만날 수 있도록 날을 정해보자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잘 못 만나는 일도 있었구요, (중략) 올 해에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자.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사례 2)

작년에는 한 달에 한 번 평일 만났어요. 근데 사실 평일이 힘들더라구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유치원생이 많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런 프로그램 성향도 조금 달라져서 지금은 거의 주말에 토요일에 만나고 일요일에는 아빠랑 가족 단위로 만날 수 있게. 그러다가 같이 뭐 하자 하면 일요일에 만나기도 하고. (사례 2)

- 사례 1은 자신들의 돌봄공동체 활동을 나눔터를 기반으로 마을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린이식당’을 운영하고 있음. 그룹의 공동체가 마을로 확장된 상태라 할 수 있음. 또한 자신과 비슷한 여성들이 재능과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했던 사례 1은 운영진 몇 명이 힘을 모아 돌봄을 주제로 한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를 받은 상태이며, 틈새돌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 등을 사업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임
- 사례 2는 부모역량강화라는 공통된 관심사로 모여진 그룹으로 공동체 의식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구성원간의 정서적 관계의 깊이가 깊어진 데

따른 신뢰감을 성과로 인식하고 있었음

엄마들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워낙 공부를 하려는 모습을 안 놓았었던 사람이라서 그 때도 좋았었고 지금도 좋았고 제가 뭔가를 이야기하면 맞아요, 하면서 다 동의해주고. (사례 2)

내 사람 만들어진 거. 이성이 되었다면 내 사랑이겠조. 근데 내가 정말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곤란한 일이 되었을 때 내 편이 되는 사람. 저를 지지하거나 응원해주는 사람. 내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열심히 하세요 할 수 있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서. 아직은 힘든 일 있을 때 응원해주고 고민 얘기하면 다 지금은 뭐 정말 속 얘기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례 2)

- 사례 3은 온라인카페를 통해 그룹이 구성된 경우였음. 그룹의 리더는 사회적 유대 관계가 없는 구성원들이 결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했으며, 3년차의 변화로 공동체돌봄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아졌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음. 공동체의식이 향상된 것이라 할 수 있음

제가 그 그릇이 안되는 게 그런 사람들 품어야 하는데...(사례 3)

3년차에 조금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 디든지 가자. 저희는 토요일만 활동하는데 적극적으로 변한 것 일단. (사례 3)

□ 2년 지속 참여 공동체의 변화

: 사업이 갖는 부담으로부터 편안해짐, 인식변화, 아빠들의 친밀감 등 형성

- 2년 연속 사업에 참여한 팀들은 총 12개 그룹이었음. 각 그룹별로 구성방법, 참여 동기, 구성원들 배경이 다양하므로 공통적인 변화를 겪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
- 돌봄 공동체 경험이 많은 그룹의 경우, 큰 변화없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공동체의식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 사업에 가치를 두고 참여한 그룹도 있었음
- 이전의 돌봄 공동체 경험이 없었으나 돌봄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업에 참여한 그룹 중, 2년 지속참여에 따른 변화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특징을 살펴보았음. 2년 지속 참여라고는 하지만, 인터뷰 시점을 고려해보면 1년여 기간 동안의 돌봄 공동체 활동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지속참여 그룹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편안해짐, 둘째, 인식 변화, 셋째, 공동체 의식이 싹틈이라 할 수 있음

- 신규 참여팀으로 참여할 때, 도의 공식적인 사업에 참여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으나 한 번의 경험에서 오는 익숙함이 생기고 사업으로서의 부담으로부터 놓여지는 변화를 볼 수 있었음

그냥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저도 편해지고 다 편안해졌죠. (중략) 초창기에는 정리가 잘 안되었으니까. 지금은 다 자연스러워지고 일상화 된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삶의 변화였던 것 같아요. 작년엔 (중략) 공동육아에 특별한 게 없다는 걸 느꼈는데 뭔가를 해보려고 돈을 써야한다는 생각으로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업에 너무 집중하다보니 너무 일처럼 했다는 느낌. (중략) 애들은 이래. 이게 정상이야. 했고 이제는 아빠도 익숙해하고... (사례 15)

솔직히 이거 주말에 지금이야 많이 익숙해져서 당연히 여기 오는 게 1순위가 되긴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애기들이 어리기도 했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제대로 활동이 처음에는 잘 안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볼 일이 있어도 그걸 1순위로 밀려서는 이렇게. (사례 10)

- 돌봄 공동체의 방향을 지키면서 해야 하는 부모역할이 어떤 것인지? 돌봄 공동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공동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와 같은 인식을 하게 되는 변화를 볼 수 있었음

네.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함 갖지 말자. 잘하는 쪽을 하면 되는 거지. 엄마로서의 부담을 내리자. 그래야 엄마도 좋고 아이도 좋은 환경 아니냐 라는 걸 시행착오를 겪고...(중략) 작년에 할 때 참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올 해 부터는 정착이... 작년에 저희가 처음이고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애들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사례 15)

저는 제가 (그룹에서) 떠날까 고민을 했었어요. 이 엄마들에 비해서 제가 자질이 너무 떨어진다. 심각하게 고민을 한 거예요. (중략) (다른 부모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너그럽고 우리 아이가 이 아이한테 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화가 날 법 한데 괜찮아. 그냥 이렇게. 이 공동체가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게 저는 좀...(사례 6)

- 인식변화의 연장선상에서 구성원들은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음. 한 그룹 안에서도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에는 차이가 있으며,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참여했던 구성원들이 함께 속해있는 부모들의 공동체 의식과 그에 기초한

그들의 공동체적 행동을 통해 전파효과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음

이 분하고는 작년 말에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거든요. 얘기를 하다보니까 서로 공유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하고도 공동체 안에서 아이의 장점을 본 것에 대해서 공유하게 되고 이게 그렇게 쓸모없는 시간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 엄마가 요리강사였어요. 자기 할 요리만 준비해 와서 딱 딱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중략) 본인의 재능기부 있을 때만 시간을 빼시고 오셨는데 이제는 매일 오시려고 부단히 노력 하시더라고요. (사례 5)

새로운 엄마가 자기는 애가 셋이고 막내가 어리고 큰 애가 초등학생이고 이런데 꼭 프로그램을 해야 하면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머리 채우는 수로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중략) 근데 안하겠다고던 엄마가 이번에 갑자기 하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중략) 엄마들이 초반에 공동육아에 대해 긴가민가 하던 엄마들이 다 적극적으로 변했듯이 나도 변했어. (사례 4)

저희 리더의 엄마가 워낙 혼자 모든 걸 맡아서 하는 거여서 (중략) 그 엄마를 따라가고 했었는데 조금 뭐하지만 저희도 받았던 것에 보답해야 하니까 책임감도 생기고 이렇게 할 때 그 엄마 혼자 다 하는 것도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 집에서 한 번씩 모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리더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엄마가 더 힘들었겠다. (사례 10)

- 꼭 2년차 지속참여 그룹의 변화라 보기는 어렵지만, 돌봄 공동체는 아빠들이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활동이 반복되면서 만남의 빈도가 늘어나고 함께 하는 경험이 생기면서 아빠들끼리의 친밀감, 결국은 가족단위로 친해지는 정도가 높아지는 변화가 있었음

저희 남편의 경우에는 하다보니까 육아 참여를 잘 못해요. 작년하고 달라진 점은 적극적으로 아빠도 처음이다 보고 하니까 다음 주에 뭐 한다 말하니까 먼저 가겠다하고, 가자고 하면 갔다와! 하다가 누구 아빠도 오고 누구 아빠도 오고한다니까 변화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례10)

(아빠들의 참여가 늘었는지?) 그쵸 (항상 참여하는) 고정멤버도 있고...(사례 12)

아빠들은 술이 너무 부각돼서 그럴긴 한데. 서로 술만 먹는 게 아니라 서로 일적으로 연락도 하기도 하고 되게 친밀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사례 10)

프로그램 끝나면 (중략) 신랑이 데리러 와요. 엄마파티 하고 애들은 마당에서 놀고. (사례 8)

□ 신규 참여 공동체의 사업 참여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변화

: 초기 미안해하기의 단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담감, 편안해지기 노력

- 2018년도 신규 참여 그룹 중 인터뷰 대상이 된 사례는 총 35개 그룹이었음. 2년 연속 참여그룹과 비교할 때, 공동체돌봄 경험이 없었던 구성원들의 참여가 좀 더 많았음. 이들 그룹은 공동체 경험 부족으로 그룹 내에서 이루어지는 배려와 자발적 참여에 대해 미안해하는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돌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음
- 수개월에 걸친 공동체돌봄 경험을 통해 조사 시점에서 이들이 응답한 사업참여 이후의 변화는 첫째, 편안한 관계로 나아가기, 둘째, 공동체의 장점 느끼기로 요약할 수 있었음
- 구성원의 도움을 받는 것, 리더가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음. 아직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유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주고받음에 대해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자본이 아직은 작동하기 어려운 초기 단계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임

지금은 분위기가 뭐 하자 이렇게 하면 못 도와주는 엄마들이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그렇게 하시는... 장보고 있는 엄마들이 다른 엄마들이잖아요? 본인 아이들은 축구 다 하고 뭐 다 하고 오시는데 지금까지는 말로만이라도 애쓰신다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하고 있는 중이라... (사례 20)

아직까지는 딱히 보이지 않는데. 신경쓰이긴 하죠. 장소를 제공한다고는 했는데 하다가 정리도 신경 쓰이고, 물건도 파손하면 안 될까 걱정도 되고, 교육 받을 때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는 데 조금씩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사례 35)

그냥 제 입장에서 저는 저도 왔다갔다...가까우니까 애 먼저 데려다주고 지켜보다가 바쁘다고 하면 나가야하는 상황도 있다보니까 맡겨서 간다는 게 저도 미안하더라구요. 저 입장에서 그거 좀 미안했던 것 같고 ... (사례 40)

- 지속 참여 그룹들이 유연하게 융통성을 발휘하며 돌봄활동을 하는 데 비해 신규 그룹들은 돌봄활동 기획 및 진행, 활동 일정 조율 등에 있어 두려워하거나 부담감을 느끼는 사례들이 많았음

솔직히 매주 만나면 제 차례가 오면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떨려요. 워낙 젊은 엄마들이 많다보니깐 떨리더라고요. 준비를 해요.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사례 6)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재능이 많으신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적이거나 기획을 하시거나 하실 수 있는 어머니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적인 업무도 다뤄봤던 분들이라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도 그렇고 부담이 많이 됐었거든요. 원가를 이거를 교육이라든지 행사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들어. (사례 9)

저기는 엄마들 캐릭터가 다 강하시더라고요. (중략) 하고 나면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하고 나면 몸져 누고 그런 스타일... 그래서 쉽게 쉽게 가라고 나는... 편하게 놀이터에서 놀리고 월 프로그램을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는데. (사례 21)

만나야 한다는 부담감, 만나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자연스럽게 만났던 것이 6명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것. (중략) 시간을 모두 맞추는 게 쉽지 않아서, 우리끼리 가자니 그렇고, 이날은 되는 데 저 날은 안 되고. (사례 42)

- 구성원들끼리 오가며, 얼굴을 마주치고, 인사하는 정도로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의 그룹에서는 도움을 주고받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요구받게 됨. 그 수준의 관계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서먹함과 미안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좀 더 편안하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단계임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몰랐고, 대표엄마가 애가 아파서 못 올 때가 있는데 총괄을 맡고 있어서 그럴 때도 와야 하잖아요. 서로 서먹서먹한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엄마가 없어도 조금조금은 우리끼리만이라도 만나볼까 했을 때 그래, 만나자 하는 정도는. (사례 34)

네. 더 많이 그런 경우가 생긴 거죠. 아무래도 더 부탁하기 좋죠. 관계가 더 형성된 거니까, 사업적인 건 아니어도 부탁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렇죠. (사례 39)

비체계적일때는 동네에서 엄마들이 매일 본다고 해도 인사만 하는 정도이고, 시골 촌이다 보니 바쁘다보면 서로 신변에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잘 안 해요. (중략) 자주,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되니까 엄청 친해지는 거예요. (사례 43)

저번 면접볼 때 일시적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 서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여력이 안 될 줄 알았는데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사례 45)

- 돌봄 가치의 최고 선(善)이라 할 수 있는 믿음을 경험해보게 되고, 돌봄 공동체의 중요성, 엄마, 아빠들의 마을생활의 즐거움, 동네 이모들의 돌봄 경험, 아이와 아빠, 그리고 가족 모두의 행복 등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경험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음

(자녀를 맡기는 것에 대해) 처음이라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 번 맡겨봐서 엄마들 보기도 어 이렇게 맡길 수 있구나, 이모처럼 다독겨려줄 수도 있구나. 그 전에 안면을 뒀던 사이어서 애도 싫어하지 않고 (중략) 네. 믿음을 갖고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요렇게 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것을 처음 느꼈어요. (사례 34)

네네, 그래서 내 애들을 잘 키워보자고 했지만 묵혀두었다가 이거를 하면서 도에서 계속 교육을 해 주시고, 이런 걸로 해서 한 단계 올라 선거죠. 제 애만 키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사례 48)

실제로 하면서 좋았고 우리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아빠도 행복해질 수 있겠다는. (사례 48)

저희 신랑은 이주를 해서, 그나마 저는 조금 자유로우니깐. 어쨌든 신랑이 전담을 하고 저는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라 뭔가 활동을 하면서 아는 사람도 생기지만 저희 신랑은 정말 일만 하거든요. 그래서 외롭다는 얘기를 대개 많이 해요.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일요일 날 번개로 모임을 해서 저녁식사도 하고 해서 만나게 되니까 정말 좋아하더라구요. (중략) 발표할 때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아이들만 행복한 게 아니라, 엄마도 행복하고 아빠도 행복하게 되는. 그런 게 이루어지니까 저는 좋더라구요. (사례 48)

우리 애들이 외롭지 않은 것. 이주해 오니까 외롭잖아요. 이모들이 생겼잖아요. 이모들이 계속 지켜보는 상태지만 우리 애들이 뭘 해도 부족한 데, 저러면 안돼 하는 데 이모들은 이랬어, 저랬어. 잘했네 해주니까 우쭐우쭐하고, 그렇게 해주니까 아이들도 좋아하는 것 같고. (사례 48)

2)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상대적 탁월한 점

□ 일시 거주를 함께 하는 불편을 참아내는 수준의 도움 주고받기

- 친한 관계인 경우에도 취침과 일상을 함께 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사례 7에서는 유대관계가 형성된 구성원들 사이에 거처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하기도 했음
- 아이의 친구를 집에서 재우는 것은 아이의 픽업이나 간식 챙기기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보살핌을 필요로 함. 사례 24, 사례 36에서는 일이 있는 엄마를 대신해서

그리고 질병 전염을 막기 위해 아이의 하루 잠자리와 식사를 부탁할 수 있는 정도의 공동체 유대를 보여주고 있음

사실 그 분이 집 공사를 하면서 일주일을 저희 집에 사셨어요. 그런 식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도움은 왔다 갔다 해요. 저희 집 완공되는 동안 저도 일주일 가서 살고. (사례 7)

일 있을 때 맡기는 것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조문갈 일이 있는 데 애가 셋이서 제주도는 다 서빙을 해 주어야 하는 데 흔쾌히 재워도 되니깐 보낼 수 있어서 제일 좋아요. (사례 24)

저 같은 경우에도 애 바쁘면서도 투입을 해야 하니까 애들 맡길 곳 없으면 부탁드릴 때도 있고 자영업 또 한 분 계세요. 그 쪽도 엄마아빠 잠깐 육지 가게 되면 맡길 때도 있고. (사례 40)

같이 바닷가를 가기도 하고 오름도 가다 보면 사람 붙어서 같이 가기도 하고 각자의 집에 가기도 하고 밥 같이 먹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되게 예민했는데 사회성도 좋아지고. 품앗이가 되게 잘 되어있어요. 지금도 다른 집에 가있어요. 데리고 갈게 하면 응 그래 이려고. 지금 막내가 폐렴에 걸려있는데 지금 다른 집 가서 큰 애랑 몇 일째 자고 있어요. 그런 게 여기서는 가능하잖아요, 육지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데. (사례 36)

□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긴요한 도움

- 부모 퇴근 시간 이전에 다른 부모들이 함께 돌봄활동을 하고 있거나, 보육시설에서 픽업을 해주거나, 집에 데리고 가 돌보아주거나, 주말근무 중에 돌봄을 해주는 등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비공식적 돌봄체계로 기능하고 있었음
- 시간제 취업을 하고 있는 부모의 근무일정 조정을 가능케 해주고 있었으며, 취업으로 이중노동의 부담을 안고 있는 부모가 쉴 수 있도록 해주는 등 취업부모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는 공동체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음

저는 시간제 일을 하지만 직장에서 타임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 막내 어린이집에서 받아줘 하면 서로 맡아주고, 애들이 1박할 때 같이 잘 때, 모임 있을 때 돌봐줄 때도 있고, 시간되는 사람이 같이 애를 데리고 영화보러 가기도 하고. (사례 33)

어디 누가 오늘 뭐 할 것 없냐 아이 아빠 없어서 우리 힘들다 하면 집에 와서 애 맡기라고. 같이 가서 놀고. 가까운 엄마들은 일하는 엄마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 엄마 힘들면 봐주고. (사례 4)

어린이집에서 데려다 주세요, 픽업 좀 해 주세요 오늘 제가 좀 늦게 끝날 때. (사례 14)

저희가 같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이 4명 있잖아요. 직장 엄마 한 분이 일찍 퇴근 하셔도 조금 늦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원 할 때 부탁하시는 거예요. 데려가서 집에 좀 있으면 데리러 갈게 이렇게. 저도 저번에 막내가 입원해서 친정이 여기가 아니니까. 큰 아이 누구누구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사례 21)

저희가 토요일에 한 엄마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날은 저희가 모임을 하고 있어서 일을 보라, 그러면 우리가 애들을 챙기고 있을테니까 일이 끝나고 오면 이렇게 이렇게 하자. (사례 34)

□ 방과 후 돌봄 등 틈새 돌봄 수행 등 역량 발휘

- 사례 5의 경우, 초등생 자녀 대상으로 방과후돌봄을 하겠다고 계획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방과후의 틈새돌봄을 진행하고 있었음
- 방과후활동을 매일 진행한 것은 아니나 주중 3회 진행해 그 기능을 상당부분 수행 하였음. 여기에 추가적으로 2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만나는 등 매우 빈번한 돌봄 활동을 하고 있었음
- 사례 36, 사례 48 역시 방과후 시간에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틈새돌봄을 해결 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음

저희는 수목금에 (그리고) 주말 2주에 한 번 씩 작년에 만났어요. (중략) 4시부터 6시까지. (중략) 틈새돌봄은 전래놀이 위주로 놓고 금요일엔 엄마들 재능 돌리면서 특별하게 놓고 주말엔 봉사 받아서 한거죠. (사례 5)

학교에서 방과후 끝나는 시간 맞춰서 퍼즐 수업을 만들었어요. 다 애들이 걸어와서 간식도 제공 해줘요. 왜냐하면 배고플 시간이기 때문에. (간식은) 사서 해요. 베이킹 하시는 분 그 분한테 의뢰도 하고. (사례 36)

어린이집에 갔다 와서, 또 학교도 갔다 와서. 차려진 밥을 먹고, 한 엄마가 마무리하고 있으면 그 날 준비한 뭔가 (프로그램을) 네, 저기 고깔모자도 저희 애들이 만든 거거든요. (사례 48)

□ 돌봄 공동체 활동 확장선상에서의 초등돌봄 프로그램 운영 역량

- 사례 11은 처음부터 돌봄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방학중 초등돌봄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음. 많은 취업주부들이 틈새돌봄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후에 학원을 보내고 있음. 학원은 방학 여부와 관계없이 오후 시간에 운영되기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주부의 자녀들을 위한 돌봄프로그램으로 운영한 것임

저희가 (방학 중에) 9시부터 2시까지 돌봄시간을 정해놓고 안에 프로그램을 엄마들이 다 재능 기부로. 이끌었던 엄마들은 네 분이구요, 아이들은 그 때 12-15명 이내였구요. (중략) 맞벌이 엄마들이 애들 케어 못하시니까 학원가기 전까지 돌봐주자 해서. (중략) 학원이 아홉시부터 두 시까지 학원을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방학 때도 힘든게 점심을 챙겨주기 힘들잖아요. 맞벌이한테 제일 힘든 시간은 오전과 점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엄마들이 점심 챙겨주러 일하시는 엄마들이 신제주에서 일부러 다시 집에 와서 점심을 챙겨주고 간다던가 아침에 만들어놓은 식은 밥을 아이들한테 준다던가 아니면 식당에 돈을 끊어놓고 아이들이 먹게 한다던가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중략) 학습은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9시에 하는데 프로그램 10시부터 보통 시작하거든요. 애들이 와서 숙제나 독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례 11)

□ 돌봄 공동체 팀의 정서적 자원, 물적 자원의 교환관계망으로 기능

- 돌봄 공동체 구성원들이 친밀도가 높아지면 서로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의지하는 관계가 형성됨. 사례 8은 아빠들도 함께 만나고, 식사하는 정도로 가족단위의 유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룹임
-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를 그룹 구성원에게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상담을 하는 등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음. 가족상담의 기능까지도 수행하는 심도 깊은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음

네 그게 당연한 이렇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죠 신랑들도 만나고 했었기 때문에 집안의 안 좋은 일도(사례 8)

- 물품공유나 교환 역시 공동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활동이나 좀 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 그룹 구성원들은 사용기간이 한정적인 육아용품, 아동의류 등의 물품을 상호교환하여 경제적 비용 절약의 효과를 얻고 있으며, 공동구매, 다량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효과를 발생시켰음
- 물품공유가 가끔씩 발생하는 경제적 절약을 목적으로 한 자원교류라 한다면,

일상적 자원교환망은 그 이상의 상호작용 단계라 할 수 있음. 돌봄공동체를 통해 유대관계가 형성된 구성원들 사이에 일상용품이나 음식, 식재료 등이 교환되는 자원교환망의 기능을 하고 있었음

예를 들어 걸음마기구 있잖아요. 그걸 5명이 돌아가면서 쓰고 있어요. 단순히 생각하면 물질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움직이고. (사례 25)

옷도 나눠 입구요. 옷도 거의 물려 입구요. 제가 입고 애가 또 돌 지났으니까 제가 잘 정리해서 저기 물려주면 순환이 되어요. (사례 15)

공동구매하는 경우, 넉넉하게 과일 같은 거 있으면 같이 사서 먹고, 시골에서 반찬이라도 오게 되면 반찬도 나눠주고. (사례 16)

예를 들면 집에 락스가 떨어졌을 때 필요하면 옆으로 달려가고, 뭐 있어 뛰어가서 받아 오고 (중략) 신랑이 제대병원에 있으니까 퇴근하다가 파김치 만들어 놓으면 받아가고, 제주 남자분이랑 결혼해서 온 언니가 형부가 뭘 자꾸 받아 온데요. 쪽파도 가져오고, 그러면 파김치도 담가서 가져가라고 하고, 당근, 감자 가져가라고 하고, 저는 가까이 있으니까 와서 점심 먹어라, 언니 커피 한잔 마시러 갈게. 갑자기. 저희 집도 와서 먹을 수도 있고, 약속 잡는 게 아니라 쉽게 할 수 있는 거. (중략)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장보는 거 빠뜨린 게 있어서 언니가 장본다고 하길래 파랑 뭐랑 몇 개 사달라고 해서 사다준 것도 있고. (사례 30)

밥을 많이 했다 그러면 우리 집 와서 밥 먹자. (사례 7)

□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가족의 확장으로서의 동네 이모들

- 하나의 돌봄공동체로서의 돌봄활동이 아니라 경계와 범위를 넘어선 마을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 사례로 언제든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동네 이모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들 수 있음. 핵가족이 확대가족으로 가족이 확장되는 효과를 발휘함

엄마들이 바쁘면 아이들이 봐주고 개네들이 따라가서 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엄마들이 조금 자유롭게 준비하기 편하구요. 그리고 그냥 그게 아니더라도 공동육아를 하면서 좋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냥 다른 이모(이웃의 친구 부모) 집이 자기 집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불편하게 너무 침범하지 않는 이상은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례 11)

- 사례 8의 경우, 마을 주민들의 지역사회 유대관계가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추측됨. 마을내 김밥집을 비롯해 빵집, 슈퍼마켓 등 상점 운영주들과 부모들과의 유대가 형성되어 있어 급할 때, 잠깐씩 머무르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음

- 사례 8의 그룹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아이들과 함께 마을안전지도 작성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었음. 사례 17이외에도 몇 사례에서 어른들이 마을 이모처럼 편안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부담없이 요청할 수 있는 마을 돌봄의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음

(인터뷰 중 하원 중인 자녀와의 전화통화: 김밥집에 가 있어.) 동네 안전지도. (만들어요) 애들한테 어디가 괜찮은지 물어보고 거기 우리가 가서 답사를 하고 약속을 하고 마을에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이름 다 알고 누구의 딸 아들인지 다 알아요. (사례 8)

네, 저는 전일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녁이나 주말에 어쩔 수 없이 사무실에 일을 해야 할 때 애들만 먼저 보내거나 (중략) 네. 이모들이라고 서로 따르고. (사례 17)

□ 마을 단위, 학교 단위의 아이들을 함께 돌봐주는 자녀 돌봄 이루어짐

- 마을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우리 돌봄 공동체에 속해있지 않은 마을의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사례들임. 특별히 자녀돌봄을 부탁받은 경우가 아니지만,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이라는 생각으로 돌보고 있는 것임

직장이 늦게 끝나는 경우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경우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봐주고, 저는 놀이터에서 노는 경우 한 두 명이라도 엄마가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거의 제가 놀이터에서 지켜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돌봐주는 것이고..(중략) 저희 애들이 또래 애들을 끌어와서 하다 보니 한명만 빼고는 다 오게 되는 것 같고, 저번엔 놀이터에서 짜장면 시켜서 먹었는데 거의 1년 넘게 놀던 애들이 모두 썩 와서 학교도 다 틀리지만 애들이 잘 놀더라구요. (사례 49)

월 2회 토요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이 활동은 우리 아이들만 하는 것이고 운동장 놀이는 매주 하는 데 아름아름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만 했었는데 학습지 시간도 바꾸고 하면서 끼고끼고 하다보니까 20명 정도 같이 하게 되었어요. (사례 43)

- 작은 학교들이 많은 제주의 곳곳에서 학교와 학교를 다니는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의 단위가 되어 돌봄을 하고 있는 사례가 여럿 보였음. 여기에는 재학생수가 적고,

상호교류하기에 우호적인 지리적 환경이 한 몫을 하고 있었음

네, 근데 이게 학교다보니 좀 조심스러워요. 학교다보니 엄마들이 안 오는 아이들도 분명 있잖아요. 엄마들이 안 오는 애들도 저희들이 데리고 올라가고. (중략) 구두로 우리 이런 일 하니까 몇일 날 하니까 와 전달은 하지만 3학년이 주축이다 보니까 좀 많이 와요. 같이 하고 싶은데 (중략) 구두 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초기라서 반모임했을 때 나왔던 엄마한테 말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도자기 수업, 여름 캠핑 계획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사례 19)

학교가 마을 안에 있으니까 학교 중심으로... 저는 그게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는 느낌 (중략) 그래서 학교에서 뭔가 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동리, 서리가 따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라... 운영비를 따로 사용을 하는 부분이라..(중략) 저희는 진짜 너무나 축복받은 게 딱 저희 마을, 학교 애들이 여기 마을 애들이고. (사례 36)

□ 작은초등학교 중심의 온 마을 주민이 마을 돌봄에 참여

- 사례 36 역시 돌봄 공동체 한 그룹이 사업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그룹 내 구성원이 아니라 마을 아이들 모두가 돌봄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아이들 모두가 마을의 작은초등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으며, 돌봄활동 프로그램도 초등학교를 통해 전교생에게 공지가 되고 있고, 원하면 누구나 참여토록 함. 동네 어르신들은 마을의 아이들을 다 잘 알고 있어서 안전하며, 세대간 교류 활동도 함

(취업주부인 경우, 일일) 끝나고 5-6시에 와요. 같이 데리고 오고 이런다는 것들이 그냥 공동육아 모임에서 그런 식으로 이뤄지는데 그게 경계선 없이 하다 보니까 공동육아 모임도 크게 우리 모임끼리 모이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을 전체가 함께 하고 있어요) (중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도 퍼즐 수업이나 전통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에 공고를 해요. 그럼 신청하는 아이들은 다 오는 거거든요. 애들이 방과후나 돌봄이 끝나면 애들이 학교에서 이쪽으로 다 걸어서 와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주로 이 동네 오래 계신 분들이 많아서 다 아세요 (중략) 이게 마을이랑 학교가 멀리 떨어져있는 게 아니라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이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죠. (중략) 네. 저희가 뭐 마스크를 만든다고 하면 나도 하고 싶었다 그러면 오세요 하고. (중략) 저희 그 때 팔죽 만들어서 같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나눠줬거든요. (사례 36)

□ 돌봄 공동체 활동이 자녀 동반 이주민의 제주 정착에 도움을 줌

- 주변에 지인이 없는 이주민들이 초기에 온라인 카페에 의존하는 경향을 볼 수 있음. 돌봄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거주지인 제주에서의 적응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정주의사가 없었던 이주민이 계속 거주를 하게 되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이주민 자녀가 많은 사례 36은 이주민이 60-70%되는 정도의 작은 학교에서 돌봄 공동체 활동을 통해 적응에 도움을 받은 사례가 많다고 직접 표현하였음

아는 사람 없다보니 초반에는 (***)카페에 의존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수놓음하고 (중략) 사람들 몇 명 사귀다보니 바빠진 거예요, 나름. 그래서 처음에는 오기 전에 내가 여기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제주도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냥 몇 년만 살다 가야지 하다가 정착하고 싶어지고 여기서 계속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들더라구요. (사례 29)

저희 멤버의 언니가 얘기를 들은 거죠. 야 너네 학교에서 그런 거 한단니까 해봐라 그래서 (중략) 이 친구가 컴퓨터 방과후 선생님이거든요, 문서에 아주 능해요. 그럼 이제 알아서 막 써요. 근데 여기 언니가 또 출판사에서 일하는 분이라 제가 한번 쓰면 다시 수정도 해주시고, 여기서 막히면 어떻게 하지 하면 야 우리 이런 철학이 있으니까 이걸 더 표현해 이래서 완성을 해서 ppt 여기 분이 인원을 모아주시죠. 사교성이 아주 좋아요. 각자가 색이 다른 분들이 필요한 역할을 딱 딱 그래서 이 친구들 때문에 적응하신 분들 많죠. 여기 외지 분들이 많아서... 학교 한 60-70프로 되는 것 같아요. 저학년은 거의 대부분이 외지인이고. (사례 36)

3.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성과와 시사점

- 제주특별자치의 공동체돌봄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 이제 3차년도에 불과하지만, 사업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돌봄이 이루어지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는 등 질적 측면에서의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음

가.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

1) 관 주도 방식을 지양,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거버넌스 지향의 정책 시행

- 부모들이(돌봄공동체가) 스스로 돌봄활동을 계획하고 돌봄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공모사업을 통해 선발하고, 공동체에 자율성을 제공했다는 점)
- 참여부모의 요구를 듣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끊임없는 행정절차의 간소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자율적, 주체적 활동이 가능토록 했음

2) 다수 이주민들의 사업 참여가 돌봄 공동체 사업의 성과 창출에 기여

- 원주민과 이주민의 공동체의식수준이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그럼에도 새로운 거주지에서 이웃을 만들어야 할 요구를 갖고 있고, 육지로부터 이주를 감행하는 추진력을 지닌 많은 이주민들이 공동체돌봄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공동체 가치에 기반한 리더 역할을 수행한 것이 사업의 효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음

3) 돌봄 공동체 기반 리더십 발휘성장

- 리더의 자발성과 공동체 기반 리더십이 돌봄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데 역동적인 힘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됨
- 리더들은 사업신청 단계에서 가장 먼저 정보를 수집한 사람들이었고, 그룹을 구성하는 역할을 했으며, 구성 이후에도 힘들거나 많은 부담을 야기하는 회계, 프로그램 기획 등을 도맡아 하는 책임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였음
-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이나 행동이 다양한 상황에서 그룹을 계속 이끌어가는 힘을

발휘한 리더십은 조금 더 주기, 미안해하지 않기, 기다려주기로 요약할 수 있음

4) 핵심적 교집합 가치로서 부모역할의 중요성과 공동체 가치

- 돌봄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그룹의 특징은 구성원들이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한 사람들이라는 점임. 부모역할을 어떤 모습으로 인식하는가 하는 것이 핵심인데, 우수 그룹들 중 공통분모는 부모역할과 공동체의식의 교집합이라는 점임

5) 사업의 의의 : 공동체 경험 기회, 질적인 돌봄, 일상적 도움으로의 확대

- 첫째, 돌봄 공동체 사업은 공동체경험 기회 제공을 통해 공동체 가치 학습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 공동체돌봄을 통해 부모역량이 높아지고, 공동체가치가 확산되는 성과를 고려할 때,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 수단으로서 사업방식의 돌봄 공동체 추진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봄.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공동체 경험이 없었던 신규 그룹들이 돌봄 공동체 활동 경험을 통해 공동체 가치를 학습하는 효과가 작용하고 있었음
- 둘째, 돌봄 공동체 활동을 통해 돌봄의 질적 수준이 향상된다는 점
 -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많은 그룹들이 사업 이전에도 육아모임을 해오고 있었으나 모임의 횟수가 적고 비정기적이며, 모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단순한 보호 성격의 돌봄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음. 사업으로 참여한 이후에는 돌봄 활동의 횟수 증가, 일정계획 수립, 돌봄 활동에 따른 업무분담, 기획에 의한 돌봄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돌봄 활동의 체계화가 이루어지고 질적인 돌봄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셋째, 돌봄 공동체가 안정화를 통해 마을 내 일상적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 돌봄 공동체의 안정화기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구성원 사이의 일상적 돌봄을 통해 일·가정양립의 지원, 정서적, 물질 자원교환망 구축, 아빠들의 양육참여 및 마을 생활을 가져오게 될 수 있음

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점

- 본 조사결과, 사업의 단기 및 중·장기 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됨
 - 단기 목표는 ‘바른 부모역할을 통한 공동체성이 있는 아이들로 키우기’임. 이러한 목표 달성을 통해 부모들은 아이키우기가 수월해지고, 아이를 통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임
 - 중기 목표는 ‘마을아이들의 부모역할하기’
 - 장기 목표는 ‘가족의 마을생활이 있는 가족친화적인 마을만들기’로 정할 수 있음
-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점은 다음과 같음

1)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 정립 필요

- 돌봄 공동체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는 수놓음육아나눔터를 부모들이 주민 자치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음. 공동체 가치를 기반으로 돌봄의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하는 부모들이 직접 나눔터를 운영할 때, 그 성과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수놓음육아나눔터와 돌봄 공동체는 밀접한 관계로서 수놓음육아나눔터 유형을 기준으로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 정립의 필요가 있음
 - 주민자치형은 주민자치의 역량과 자원 모두가 허용되어야 함. 영아기 부모는 자녀 신체돌봄의 요구가 높아 공동체를 위한 별도의 시간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기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나눔터에서 영아기 부모를 위한 정보공유 및 일상의 쉽 기능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되, 운영진은 유아기 이상, 초등생 자녀를 둔 부모가 주체적으로 운영에 참여할 때 그 역량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음
 - 농촌형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여가문화거점 공간으로서의 마을돌봄 공간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연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 직장형 나눔터는 취업부모의 방과 후 돌봄 및 방학 돌봄 등 틈새돌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복지관 등 기관 수탁형은 별도의 사업으로 기관에서 나눔터 이용자 중에서 부모 운영위원회와 같은 운영팀을 선정, 주민자치적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임

2) 수놓음육아나눔터의 기능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의 검토 필요

- 돌봄 공동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적 시점에서 수놓음육아나눔터의 주 대상과 운영시간 등 수놓음육아나눔터 기능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이 필요함
 - 영유아부모들의 쉼 기능을 강조할 것인지, 초등생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관심이 있는 부모들의 주말활동프로그램 공간으로 기능을 강조할 것인지, 마을 돌봄의 거점공간으로 기능을 허용할 것인지 등의 방향에 따라 주말개방은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다루어야 할 것임
- 부모들이 함께 활동하는 공간으로서의 수놓음육아나눔터 운영 검토 필요함
 - 공동체돌봄에서 필요한 것은 함께 모여 활동할 공간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함
 - 이런 점은 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위해 공간 기능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담는가 하는 콘텐츠가 중요함

3) 돌봄 공동체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거주 근접성 기준 검토 필요

-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 그룹 구성원들의 거주 근접성은 중요한 기준이 됨
 - 첫째, 돌봄 활동을 위한 만남이 용이하다는 점, 둘째, 돌봄 활동이 일상적 교류로 확대되기 위한 조건으로 필요하다는 점, 셋째, 마을 돌봄의 가능성이 확보된다는 점임

4) 돌봄 공동체 지속성 확보를 위한 리더들의 소진 문제 검토 필요

- 리더들은 자발적 책임을 감수하고 있으나 일방적 희생을 오랜 기간 요구할 수 없음. 돌봄 공동체에서 리더의 영향력이 매우 큰 만큼, 리더들이 소진되지 않고 지속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방안의 하나로서 보조적인 인력지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나, 어떤 방식으로 인력을 지원하는가에 따라 매우 민감한 차이와 커다란 성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
- 또 다른 방안으로 서울시의 사업 사례에서처럼 보상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임

5) 부모들의 지속적 참여를 위한 초등 고학년 이상을 위한 콘텐츠 필요

- 조사결과, 고학년이 되면서 그룹이 해체되고, 사교육으로 전환되는 문제가 있음.
고학년 자녀의 문제를 다루는 콘텐츠가 있어야,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으로 자녀돌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임
- 가장 주축이 되는 연령은 초등생자녀기라는 점에서 활발한 운영을 위해 자연스러운 운영에 대한 바톤 넘기기가 필요하고, 어떻게 넘길 것인지, 컨설턴트 등 활동가 및 협동조합으로의 성장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등 지원이 필요

6) 초등돌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검토 필요

- 초등돌봄에 대한 요구가 있고 실행하고자 계획하는 부모들이 분명히 있음. 초등 돌봄을 정책 사업으로 지원하는 의사결정을 한다면, 이를 별도의 사업으로 공모 필요
- 별도로 공모해야 하는 이유는 돌봄 인력에 대한 보상체계,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관계, 주체적 참여에 의한 돌봄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7)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 참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돌봄 공동체 대상의 부모교육과 컨설팅의 요구가 많았으며, 돌봄 공동체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방법으로도 반드시 필요함
- 기관 수탁 수눌음육아나눔터의 경우, 사업목적, 사업방향, 홍보 및 모집 등에서 사업역량의 부족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음. 실무자 대상, 교육과 컨설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기관 수탁 나눔터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시급함
- 기관 수탁 수눌음육아나눔터의 실무자들이 정보공유 및 발전적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함

8) 마을 연계 협력을 통한 공간 확보의 문제 검토 필요

- 도보접근이 가능한 나눔터 공간의 숫자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큼
 - 개인적으로 공간발굴을 하고자 하는 사례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은 물론 기본적으로 공공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지역의 새마을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과의 행정적 협의는 반드시 필요함

제 5 장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 방향 및 추진전략과 과제

- 1. 활성화 방향에 따른 추진전략
- 2. 주요 정책 과제

1. 활성화 방향에 따른 추진 전략

-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돌봄 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지속 발전과제와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마을 안에서 함께 아이를 돌보는 민관협력 주민자치형의 사회적 돌봄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음
- ‘함께 만들어가는 제주 여성·가족 모두의 행복한 삶’을 목표로 하는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정책은 3개의 추진 전략, 5개의 정책 과제로 구성되었고, 이를 위한 세부추진과제는 12개이며 신규과제 6개, 기존과제의 보완·강화 과제 6개로 구성됨

〈 그림 5-1 〉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정책의 추진 전략 및 정책 과제

함께 만들어가는 제주 여성·가족 모두의 행복한 삶			
추진 전략	돌봄 공동체 활성화	주민 자주적 참여 활성화	마을 기반 돌봄 공동체 유대 형성
	·단기 전략 ·중장기 전략	·사업별 연계 공모 추진 ·체계적 공모사업 수행	·돌봄 공동체 연계 협력 강화 ·거주근접성 공동체 발굴 강화
정책 과제	1. 제도적 기반 마련	· 공간 발굴 및 조성 관련 조례 제·개정★ · 마을 공간 제공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2. 사회적 돌봄 공동체 추진 실행력 강화	·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 방향성 정립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기능 강화	
	3. 마을연계 협력 강화	· 마을 내 공간 발굴 협력 방안 마련★ · 마을 관련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돌봄 공동체 역량강화	· 신규 돌봄 공동체 체계적 교육 강화 · 유연한 돌봄 공동체 활동 및 나눔터 운영 기준 마련 · 돌봄 공동체 간 멘토-멘티 연계 지원★ · 유형별 수놓음육아나눔터 컨설팅 지원 · 수놓음육아나눔터 실무협의체 운영 지원★	
	5. 제주형 사회적 돌봄 마을 공동체 조성	· 제주형 사회적 돌봄 마을 시범 사업 운영★	

★ : 신규과제

가. 돌봄 공동체 활성화 전략

- 돌봄 공동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은 참여자의 공동체 의식, 함께 돌보는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라는 인식일 것임
- 본 연구 결과, 사업 참여 기간에 따라 변화가 나타나기는 하나 신규 참여 공동체라고 해도 공동체의식이 높으면 공동체 돌봄, 마을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1) 단기 전략 :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 돌봄 공동체 리더들의 소진을 막기 위한 역량강화 및 활동비 등의 인센티브 지원

2) 중장기 전략 : 돌봄 공동체 활동 전문가로의 성장 지원

- 지역 사회 내에 돌봄 공동체에 대한 이해, 돌봄 공동체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부모들의 주체적이고 민주적 자치 역량을 갖추기 위한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공동체 교육 지원 및 공동체 활동 전문가로 성장 발전 모색

나. 주민 자주적 참여 활성화 전략

- 돌봄 공동체 역량에 따라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돌봄 공동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은 기본사업과 지역연계사업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공모사업 참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절차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함

1) 사업별 연계 공모 추진

- 공모사업 구조 및 공모 방법
 - ‘기본사업’, ‘부모커뮤니티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 간 연계 구조로 2단계 공모진행
 - 1차 ‘기본사업+부모커뮤니티사업’을 진행한 후, 2차 ‘지역사회 연계사업’순으로 진행
- 공모사업 신청
 - 2단계 공모사업에 대해 돌봄 공동체 팀의 역량에 따라 사업 신청 공동체팀별 1~2개를

임의 선택 가능하도록 진행

○ 공모사업 심사

- 심사는 지속참여 공동체와 신규참여 공동체 간의 역량 차이를 고려하여 진행
- 지속참여 공동체의 경우, 전년도 사업정산·사업평가 결과를 근거로 가점 반영

○ 돌봄 공동체 사업 공모안과 심사 가산점의 예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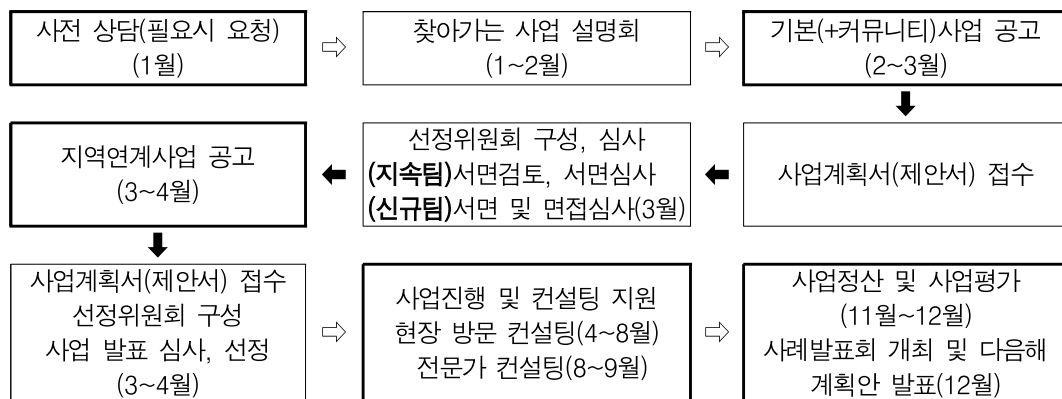
〈 표 5-1 〉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사업별 연계 공모안

구 분		1차 공모		2차 공모
		기본(+부모커뮤니티)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
신청 가능 공모 형태	유형 1	○		-
	유형 2	-		○
	유형 3	○		○
심사 가점	연계 협력	가점 1	· 전업주부와 취업맘 혹은 한부모/조손/장애인/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 간에 방과 후 돌봄, 방학 중 돌봄 등을 계획하고 있는 공동체	
		가점 2	· 마을 내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학부모회 등의 자생단체와 연계한 방학 중/하교 후 초등 틈새 돌봄, 농번기 저녁 마을밥상 등을 계획 시	
	지속 참여	가점 3	· 전년도 사업정산사업 평가 결과 근거, 우수한 팀의 경우 가점 반영	
	거주 인접	가점 4	·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자연스러운 일상 돌봄 및 긴급 돌봄 계획 시	

2) 체계적 공모사업 수행

- 공동체 사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사업 신청과 관계없이 사전상담제를 운영하고, 지원 사업 참여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밀한 절차 필요
-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체계(안)은 다음 그림과 같음

〈 그림 5-2 〉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공모사업 추진체계(안)



다. 마을 기반 돌봄 공동체 유대 형성을 위한 전략

- 돌봄 공동체 사업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돌봄 공동체 사업의 목적과 방향에 맞는 프로그램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따른 가점 기준 마련 등 유도 방안 필요
- 특히, 출산율을 높여야 하니 영유아 자녀돌봄을 해야 한다는 단기적 인식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방과 후 돌봄임. 부모들은 자녀양육 및 교육 전반에 대해 고민하기에 초등돌봄이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출산하기가 어려울 것임
- 따라서 돌봄 공동체 사업을 통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성평등한 사회적 돌봄 마을 공동체 조성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가족 간의 연계, 마을 내 자생단체 간의 연계, 자연스러운 일상 돌봄 가능한 거주 근접성 등에 대해 심사 시 가점 제공 필요

1) 돌봄 공동체 연계 협력 강화

- 부모들의 가장 큰 돌봄 요구는 ‘방과 후 돌봄’이라는 점에서 공모, 선정 시 마을 내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학부모회 등 마을의 자생단체 등과 연계하여 방과 후 혹은 방학 중 초등 틈새 돌봄, 농번기 마을밥상 등 활동을 계획할 경우에 가점 제공
- 전업주부와 직장맘 간에 혹은 한부모, 조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 간에 방과 후 돌봄, 방학 중 돌봄 등의 공동체 활동을 계획할 경우에 가점 제공

2) 거주 근접성 공동체 발굴 강화

- 본 연구 결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돌봄 공동체 팀일수록 일상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신뢰가 두터워 자연스러운 일상의 돌봄과 긴급 돌봄 및 마을 돌봄의 가능성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공모 심사 시 돌봄 공동체의 거주근접성 가산점 제공

2. 주요 정책 과제

- 이상의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지역의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에 따라 정책 제언을 하였으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음

〈 표 5-2 〉 제주지역의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정책 과제	세부 과제	비 고
제도적 기반 마련	- 공간 발굴 및 조성 관련 조례 제개정 ★ - 마을 공간 제공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	신규과제 신규과제
사회적 돌봄 공동체 추진 실행력 강화	-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 방향성 정립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기능 강화	보완강화과제 보완강화과제
마을연계 협력 강화	- 마을 내 공간 발굴 협력 방안 마련 ★ - 마을 관련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신규과제 보완강화과제
돌봄 공동체 역량강화	- 신규 돌봄 공동체 체계적 교육 강화 - 유연한 돌봄 공동체 활동 및 나눔터 운영 기준 마련 - 돌봄 공동체 간 멘토-멘티 연계 지원 ★ - 유형별 수눌음육아나눔터 컨설팅 지원 - 수눌음육아나눔터 실무협의체 운영 지원 ★	보완강화과제 보완강화과제 신규과제 보완강화과제 신규과제
제주형 사회적 돌봄 마을 공동체 조성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시범 사업 운영 ★	신규과제

★ : 신규과제

가. 제도적 기반 마련

1) 공간 발굴 및 조성 관련 조례 제개정

- 돌봄 공동체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공간 확보는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고 돌봄 공동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됨
- 특히, 민선 6기와 민선 7기의 도정 공약에 맞춰 2단계로 추진될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이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마을공간의 설치·운영이나 공적 자원의 공유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의 제·개정 등 제도화 과정은 필요할 것임

○ 제도(조례)화 노력

-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2.3.15. 제정) 제27조 마을공간의 설치·운영 조항 근거, 지역 자원 활용 및 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유(共有)촉진 조례」(2012.12.31.제정)근거, 공유 촉진 및 공유단체, 공유기업 등을 지정함
-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 혹은 서울시와 같은 공유 촉진 등의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 공적 자원 공유 내용의 활용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2) 마을 공간 제공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 본 연구 결과, 마을의 관계자들이 아이들을 위한 마을의 공간을 경제적 이득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혹은 주민자치형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 등을 지적함
- 따라서 마을 내의 공간 확보를 위한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통한 나눔터 공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공간 제공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등 행정적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주요 내용
 - 공간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 검토 : 마을의 신규 다세대주택,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내에 나눔터를 설치하는 경우 혹은 기존 유휴공간의 나눔터 조성을 희망하는 경우에 자원 공유에 대한 내부 공사비, 관리자 활동비 등 지원 방안
 - 읍면동 기관 장 평가 반영 검토 : 마을 내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에 나눔터 설치 시

나. 사회적 돌봄 공동체 추진 실행력 강화

1)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 방향성 정립

- 본 연구 결과, 돌봄 공동체의 경험을 공유하는 부모들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직접 나눔터를 운영하는 경우 질적인 돌봄과 일상적 도움으로의 확대 등 그 성과가 매우 높게 평가되었지만, 일부 나눔터의 경우 주민자치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임

- 수놓음육아나눔터와 돌봄 공동체는 매우 밀접한 관계이므로 제주도의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방향에 맞춰 나눔터 유형별로 주 대상, 운영시간, 프로그램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 및 주민자치 돌봄 활동 공간으로의 역할 정립이 필요함
- 주요 내용
 - 지역의 수놓음육아나눔터 이용 대상별에 따른 돌봄 수요 대응안
 - 자녀연령별 돌봄 공동체 맞춤형 지원
 - 유형별 수놓음육아나눔터 발굴 및 지원

① 지역의 수놓음육아나눔터 이용 대상별에 따른 돌봄 수요 대응안

- 수놓음육아나눔터 이용 대상별에 따른 지역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린 이집 이용 이전 단계 영아의 주중 돌봄, 어린이집 이용 단계 영유아의 주말 돌봄, 초등저학년 전업주부의 주말 돌봄, 초등저학년 취업주부의 방과후프로그램 가능 주말 돌봄, 초등저학년 취업주부의 방과후프로그램 불가 주중 돌봄 등으로 실행
- 주민자치운영 특성 고려, 원활한 돌봄 활동을 위한 관리자 활동비 등 면밀히 검토
- 돌봄 활동비 개선 노력
 - **(돌봄 활동비)**서울시의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사업 집행 기준’ 및 ‘서울특별시 공동체 표준 운영규칙’ 등의 내용을 활용하여 제주형 수놓음육아나눔터의 돌봄 관련 봉사활동에 대한 활동비 수당 등의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임
- 지역의 수놓음육아나눔터 이용 대상별에 따른 돌봄 수요 대응안은 다음과 같음

〈 표 5-3 〉 지역의 수놓음육아나눔터 이용 대상별에 따른 돌봄 수요 대응안

구 분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이용 이전 단계	이용 단계	
영유아		주중 돌봄	주말 돌봄	-
초등 저학년	전업주부	-	-	주말 돌봄
	취업주부	-	-	방과후프로그램 가능 주말 돌봄
		-	-	방과후프로그램 불가 주중 돌봄

② 자녀연령별 돌봄 공동체 맞춤형 지원

- 본 연구 결과, 돌봄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부모들은 제주의 변덕스러운 날씨, 아이들의 질병 등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계획서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지적함
- 자녀연령별에 따른 여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돌봄 공동체 지원방안 필요
- 주요 내용 : 영아기 ~ 초등 고학년 돌봄 공동체 부모 대상 맞춤형 지원
 - **영아기 자녀 부모** : 자녀 신체적 돌봄으로 부모들도 힘든 상황이 많으므로, 독박육아에 따른 어려움 해소, 사회적 관계 욕구, 스트레스 해소 등 차원에서의 접근 및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영아 부모 대상의 주중 낮 시간 프로그램 필요
 - **유아기 자녀 부모** : 갑작스러운 아이의 감기, 질병 혹은 굶은 날씨로 인한 정기적으로 계획된 프로그램 진행이 무리가 됨에 따라 양육관련 정보 공유 및 돌봄 공동체 활동을 위한 유대감 형성 차원에서의 접근 필요. 또한 어린이집 이용을 원치 않는 부모들 혹은 비이용 부모들 대상의 주중 돌봄 활동과 정보 공유, 어린이집 이용자들 대상의 하원 후 활동 및 주말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필요
 - **유아 후반기 자녀 부모** : 유아 후반기부터 초등 1학년(혹은 1~2학년) 정도까지는 부모 없이 아이 혼자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녀의 신체적 돌봄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므로 교육적 효과를 고려한 프로그램 정보 욕구 상승함. 특히, 맞벌이, 한부모, 조손, 장애인 등 다양한 가족과의 돌봄 공동체를 위한 유대 형성, 전업주부들의 주말 돌봄 활동, 취업주부들의 방과후 틈새돌봄 등 시도 가능
 -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 : 자녀돌봄에 대한 신체적 돌봄 부담이 더욱 감소하기 때문에 의지에 따라 다양한 돌봄 활동 프로그램 및 마을 돌봄에 활동 시간과 노력 투자 가능함. 특히, 자녀와 함께 주중 돌봄 운영, 취업주부의 경우 방과후 틈새돌봄 등 요구가 높고 마을 돌봄 및 다양한 부모와의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 실행 가능함
 - **초등학교 고학년 부모** : 나눔터 공간 이용 빈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지나다 잠깐 부모를 찾기 위해 들리는 정도이므로 신체적 활동 성향이 높은 초등고학년부터 중학교 정도 마을아이들 대상의 활동 공간 및 적합한 별도의 프로그램 필요함. 또한 자녀의 성장에 따라 부모는 자아실현에 초점을 둔 다양한 마을활동 및 일자리 창출 관련 활동 등과의 연계된 역량강화 기회 제공 필요

③ 유형별 수놓음육아나눔터 발굴 및 지원

- 본 연구 결과, 돌봄 공동체 사업의 방향에 맞춘 나눔터 운영 정도의 차이 지적됨
- 향후 수놓음육아나눔터의 조성은 읍·면·동별 나눔터 개수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제주의 돌봄 공동체 사업의 방향에 맞게 주민자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돌봄 수요에 근거하여 운영주체별, 지역별로 발굴·지원되어야 할 것임
- 주요 내용 : 운영주체별×지역별, 다양한 형태로 발굴·운영 지원 가능
 - 운영주체별 : 주민자치형, 공공기관형, 직장형의 형태로 발굴·운영 지원
 - 지역별 : 지역의 이용 대상을 고려한 도심형, 농촌형의 형태로 발굴·운영 지원
- 운영주체별, 지역별에 따른 수놓음육아나눔터 발굴안은 다음과 같음

〈 표 5-4 〉 운영주체별, 지역별에 따른 수놓음육아나눔터 발굴안

유형별 나눔터		발굴조성 지원 방향 (☞ 운영주체별×지역별)
운영 주체별	주민자치형	· 기존 및 신규 조성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혹은 빌라단지 내 공간 발굴 및 조성
	공공기관형	· 지역 내 복지관 및 작은 도서관, 마을리사무소 등 공공기관 공간 발굴 및 조성
	직장형	· 지역의 기업 내 공간 혹은 인근 기업 간 연계한 유휴 공간 발굴 및 조성
지역별	도심형	· 자녀 대상 교육 및 문화시설이 풍부한 도시지역의 특징 고려한 육아 나눔 공간 - 지역 주민이 함께 모여 돌봄 활동을 하는 사랑방 공간으로서의 발굴, 조성, 지원
	농촌형	· 자녀대상 교육 및 여가문화시설 부족한 주로 농촌지역의 특징 고려한 문화 공간 - 농번기 등 안전한 자녀 놀이 공간 및 다양한 돌봄 활동 프로그램 제공 공간 ※ 학교 중심 방과 후, 방학 중 돌봄은 기능하나, 학교 운동장 외에는 놀이 공간이 없는 농촌 지역 특성 고려, 아이들이 모여 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조성, 활용

2)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기능 강화

-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 참여자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원활한 소통구조, 시행착오 최소화 등을 통해 지역의 돌봄 공동체 정책이 목적에 맞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 체계 마련 필요
- 주요 내용
 - 단계별 체계적인 교육 및 컨설팅 방향 정립
 - 참여자들의 소속감, 자긍심,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전체 프로그램 운영

- 돌봄 공동체의 자조역량 강화를 통한 활동 전문가로 성장 지원

① 단계별 체계적인 교육 및 컨설팅 방향 정립

- 본 연구 결과, 마을 돌봄 방식으로 돌봄 공동체 혹은 수놓음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는 적지 않은 수의 부모들이 공동체 지향과 관련된 기본 교육을 희망함. 중간지원 조직에서는 공동체 사업의 방향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자 대상의 명확한 교육 및 컨설팅 방향 정립이 필요할 것임
- 대상 : 돌봄 공동체 참여자 및 수놓음육아나눔터 운영진(및 담당자)
- 교육 장소 : 가능한 자녀 동반 양육기의 부모 특성 및 이동거리 고려, 제주시 및 서귀포시 또는 권역별 단위로 운영, 지원
- 주요 내용
 - 돌봄 공동체 대상 : 공동체 관련 기본 교육, 공동체 관점의 부모교육, 돌봄 공동체 팀 내 규칙, 업무분장, 프로그램, 갈등, 회계 등 어려움 및 그에 따른 대처방안 등
 - 나눔터 담당자 대상 : 공동체 관련 기본 교육, 공동체 관점의 부모교육, 나눔터 자원 봉사자 교육 방법 및 프로그램 기획, 부모운영위원회 운영, 나눔터 홍보 등
- 돌봄 공동체 및 수놓음육아나눔터 대상의 교육 및 컨설팅 방향은 다음과 같음

〈 표 5- 5 〉 돌봄 공동체 및 수놓음육아나눔터 대상 교육 및 컨설팅 방향

구 분	교육 내용 및 컨설팅 방향	
	돌봄 공동체 참여자	수놓음육아나눔터 담당자
교육	· 공동체 관련 기본 교육 · 공동체 관점의 부모교육 · 성장단계별 돌봄 활동 및 전통 놀이 등	· 공동체 관련 기본 교육 · 공동체 관점의 부모교육 · 나눔터 자원봉사자 교육 방법 등
정보 제공	· 연령별 프로그램 정보 제공	· 나눔터별 프로그램 사례 공유
컨설팅	· 공동체 어려움 파악 및 그에 대한 대처방안 - 팀 내 규칙, 업무분장, 프로그램, 갈등, 회계 등	· 상시 프로그램 기획 방향 · 부모운영위원회 운영 · 수놓음육아나눔터 홍보 등

② 참여자들의 소속감, 자긍심,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전체 프로그램 운영

- 본 연구 결과, 사업 참여자들 대상의 소속감, 자긍심,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전체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요구 지적함
- 참여 대상 : 돌봄 공동체 사업 참여자 및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 주요 내용
 - 시기 및 횟수 : 봄(5~6월) 혹은 가을(9~10월) 중, 년 1~ 2회 정도
 - 프로그램 형태 : 돌봄 공동체 참여자들 및 도민대상의 숲 속 가족 소풍, 제주시 및 서귀포시 지역 특성 고려한 팝업놀이터 방식의 축제, 숲속 운동회, 유아용품 베품 시장(전체 참여자 가족 대상으로 홍보는 가능하나, 전문셀러는 참여 배제) 등 개최

③ 돌봄 공동체의 자조역량 강화를 통한 활동 전문가로 성장 지원

- 본 연구 결과에서처럼, 공동체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들이 돌봄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아 '활동 전문가'로 성장했듯이, 모든 일을 공동체 참여 부모들 스스로가 조직하고 기획하며 공동체 전문가로의 성장 가능한 지원 방안 필요
- 대상 : 돌봄 공동체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부모
- 주요 내용
 - 컨설턴트(현장 활동가) 양성과정 : 그동안 사업 참여했던 부모 대상의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통해 컨설턴트(현장 활동가) 인력풀 구축, 권역별 현장 컨설팅 파견 지원
 - 컨설팅 평가회의 개최 : 컨설팅 실시 후 중간 및 최종 평가회의 추진(년 1~2회)

다. 마을연계 협력 강화

1) 마을 내 공간 발굴 협력 방안 마련

- 본 연구 결과, 도서관의 돌봄 공동체 활동에 대한 태도는 매우 우호적인 경우에서 부터 매우 거부적인 경우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돌봄 공동체 활동에 매우 협조적인 작은도서관, 돌봄 공동체의 활동 공간을 기꺼이 제공하는 도서관, 돌봄 공동체가 공간을 사용하려면 예약을 통해 제한적 횟수만 이용가능한 도서관, 돌봄 공동체 활동을 거부하는 도서관 등 다양함

- 도서관은 부모와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에 돌봄 공동체 활동 공간과의 성격적으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음. 도서관 이용 수칙을 전제로, 공동체 돌봄 사업에 대해 이해시키고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 절차 혹은 협약 등의 방안 필요함
- 공간 발굴 협력 노력
 - 돌봄 공동체의 도서관 이용 수칙 준수를 전제로, 돌봄 공동체가 상시 이용 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 및 관련 행정 부서 간 협력적 관계 구축 노력
 - 또한 타시도의 사례에서처럼, 주민센터 및 공공기관 내 육아나눔터를 설치하거나 혹은 신축 집합주거단지, 리사무소 등 조성 시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임

- 「아이돌봄지원법」 근거 관련 조례 제정,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운영 지자체
- 세종시(‘17.7.20.), 서울시동작구(‘17.11.9.), 익산시(‘17.11.20.), 공주시(‘17.12.8.)
- 의왕시의 경우 관련 조례는 없지만 ‘15년부터 주민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2) 마을 관련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본 연구 결과, 은평구의 물푸레카페, 일본의 도롭푸, 독일의 마더센터의 공통점은 공간에 대한 공적 지원을 통해 민관협력 주민자치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과 모든 마을 어른들과의 신뢰관계를 통해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점일 것임
- 제주지역 마을 내 도보로 가능한 수놓음육아나눔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개인적인 공간 발굴에서부터 공공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마을 돌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노력
 - 살고 있는 마을 내에서 사회적 돌봄 공동체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돌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와 마을 돌봄 협력을 위한 지역의 새마을도서관, 작은도서관, 주민센터, 경로당, 마을회 등 마을 관련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 일본의 지역 육아공간인 ‘도롭푸’의 사례처럼, 수놓음육아나눔터를 지역 내 육아와 돌봄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 마을의 아이를 모든 사람이 함께 키우는 마을 돌봄 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마을 돌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임

라. 돌봄 공동체 역량강화

- 본 연구 결과, 공동체의 역량은 돌봄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그룹을 이끌어가는 힘을 발휘한 리더십에 따라 달랐는데, 신규 참여팀의 경우 공동체 경험 부족으로 그룹 내에서 이루어지는 배려와 자발적 참여에 대해 미안해하는 감정을 경험하며, 돌봄 활동 운영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공통점이 발견되었음
- 돌봄 공동체 참여 부모들 스스로 돌봄 활동을 계획하고 돌봄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 대한 이해, 돌봄 활동의 지향점, 공동체 팀 내 규칙 등에 대한 교육 등의 단계별, 체계적 교육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유형별 수놓음육아나눔터 운영진(혹은 담당자) 대상으로 사업의 목적, 사업의 방향, 사업 홍보 및 관리 등에 대해 나눔터 조성 전·후 컨설팅 지원과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의 지향점에 맞춰 나눔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 운영 필요함
- 주요 내용
 - 신규 돌봄 공동체 단계별 체계적 교육 강화
 - 유연한 돌봄 공동체 활동 및 나눔터 운영 기준 마련
 - 돌봄 공동체 간 멘토-멘티 연계 지원
 - 유형별 수놓음육아나눔터 컨설팅 지원
 - 수놓음육아나눔터 실무협의체 운영 지원

1) 신규 돌봄 공동체 체계적 교육 강화

- 본 연구 결과, 지속 참여 공동체 팀들이 유연하게 융통성을 발휘하며 돌봄 활동을 진행하는 것처럼, 신규 참여 공동체 팀들도 돌봄 활동 기획 및 진행, 활동 일정 조율 등에 있어 두려워하거나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단계별 체계적 교육 지원
- 교육대상 :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사업에 참여한 신규 돌봄 공동체
- 1단계 : 공모사업 선정 시, 돌봄 활동 프로그램 확인하기
 - 신규 참여 팀의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은 줄이지만, 공동체 방향에 맞는 활동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습중심, 성과지향, 상업적 프로그램인지 여부 확인하기
- 2단계 : 공모사업 선정 이후, 공동체 기본 교육을 위한 워크숍 실시
 - 사업 선정 이후 공동체 사업의 목적과 지향점에 대한 워크숍 형태의 기본교육 진행

- 교육 내용 : 돌봄 공동체 경험이 부족한 신규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중심으로 공동체 팀 내 규칙, 역할 분담, 돌봄 프로그램 등을 구성원들이 미리 계획해 볼 수 있도록 소그룹 모둠 활동 형태로 교육 진행

2) 유연한 돌봄 공동체 활동 및 나눔터 운영 기준 마련

① 돌봄 공동체 리더들의 자원봉사 실비 등의 활동비 지원

- 본 연구 결과, 공동체 팀별 리더들의 영향력은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됨
- 돌봄 공동체 활동에 따라 리더들은 자발적인 책임을 감수하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지만, 자녀의 성장 등을 고려하더라도 일방적 희생을 오랫동안 강요할 수는 없는 현실이므로, 팀 리더들의 활동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공동체 팀 리더의 활동비 등에 대한 노력
 - 리더들이 소진되지 않고 돌봄 공동체 사업에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열린육아방조성 사업에서의 ‘관리자 자원봉사실비’ 혹은 본 조사 결과, 사례 D의 ‘작은도서관 관리자 실비 형태의 활동비’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 ‘서울특별시 공동육아 활성화사업(열린 육아방 조성)’ 운영비
- (지원 금액) 개소 당 월 50만원
- (지원 내용) 관리비용, 관리자 **자원봉사 실비**, 영유아프로그램비 등

② 일상생활 적응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아 고려, 자녀연령 기준 확장

- 본 연구 결과, 발달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이 일상생활의 적응적인 행동에 손상을 보이는 평균 이하의 지적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녀의 연령이 초등 6학년 이상이라는 제한으로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함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 통상적인 발달과정이 나타나지 않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자녀의 돌봄 문제를 돌봄 공동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현행의 자녀연령 기준 검토 필요함
- 발달장애아 고려한 자녀연령 기준 확장 노력
 - (현행) 만0세~초등 6학년
 - (확장) 만0세~초등 6학년(단, 발달장애아는 연령제한 없음)

③ 돌봄 공동체 활동 인원 기준 완화

- 본 연구 결과,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공동체의 경우에 돌봄 활동을 위해 전원 모임을 갖기 어려운 사유가 자주 발생하게 되어 활동에 대한 부담이 지적됨
- 영유아 자녀의 질병 등으로 계획에 의해 만나게 되는 정기적인 돌봄 활동에 돌봄 공동체의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아도, 영유아 발달 특징을 고려하여 참여 가능한 구성원들만이라도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돌봄 활동 인원 기준 완화에 대한 노력
 - 프로그램에 참석이 어려운 가족이 생겨도 계획했던 돌봄 활동 진행하도록 권장
 - 이후 돌봄 공동체의 활동 정도 혹은 역량 정도에 따라 상·하반기 컨설팅 지원

④ 수놓음육아나눔터 운영비 사용 기준 완화

- 수놓음육아나눔터의 운영비는 연간 6백만원 이내(개소당 월 50만원 정도)에서 전기 요금, 수도요금 등의 제세공과금 및 돌봄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나눔터의 운영·관리는 상시 관리인력 없이 민관협력 자율 운영되고 있어서, 책임을 맡고 있는 운영진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책임 부담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운영진 활동비 지원방안 필요
- 또한 본 연구 결과, 올해는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 시행 3년차 시점으로 나눔터 내외·부 공간의 보수 및 장난감, 도서 등이 낡아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의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구조가 지적되어, 이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필요함
- 나눔터 운영비 사용 기준 완화 노력
 - **(관리자 자원봉사 실비)** 지원 방안의 하나로 나눔터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지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나, 제주도의 나눔터 운영은 민관협력 주민자치 방식이라는 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동비를 지원하는가는 매우 민감하고 커다란 성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이런 점에서 서울시의 공동육아 활성화사업 사례에서처럼 ‘관리자 자원봉사 실비’ 보상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임
 - **(공간 보수비)** 나눔터 조성 이후 5년간 협약 완료 전, 중간 시점인 3년차 시점에 수놓음육아나눔터별 평가 과정을 거친 후, 공간 사용에 따라 나타나는 낡아진 나눔터 내·외부 공간 보수비 및 장난감 수리비 등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 검토 필요

3) 돌봄 공동체 간 멘토-멘티 연계 지원

- 본 연구 결과, 돌봄 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경험은 물론, 공식적인 정부 사업 참여 경험이 대부분의 부모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한번 경험해 본 돌봄 공동체 팀의 경우에는 행정업무 혹은 활동을 쉽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신규 공동체 팀들에게 돌봄 공동체 운영은 어려운 과제로 다가옴
- 돌봄 공동체 활동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했던 돌봄 공동체와 신규 참여 돌봄 공동체 간의 멘토-멘티 연계를 통해 신규 참여 공동체 팀의 사업 참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시행착오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돌봄 공동체간 역량 격차 해소 및 다양한 정보 교류의 장 마련

4) 유형별 수놓음육아나눔터 컨설팅 지원

- 본 연구 결과, 부모 중심의 민간 수탁으로 운영되는 수놓음육아나눔터에 비해 복지관 등의 기관 수탁 나눔터의 경우, 사업목적과 사업방향 및 홍보 등에서 사업역량의 부족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됨
- 나눔터 실무자 대상으로 공동체 기본 교육과 컨설팅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기관 수탁 나눔터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됨
- 주요 내용 : 수놓음육아나눔터 유형별 컨설팅 지원

① 주민 주도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나눔터

- 운영진으로의 참여 의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체 경험, 공동체 의식, 실무 운영 능력 등에 있어 차이가 클 것으로 지적됨
- 컨설팅 지원 방향
 -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서부터 프로그램 기획, 나눔터 이용수칙 등 1년여 기간 동안 돌봄 공동체 사업의 방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지원

② 공공기관 및 복지관 운영 나눔터

- 공공시설 운영 나눔터의 경우, 지역 부모들의 공간으로의 기능할 가능성 모색
 - 현재 수놓음육아나눔터의 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시설 이용부모들이 잠시 기다리는 시간 동안 아이와 함께 머무는 대기실이나 휴게 공간처럼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나눔터 이용 수요를 파악하고, 활성화하는 노력 필요
- 복지관 운영 나눔터의 경우, 지역 중심적인 문화시설로의 기능성 모색
 - 농촌지역 등의 경우, 수놓음육아나눔터를 설치함으로써 육아나눔터를 넘어선 복합적인 시설로 거듭나고, 마을의 중심에 있는 사랑방 기능의 가능성이 확인됨
 - 이와 상반적으로 일부 도심지역의 복지관은 그 나름대로의 운영에 대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복지관 이용자들의 잠깐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거나 혹은 주중 육아 공간으로 머물고 있어서 공동체 돌봄의 취지와는 부합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컨설팅 지원 방향
 - 동일한 ‘수놓음육아나눔터’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주민자치 운영 나눔터와 운영 방식이 달라질 경우, 기관 운영 나눔터가 주민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눔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임. 이런 점에서 돌봄 공동체 사업의 목적과 프로그램 부합성에 맞게 나눔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필요

③ 사업방향에 대한 이해 혹은 운영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나눔터

- 수놓음육아나눔터가 조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점검이 필요함
- 최소한의 운영 점검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방향
 - 돌봄 공동체에 대한 이해 및 나눔터 이용자 및 운영위원회를 모집과 홍보, 프로그램 기획 등을 담당할 실질적인 운영 인력 확보에 대해 확인하고 컨설팅 지원 필요
 - 나눔터 이용이 부진하거나 운영 방향을 잘못 설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후 정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컨설팅 지원을 통해 활성화 모색 지원 필요

5) 수놓음육아나눔터 실무협의체 운영 지원

- 유형별 수놓음육아나눔터의 운영진(및 실무자)들이 돌봄 공동체 사업의 방향에 맞게 정보 공유의 장 및 발전 방안 모색이 가능하도록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 필요
- 운영 내용
 - 나눔터별 구체적 사업계획, 사전·사후 컨설팅, 담당자 교육 등 지원
 - 나눔터 운영 관리 관련 다양한 문제점에 따른 컨설팅 지원

① 나눔터별 구체적 사업계획, 사전·사후 컨설팅, 담당자 교육 등 지원

- 본 연구 결과, 일부 나눔터 실무자의 돌봄 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지적됨
- 주요내용
 - 실무자 대상 사업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이해, 사업 방향에 일치하는 상시프로그램 기획, 돌봄 공동체 구성을 위한 홍보방안 등 체계적 교육 및 다회기 컨설팅 지원
 - 나눔터 상시 프로그램 운영 시, 부모들만을 대상으로 한 취미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상품화된 프로그램 운영은 직접 돌봄 서비스로 돌봄 공동체 사업의 방향과는 충돌되므로 컨설팅 지원 필요
 - 나눔터 공간 조성 시, 부모들이 주민자치 방식으로 공간을 조성하기에는 건축 및 인테리어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어려움이 크므로, 공간 조성 시공에 대한 지원 필요

② 나눔터 운영 관리 관련 다양한 문제점에 따른 컨설팅 지원

- 본 연구 결과, 수놓음육아나눔터는 자원봉사자 관리, 주말 개방, 운영비 사용 제약, 나눔터 내 CCTV설치, 공간 시공 등 나눔터 운영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됨
- 나눔터 운영 관련 다양한 문제점에 따른 컨설팅 방향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됨

〈 표 5-6 〉 수놓음육아나눔터 운영 관련 다양한 문제점에 따른 지원 방향

구 분	문제점 및 지원방향
주말 나눔터 개방	• 본 연구 결과, 평일보다 주말 활동 공동체 수가 더 많았음 • 실무자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방식 또는 당직자가 토요일 근무를 하고 대체 휴무를 사용하는 방식 등 주말개방 방안에 대해 심각히 검토 필요
자원봉사자 관리	• 나눔터 자원봉사자 대상의 공간 관리 수칙에 대한 필수 교육 지원 필요 - (자원봉사자가 할 일) 나눔터 개폐, 첫 방문자 대상 간략한 나눔터 이용 수칙 안내, 조명/환기/냉난방 등 실내 환경 관리, 현재 나눔터 실무자 일부 지원하는 역할 - (자원봉사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 아이들이 가지고 논 장난감 정리, 공동체 팀의 활동 정리, 부모대신 아이 돌봐주기(부모가 잠깐 화장실 가는 정도의 대신 돌봄 등)
재료비 등 사용 제약	• 다회기 프로그램 운영 시, 참가자 대상의 간식비, 재료비 매회 사용 제약 필요 - 일례로, 매회 참가자 대상의 간식비, 재료비·제공은 직접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실무자 대상의 컨설팅 지원
나눔터 내 CCTV 설치	• CCTV를 설치함으로써 나눔터 상주 관리자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단,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있는 공간에 설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나눔터 기능 강화	• 나눔터 수탁 기관에서 상시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으로 돌봄 공동체 팀을 구성하도록 지원하거나 혹은 기존 팀에 새로운 구성원을 참여 시키는 등의 지원 방안 모색 가능

마. 제주형 사회적 돌봄 마을 공동체 조성

- 본 연구 결과, 공동체 팀 중에는 방학 중 초등 돌봄 혹은 하나의 돌봄 공동체로서의 돌봄 활동이 아니라 경계와 범위를 넘어선 마을 돌봄으로 마을에 있는 아이들, 장애인, 조손가정,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으로 확장되는 효과를 발휘함
- 주요 내용
 - 제주형 사회적 돌봄 마을 시범 사업 운영

1) 제주형 사회적 돌봄 마을 시범 사업 운영

- 목적 : 제주도가 자녀 중심의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사업의 확장 선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해체된 사회적 관계망의 회복과 육아문제를 넘어선 장애인 및 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주민자치 사회적 돌봄 마을 시범 사업 운영

○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노력

-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지역연계 공모사업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 마을 관련 부서의 마을 돌봄 공동체 사업으로 연계·확장하여 추진해 볼 수도 있을 것임

○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집행기준 등 검토 노력

- 본 연구 결과, 초등 돌봄 등 다양한 돌봄 요구가 있고 실행하고자 계획하는 부모들이 있지만, 돌봄 인력에 대한 보상체계,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관계, 주체적 참여에 의한 돌봄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집행기준 검토 필요

○ 시범사업을 통한 기대성과

- 지역 주민의 자발성과 적극성에 기대고 운영하는 마을 돌봄 공동체 회복으로 인해 아이들, 부모들, 장애인, 어르신 상관없이 지역 주민 누구나 교류하며 서로를 돌보고 나눌 수 있는 사회적 돌봄 마을 실현

○ 본 연구 결과, 제주형 사회적 돌봄 마을 공동체 추천 사례는 다음 표와 같음

〈 표 5-7 〉 제주형 사회적 돌봄 마을 공동체 추천 사례

구 분	특 징
사례 B (나눔터)	• 작은 단지규모라서 가능한 부분이기는 하나 아파트 단지 전체 주민이 나눔터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 갖추 • 대표의 공동체 가치 및 민주적 운영방식에 대한 신념이 뚜렷하며, 이를 실천하고 있음 • 지역주민들이 자주 만나고 교류하는 기회로서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강사는 주민으로 구성 • 여성들만이 아니라 남성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 상주관리자 없이도 운영되는 개방적, 자율적 시스템으로 나눔터가 운영됨
사례 A (나눔터)	• 적어도 나눔터 이용 아이들은 마을에서 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 마을 이모들, 오가며 들리는 마을 사랑방과 같은 나눔터 • 여성의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친화마을 요건으로 볼 수 있는, 거주, 여가, 경제의 3요소 중 경제까지 충족되고 있는 사례
사례 36 (공동체)	• 덕*리에 유일한 초등학교인 덕*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진과 겹치는 상황으로서 해당 팀의 돌봄활동이 아니라 이미 마을 중심의 아이들 돌봄을 하고 있음 • 사회적 돌봄 마을로서 물리적 조건이 우수함 • 도보권 내에 초등학교, 마을회관, 도서관이 있고 돌봄 활동이 초등학교 전학생 대상임
기타 (나눔터)	• 추가로 조*리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나눔터 D의 경우 장시간 농업노동으로 자녀돌봄이 어렵고 돌봄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모형으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 엿보임

참 고 문 헌

- 김윤정·문순영. 2009. “영유아 돌봄 유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보육정책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8(2), p.221-259.
- 김정희. 2000. “핵가족 어머니 육아와 품앗이공동육아”. *한국여성학*, 16(1), p.95-129.
- 손태주. 2016.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 및 운영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송다영. 2013.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생애주기별 복지와 돌봄 패러다임”. *페미니즘연구*, 13(1), p.93-129.
- 송다영. 2014. “돌봄의 사회화와 복지국가의 지연”. *한국여성학*, 30(4), p.119-152.
- 유해미·김문정. 2013. 「지역사회 공동육아 활성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육아정책연구소. “초저출산 시대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향후 과제(III):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의 쟁점과 과제”. 제3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자료 2018.7.18.
- 정성훈. 2014. “공동육아 협동조합과 사회적 돌봄”. *여/성이론*, (31), p.77-91.
- 조막래·김한별. 2015.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조한혜정·차성란. 2017. “제주도 육아 공동체와 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수놓음육아돌봄 사례 발표회 자료집. p.13-45.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여성가족연구원·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 차성란. 2010.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육아품앗이 사업 실천사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6), p.189-201.
- _____. 201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운영 전략”.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p.187-210.
- 여성신문. 여성=출산도구' 인식 바뀐다. 여성신문 2018.7.19.일자 보도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도·행정시-유관기관 워크숍”. 보건복지여성국 2018.1.30. 워크숍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제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 소책자 자료. 2018.6.
-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로 살펴보는 인구와 주거실태”. 호남지방통계청 2017.4.27.일자 보도자료.
- 통계청.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혼인·이혼통계”. 호남지방통계청 2017.4.25.일자 보도자료.
-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통계청 2017.6.21.일자 보도자료.

부 록

■ 면접 대상별 질문지

□ 면접 대상별 질문지

1. 돌봄 공동체 참여 대상자

○ 일반적 특징

- 지역, 연령 및 지원 사업 참여 시기 및 지속 여부, 자녀 연령 구성 등

○ 돌봄 공동체 사업의 참여 경험

- 팀 구성 경로(혹은 동기) 및 돌봄 활동 유형(일상 돌봄 및 일시 돌봄 등)
- 공동체 활동 관련 가치, 역할분담, 회의, 갈등요소, 지속참여 여부, 활동 공간 등
- (돌봄 공동체 참여 중단 팀의 경우) 지속 참여를 중단한 이유

○ 돌봄 공동체 사업의 참여 성과

- 공동체 활동에 따른 가족 경험 변화, 연속 참여에 따른 변화 등

○ 정책 요구

- 행정 및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한 요청 사항

2. 수놓음육아나눔터 운영진 및 공간 발굴 관련 대상자

가. 수놓음육아나눔터 수탁기관 담당자

○ 일반적 특징

- 연령, 담당기간, 공동체 관련 사업 경험 여부 등

○ 수놓음육아나눔터 운영 경험

- 부모운영위원회 운영 여부, 자원봉사 및 지원 인력 여부 등
- 나눔터 운영 시간 및 운영 현황, 상시 프로그램 여부 등

○ 수놓음육아나눔터 사업 성과

- 담당자의 자체 평가 및 개선 사항 등

○ 정책 요구

- 행정 및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한 요청 사항

나. 도서관, 복지관, 마을관계자 등 공간 발굴 관련자

- 제주도의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지 여부
- 공간 사용에 대한 요청 여부 및 수용 여부 등
- 만약 어렵다면 공간 발굴을 위해 어떻게 하면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지 등

3. 공동체 관련 활동가 및 전문가 등 대상자

- 일반적 특징
 - 연령, 공동체 관련 사업 참여 기간, 담당 업무 등

가. 돌봄 공동체 사업 컨설팅지원단 관계자

- 공동체사업 컨설팅단 운영 사례 및 운영에 대한 업무분장 등
- 컨설팅단 구성, 유형,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
- 컨설팅 경험을 통해 개선해야 할 사항 등

나. 돌봄 공동체 사업 활동가

-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 및 협동조합을 하게 된 배경
- 참여 부모들의 공동체 의식 정도, 정기적 프로그램 운영 및 갈등 해결방법 등
-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 및 횟수, 운영의 어려움 등
- 지속 가능한 공동체 활동을 위한 제언 등

다. 돌봄 공동체 관련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과의 업무 조직 관계
- 제주도 사업 단계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
- 공동체 사업에서 우수했던 사례와 우수사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 지속 가능한 공동체 사업을 위한 제언 등

연구보고서 2018-4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 방안

－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을 중심으로 －

발행일 2018년 9월 28일

발행인 원 회 룡·이 은 희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 064-710-4976, Fax. 064-742-4974

www.jffsc.kr

인쇄소 신우인쇄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은 가능하나 내용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발간등록번호 : 79-6500000-000454-01

제주지역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 방안

-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을 중심으로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Jeju Family Friendly Support Center

우)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경제통상진흥원 4층 www.jffsc.kr
T. 064-742-4971~3 F. 064-742-4974